

2018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일시

2018.11.29 (목) 13:30  
- 11.30 (금) 16:00

장소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

1부 Session 1	기조강연 Keynote Speech	문경수 Mun Gyong Su
		한홍구 Han Hong Koo
2부 Session 2	세계의 경계를 넘어 Beyond Boundaries of the World	연광석 Yeon Gwang Seok
		케네스 루오프 Kenneth Ruoff
3부 Session 3	세대의 경계를 넘어 Beyond Boudnaries of Generation	루이스 빈치게러 Louis Vinciguerra
		김주선 Kim Ju Sun
		김태현 Kim Tae Hyun
		서다솜 Suh Da Som
		유경남 Yoo Kyoung Nam

※ 토론자 | 이영진 김봉중 김정은 강소희 이정연 신용철 정호기



# 목차

## Contents

● 일정표 Time Table .....	5
● 개회사 Opening Address .....	7
● 축하 Speech of Congratulation	
- 시장 Mayor .....	8
- 시의장 The President of the city council .....	9
- 교육감 Superintendent of Education .....	10
● 세션1 기조강연 Session 1 Keynote Speech .....	11
- 문경수 Mun Gyong Su .....	13
이행기정의와 민주주의	
Transitional Justice and Democracy	
- 한홍구 Han Hong Koo .....	45
촛불로 비춘 1980년 오월 광주	
1980 May in Gwangju, Lit Up with Candlelight	
● 세션2 세계의 경계를 넘어 Session 2 Beyond Boundaries of the World .....	77
- 연광석 Yeon Gwang Seok .....	79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사상의 계보와 박현채의 민족주의론	
- 광주 5·18의 재역사화를 위한 사상자원을 찾아서	
The Genealogy of East-Asian Decolonialism and Park Hyun Chae's Theory of	
Nationalism - To Find Theoretical Resources for Rehistoricizing May 18	
• 이영진 Lee Yeong Jin (토론자 Debater) .....	119
- 케네스 루오프 Kenneth Ruoff .....	129
어떻게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How to Prevent Populism and Protect Liberal Democracy	
• 김봉중 Kim Bong Joong (토론자 Debater) .....	153
- 루이스 빈치게리 Louis Vinciguerra .....	157
정의와 인권 과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찰과 생각	
Observations and Thoughts About the Justice and Human Rights Quest	
and the Making of a Better World	
• 김정은 Kim Jeong Eun (토론자 Debater) .....	183

● 세션3 세대의 경계를 넘어 Session 2 Beyond Boundaries of Generation .....	187
- 김주선 Kim Ju Sun .....	189
임철우 『봄날』 다시 읽기 - 재현 형식을 중심으로 Re-reading Lim Chul Woo's Novel: 'Spring Days'	
- Focusing on The Form of Representation	
• 강소희 Kang So Hui (토론자 Debater) .....	255
- 김태현 Kim Tae Hyun .....	263
나의 광주 현대사(1989-2018) - 전대협·광주비엔날레·5·18기록관이 만들어 낸 세 가지 풍경 My Gwangju Modern History(1989-2018) - Three Landscapes Created by the Jeon Dae Hyup(The National Council of Student Representatives), Gwangju Biennale and 518Archives	
• 이정연 Lee Jeong Yeon (토론자 Debater) .....	291
- 서다솜 Suh Da Som 295	
민중미술, 실패로 정의할 수 없는 다중의 힘 Minjung Art : The Power of the Crowds that Go beyond its Failure	
• 신용철 Shin Yong Cheol (토론자 Debater) .....	321
- 유경남 Yoo Kyoung Nam .....	323
5·18 기억투쟁의 복원 연속과 분절 사이에서 Restoration Memory Struggle of May 18 - Between Continuation and Segmentation	
• 정호기 Jeong Ho Gi (토론자 Debater) .....	345

# 11/29 (목)

1부 사회자 | 박진우 (5·18기념재단) / 2부 사회자 | 정문영 (전남대학교)

개회식 Opening Ceremony		13:30~14:00 (30분)		
Session 1	기조강연 Keynote Speech	14:00~14:40 (40분)	<b>문경수</b> Mun Gyong Su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Ritsumeikan University (JPN)	이행기정의와 민주주의 Transitional Justice and Democracy
		14:40~15:20 (40분)	<b>한홍구</b> Han Hong Koo 성공회대학교 Sungkonghoe University	촛불로 비춘 1980년 오월 광주 1980 May in Gwangju, Lit Up with Candlelight
휴식시간 Break Time		15:20~15:40 (20분)		
Session 2	세계의 경계를 넘어 Beyond Boundaries of the World	15:40~16:20 (40분)	<b>연광석</b> Yeon Gwang Seok 대만 국립교통대학교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TWN)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사상의 계보와 박현채의 민족주의론 - 광주 5·18의 재역사화를 위한 사상자원을 찾아서 The Genealogy of East-Asian Decolonialism and Park Hyun-Chae's Theory of Nationalism - To Find Theoretical Resources for Rehistoricizing May 18
			토론자	<b>이영진</b> Lee Yeong Jin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16:20~17:00 (40분)	<b>케네스 루오프</b> Kenneth Ruoff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교 Portland State University (USA)	어떻게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How to Prevent Populism and Protect Liberal Democracy
			토론자	<b>김봉중</b> Kim Bong Joong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7:00~17:10 (10분)		
		17:10~17:50 (40분)	<b>루이스 빈치게러</b> Louis Vinciguerra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USA)	정의와 인권 과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찰과 생각 Observations and Thoughts About the Justice and Human Rights Quest and the Making of a Better World
			토론자	<b>김정은</b> Kim Jeong Eun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환영만찬 Welcome Dinner		18:00~19:30 (90분)		

# 11/30 (금)

## 3부 사회자 | 김형중 (조선대학교)

등록 Registration		10:00~10:30 (30분)	
Session 3-1	세대의 경계를 넘어 Beyond Boundaries of Generation	10:30~11:10 (40분)	<p><b>김주선</b> Kim Ju 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p> <p><b>임철우 『봄날』 다시 읽기 - 재현 형식을 중심으로</b> Re-reading Lim Chulwoo's Novel: 'Spring Days' - Focusing on The Form of Representation</p> <p><b>토론자</b> 강소희 Kang So Hui 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p>
		11:10~11:50 (40분)	<p><b>김태현</b> Kim Tae 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p> <p><b>나의 광주 현대사(1989-2018) - 전대협·광주비엔날레·5·18기록관이 만들어 낸 세 가지 풍경</b> My Gwangju Modern History(1989-2018) - Three Landscapes Created by the Jeon Dae Hyup (the National Council of Student Representatives), Gwangju Biennale, and 5-18Archives</p> <p><b>토론자</b> 이정연 Lee Jeong Yeon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p>
점심식사 Lunch		12:00~13:30 (90분)	
Session 3-2	세대의 경계를 넘어 Beyond Boundaries of Generation	13:30~14:10 (40분)	<p><b>서다솜</b> Suh Da Som 시각예술작가 Visual Artist</p> <p><b>민중미술, 실패로 정의할 수 없는 다중의 힘</b> Minjung Art : The Power of the Crowds that Go Beyond Its Failure</p> <p><b>토론자</b> 신용철 Shin Yong Cheol 부산민주공원 Busan Democracy Park</p>
		14:10~14:50 (40분)	<p><b>유경남</b> Yoo Kyoung Nam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Archives</p> <p><b>5·18 기억투쟁의 복원 - 연속과 분절 사이에서</b> Restoration Memory Struggle of May 18 - Between Continuation and Segmentation</p> <p><b>토론자</b> 정호기 Jeong Ho Gi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p>
		14:50~15:00 (10분)	휴식시간 Break Time
		15:00~16:00 (60분)	종합토론 Discussion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5·18기념재단이 마련한 국제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민주화의 횃불입니다. 또한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제 5·18은 광주를 뛰어넘어 세계 속의 5·18,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1994년 설립이후 5·18의 세계화와 전국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5·18기념계승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재단이 실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5·18진실규명과 5·18정신의 확산이 바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횃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세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은 새로운 시각에서의 국내·외적 평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5·18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 기획, 실천의 장을 마련하여 5월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일본에서 오신 문경수교수님, 대만에서 오신 연광석교수님, 미국에서 오신 케네스 루오프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발표자·토론자·사회자 선생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재단의 국제학술대회를 축하해주신 이용섭시장님, 김동찬시의회의장님, 장취국교육감님을 비롯한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 철 우

## 축 사

5·18민주화운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조강연과 이틀간의 세션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18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학술·교육·문화사업의 중심에는 5·18기념재단이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지난 24년간 5·18민주화운동의 전국적·세계적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오월정신을 확대시켜왔습니다.

따라서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그동안의 5·18 정신계승과 연구·기념사업 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5·18연구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5·18을 연구하는 해외 석학 및 국내의 선진 연구자들이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2019년, 2020년 기념학술대회까지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 2년 후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미래로, 세계로 더욱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2020년 5·18 40주년이 전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치러지는 민주주의축제와 기념대회, 평화인권의 한마당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주의 시대정신이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역사를 광주다움의 회복으로 이어가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일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시대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실현해 가겠습니다.

광주의 새 여정에 이번 학술대회가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에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 축 사

큰 보람과 새로운 희망 속에 한 해를 보내면서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란 주제로 “2018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50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5·18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뜻깊은 국제학술대회 준비에 애써 주신 5·18기념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월 광주의 최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초강연과 발표, 토론에 임해주신 해외석학 및 국내외 신진 연구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0년 5월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10일 동안 전개됐던 ‘5·18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시민항쟁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인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인권의 소중함과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다”며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1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5·18당시 군에 의해 이뤄진 인권 유린, 헬기 소총 사격과 암매장 의혹, 북한군 개입 의혹 등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는 구성은 의도적으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진영 논리와 지역·세대에 따라 진실이 흔들리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세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은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외 평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9.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 동 찬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입니다.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멀리 광주까지 오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과 기억으로 존재해 온 5·18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쩌면 국내보다 세계 속에서 오월의 진실을 먼저 인정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세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각에서의 평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광주를 넘어 모든 국민과 타국민도 공감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18은 광주에서 시작되었지만 광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5·18의 가치를 전국의 학생, 교원들과 공유하고자 5·18교육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나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되는 바를 참고하여 오월의 가치와 정신이 다가오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넘어 50주년, 100주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5·18교육을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위해 멀리 미국, 대만, 일본과 국내 곳곳에서 방문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월의 가치와 위상을 확장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광주에서 뜻깊은 기억을 간직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2018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 1부 기조강연

### Session 1 Keynote Speech

주 관 |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1부 기조강연  
Session 1 Keynote Speech

# 이행기정의와 민주주의 Transitional Justice and Democracy

문경수

Mun Gyong Su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Ritsumeikan University (JPN)





# ‘이행기정의’와 민주주의 - 탈분단 시대의 정의 · 민주주의

문 경 수

## 목차

- I 과거 청산과 정의의 개념
- II 한국 현대사 속의 정의의 공간
- III 공공적 토의 공간의 부활과 진상규명운동
- IV 탈분단시대의 정의

### I 과거 청산과 정의의 개념

민주화에는 과거의 발굴이 따르고, 과거의 조명·정립은 민주화를 촉진한다. ‘민주화의 제3의 물결’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이 개발도상국이나 공산권을 중심으로 잇달았던 1980년대 후반 이후 권위주의 통치나 무력충돌에 따른 인권침해나 잔학행위를 밝히고, 이를 해당사회의 화해나 민주주의 발전에 결부시키려는 아젠다가 세계 각지에서 추진되었다. ‘진실 화해’ ‘이행기정의’ 그리고 ‘과거사 청산’ 등 그 명칭이나 주제, 방법은 실로 다양하나, 2004년 유엔은 이러한 추세를 ‘이행 기정의(Transitional Justice)’로서 개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과거의 대규모 인권침해가 남긴 유산을 해결 하려는 사회의 시도에 관한 온갖 프로세스와 메커니즘’ The full range of processes and mechanisms associated with a society’s attempts to come to terms with a legacy of large-scale past abuses,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serve justice and achieve reconciliation. ( The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2004).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5·18광주 민주항쟁(이하 5·18, 혹은 5·18항쟁)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이미 1990년대 중반에는 5·18의 문제해결을 위한 5원칙이 당사자, 연구자, 시민활동가에 의해 점차 합의되어 정리되어 갔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5대 원칙을 이끌어낸 5·18 진상구명 운동은 민주화이후 제주도에서 공론장의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제주4·3의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세계적으로도 과거 청산의 선행규범으

로서 유엔의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행 기정의’의 실천은 ‘포스트 독재 형’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냉전 후의 공산권국가들,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변혁, ‘포스트 분쟁 형’의 구 소련·유고슬라비아, 르완다, 동티모르, 캄보디아의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2017년에 대만에서 제정된 ‘이행기정의촉진 조례’ 나 2018년에 제정된 ‘5·18민주화 운동 진상구명을 위한 특별법’ 등 현재도 여전히 각지에서 실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기정의’의 실천에 대해 해당사회의 민주화나 ‘정의’의 구현을 둘러싸고 당초 기대된 만큼의 성과를 거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남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된 ‘진실화해위원회’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과거의 인권침해는 따지지 않고 관계자 처벌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5·18의 5원칙에서는 아예 “화해”가 빠지고 책임자 처벌에 무게가 두어져 있다. 하지만 5·18의 경우도 그랬듯이 집단 학살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사법적으로 인정된 구체제의 지도자들도 입법이나 대통령의 특별조치로 면죄 될 경우도 많아 화해와 “정의”의 트레이드오프라는 딜레마(Dilemma)가 따르기 마련이다(Collins 2010).

체제이행이나 변혁이라 해도 새로 태어나는 체제가 구체제와 완전히 단절하는 사례는 오히려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수구세력이 큰 영향력을 유지한다. 수구세력에 대한 성급한 단죄는 쿠데타 등 격렬한 백러쉬(backlash)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화에 따르는 사회의 다원화는 다양한 이해나 가치관을 솟아나오게 하면서 ‘진실’이나 ‘정의’를 둘러싼 심한 경합이나 혼란을 빚어질 수도 있다. 과연 과거청산을 통해서 실현해야 할 ‘진실’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행기 정의’란 아젠다를 둘러싸고 원론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과거청산은 근대의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의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식민지잔재의 청산, 분단체제(국민국가)형성기의 저항과 국가폭력, 권위주의체제 하의 인권유린 등 여러 시대의 문제들이 민주화이후의 일거에 솟아나오고 다양한 입장과 가치관이 복잡하게 뒤얽히는 과정이 이어져 왔다. 물론 민주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탈(脫)식민지화나 탈(脫)권위주의화를 둘러싼 시각이나 가치관은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탈(脫)분단에 관해서는 아직도 날카로운 이념이나 가치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4·3은 그 극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군정 하의 1948년 4월3일에 일어난 무장 봉기를 놓고 이를 분단 반대를 들고



일어난 정의로운 “항쟁”으로 보는 견해와 공산주의자나 이에 동조한 일부도민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견해가 대치되고 ‘기억의 전쟁’이라고도 해야 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분단시대의 모순이 집약된 제주 4·3의 참다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탈분단 시대에 걸 맞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논리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행기정의’의 문제를 한국에서 과거 청산의 가장 성공한 사례로 뽑히는 5·18과 4·3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런 목적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과거청산을 둘러싼 이념적인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속의 정치(Deliberative politics) 혹은 토의 민주주의(discourse theory of democracy)로 일컬어지는 공공적 토의의 논리와 이를 ‘정의의 아이디어’로서 전개한 아말티야 센(Amartya Sen)의 어프로치에 의거하면서 종래의 이념대립을 넘는 과거 청산의 방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은 ‘이행기정의’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을 철저한 공공적 ‘속의’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는 토의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과거청산의 논리나 방법을 탐구하려고 하는 시론이라 하겠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논의로 대표되는 공공적 토의의 논리는 굳이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의 현실에서 출발하면서 공공의 사항을 놓고 자유롭고 열린 논의와 그러한 공적인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나 결정을 최상의 가치로 보는 입장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속의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는 논리=방법론으로서 알려지고, 원전 재가동 문제를 둘러싼 ‘신 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나, 외국영리병원의 개설 문제를 둘러싼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속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등 이미 그 실천사례들이 축적돼 가고 있다. 이들은 상당히 세련되고 정밀화된 방법론을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빚을 현안문제 해결의 방도로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속의 민주주의를 보다 넓게 해석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적인 매스 미디어의 존재를 전제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수준에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적 논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찾아내려는 실천이라 하겠다. 관건은 여러 입장이나 주장이 엇갈리는 사회문제에 있어서 “진리”나 “정의”는 아프리오리(apriori)의 체계나 논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공공적 “속의”를 통해서만 도출된다는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어떤 사회문제를 놓고 그 해결책이나 결론이 어느 만큼 옳은 것인지의 판단 기준을 그 해결책이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 높은 속의가 행해졌는가라는 점에서 구한다는

발상이다.

이 글에서 그러한 숙의·소통이 이루어질 결정적인 조건으로서 독립적 언론의 존재를 들고자한다. 4·3의 진상규명과정에서의 지방언론의 큰 역할을 했고 5·18에서는 해외 언론들이 국내 어용언론을 대신했다.

센Sen은 이러한 공공적 토의의 논리에 의거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정의’에의 어프로치를 제창하고 있다. 즉, 고려할 가치가 있는 이유나, 중요하다고 간주될 가치나 관심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을 전제로 유일하고 절대적인 결론(John Rawls 의 ‘완전한 정의’)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가능한 결론의 비교나 상대평가를 통해서 ‘어느 쪽이 보다 정의에 들어맞은 것인가’를, ‘쌍방향적’이며 철저한 ‘공공적 추론Reasoning’을 통해서 이끌어낼 것을 제창하고 있다.

또한 센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정의injustice’에 대한 사람들의 직관이나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 센은 무엇이 정의일지의 논의는 물론 사람들의 직관과 공공적 논의를 통한 불정의(비리)의 확정이라는 점에 착안한다. 이 ‘바로잡을 수 있는 불정의의 확정’이라는 아이디어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생각할 때 대단히 시사적이다. 광화문 앞의 공공 공간에서 촛불을 손에 결집한 1700만의 시민들, 그들의 뜻이나 주장은 실로 다양하고 공통의 ‘정의’나 ‘이념’을 갖고 결집한 것은 아니었다. 촛불혁명의 원동력이 된 것은 일상적이고 소박한 규범의식에 비춘 실로 다양한 ‘불정의’의 감각이었다. ‘이행기 정의’나 과거 청산이란, 결국, 과거 공권력·집단·개인이 저지른 과오를 확정해 이를 규명하는 것에 있으며, ‘불정의의 감각’이라고 하는 센의 아이디어는 ‘이행기정의’의 방법론으로서도 지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센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공평한 관찰자 IMPARTIAL SPECTT’라는 견해를 빌려서 ‘정의’나 ‘불정의’를 둘러싼 논의는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한다. ‘이행기정의’나 과거 청산을 둘러싼 논의는 해당지역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혹은 일부 전문연구자나 행정담당자에 의한 폐쇄적인 논의가 될 경우가 적지 않다. 정의를 둘러싼 공공적 토의는 타자의 시각을 중시하고 타자의 이해를 배려함으로써 편협함을 극복해서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센의 말을 빌리면, 정의의 ‘추론 reasoning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지를 고려하는 것을 단지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치우침이 없는 보편성을 달성하기 위한 이 과정은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 지역의 공동체 만에 통용되는 관점이나 논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A.Sen 2009)

이 글에서도 그러한 타자의 시선, 나아가서는 국가나 지역의 틀을 넘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4·3과 5·18의 과거 청산의 실천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II. 한국 현대사 속의 정의의 공간

공공적 속의로서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은 시민사회의 제도적, 사회적 기반의 성숙을 바탕으로 발전한다. 그러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공공권'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여러 지표는 80년대 후반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한국에서도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촛불혁명을 성사시킨 광화문 앞의 공공 공간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집합적 이성은 바로 그런 표현일 것이다. 한편에서 그러한 제도적 요건이 결여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높은 차원의 토의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례도 찾아낼 수 있다.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는 1871년 파리 코뮌, 러시아의 소비에트(1905, 1917년), 헝가리 평의회(1956년) 등 정치사회의 격변기에 지역이나 직장에서 발생한 자발적인 권력 조직을 “혁명으로부터 발생한 유일하고 새로운 통치 형태”로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 이는 평등한 개인의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통치, 즉 아렌트가 “공적 영역”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통치 형태 = 공적 영역은 한국 현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8.15 직후의 해방공간의 권력의 공백기에 한반도 각지에서 만들어진 인민위원회, 그리고 5.18 당시 광주도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공동체' (송환용 2018) 등이 바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민위원회는 “그 존재를 인민 자신의 조직화로의 총동 이외의 그 무엇에도 의거 하지 않는”(Arendt 1991) 자치적인 통치 조직이었다. 각지의 인민위원회의 영향력과 존속기간은 일제 강점기의 인구 이동, 근대화의 수준, 농민 운동과 노동운동의 경험, 서울과의 거리와 교통, 통신의 정비 정도, 군정 통치를 실시하는 전술 부대가 파견된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다양했다.

인민위원회가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전라남도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8·15직후 건준(건국준비위원회)지도자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는 ‘밑으로부터, 즉 마을 수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군 수준까지 달했다」(B.Cummings 1981). 탄광 지대였던 화순군처럼 광부들이 중심을 이룬 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주를 포함한 지방유력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 중에

는 ‘친일파’가 주도권을 잡은 건준지부도 있었으나, 인민위원회에의 개편 과정에서 좌우의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파는 이탈해 갔다. 진도, 해남, 완도, 강진과 같은 해안 변경지역에서는 미군의 도착도 늦었고 1946년 초까지 미군은 이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러나 군정통치가 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적대시해서 해체해 갔다. 10월10일, 여운형들이 선언했던 ‘조선인민공화국’이 미군정에 부인되면서, 중앙의 좌파세력은 여운형의 조선 인민당,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 등, 제각기 독자적인 조직 활동에 착수한다. 대부분 지방인민위원회도 46년 초까지에는 거의 소멸되고 정당 지부나 통일 전선 조직으로 개편되었으나 제주도 인민 위원회는 거의 유일하게 1년 이상에 걸쳐 유력한 “지방주권기관” (B.Cummings 1981)으로 존재했다.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치안유지를 위한 보안대를 시작으로 청년 단체, 농민 조합, 공장 관리 위원회와 소비자 조합에 이르기까지 섬의 온갖 단체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러한 관계망을 매개하는 소통을 맡은 것은 1945년 10월 1일에 창간된 “제주 신보” (창간 시 명칭은 “제주 민보”)였다. 제주 인민위원회는 한일 운동의 경력을 가진 좌파가 주도했지만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두면서 온건한 정책을 펴고 서울중앙이나 육지부의 좌파조직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독자성을 유지했다.

제주에는 척박한 토지와 빈곤으로 인해 신분의 상하가 생기기 어려웠고 일제 강점기에도 육지부와 같은 농촌 내부의 계층 분화는 보이지 않았다.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삼무의 섬’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긴밀한 공동체가 유지되어 왔고 섬 주민들은 공동체 내부에서는 서로 돕고 평화롭게 지내지만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수많은 민란과 반식민지 투쟁이 이 섬의 역사에 새겨져 왔다.

제주도 출신 작가 현기영은 이러한 도민의 기질을 “분리주의적 자치와 공동체 정신”이라 부르며 위정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농민의 자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논한 노자의 “소국과민(小国寡民)”의 이상을 거기에 보고 있다. 현기영은 그러한 자치와 저항의 전통을 “4·3사건”의 맥락에서도 읽어내고 있다. 즉 “3·1절 사건”으로 시작되는 군정 경찰 우익들의 가혹한 탄압이야말로 섬 공동체의 핏줄에 야어오던 저항의 기억을 되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4·3사건이라는 권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져온 너무나 큰 대가가 제주도민의 옛부터 전해져 온 기풍을 철저히 부수고 그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자세를 크게 바꾸었다. 4·3사건이라는 살육과 광기의 시대를 빠져나온 도민들은 “레드 콤플렉스”라고 불리는 심리적인 굴절의 빠져 부모가 죄도 없이 희생된 피

해자들도 그것이 토벌대에 의한 것인 경우 “폭도”의 가족으로서 그 자녀, 손자에 이르기까지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다. 연좌제가 음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반공 단체에 참여하거나 권력에 대해 과잉 충성을 표함으로써 “빨갱이 취급”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와 가족도 적지 않았다.

제주가 일종의 ‘사회적 가사상태’(정군식)극복하기까지는 1980년대의 민주화를 기다려야 되었다. ‘사회적 가사상태’는 제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 전쟁이후의 한국은 사회전체가 일종의 ‘가사상태’에 빠졌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중의 끔찍한 학살·테러는 지우기 어려운 트라우마(trauma)나 증오를 남북쌍방의 주민들 마음에 심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안전보장상의 언설이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가치의 상위에 두어지는 사회로 변했다. ‘반공’과 더불어 전쟁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 중의 하나로 바꾸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확고한 기둥으로서 자리 잡고 미국식 사고방식이 정치·사회·문화 여러 영역에 침투하게 되었다. 1960-70년대의 권위주의정권 시대에도 학생·재야·야당의 민주화 운동이 이어졌지만, 친미·반공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은 보기 어려웠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그러한 ‘가사상태’를 극복하고,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사상이나 사회운동의 일대전환기를 맞이했다. 두말 할 것 없이 그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5·18항쟁였다. 5·18항쟁은 민주·민중·민족·시민 등 다양한 키워드로 전개되는 80년대 이후의 사회 운동이나 문화·예술운동이 기점이 되었다. 그런 속에서도 이 글에서는 5월21일 계엄군 총퇴각으로부터 27일의 계엄군 침공까지 광주에서 이어진 자치공동체의 실천에 주목하고자 한다. 짧은 기간이나마 이 때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포위라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협조하고 제기된 과제를 민주적인 토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자치와 소통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도청 앞 광장은 ‘광주 시민의 공동체적인 토의와 집회의 상징적인 마당이 되었다’(“성지순례 안내자교육 자료집”). 그것은 해방 공간에서의 인민위원회의 재현이었으며 암울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구현해야 될 ‘정의’란 무엇인 지를 광범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안겨 주었다.

5·18에서의 “정의”의 실천은 유가족이나 구속자 가족, 부상자들의 끈질긴 진상 구명 운동, 전국의 대학가에 확산된 ‘5월 투쟁’으로 이어지고 ‘광주에 대한 기억 투쟁’이 되고, 전두환 정권반대 운동에 승화됨으로써 1987년6월 항쟁이 전개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안정철 2010)

### III 공공적 토의 공간의 부활과 진상규명운동

5월 투쟁은 제주의 젊은 세대에도 파급했다. 80년대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제주인들의 여러 모임에서 독서회와 4·3 추도회 등 4·3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운동이 비밀리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제주도 현지에서도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당극 등 제주의 고유한 전통의 재발견을 통한 제주도민의 주체 회복, 자율을 모색하는 문화 운동이 대두되어 강력한 탄압에도 그 명맥을 유지했다(문경수 2018).

6월 민주 항쟁 전후의 민주화의 기운은 4·3사건으로 입은 상처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던 제주도 사회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70~80년대 관광 개발에 따른 “외지인에 의한 토지 지배”와 “생활환경 파괴”는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제주에서 그러한 분노로 인한 첫 행동은 제주시 해안 지역 중심에 위치하는 탐동의 잠수(해녀)들이 해안 매립공사에 대한 항의 운동에서 비롯된다. 잠수들의 항의 행동에 학생과 재야 단체가 가세하자 해녀들의 이의 제기는 제주사회를 뒤흔드는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해녀들은 50일에 이르는 농성을 거쳐 매립 회사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주민의 이의 제기가 현실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실감은 그 후 다양한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감”과 “자신”은 제주도판 6월 민주 항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제주도 개발 특별법” 반대라는 전 도민적 주민 운동으로 이어졌다.

노태우 정권이 제기한 개발 특별법은 60년대 이후 제주도 개발 과정에서 도민들이 느껴왔던 소외감과 그로 인한 분노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어,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지식인들의 지면 토론 등 주민참여형의 활발한 논쟁과 더불어 데모, 농성 등의 반대 운동이 90년 중반부터 거의 1년 반 가까이 이어졌다.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의 자치에서 보였던 논의하는 민중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운동의 조직적 모체가 된 것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 반대 범 도민회”로 종교계와 언론계, 대학 교수, 야당 정치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지역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유년기에 4·3사건을 경험한 지역 사회의 인사들도 다수 참가했고 운동이 정점에 달했던 91년 11월에는 수천 명 규모의 집회와 데모가 연이어 개최됐다. 그야말로 제주도판 “6월 민주 항쟁”이었다. 중앙 정부, 육지 재벌 주도의 개발 논리에 대해 도민 주체, 환경 보호, 지역 산업 육성의 논리가 대치되었던 것이다.

법안 자체는 수정을 거듭한 끝에 91년 12월 여당 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채택되고 말았으나 지역 사회의 미래를 둘러싸고 쌓아 올린 활동과 논의는 제주도 주민

들이 4·3사건 이후의 ‘레드 콤플렉스’를 이겨내고 제주사회가 자치 공동체로서 되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와 동시에 4·3사건에 대한 논의를 금기 영역으로부터 꺼내어 4·3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도에서의 활동과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그동안 “제주 4·3연구소”(1989년) 설립, “제주 신문”이 “4·3 증언”을 제목으로 하는 기획연재 시작 등 학술, 문예, 언론, 사회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4·3운동이 시작되어 있었다. 이 시기 대두한 4·3운동의 기본 논조는 ‘항쟁’설로 부활한 공론 공간에 항쟁설이 4·3의 유력한 역사 해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5·10단독 선거 저지를 목적으로 단행됐던 4·3 무장 봉기를 정의로운 항쟁이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릴 만한 함의를 품었고 그 당시에는 아직 “항쟁”설을 담은 간행물은 “이적표현물”로 엄한 단속의 대상이었다.

4·3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심기도 아직 얼어붙은 채 남아 있었다. 탐동 매립 문제와 개발특별법 등에는 들고 일어섰던 제주 주민들도 4·3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4·3사건 진상 규명을 내세운 김대중 후보의 제주도에서의 득표율을 18.6%(전국적으로는 27.1%)에 끝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개발 특별법 문제로 크게 흔들렸던 90년대 초를 경계로 4·3운동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1992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4·3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4·3운동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셈이 되었다.

그리고 1988년 13대 총선에서 탄생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5공특의’ ‘광주특의’가 구성되고 시민사회 차원의 5·18항쟁의 진상구명, 보상, 학살 책임자 처벌, 12.12군사반란 집단 기소 등을 둘러싼 분위기가 비등되었다. 93년에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흐름에 박자가 가해지는 속에서 4·3을 둘러싼 시대적 분위기도 풀리기 시작했다. 3월에는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와 위령 사업이 시작되었다. 4·3특별위원회는 2년간의 조사를 거쳐 1만 1665명에 달하는 희생자 명부를 담은 “4·3피해조사 제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명부 안에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649명, 61세 이상 노인이 673명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희생자 중 9674명(약 83%)이 군경 등 토벌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는

11%에 그치며 “폭동에 의한 만행”을 강조해왔던 “반공 유족회” 등의 입장을 뒤집는 결과가 되었다. 그간 “제민 일보”에 지면을 옮겨 재개되었던 연재 기획 “4·3은 말한다”가 99년 8월까지 전 456회의 장기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렇듯 지방 의회, 언론, 시민 단체의 4·3운동이 고조되는 속에서 그 때까지만 해도 분열 개최되었던 위령 행사가 94년 4월에는 재야의 “운동권” 중심의 “4월 제공동준비 위원회”와 반공유족회로부터 명칭을 변경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에 의한 합동 위령제가 도의회의 중개에 의해 실현되었다. “공산 폭동”과 “항쟁”이라는 좌우 이념적인 해석은 일단 재쳐 놓고 무고한 희생이라는 시각, 수난과 화해라는 시각에 서는 것이 합동 위령제의 전제가 되었다.

김영삼 정권 하의 95년 12월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법률적으로 공식규정 되었다. 이 5·18특별법은 과거 청산의 전례로서 4·3특별법 제정을 지향한 제주도민의 운동에 큰 자극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출범은 4·3의 전국적 공론화의 큰 힘이 되었다. 1998년은 4·3사건 발발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했다, 4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서울에서는 “제주 4·3 제 5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 위원회”의 주최로 학술, 문예, 위령 등 다채로운 행사와 집회가 열렸다. 제주도에서는 “제 50주년 범도민 위령제”가 열려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진상 규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99년 3월에는 제주도에서 “제주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도민 연대”가 발족되어 제주도 관민이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공청회, 학술 심포지엄, 집회, 4·3 유적지 기행, 강연회, 마당극, 미술작품 전시,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청원 등 1999년의 제주도는 4·3특별법 제정 문제 일색이었다. 12월에는 4·3특별법안을 두고 여야 간의 조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안은 마침내 국회에서 의결되어 다음 해 1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그 후, 4·3특별법 규정에 따라 3년여에 걸쳐 4·3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진상 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2003년 10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증대한 인권유린을 인정한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이하 “보고서”)가 확정됐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해 희생자 유족과 도민에게 사죄하기에 이르렀다.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양조훈은 “보고서”가 “과거의 이념 중심



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시각으로 규명한 것이 특징”(양조훈)이라고 강조했다. 즉 “보고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지금이라면 누구든 승인할 수 있는 최저한의 가치 규범과, “제민 일보”의 연재를 통해 축적된 확실한 실증성을 근거 삼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4·3사건을 둘러싼 공공적 논의가 성립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 IV 탈분단시대의 정의

5·18항쟁은, 5·18특별법의 제정이후 전국적인 공공논의의 중대 이슈가 되면서 문제해결이 진전되고, 책임자처벌(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음모죄에 의한 형벌확정), 국가기념일로 제정, 새 묘역준공과 국립묘지로의 승격, 수차례에 걸친 보상법 개정, 유공자 예우(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등이 실현됐다. 이들 성과는 4·3 특별법 제정 이후의 제주4·3의 문제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되고 4·3도 희생자 신고와 추가 진상 조사, 4·3평화공원/자료관 조성, 제주국제 공항 활주로 부근 등 사건희생자 집단매장지에서의 유해 발굴, 4·3평화재단 설립, 국가 추념일 지정, 4·3 평화상 공로상 선정들이 추진되었다. 제주4·3 운동의 특징은 90년대의 지방언론이나 재야 연구 단체를 중심으로 한 끈질긴 청취·조사의 축적이 토대가 되어 특별법제정 이후의 진상구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진상 조사 보고서”가 확정된 점에 있다. 그러나 보상과 책임추구와 처벌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보상이 개정특별법의 주요과제로서 논의되고 있지만, 책임추구나 처벌에 대해서는 ‘화해’라는 원칙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전혀 시도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4·3의 무장 봉기를 주도한 항쟁 지도부는 희생자로서의 인정·명예회복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4·3특별법제정 직후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星友회 등 우익단체들이 일으킨 헌법소송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소송 자체는 각하했으나 미군정에 맞서 무장봉기를 주도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나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들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 비추어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헌재 2001.9.27. 2000 헌마 238 등 [판례집]13-2,383[각하] ). 이 헌법재판소 견해에 따라서 4·3사건 진상 조사나 희생자 인정 심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무총리 밑에 설치된 4·3위원회(제주4·3사건진상구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도 남로당의 ‘핵심간부’나 무장대의 ‘수괴급’에 대해서는 희생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자료 조사 등을 통해서 남로당이나 무장 봉기 세력의 핵심 지도자로서 밝혀진 인사들을 희생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왔

다.

다른 한편 학살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군인 및 경찰도 해방 전후의 혼란스러운 이데올로기 대립 과정으로 발생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2006년)고 판단했고 4·3위원회도 이를 따르고 있다.

4·3의 무장 봉기는 굳이 분단 저지 통일을 내걸면서도 미군정의 비호 아래서 부활한 식민지권력에 대한 반항으로 비롯되고, 육지부에서 투입된 경찰이나 우익에 반발하고 있었던 도민들의 대다수도 당초는 그런 거사에 공감하고 있었다. 즉, 무장 봉기의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 식민지배가 낳은 경찰이나 우익이 제주도 사회에 가한 폭력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이전의 권위주의 반공체제 하에서는 경찰·군·우익으로 구성된 토벌대들만이 희생자나 반공 유공자로서 대우 받고, 항쟁 지도부는커녕 압도적 다수의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공산 폭도’로 몰려 연좌제에 의해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명예를 훼손당했다.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구명과 명예회복이 진전되지만 명예회복의 대상이 된 것은 ” 빨갱이”의 낙인을 찍혀서 희생된 압도적 다수의 무고한 도민들 (소의 ‘양민’) 이었고 항쟁 지도부는 제주4·3위원회가 정한 희생자 인정 기준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화해’란 군·경찰토벌대와 ‘양민’과의 그것이며, 4·3의 문제해결은 분단 체제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3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의 공공적 논의도 냉전적인 코드나 가치관의 입각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범위를 결코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공공적 논의에 근거하는 ‘정의’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행기정의’의 논리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과거청산이나 ‘이행기 정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명예회복, 유공자 시상, 기념사업 등은 그 시대의 국가적 담론·이데올로기의 정당화나 보강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5.18당시 도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권력의 ‘불정의’에 항거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발휘한 자치나 소통의 힘은 어떠한 국가 이데올로기에도 회수되지 않는 ‘정의’를 구현하고 있을 것이다. 5.18 운동이 남북화해 시대에 걸 맞는 과거청산의 시범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 <참고문헌>

- 박찬식(2008) “4.3과 제주역사” 각
- 송한용(2018) ‘5.18 민주항쟁의 전개와 명예회복과정’ “제주4.3 진실과 정의; 제주4.3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제주4·3사건진상구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2013)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도서출판 선인
- 안정철(2010) ‘5.18 관주민주화 운동과 한국의 민주화’  
“한국의과거사 청산과 민주화”인그루출판
- 양조훈(2003)‘韓国における<歴史の和解>(한국에서의 <역사화해>) : 『濟州島四・三事件真相調査報告書』と盧武鉉政權’ 『世界』岩波書店
-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편 (1999)  
“제주4.3연구”역사비평사
- 정근식(2010)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 또는 복합적 과거청산’  
“한국의과거사 청산과 민주화”인그루출판
- 현기영 (2000) ‘4·3의 탐구로부터 재발견한 몇 가지 논점’(강연 기록)
- 문경수 (2018) ”濟州島四・三事件” 岩波現代文庫
- Arendt. Hannah(1991) On Revolution . Lotte Koeler
- Cumings, Bruce(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llins. Cath (2010) Post Transitional Justice  
The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 The United Nations(2004) The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 Conflict Societies,

# ‘Transitional Justice’ and Democracy

## – Justice and Democracy in the Era of the Post–Divided System

Mun Gyong Su

### Contents

- I The concept of past liquidation and justice
- II Space of justice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 III Resurrection of public discussion space and truth–clarification
- IV Justice in the era of the post–divided system

#### I. The concept of past liquidation and justice

The democratization is followed by the excavation of the past, and the clarific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past promotes democratization.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whe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was conducted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mmunist countries, the agenda has been promoted from all over the world to identify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cruelty as a result of authoritarian rule or armed conflict, and to reconcile them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reconciliation of the society in question. There are different name, subject, and method to express the trend such as ‘truth and reconciliation’, ‘transitional justice’, and ‘liquidation of past history’. In 2004, the United Nations outlined this trend as ‘Transitional Justice’, and defined it as follows:

“The full range of processes and mechanisms associated with a society’s attempts to come to terms with a legacy of large–scale past abuses,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serve justice and achieve reconciliation.” (The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 Conflict Societies, 2004).

In Korea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izing the 5.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hereinafter 5.18 or 5.18 Uprising) begun in 1980s, the five principles for problem solving were grad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researchers, and civil activists in the middle of 1990s. The 5.18

truth-seeking movement, which led to the five principles of truth-clarification, responsible punishment, honor recovery, compensation, and commemorative business, greatly influenced the discussion of Jeju 4.3, which began to become an issue of the public sphere in Jeju Island after democratization. It can be said tha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discussion of the United Nations as a precedent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The practice of 'Transitional Justice' is promoted in various cases including Latin American countries, post-Cold War communist countr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apartheid system in South Africa as 'post-dictatorship' area, and former Yugoslavia, Rwanda, East Timor, and Cambodia as 'post conflict' area. And it is also still practiced in various places today like 'Promotion Ordinance for the Transitional Justice' established in Taiwan in 2017 and the 'Special Act for the Truth Clarifica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stablished in 2018.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examples of the achievement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societ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justice' in the practice of the 'transitional justice' as much as expecte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scheme, which has been promoted in many areas including South Africa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punish human rights in the past. In the above-mentioned five principles of 5.18, the "reconciliation" is absent from and the punishment of the responsible person is emphasized. However, as was the case in 5.18, many of the leaders who have been judiciously admitted to criminal cases such as genocide are often excused from legislation or special measures by the President, there follows the dilemma, a trade-off between reconciliation and justice, (Collins 2010).

Even if the system is transitional or transformed, it is rather rare that the new system is totally disconnected from the old system, and in most cases, the influence of the conservative force is strong in each field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 hasty condemnation of the conservative force may result in a violent backlash such as a coup. In addition, the diversification

of society in accordance with democratization may lead to intense competition or confusion surrounding 'truth' or 'justice', spurring various interests and values. Surrounding the agenda, 'transitional justice', fundamental problems are raised such as what is the 'truth' and what is the 'justice' which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e past liquidation.

Moreover, in the case of Korea, the liquidation of the past dates back to the issue of revival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modern times, and the problems of various eras such as the settlement of the colonial remnants, the resistance, national violence, and human rights abuses under authoritarian regime during the formation of the divided system (nation-state) have emerged after democratization and been complicated by various positions and values. Of course, in the process of deepening democratization, the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viewpoints and values surrounding the de-colonization and de-authoritarianization, but the conflicts still persist with sharp ideals and values regarding the post-division. Jeju 4·3 is an extreme example of the case.

On the armed uprising occurred on April 3, 1948 under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there are different views such as a just "uprising" against the division, and a "riot" caused by the communists and some of the residents that came along. The situation as 'war of memory' continues to be. In order to solve the real problems of Jeju 4.3, which is a contradiction of the divisional era, the logic of 'justice' and democracy should be devised for the post-division era.

Based on the critical consciousness, this essay examines the issue of 'transitional justice' by focusing on the cases of 5.18 and 4.3, which are selected as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of the past liquidation in Korea. In relation to such a purpose, the ideological value judgments surrounding the past liquidation shall be postponed, and based on the deliberative politics or the discourse theory of democracy called public discussion, and the approach of Amartya Sen who developed that as 'the idea of justice', we seek to find a way of past liquidation beyond the traditional ideological confrontation. In short, the essay is a trial to explore the logic and method

of past liquidation by applying methodology of discussion theory that considers thorough public 'deliberation' as the core of democracy in 'transitional justice'

The logic of the public discussion represented by Jurgen Habermas's argument is that, starting from the realities of everyday life, free and open discussions on public matters and the conclusions and decisions derived from such public discussions as the best value.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entry way. In today 's Korean society, it is known as the logic-methodology which is the basis of the policy decis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 and the cases include 'Shingori 5 and 6 Disclosure Committee' surrounding the problem of reactiv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e 'Nokji international hospital deliberative investigation committee' surrounding the opening of international profit hospital. Based on highly sophisticated and refined methodologies, they are achieving notable achievements as a way of solving pending problems containing social conflicts.

This essay is practice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public debate centered on the parties at different areas/levels of society, assuming the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existence of mass media and freedom of the press. The point is that "truth" and "justice" are derived not from the system or logic of apriori but from the public "deliberation" based on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the idea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correctness of a solution or a conclusion about a certain social problem is sought from the point of view of how high skepticism has been done to draw the solution or conclusion

In this article, we interpret deliberative democracy more broadly, as the practice to seek a way of problem solving through public discussion held various fields/levels centering around the related parties on the premise of freedom of speech and independent media . The point is that "truth" and "justice" are derived not from the system or logic of apriori, but from the public "deliberation" based on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the idea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correctness of a solution or a conclusion about a certain social problem is sought from the point of view of how high

deliberation has been done to draw the solution or conclusion. This article says the independent media as a crucial condition for such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The local media played a big part in the process of the truth clarification of 4.3, and overseas media replaced the domestic media of 5.18

local media played a big part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truth of 4.3, and in the year 5.18 overseas media replaced the domestic media.

Sen advocates an approach to more realistic 'justice' based on the logic of this public discussion. That is, rather than pursuing a unique and absolute conclusion (John Rawls's 'integral justice'), assuming that there is a variety of values or interests that are considered worthy of consideration or worth considering, he proposed to draw 'which is more justice' through 'interactive' and thorough 'Public Reasoning'.

What is noteworthy in Sen's discussion is that he is paying attention to people's intuition and behavior about 'injustice' in daily life. Sen pays attention to the discussion of what is justice,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the injustice of people through intuition and public discussion. The idea of 'the determination of the injustice that can be rectified' is very suggestive when considering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Korea. In the public space in front of Gwanghwamun, the 17 million citizens who gathered with candles in their hands, they showed a variety of intentions and claims, and did not bring any common 'justice' or 'ideology'. The driving force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was the sense of various 'injustice' that was reflected in the ordinary and simple norm consciousness. 'Transitional justice' or past liquidation is, in the end, to identify and confirm the mistakes committed by past powers, groups, and individuals, and Sen's idea, 'Sense of injustice' shows a great deal of implication as methodology of 'transitional justice'

Sen, on the other hand, suggests discussion of 'justice' or 'injustice' should be open-minded by borrowing the view of Adam Smith's 'impartial spectator'. . Discussions about 'transitional justice' or past liquidation are often closed discussions by the parties or stakeholders in the region, or by



some professional researchers or administrators. Public discussion surrounding justice can maintain fairness by overcoming narrowness by giving importance to the other's view and understanding the other's interests. According to Sen, 'reasoning' of justice not only permits but also requires consideration of how far away people see, as well as those who are nearby. This process to attain universality without bias is open and not limited to the view or logic that is common to the local community. '(A.Sen 2009)

This article tries to deal with the practice of past liquidation of 4.3 and 5.18 from such a viewpoint of the other, and from a universal point of view beyond the framework of the state or region.

## **II. Space of justice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The space in which 'justice' is realized as a public deliberation evolves based on the maturity of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basis of civil society. Several indicators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public power' as a field of such public opinion have been laid down in Korea, which has experience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ince the late 1980s. The collective reasoning of the citizens expressed in the public space in front of Gwanghwamun that made the candlelight revolution is such an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even when such institutional requirements are lacking, there is a case where high-level discussion democracy is realiz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Hannah Arendt refers to the voluntary organization of power in the region and at work in the political upheaval of the political societies, such as the Paris Commune in 1871, the Soviet of Russia (1905, 1917), and the Hungarian Council (1956), as 'the only and new form of government emerging from the revolution', which means free speech of equal individuals and the space called Arendt's 'public domain'. The form of government or public domain that occurred in such a transitional situation can also be found in Korean modern history. They include the People's Committee, which was built in various plac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void of

power of liberation space right after 8.15 Liberation and the plaza in front of Gwangju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t 5.18, 'complete community' (Song Hwan-yong, 2018), centered on and the plaza in front of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in 5.18,

The People's Committee was an autonomous governing body that "does not rely on anything other than the urge to organize its people" (Arendt 1991). The influences and duration of the People's Committees of the various regions were different by the population movemen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level of modernization, the experiences of the peasant movement and the labor movement, the distance and traffic from Seoul, the degree of maintenance of communication, and time and size when tactical units were dispatched.

I think it was Jeollanam-do that the people's committee showed the most typical appearance, where an election was held to elect the leader of the Founding Committee right after the 8.15 Liberation. The election started 'from below, starting at the village level and finally reaching Gun level' (B.Cummings 1981). There were some places centering around miners like Hwasun-Gun, coal mine area, but most of them were mainly local people including landowners. Among them, there was a Founding Committee where the 'pro-Japanese group' seized the initiative, but the right wing disappear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People's Committee.

In coastal areas such as Jindo, Haenam, Wando and Gangjin, US troops arrived late and by early 1946, US troops could not reach the People's Committee of the area. However, as the military government came to orbit,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smissed the People's Committee as hostile. On October 10, as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lared by Yeo Un-hyeong was denied by the US military, the left-wing forces in the center set up their own independent organizational activities, including the Yeo Un-hyeong's Korean People's Party and Park Hun-young's Korean Communist Party. Most of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s were almost extinguished by the beginning of 1946 and reorganized into a party branch or a unified front organization, but the Jeju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was almost the only one that existed for over a year as a powerful "local authority" (B.Cummings 1981).

The Peoples 'Committees of Jeju Island have established relationships with all kinds of groups of islands, from security guards for policing to youth groups, farmers' associations, factory management committees and consumer associations. It was the "Jeju Shinbo" ( "Jeju Minbo" at first) launched on October 1, 1945 to engage in communication through such networks. The Jeju People's Committee led by the left wing having experience of anti-Japanese movement, led a moderate policy with roots in traditional local communities and maintained its identity while maintaining a distance from the left-wing organizations of Seoul and the Land.

Jeju had difficulty in getting up and down of status due to poor land and poverty.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re was no hierarchical division of the inside of the rural area like the land area. A close community has been maintained as it is known as the 'island of Sammu, without a beggar, a thief and a gate'. The islanders are helping each other and staying peaceful in the community, but desperately resisting the outside oppressive politics, which has been carved into the history of the island.

Hyun Ki-young, a writer from Jeju Island, call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as "separatist autonomy and community spirit," and sees the ideals of the "small in population and territory" of Lao-tzu who discussed the confidence of the peasant's autonomous ability, eliminating the interference of the magistrate. Hyun Ki-young also reads such traditions of autonomy and resistance in the context of "4·3 Event". That is, the severe repression of the right-wing police officers, beginning with the "3.1 Incident", revived the memory of the resistance that had come to the island's bloodline.

However, the huge price brought by the objection to the power of the 4.3 incident has thoroughly destroyed the old-fashioned spirit of Jeju citizens and greatly changed their attitude toward politics and society. The people who have escaped the age of slaughter and madness called the 4·3 event had psychological refraction called "Red Complex". If victims whose parents

were slaughtered by the punitive forces without any guilt,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had to be treated like criminals as a family of "rioters". There were quite a few victims and families who were trying to escape from the treatment of "reds" by participating in anti-communist organizations or showing excessive loyalty to the power while influenced by the implicative system called Yeonjwaje.

Jeju had to wait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1980s until it overcame a kind of 'social suspended animation' (Jeong Gun-shik). The 'social suspended animation' was the most extreme in Jeju, but Korea after the Korean War can be said to have fallen into a kind of 'social suspended animation'. The terrible genocide and terror during the Korean War put trauma and hatred that were difficult to erase in the minds of both Koreas. After the Korean War, Korea became a society in which the 'security threat of communism' was placed on top of all social values, includ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long with the anti-communism, the war has transformed Korea into one of the most pro-American countries in the world. The ROK-US alliance has become a solid pillar of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and the American way of thinking has permeated into many areas of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In the era of authoritarian regime in the 1960s and 1970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students, field protesters and opposition parties continued, but social movements beyond the framework of pro-Americanism and anti-communism were hard to see.

In the 1980s, Korean society overcame such a "suspended animation" and faced a turning point in ideas and social movements that aimed at social transformation. Needless to say, the start was the 5.18 Uprising. The 5.18 Uprising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social movements and cultural and artistic movements since the 1980s with various key words such as democracy, people, nation, and citizen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practice of the self-governing community that took place from the total withdrawal of the martial law forces on May 21 to the invasion of the martial law forces on the 27th. Even for a short period of time, Gwangju citizens showed the beauty of self-government and

communication, which, in the extreme situation of martial law siege, considers each other and cooperates with each other and resolves the challenges posed by democratic discussions. The plaza in fron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was 'a symbolic place for community discussion and assembly of Gwangju citizens'. ("Pilgrimage Guidebook") It was a reappearance of the people's committee in the liberation space, and it gave the young generation of Korea what "justice" should be embodied in the reality of a dark society.

The practice of "justice" in 5.18 led to the perseverance of the survivors of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the arrested, and the wounded, the 'May struggle' spreading to universities across the nation, the memory struggle for Gwangju, and anti-Jeon Duhwan government movement became a catalyst for the uprising in June 1987'(Ahn Jeong-chul 2010).

### **III Resurrection of public discussion space and truth clarification**

May struggle spread to the younger generation of Jeju. In the 80s, Jeju people residing in Seoul started various movements secretly,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4.3 movement, such as reading meetings and 4.3 memorial service. Furthermore, in Jeju Island, through the rediscovery of the unique traditions of Jeju such as Madang play, the culture movements to restore the subjectivity and autonomy of Jeju people emerged centering around the youth, and has maintained its position in the face of strong oppression (Mun Gyeong-soo 2018).

Democratization before and after the democratic uprising in June began to affect the Jeju community which had been silent about the injuries suffered by the 4.3 incident. Especially, "Land domination by outsiders" and "destruction of living environment"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 the 70s and 80s led to anger of residents. The first act of such anger in Jeju comes from the protest movement against the coastal reclamation project by the female divers (called Haenyeo) residing in Topdong located in the center of Jeju city coastal area. When the students and the field group join the protest action, the appeal of the female divers will develop

into the problem of shaking the Jeju society. The female divers were able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landfill company after their 50-day sit-down strike. Since then, the realization that residents' objection can move reality has become the basis of various movements. And these "realization" and "confidence" have led to the whole-resident movement that is opposed to the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Jeju" which can be called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of Jeju.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under Roh Tae-woo regime has ignited the feeling of alienation and anger Jeju people had fel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Jeju since the 1960s. The active debate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including the public hearings, written discussions among intellectuals, and the protest movement such as sit-down strike and demonstration lasted nearly a year and a half since the mid-1990s. There was a people's debate shown in the autonomy of the People's Committee just after the Liberation. "The Resident Committee against the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Jeju" became the organizational matrix of the movement by the name of the local representatives of all levels including religious world, journalism, university professors, opposition politicians, students, etc. There were a lot of people from the community who experienced the 4.3 incident in childhood. In November 1991 when the movement peaked, thousands of demonstrations and rallies were held in succession. It was a "June democratic uprising" of Jeju. The logic of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and big developer called Chaebol was confronted with the logic of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local industry fostering.

After a few revisions, the bill was adopted and snatched b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in December 1991. However, the activities and discussions built for the future of the community had Jeju people overcome the 'Red Complex' since 4.3 incident and revive as a self-governing community. At the same time, the debate on the 4.3 is taken out of the taboo area, and the activities and discussions on the Jeju Island for problem-solving of the 4.3 incident are beginning to take off.

In the meantime, the 4.3 movement had been exercised in diverse fields such as academic, literary, media, and social movements. "Jeju 4.3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89 and "Jeju Newspaper" started a series of publications titled "Testimony on 4.3 incident". The basic tone of the 4.3 movement that emerged that time was to interpret 4.3 incident as 'uprising' in the resurrected public space in interpretation of history. However, the claim to the just uprising for the 4.3 incident, which was armed insurrectio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to stop the 5.10 solo election, had the implication to shake the legitimacy of the state of Korea, and at that time, the publication containing any '4.3. uprising' theory was the object of severe crackdown as "anti-government materials"

The feelings of Jeju residents around 4.3 was still frozen. The residents who protested against the land reclamation and the special act on development, were also hesitant to face the 4.3 incident. In the 1987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Kim Dae-jung's percentage of votes was only 18.6 % (27.1% nationwide) in Jeju even if he made a commitment to seek the truth of the 4.3 incident.

However, the 4.3 movements entered a new phase from the early 90s, when Jeju was shaken by the problem of the special act on development. At the end of 1992, presidential candidate, Kim Dae-jung's commitment to enact the special act on 4. 3 came to the concrete goal of the 4·3 movement.

In addition, the '5th Republic Investigation Committee' and 'Gwangju Special Committee' were formed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ed at the 13th general election in 1988, and atmosphere surrounding the 5.18 uprising was boiling at the level of civil society, claiming compensation, punishment of the massacres, and the 12.12 military rebel group indictment. In 1993, with Kim Young-sam and his Munmin government, the atmosphere surrounding the 4.3 began to dissolve in the middle of the project of building history right. In March of the year, the 4.3 Special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Jeju Provincial Council, and the investigation and memorial business began. After the two-year investigation, the Special

Committee released 'the 1st report of the 4.3 damage investigation,' which included a list of 11,665 victims. The list included 649 children under 10 years old and 673 elderly people over 61 years old. In addition, 9674 (about 83%) of the victims were victimized by the punitive force called Toboldae including the military police, and the victims by the armed forces were just 11%, which reversed the position of "association for the anti-communist bereaved families" having emphasized "atrocities by a riot". The daily newspaper, "Jemin Ilbo" made 456 long-term serials in its serialized project "4.3 Says," until August 1999.

In April 1994, the joint memorial ceremony was held by the "April memorial prep committee" centering around field activists and the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4.3 Victims" whose name was changed from the association for the anti-communist bereaved families by mediation of the council. The premise of the joint memorial ceremony was to have a view of innocent sacrifice, and suffering and reconciliation, aside from the ideological interpretation of "communist riot" or "uprising".

Under the Kim Young-sam regime,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1995, and 5.18 was officially prescribed as a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special act on 5.18 was a great stimulus to Jeju citizens' movement which aimed at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4.3 as a precedent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In addition, the inauguration of the Kim Dae-jung regime in 1998 became a major force in the nationwide public debate of 4.3. 1998 was the year whe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4.3. A commemorative ceremony was held in Jeju starting in April, and in Seoul, and various events such as academic, literature, and memorial ceremonies, and rallies were held hosted by "National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of Jeju 4.3". The "50th Anniversary of memorial ceremony" was held in Jeju,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articipated in and made a resolution to clarify the truth. In March 1999, the "Islanders' solidarity for the truth clarification of Jeju 4.3 and honor-restoration" was launched in Jeju Island, and started activities for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The 1999 Jeju Island was covered with the



issue of the Special Act on 4. 3, including public hearings, academic symposiums, rallies, trips to 4.3 historical sites, lectures, parades, art exhibitions, and peti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In December, the special legislation on 4.3 was made in full swing, and the bill was finally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the "Special Act on Jeju 4.3 and Honor–Restoration of the Victims" was promulgated.

After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4.3, the intensive investigation into 4.3 incident was conducted over three years, and in October 2003, the "Jeju 4.3 Investigation Report "(hereinafter "Report") recognized serious human–rights abuses by national authority. Based on the Report, President Roh Moo–hyun visited Jeju to apologize to the victims' families and residents.

Yang Jo–hoon who led the investigation and the "Report" emphasized that "“Report" is characterized by a human rights–centered view that deviates from the ideological center of the past." That is, the "Report" is the foundation of the public debate surrounding 4.3, by presenting the minimum value norm that can be approved by any person now, such as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nd the fact that no one can deny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 accumulated through the series of daily newspaper, "Jemin Ilbo“.

#### **IV Justice in the era of the post–divided system**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5.18, the 5.18 became a nationwide issue, which progressed the settlement and achieved the punishment for the responsible person (punishment confirmed on the guilty of conspiracy for treason by Jeon Doo–hwan and Roh Tae–woo), establishment as a national anniversary, building a new cemetery and promotion to the National Cemetery, several revisions of the Compensation Law, support of the men of merit (Act on the men of democratic merit of Gwangju), and the Gwangju Democratic Human Rights Peace Project. These achievements was to be a compass for the problem solving of Jeju 4.3

after the special Act on 4.3 was established, And then followed the report of 4.3 victims and further truth investigation, 4.3 peace park/museum construction, finding the remains of victims in the burial grounds near the runway of Jeju International Airpor, the establishment of the 4.3 Peace Foundation, the designation of the National Day, and the selection of the 4.3 Peace Prize Award.

The characteristic of the Jeju 4.3 movement is the accumulation of persevering listening and research centered on local media and field research organizations in the 1990s. As a result,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the truth-finding is intensified, and the "Report" was approved by the state. However, most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and punishment are not yet realized. Although the compens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oon Jae-in regime is being discussed as a major task of the revised special act, the principle of 'reconciliation' has not been attempted at all in pursuit of responsibility or punishment.

In addition, the leadership who led the armed uprising of 4.3 is not realized as victims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lawsuit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suits filed by the right-wing groups such as Seongwoohoi consisted of retired generals right after the enactment of Special Act on 4.3, and expressed the opinion that 'commander-in-chief and middle executive', or 'Jejudo Nam Ro Party's core executive' who led the armed uprising against the US military government can not be regarded as 'victims' in the light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Constitutional Court, September 27, 2000, Hunma 238 [Law Reports]13-2,383[Dismissed] ).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4.3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as the body performing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of 4.3 case and the victim recognition examination, 'We have taken measures not to recognize those identified as 'key leaders' of the Nam Ro Party and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through data surveys, while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judgement.

On the other hand, the lawmaker said that the soldiers and the police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victims of the confused ideological confrontation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2006), and 4.3 Committee also follows that.

The armed uprising of 4.3 was caused by the rebellion against the resurgence of the colonial power under the rule of the US military, while the unification of the division was being banned, and the majority of the residents who had been opposed to the police or the right wing that was introduced from the land area, In other words, the direct cause of the armed uprising is the police or right wing created by the domination of the Japanese colony, resulting from violence to the Jeju society. However, under pre-democratic authoritarian anti-communism system, only the punitive forces composed of the police, army, and right wing are treated as victims or men of merits, and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innocent residents were pushed as "communist insurgents", and was defeated in honor until the next generation by the implicative system.

With the special act enacted,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truth clarification was advanced, but it was related to the overwhelming number of innocent people (so-called "Yangmin") who were victimized by the stigmatization of the "Reds", that is the leadership was excluded from the criteria for victim recognition by the committee. In the end, 'reconciliation' is between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and 'Yangmin', which implies that the problem-solving of 4.3 does not get out of the frame of the division system. The public debate at the government level, such as the 4.3 Commission, was not beyond the scope of national ideology based on the code or values of the Cold War, It is contrary to the logic of 'transitional justice' whose only standard is 'justice' based on public debate excluding ideology.

Honor restoration, meritorious awards, and commemorative projects that are indispensable in the past liquidation or 'transitional justice' will be done in the context of justifica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national discourse

and ideology of the time. May 18th, at that time, the power of self-governing and communication conducted by the citizens of Gwangju against the 'inequality' of power centering on the plaza in fron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will be embodying 'justice' which can not be taken in national ideology. I wish the 5.18 movement to be an example of the past liquidation that is appropriate for the era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1부 기조강연  
Session 1 Keynote Speech

촛불로 비춘 1980년 오월 광주  
1980 May in Gwangju, Lit up with Candlelight

한홍구  
Han Hong Koo  
성공회대학교  
SungKongHoe University





# 촛불로 비춘 1980년 오월 광주와 한국현대사 - 졸탁동시<sup>1)</sup>의 한반도와 새로운 동아시아 -

한 홍 구

## 1. 2018년 변화의 의미 - 졸탁동시와 엇박자

한반도는 근 30년 전에 무너진 냉전체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그 한반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 변화의 의미가 심상치 않은 이유는 단순히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외부의 요인만이 아니라 남과 북 각각의 내부 요인이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졸탁동시(啐啄同時), 안과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2017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는 남쪽에서 한반도 냉전체제를 떠받쳐온 수구반공세력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 조금 더 추이를 보아야 하겠지만 -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보수 세력이 전열을 정비하겠지만, 새로운 보수 세력은 과거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반복 반공에만 의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과거 데탕트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련 연방의 해체 등 국제정세의 급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단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의 수구반공세력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할 것이나, 이제 이들이 촛불로 한방,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으로 또 한방을 맞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 30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안과 밖의 힘이 합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졸탁동시와는 정반대로 안과 밖의 힘이 서로 어긋나는 엇박자의 연속이었다. 1987년 6월항쟁을 가져온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당시 청년들에게 사회주의는 모순덩어리 한국자본주의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로 여겨졌다. 극도의 검열과 사상통제 속에서 사회주의 문헌을 접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한국에서 6월항쟁은 모든 금기를 깬고, 사회주의 서적은 합법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고, 대학가에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등 사회주의 관련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분단한국

---

1) 불경 <벽암록(碧巖錄)>에 나오는 말로,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 세 시간 정도 이내에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숨막혀 죽게 된다는 것이다. 알 속의 병아리가 뼈약 피꼴 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여린 부리로 안에서 쪼는 것을 줄(啐 : 떠들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껍질을 쪼아 깨트리는 것을 탁(啄: 쪼 탁)이라 한다. 병아리 한 마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도 안과 밖의 힘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 젊은이들이 막 사회주의를 열린 광장에서 접하기 시작하자마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소련마저 해체되었다.

두 번째 불운은 1994년에 찾아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클린턴 정부는 예방폭격이란 명목으로 전쟁을 준비했다. 남북한과 미군을 포함하여 최소 3백만의 사망자가 예상되던 전쟁 개시 며칠을 앞두고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김일성 주석의 언명에 카터는 클린턴에게 예방폭격 중지를 요청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했다. 전쟁을 향해 치달던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하여 1994년 7월 25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세 번째 엇박자로는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들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당연히 조미관계의 개선 노력을 가져왔다. 북의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하여 클린턴과 회담했고, 미국의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났다. 이 움직임은 클린턴의 평양 방문 예정 발표로 이어져, 종전선언과 조-미수교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 끝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당선되었다. 부시는 ABC 정책 (Anything But Clinton)을 취하여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집더니 2002년 1월 29일에 열린 연례 일반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묶어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조-미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역시 얼어붙고 말았다. 부시의 재임 대부분의 기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이었는데, 두 분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미국 대통령 부시의 완강한 대북 태도에 막혀 2000년 6·15 정상회담과 2007년 10·4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체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네 번째 엇박자로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 시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진보 성향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섰다. 오바마는 미국 국내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2000년 북한을 방문하려 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개혁진영이 패배하여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들어섰고, 2012년 말의 선거에서도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미국이 보수 정권에서 진보적



인 정권으로 바뀐 시기에 한국은 보수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미국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해도 남쪽의 보수 정권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는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2016년 가을부터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밝힌 촛불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침 한국에서 촛불이 한창 타오르던 시기,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주요 언론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한국에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민주 정권이 9년 만에 들어섰는데, 미국에서는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또다시 엇박자가 나는 듯싶었지만 뜻밖에 트럼프는 그동안의 미국 정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독특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무기에 그치지 않고 ICBM을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핵무기와 ICBM을 손에 쥔 김정은의 북한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나 무아미르 알 카다피의 리비아와는 분명 다른 존재였다.

줄탁동시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점은 촛불혁명(아직 혁명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성급할지 모르지만)의 결과, 한반도의 남쪽에서 분단 때문에 탄생하고, 분단에 기생하고 분단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해온 수구 냉전 세력이 ‘일단’ 몰락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치세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몰아닥칠 근본적인 변화를 저지할만한 힘을 발휘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수구 냉전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확실하게 거부당했고,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을 ‘악마화’하던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고 있는 한, 이들이 외부의 지원을 끌어낸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아직 남쪽의 주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북쪽의 주민들만큼 절절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분단을 유지하고 고착화 시키며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제외한 그 어떤 통일도 위협시 해오던 분단 세력은 힘을 잃었다. 한반도의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힘은 현재 한반도 안에서도 밖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 오랫동안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을 벗어나지 못한 땅이었던 한반도에 과연 안팎에서 좋은 방향으로 기운이 작용한 적이 있었던가? 오랫동안 한국사를 공부해온 입장에서 안과 밖에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기운이 작용하고 있었

던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아래 왼쪽의 사진은 미군이 38선 경계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적도에서 북극까지 기후 등을 분석하기 위해 90등분해 그려놓은 가상의 선 중 38번째 선이 땅 위에 내려앉았다. 오른쪽 사진은 그 선을 표시하기 위해 팻말을 세웠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 팻말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 아이들이 전쟁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지금 팔십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38선이 이 아이들이 팔십이 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분단은 이 아이들 뿐 아니라 이 아이들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어디 그 뿐인가. 이 아이들의 자식들, 지금의 젊은 세대인 그 자식들의 자식들 세대의 삶에까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줄탁동시의 변화는 바로 이렇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뒤흔든 분단체제의 해체를 향한 첫 발을 떼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3-4년의 결정적인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 글을 읽을 한국인들의 남은 인생 뿐 아니라 그 자식들, 나아가 그 자식들의 자식들의 삶까지 바꿔놓을 중차대한 변화이다. 역사에서 어느 한 순간이고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오늘은 한반도의 근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오해와 이해

지리적으로 분명 동아시아이면서 흔히 동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빠지거나 포함되지 않는 곳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누구나 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들이다. 북에 대한 왜곡에서 대표적인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인 김일성이 가짜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점령하고 있던 시기 전설적 명장 김일성 장군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는데, 이북의 김일성은 그의 명성을 가로

첸 가짜이며, 그가 이북의 지도자가 된 것은 오로지 소련의 낙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히틀러나 스탈린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대해서, 최근의 김대중이나 노무현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얼마든지 극과 극을 오가며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영화로도 만들어진 중세 프랑스의 <마르탱 게레의 귀환> 이야기도 아닌데, 가짜 김일성 설은 20 세기 후반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김일성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정작 규명되어야 할 사실은 김일성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이 황당한 주장이 왜 발생하여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느냐는 점이다. 김일성 가짜 설은 역설적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중대한 위치를 증명해준다. 이승만처럼 친일파들을 감췄거나, 박정희처럼 본인의 친일경력이 문제시되는 경우, 북의 지도자가 독립운동의 전설적 영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분단 이후 남쪽에서 38도 이북을 지칭하는 용어는 ‘북한’도 아니고 ‘북괴’였다. 북은 또한 남쪽을 ‘남조선괴뢰도당’이라 불렀다. 오랜 기간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았으며, 뼈아픈 식민지 지배를 겪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은 각각 제 민족을 가리키는 말 중 가장 고약한 말이라 할 수 있는 괴뢰란 용어로 서로에게 낙인을 찍고자 했던 것이다. 김일성이 가짜라는 주장은 그가 세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소련의 괴뢰로 몰아붙이는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반공반북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 반공이 아니라 멸공이었고, 북을 ‘북괴’가 아니라 ‘북한’이라 부르는 것으로도 사상을 의심받기도 했다. 북이 괴뢰라는 것은 소련의 괴뢰, 즉 소련이 실로 묶어 조종하는 꼭두각시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은 이미 27년 전인 1991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실은 묶어 조종하던 자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꼭두각시가 27년 동안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핵을 개발하고 나아가 ICBM까지 개발했단 말인가?

김일성 가짜 설이나 북한이 소련의 괴뢰라는 주장이 해묵은 것이라면, 최근 30년 가까이 한국, 미국, 일본 등을 지배해 온 북에 대한 담론은 ‘북한 붕괴론’이라 할 수 있다.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고,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에서는 수십만의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탈북자가 속출하고 체제의 이데올로그였던 황장엽이 망명하면서 북한붕괴론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입장에서는 북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다만 언제 붕괴할 것인가, 시간이 문제였을 뿐이었다. 이 입장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로 “3

분에서 3년까지”라는 표현이 있다. 북한은 길어야 3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고, 빠르면 지금 당장 CNN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속보가 나와도 이상할 것 하나 없다는 것이었다. 남쪽의 보수정권도, 미국도, 일본도 모두 북한붕괴론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때문에 북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북정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북은 핵과 ICBM을 개발한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정작 붕괴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북한붕괴론이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서점 서가에 진열되어 있는 북한 관련 책들의 절반,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이 사실 쓰레기라 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고, 정보가 가장 심하게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나라, 마음 놓고 왜곡해도 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오로지 외부로 돌리기에는 북한 역시 만만치 않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 역시 사실이다. 서너 달 전 어떤 젊은 여성 탈북자가 TV 좌담 프로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북에 있을 때는 남쪽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 못 볼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남쪽에 오니 북한 뉴스나 방송을 전혀 볼 수 없어 무척 답답하고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상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 나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엄연히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여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교사들에게 부과된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다.

### 3. 한국의 민주화와 촛불

2012년 12월 16일 일본의 총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승리했고, 사흘 뒤인 12월 19일 한국에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만주국을 디자인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와 만주국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딸이 거의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서 권력을 잡은 것이다.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은 이를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시바타 료타로가 쓴 표현인 ‘귀태(鬼胎)’라는 말을 빌려 지적했다가 수구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곤욕을 치렀다. 귀태란 귀신의 씨를 받아 태어난 아이로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 즉 일본군국주의와 중국봉건주의가 결합해 탄생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어떻게 20세기 후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이었던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1930년대 만주국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부상한 것일까? 고개를 돌려 북쪽을 보니 그곳은 1930년대 만주국을 상대로 싸운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진행 중이었다. 남북한과 일본의 최고지도자가 모두 만주국에 깊은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 중국을 보니 시진핑 또한 연안의 혁

명근거지를 창설하여 고난의 장정을 끝낸 마오쩌둥 일행을 맞이하여 중국혁명의 8대 원로로 꼽히는 시징신(翊仲勳)의 아들이었다. 남북한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4국이 모두 2세 또는 3세 정치인들이 최고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에 드리운 전통의 무게는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

너무 자학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이다. 1789년 혁명 후의 프랑스는 단두대로 왕의 목을 덩덕덩덕 칠 정도로 과격한 과거청산을 통해 앙상레즘과 결별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의 이상을 전 유럽으로 확산했다는 나폴레옹 자신이 황제가 되었고, 그를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린 뒤 30여년 만에 그 조카가 또 제위에 올라 나폴레옹 3세가 되었다. 이런 굴곡이 없었다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같은 걸작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각각 전통의 무게를 받으며 각각 산업화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런데 동아시아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민주화의 경험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경험은 특별하다.

1945년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분단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 세력이 계속 한국사회를 지배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친일세력 청산에 실패했다. 친일청산에 실패했다는 명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청산하지”고 주장한 애국세력이 친일파들에게 거꾸로 청산당한 기막힌 역사가 실감되지 않는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빌붙은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나라는 딱 두 나라였다. 한국과 남베트남, 둘 다 분단국가였다. 그 중 남베트남 정권은 1975년 사라졌으니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앞잡이였던 자들이 오랜 동안 정권을 장악한 나라였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단이였다. 단순화 시키면 친일세력이 분단세력이고 분단세력이 독재세력이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독립운동과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와 분단과 전쟁과 학살의 아픔을 겪었다.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뒤 총성이 멎은 것은 1953년 7월, 그 전쟁의 폐허와 시궁창 속에서 채 만 7년이 지나지 않아 혁명이 일어났다. 1960년의 4월 혁명, 그것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시민혁명이었다. 해방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민주나 진보적인 물을 먹은 사람은 다 죽거나 북으로 갔는데, 흑여 살아남았다

해도 지극히 위축되어 입을 꼭 다물고 살았는데 누가 혁명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학생, 대학생은 시민들의 봉기가 절정에 달한 4월 19일 전날에야 집단적으로 나왔으니, 4월혁명은 중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정말 젊은 혁명이었다. 1960년대 당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라면 1940년 이후 출생이고, 1945년 해방 후에 학교에 들어갔다. 이들이 1945년 이후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노예교육을 받지 않은 첫 세대이고, 미국식 민주주의로 교육받은 첫 세대였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 제 나라말 한글로 교육받은 첫 세대였다.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새로운 교육을 받은 그 세대가 엄청난 사고를 친 것이다.

그런데 무려 60년 전에 이런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민혁명을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촛불혁명을 이룰 때까지 왜 거의 두 세대나 걸려야 했던 것일까? 그 답을 누구에게서 구하는 것이 빠를까? 아마도 4·19세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4·19세대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2016~2017년 촛불이 한창 타오를 때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주력군이 바로 4·19세대였다. 60년 전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대가 60년이 지난 후 가장 수구적인 집단이 된 것이다. 지금 촛불의 미래도 복잡하지 않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30년 후, 50년 후 서 있는 자리가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이다.

박정희의 1961년 5·16쿠데타는 민주당 정권을 전복한 것만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변혁의 기운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그럼에도 학생과 노동자, 야당과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다시 10년 후 탱크를 몰고 나온 것이 1972년의 유신 친위쿠데타였다. 쿠데타 직후는 ‘겨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만, 한국 민중들의 저항은 다시 시작되었다. 채 7년이 지나지 않아 폭발한 저항에 박정희는 미처 탱크를 몰고나올 겨를도 없이 심복이었던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시대를 계속 이어가려는 군사독재 정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격돌한 현장이었다. 항쟁 기간 3만 시민이 매일 도청앞 광장에 모였지만, 정작 전투환 신군부의 진압이 시작될 때 도청에 남은 사람은 3백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시민군 방송차량이 시가를 돌며 한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총성을 들으며 5천년 한국사에서 가장 긴 새벽을 보내야 했다. 그것이 낳은 것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다.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끝까지 도청에 남아 맞이

한 사람들은 다음날 쓰레기차에 관이 포개어 실린 채 야산에 파묻혔다. 이들의 처절하지만 장엄한 패배는 광주라는 남서쪽의 아주 크지 않은 도시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인 고향이자 수도로 만들었다. 80년대를 산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그날 밤 광주에 있었으면 “나는 총을 들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꼭 7년 뒤인 1987년 6월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작년 2017년은 그 30주년이었다. 나는 6월항쟁 30주년이란 인터뷰와 강연을 많이 요청받았는데, 6월항쟁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월 달에 집에 간 사람들이 6월에 다시 나와 싸운 것이라 답했다. 7년이라는 간극이 있지만, 그것은 한 호흡이었다. 1987년의 6월항쟁 당시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는 “직선제로 민주쟁취”였다. 대통령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면 당연히 민주세력이 승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궁지에 몰린 군사독재정권은 시민들의 예측과는 달리 직선제를 수용했고, 김대중-김영삼의 분열로 1987년 12월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군사독재측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태우는 1990년 초 민주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던 김영삼을 끌어들여 전격적으로 보수대연합을 단행하여 일본의 자유민주당을 본 뜬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민주자유당은 그 후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을 거쳐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끊임없이 이름을 바꾸었지만,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보수정치세력으로 버티고 있다. 6월항쟁의 실패가 거대보수정당을 낳은 것이다. 찬스를 놓치면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영광과 좌절을 되풀이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디게 전진한 것은 잘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좋은 기회를 번번이 놓쳤기 때문이다. 1987년만이 아니었다. 10년 뒤인 1997년 한국은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뤄 김대중 정권을 출범시켰다.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이 정권교체가 1987년 집권에 실패한 민주세력이 리턴매치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반 토막 났던 민주진영이 10년 후에 힘을 길러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교체가 온전히 새로이 회복된 민주진영의 힘으로 이뤄졌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우선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했으니, 그 세력에게 정권을 다시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일이다. 또 김대중은 대통령병 환자란 비난을 무릅쓰고 5·16군사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과 손을 잡았다. 이 두 가지는 무시할 수 없는 중대요인이지만, 또 하나, 보수진영의 분열로 제3후보인 이인제가 거의 대부분 보수진영에서 500만 표를 빼앗아가지 않았다면 외환위기와 DJP연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큰 표 차로 승리했을 것이다.

6·15 정상회담 등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적지 않지만, 한 가지 중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것은 재벌개혁 또는 재벌해체의 호기를 놓쳤다는 점이다. 당시 재벌해체는 ‘중복좌경세력’이라 비난받는 급진 운동권의 주장이 아니었다. 국제금융자본의 대리자인 IMF조차 재벌해체를 요구했고, 재벌들도 지은 죄가 있어 잠깐이었지만 목을 내밀고 있던 형편이었다. 그러나 머뭇거리다 타이밍을 놓치더니 재벌해체가 재벌규제로, 재벌규제가 다시 재벌개혁으로, 재벌개혁은 재벌이 사라지고 경제개혁으로 바뀌더니 경제개혁마저 경제민주화로 바뀌었다. 그러더니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사라지더니 노동개혁이 튀어나왔다. 시민들이 재벌개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재벌이 시민들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의 민주세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어렵게 만든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수구세력과 민주진영 내 반노무현 세력이 연합하여 취임 1년 밖에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자 시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자르냐며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마침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었고, 촛불의 열기 속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단독과반수를 확보했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10석의 의석을 획득하여 일약 제3당으로 뛰어올랐다. 이제 민주진영은 대통령을 살려냈고, 의회도 지배하게 되는 등 선출되는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약진하여, 대통령, 국정원장, 법무장관,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민변 출신으로 채워졌고, 의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온 의원이 수십 명이 포진하는 정치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실패하여 국가보안법 하나를 폐지하지 못하였다. 역사는 복잡하지 않다. 기회를 놓치면 꼭 위기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 좋은 기회를 2004년에 날린 후 민주진영은 딱 3년 뒤인 2007년 정권을 보수진영에 내주었고, 5년 뒤인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고, 7-8년 뒤인 2010년대 초반에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땅과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헬조선 흡수저’<sup>2)</sup>로 비하하기 시작했고, 꼭 10년 뒤에는 2004년에 폐지시키지 못한 바로 그 국가보안법으로 2004년에 처음 원내에 진출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후신인 통합진보당이 해산 당했다.

---

2) 헬조선 흡수저는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젊은 세대가 부정적으로 표현한 신조어로 계층이동의 기회가 막힌 21세기 초반 한국사회에 대한 절망감이 담겨있는 말이다. 지옥을 뜻하는 헬을 한국이 아닌 한국의 옛 명칭 조선과 합친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이룬 민주화나 근대화가 아무 소용없이 19세기 봉건신분사회로 돌아갔다는 뜻이고, 흡수저는 영어의 ‘born with silver spoon in one’s mouth’에서 차용한 것으로 부모의 재산등급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흡수저 등으로 나눈 것이다.



앞서와 같이 2016-2017년의 찬스를 허무하게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데에는 아마도 세월호의 비극이 크게 작용했다 할 것이다.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든다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훈련이 잘된 특수부대를 가장 대규모로 갖고 있다는 나라에서 유리창 한 장 깨지 못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한 채 3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장되는 광경을 시민들은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 했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도처에서 튀어나왔다. 그 분노를 숙성시키기 2년 여,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비로소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를 알게 되었고,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구세력에게 넘어가있던 권력을 되찾아 온 것이다.

#### 4. 동아시아 현대사의 맥락에서 본 촛불과 한반도 평화

이미 30년 전의 일이지만 <한국민중사> 필화사건이라는 오래 된 필화사건 하나를 같이 생각해볼까 한다. 상하 1천 쪽 가까운 책에서 10쪽 쯤 썼으니 나는 필자라 하기도 그렇고 필자가 아니라 하기도 그런 어정쩡한 관련자였다. 당국은 이 책을 출간한 풀빛출판사 대표인 나병식 사장을 구속하였고 무려 5년형을 구형하였다.<sup>3)</sup> 왜 <한국민중사>라는 좀 교조적이고 재미없는 책을 낸 죄로 출판사 사장이 구속되어 중형을 구형받았을까? <한국민중사>는 매우 거칠지만 민중들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교정의 책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민중들이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21세기 들어와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서방세계 국가들은 복지국가 이념을 내던지고, 신자유주의를 향해 무섭게 질주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와 안전망은 축소되었고, 여태까지 누려온 것을 빼앗긴 하층 복지수혜자들이 당연히 격렬히 반발하자 각국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신자유주의화와 양극화, 그리고 경찰국가화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 도처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점령하라” “분노하라”의 목소리는 어디서나 들린다. 인류가 여태까지 만들어낸 정치제도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나 역시 이 말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여태까지’란 단서가 말해주듯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상적이고 완벽한 제도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수많은 나라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3) 다행히 6월항쟁 이후 판결이 내려져 나병식 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 사회의 구성원 중 노동 계급과 자본계급은 숫자상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인 1표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만약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누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가를 보고 계급투표를 제대로 한다면 선거는 해보나마나 노동자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인 1표제가 아니라 1원 1표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자본계급은 의회를 장악해 왔다. 1인 1표제가 수적으로 다수인 노동자 계급의 선거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이 일반민주주의를 용인한 것이지, 노동자계급이 거의 모든 선거에서 완승하게 된다면 보통선거제도가 실시되었을 리가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바로잡아나가려는 21세기 초반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움직임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나라는 단연 한국이라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을 네 명이나 감옥에 보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 중 셋은 어찌되었건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미처 못 알아보고 투표를 잘못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잡고 죄값을 치르게 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그것을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달성했다.<sup>4)</sup>

한국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웠어도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국 민주주의는 내재적인 발전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만을 놓고 본다면 이식된 것이 분명하다. 한국인들은 늘 언제나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처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보나 하는 선망을 지닌 채 살아왔다. 그런데 2016년 말-2017년 초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 미국의 SNS에는 한국이 대단하다, 한국이 부럽다며, 우리도 언제나 트럼프를 탄핵할 수 있을까 하는 글이 넘쳐났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어느 새 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수준에 오른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시위 중에서 한국의 촛불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가장 앞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한국의 K-POP, 드라마나 영화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에 가장 내세울만한 한류는 대의민주주의제의 문제점을 바로잡아가는 실험으로서의 촛불, 달리 표현하면 ‘민주주의의 한류’가 아닐까 한다. ‘민주주의의 한류’, 그 출발점은 바로 오월 광주였다.

---

4) 한국인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2016-2017년 촛불에 국한해서이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촛불혁명은 식민과 분단과 전쟁과 학살과 독재를 겪은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성큼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친일-분단-독재-냉전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내적으로 변화를 저지할 힘을 상실했다는 점, 여기에 더하여 외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미수교가 모색되는 등 안팎의 변화가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마지막 밤, 채 밝아오는 새벽을 보지 못하고 떠난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한발 다가오고 있다.

1980 May in Gwangju, Lit Up with Candlelight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 Korean Peninsula of Jultakdongshi and New East Asia –

Han Hong Koo

1. The meaning of change in 2018–Jultakdongsh  
i/coincident and un-coincident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the Cold War system which collapsed nearly 30 years ago continues. In the Korean peninsula, unusual changes are beginning. The reason for this change is that the internal factors of the South and the North are driving change, not just external factors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short, it is Jultakdongshi/啐啄同時 (Four-character idiom referring to coincident), the power toward the new order is gathering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at the same time.

The candlelight vigil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6–2017 are a revolutionary change in that it has led to the downfall of the anti-communist forces – to see a little bit more though– that supported the Cold War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outh. Over time, the conservative forces will improve the heat, but it is clear that the new conservative forces will not be able to rely solely on the anachronistic anti-North Korean antagonisms of the past. It can be said that the role of South Korean anti-communist forces is crucial to the continuity of the division system without disturb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ch as the collapse of the detente or the Berlin Wall or the dismantling of the Soviet Union. Now they were shocked by candlelight, and then by the summi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summit meeting between the North and US again as seriously as impossible.

In short, in the past 30 years,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series of struggles in which both internal and external forces are in

opposition to each other unlike Jultakdongshi. The Korean young people who bring out June uprising in 1987 had considerable expectations for socialism in the era of agony. For young people at that time, socialism was regarded as a master key to solve all the problems of contradictory Korean capitalism. In Korea where extreme censorship and ideological control banned from accessing socialist literature, the June uprising broke all taboos, socialist books began to be legally published, and socialist-related lectures such as Marxist economics began to be opened in college. As soon as the Korean young people began to see socialism in the open square, the Berlin Wall collapsed, the eastern socialist system quickly collapsed, and the Soviet Union collapsed.

The second misfortune came in 1994. In order to prevent the DPRK's nuclear development, the US Clinton government prepared the war in the name of preventative bombing. Former President Carter visited Pyongyang and held talks with President Kim Il Sung ahead of a few days before the expected war of at least three million deaths, including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US military. With the statement of President Kim Il Sung that he can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guarantees North Korea's safety, Carter asked for Clinton to stop the bombing and set up an inter-Korean summi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facing the war, changed drastically, and the South-North summit was held on July 25, 1994. But on July 8, just before the historical summit, President Kim Il Sung suddenly died.

The third uncoincidence is the situation after the June 15 summit in 2000.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has, of course, brought about efforts to improve the North-US relations. Secretary of the People's Army Jo Myeong-rok visited the White House and met with Clinton. US Secretary of State Wolbright visited Pyongyang and met Kim Jong Il. This move led to Clinton's announcement of a visit to Pyongyang, which resulted i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nd the expectation that the N. Korean-American Treaty was visible. However, Republican candidate George W. Bush was elected after the controversy of the November 2000 US presidential election. Bush took the ABC policy (Anything But Clinton) and

reversed all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policies, naming North Korea as an "axis of evil" in an annual general statement on January 29, 2002, linking North Korea with Iraq and Iran. As well as improving relations between N. Korea and the US, inter-Korean relations got also frozen. For the most part during the presidency of president Bush, Korean president was Kim Dae Jung and Roh Moo-hyun. Both of two were willing and able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ut were stymied by Bush's stubborn attitude toward North Korea. Thus,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6.15 summit in 2000 and 10.4 summit in 2007.

The fourth uncoincidence would be the US Obama administration. In the November 2008 presidential election, the Democratic Party wins and the progressive Obama regime is in place. Obama has been very reformative in the United States, and he has been expected to step up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by appointing Hillary Clinton, the wife of President Bill Clinton, who was about to visit North Korea in 2000, as Secretary of State. In the south, however, the democratic reform camp was defea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end of 2007, and Lee Myung-bak's conservative government was in place, and Park Geun-hye was elected at the end of 2012. When the United States changed from a conservative regime to a progressive regime, Korea was in a conservative regime. Obama recognized that if the United States takes active North Korea policy but the South's conservative regime does not respond,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what it is. He is actively working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Iran and Cuba, bu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 virtually stagnant under the name "strategic patience,"

From the fall of 2016, the Republic of Korea began to boil up in candlelight filled with citizens who were angry at the Park Geunhye-Choi, Soonsi's meddling in state affairs. At the time of candlelight burning in Korea, the United States wa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Democratic primary, socialist Bernie Sanders has gusted and the mainstream media reported that Democratic candidate Hillary Clinton is likely to win. Bu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was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of the Republican Party rascal. A democratic regime that has been active i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has been in Korea for nine years. Again, that looks helpless, but Trump unexpectedly began to deal with North Korea in a different way than the US regime. This is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 of Trump, on the one hand, the ability of North Korea to succeed in developing the ICBM in addition to nuclear weapons, threatening the US mainland. Kim Jong-eun's North Korea, with its nuclear weapons and ICBM, was clearly different from Saddam Hussein's Iraq and Muammar al Gaddafi's Libya

The new significance of Jultakdongshi is the result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which may be a bit early to call it a revolution). The cold war forces that had been born because of the division from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hich have been able to parasitize and maintain the division system have been "once" collapsed. It is unimaginable that conservative political power disappears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time being to exert the power to inhibit the fundamental change that will go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t is unlikely that they will be able to attract outside support as long as the cold-water forces are clearly rejected by the people and at least abandon the old way of "demonizing" North Korea in the Trump Administration. It is hard to say that the residents of the South Korea are still not as eagerly anticipated as the residents of the North. However, at least the division has been maintained and fixed, and the divided powers that have endangered any unification except absorption unification by the collapse of North Korea have lost power. The power to heighten the confrontation and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working strongly in the Korean Peninsula or outside. Has there ever been in good force from inside and outside at the same t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has been a land of international tension and conflict for a long time? I have not seen a case where energy has been acting in such a good direction both inside and outside like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having studied Korean history for a long time.

The picture on the left below shows an American soldier drawing on the 38th line. In order to analyze the climate from the equator to the Arctic, the 38th line of the hypothetical line drawn in 90s fell on the ground. The photo

on the right shows a sign to mark the line, a picture taken by the children in front of the sign. If these children survived without being killed in the war, they would have reached the age of about eighty. No one thought the 38th line would not disappear until these children were eighty-eight. The division has shaken the lives of not only these children but also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generations. Is that all? The shadow of these children, the young generation of their children, is shrouded in the life of the generation of their children. The change of Jultakdongshi happening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first step toward the dismantling of the division system that has so persistently shook our lives for a long time. The change that will take place in the decisive period of 3–4 years from now is the crucial change that will change not only the life of the Koreans who read this article but also the lives of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There may have been no moment that did not matter in history, but the day we are sending is really important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the peninsula.



## 2. Mis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DPR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geographically obvious East Asia, which is often not included or excluded when talking about East Asia. It has a great impact on the lives of people living in Korea, and everyone talks as though they know about the North, but that's where we most do not know. A typical example of the distortion of the North is the ridiculous claim that Kim Il Sung, the founder of the DPRK, is a fake. During the time when Japanese Imperialism was forcibly occupying Joseon,



legendary leader Kim Il Sung 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Kim Il Sung of the north was a fake who intercepted his fame, and became the leader of the north only because of the Soviet position. For Hitler or Stalin, for the case of Rhee Syngman, or for Park Jeong-hee, the evaluation of people about Kim Dae-jung or Roh Moo-hyun can be different from pole to pole. However, it is not the story of Medieval French "Return of Martin Guerre", which was also made into a film. The false Kim Il Sung theory dominated Korean society in the late 20th century.

Academically, it is meaningless to distinguish whether Kim Il Sung is genuine or fake. What we make clear is not to confirm Kim Il Sung is not authentic, but why this ridiculous claim has dominated Korean society for a long time. Paradoxically, the false Kim Il Sung theory proves the position of Kim Il Sung'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It was hard to admit that the leader of the North was a legendary hero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f he wrapped pro-Japanese lines like Rhee Syngman or his pro-Japanese career like Park Chung-hee.

After the division, the term for north of 38 degrees was North Korean puppet regime, not North Korea in the South. And also the North called the South Korea as 'South puppet fraction'. I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where Koreans have long lived as a unified nation and have undergone a hard colonial rule and strong nationalist orientation, the two Koreas have stigmatized each other with the awful term "puppet". The allegation that Kim Il Sung was a fake made it easy to push the DPRK, the country he founded, to the puppet of the Soviet Union. At the time of anti-communist anti-DPRK protest, it was not anti-communism but was eradicated communism, and it was suspected of thinking that it was called 'North Korea' instead of 'North puppet regime'. The North puppet regime is a puppet of the Soviet Union, that is, a puppet controlled by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however, disappeared from the stage of history in 1991, 27 years ago. Actually, the person who tied and manipulated disappeared. How can the puppet develop the nucleus and develop ICBM?

If the fake Kim Il-sung theory or the claim that North Korea is a Soviet

puppet is old-fashioned, the discourse on the North that has dominated Korea, America, and Japan for the past 30 years can be called the 'North Korean Collapse'. The socialist system in the East-European block collapsed and the Soviet Union, and with Kim Il Sung's sudden death, natural disasters overlap resulted in hundreds of thousands of deaths in the North. North Korean defectors increased and Hwang Jang Yeop who was the ideology of the system fled from North Korea, which spread collapse of North Korea rapidly. From this standpoint, the collapse of North Korea was inevitable, and only when it would collapse, time was a problem.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is a phrase "from 3 minutes to 3 years" that has been popular for a while. North Korea would not be able to last three years, and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the news that the regime collapsed on CNN now. The South's conservative regime, the US and Japan all believed in the collapse of the North and, therefore, did not set up any North Korean policy despite the North's existence. In the meantime, North Korea developed nuclear and ICBM.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the collapse of North Korea is not North Korea but the collapse theory of North Korea.

Korea is not so different, but half of the books about North Korea on the shelves in American or Japanese bookstores, or perhaps even more books than that are actually trash. North Korea is the country that is the most unknown on the planet, the country where information is distorted and transmitted the most severely, and the country which can distort it without hesitation. It is also true that North Korea is also different from general common sense in that it only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 of such a result. A couple of months ago, I was shocked at the story of a young female defector on a TV program. She said that she could watch all the South dramas, movies, and musical videos in the North, but she could not watch any North Korean news or broadcasting in the South.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the reality of the DPRK and to open up the future of East Asia wher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present inevitably is an important mission imposed on teachers of this era.

### **3. Democratization and candlelight in Korea**

On December 16, 2012, Abe Shinzo won in the general election in Japan.

On December 19, three days later, Park Geun-hye was elected as president in Korea. The grandson of Kishi Nobusuke who designed Manchukuo, and daughter of Masaaki Takaki (Park Chung-hee) who served as an officer in Manchukuo, took power almost simultaneously in Korea and Japan. One of the members of parliament in South Korea pointed out this by referring to the famous poem by Ryotaro Shibata, a Japanese novelist named 'Gui Tae (鬼胎)' and he suffered a concentrated attack from the extremely conservative force. Gui Tae was a term referring to the puppet state called Manchuria, a child born with the seed of a ghost which should not be born as a child, that is, a combination of Japanese militarism and Chinese feudalism. How could Korea and Japan have the leaders at the same time that reminds us of Manchuria in the 1930 in the most dynamic in the world history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I looked up to the north and saw that there were three successive successions to Kim Jong Il and Kim Jong Eun following Kim Il Sung who fought against Manchuria in the 1930s. The top leader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Japan are all deeply involved in Manchuria... Turning my head to China, Xi Jinping was also the son of Shishin Shun, one of the eight elders of the Chinese Revolution, who founded the revolutionary base of the coast and greeted Mao Zedong party. All four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and South Korea, Japan, and China have leaders of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 politicians. Is the weight of tradition in East Asia so heavy?

We will not have to feel too hard on ourselves or shame. After the revolution of 1789, France broke up with the ancient regime by a radical extermination of the king's neck. But Napoleon himself, who spread the ideals of the French Revolution all over Europe, became emperor, and after taking him out of the Emperor, in 30 years, his nephew came again to Napoleon III. Without this bend, a masterpiece like Victor Hugo's *Les Miserables* could not have come out.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countries of East Asia have each weighed a lot of tradition and each has achieved considerable achievement in industrialization. However, w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East Asian countries is the experience of

democratization. In this regard, Korea's democratization experience is unique.

When Korea was liberated in 1945, no one expected the division. Also, nobody thought that the pro-Japanese forces that had worked for Japanese imperialism would continue to dominate Korean society. But Korea failed to liquidate the pro-Japanese forces. It is not wrong to propose that the prosecution failed in liquidating the pro-Japanese, but it is hardly realized that the patriotic forces that claimed to "liquidate the pro-Japanese nationalist rebels" were simply cleared upside down by the pro-Japanese. Of the many countries that have been independen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not independents, but the imperialist powers have dominated political power in only two countries. Both Korea and South Vietnam were divided countries. The South Vietnamese regime disappeared in 1975,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not only the world's only divided nation, but also a country that had been under the leader of imperialism for many years. The reason for that was division. If we simplified it, the pro-Japanese forces were the division power, and the division power was dictatorship. This is why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is forced to coexist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

Korea suffered colonial domination, division, war and massacre. After the death of millions of casualties, the shooting stopped in July 1953. And in the ruins of the war and seven years later, the revolution took place.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it was the first civil revolution that took place in many independent countri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yone who had a little bit of democratic or progressive water in the liberation space died or went to the north, and even if survived, they were extremely depressed and lived with a closed mouth, then who caused the revolution? They were students. College students came out on the eve of April 19, when the uprising of the citizens reached its climax. The April Revolution was a truly young revolution caused b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late 1960s, teenagers were born after 1940 and entered school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fact that they have entered school since 1945 has many important implications. They were the first generation without Japanese

colonial slave education and the first generation educated with American democracy. And they were the first generation to be educated in Hangul in my native language after colonial rule. It makes us real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culture. The generation that received the new education had a great accident.

But why did Korea's democracy which had been the first citizen revolution in many independent countries after World War II 60 years ago, take almost two generations until the candlelight revolution? Whom would it be quick to ask the answer? Perhaps it will be the fastest to ask the 4.19 generation. Where can we meet the 4.19 generation? When the candlelight flourished in 2016~2017, the national flag group of anti-impeachment was the 4.19 generation. The generation that was bloody and shouted democracy in the bullet shots 60 years ago became the most extreme conservative group after 60 years. The future of the candlelight now is not complicated. Citizens with the candlelight would be in 30 years later, or and 50 years later, the place of Korean democracy.

Park Chung-hee's May 16 coup in 1961 not only overthrow the Democratic Party's regime, but also trampled the power of transformation from below. Nevertheless, the resistance of students, workers, opposition parties and citizens continued, and it drove the tank again ten years later in 1972, which was the Yushin self-coup. Shortly after the coup, everything was frozen enough to be called the "Winter Republic," but the resistance of the Korean people began again. Seven years later, Park Chung-hee was killed before driving the tank by his own chief intelligence officer.

The Gwangju People's Uprising in May 1980 was a scene where the military dictatorship regime trying to continue the Park Chung-hee era without him and the aspiring citizens of democracy collided. Thirty thousand citizens gathered in the plaza in fron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every day, but only about 300 people were left in the building at the moment when the suppression of the military began. Those returning home had to spend the longest dawn in Korean history for 5,000 years, listening to the sad appeal from the civil militia broadcast vehicle rounding on the

road "Remember us" and the ruthless gunshots of the martial law forces. It was the 'sorrow of the survivor'. The people who remained in the government building until the end of the inevitable death were buried in the wilderness in a coffin taken by a garbage truck on the next day. Their heartbreaking but solemn defeat has made Gwangju, a very small city in the southwest, the spiritual home and capital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1980s. Anyone who went through the 80s was not free from the question, "Would I take a gun?" If I were in Gwangju that night.

Just seven years later, in June 1987, a democratic uprising took place. Last year, 2017 was the 30th anniversary. I received a lot of interviews and lectures about the 30th anniversary of the June uprising, and when I was asked what it would be expressed in a word, I answered that the people who went home in May fought back in June. There was a gap of seven years, but it was a breath. In June uprising in 1987, the citizens' slogan in the streets was "democratic win by direct election system". If the president was elected directly by the citizens' hands, it was no doubt that the democratic forces would win. The dictatorial military dictatorship, unlike the predictions of the citizens, accepted the direct election system, and Roh Tae-woo, a military dictator, was elected in the direct election of December 1987 due to the division of Kim Dae-Jung and Kim Young-sam. Roh Tae-woo brought Kim Young-sam, who was in charge of the democratic forces in the early 1990s, into a conservative coalition and created the Democratic Liberal Party based on the Japanese Liberal Democratic Party. After that, the Democratic Liberal Party changed its name to the current Free Korean Politics through the New Korea Party,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Saenuri Party, but it remains a conservative political power that has dominated Korean society. The failure of the June uprising created a massive conservative party. If you miss the chance, you will pay the price.

Korea's democratization has repeated glory and frustration. The slow progress of Korean democracy is not because we can not fight well but because we have missed a good opportunity that we had through hard struggle. It was not only in 1987. Ten years later, in 1997, South Korea made a regime change that made it difficult for the Kim Dae-jung regime to

launch. One thing to point out is that the democratic forces that failed to take control of this regime in 1987 did not win a return match. Ten years later, the democratic camp which had been divided by Kim Dae-jung and Kim Young-sam made the change. However, it should not be misunderstood that this regime change was made totally with the power of the newly revived democratic camp. First of all, the IMF financial crisis has ruined the country which means it is a nonsense to give the power back to the regime. In addition, Kim Dae-jung aligned with Kim Jong-pil, the protagonist of the May 16 military coup, despite the condemnation of presidential sickness. These two factors are important enough not be ignored. But if the third candidate, Lee In-je, who is divided by the conservative camp, did not take away 5 million votes from the conservative camp, despite the financial crisis and DJP coalition, the conservative camp would win a large vote difference.

President Kim Dae-jung's accomplishments such as the 6.15 summit are not so few, but there is one major regret. It is that they missed the good chance to reform or dissolve the plutocrats called chaebol. At that time, the dissolution of the chaebol was not an allegation of a radical movement that was condemned as a 'Pro-North and Left'. Even the IMF,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demanded chaebol dissolution and the chaebols had been guilty of a crime. However, the government missed the timing, and the chaebol dissolution was changed to the chaebol regulation, to the chaebol reform, and then changed to the economic reform,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by omitting the chaebol. In the end,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ompletely disappeared and the labor reform came out instead. Though the citizens should reform the chaebol, the chaebol tried to reform the citizens.

South Korea's democratic forces blew up a good opportunity to make it difficult in 2004 during President Roh Moo-hyun's impeachment. As the extreme conservatives and anti-Roh Moo-hyun forces in the democratic camp united to impeach the president who was only a year in office, the citizens began to hold candlelight to protest, why they impeach the President whom we chose. There was only a month to the general election

that time. In the heat of candlelight, the ruling Uri Party secured a single majority in parliamen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emocratization, and the Democratic Labor Party of the Progressive Party won the 10 seats and jumped to the third party. Now the Democratic Camp has secured all the elected powers, including saving the President and the domination of the parliament. Minbyun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 lead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made progress, and the President,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President of the ruling party are all filled with the members from Minbyun, and dozens of them had been imprisoned for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However they failed to reform and failed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though the citizens made such a good opportunity, they failed to reform and failed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History is not complicated. If you miss the opportunity, you are in danger. After a good opportunity in 2004, the Democratic Camp gave the 2007 government just three years later to the conservative camp. And five years later in 2009, President Roh Moo-hyun was lost. In the early 2010s, 7~8 years later, young generation began to deny the parents who gave birth to the earth and the self as the "Hell Choseon, soil spoon", and exactly 10 years later,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was not abolished in 2004,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successor to the first of the progressive party, Democratic Labor Party was dissolved.

The tragedy of Sewol ferry probably played a big role in bringing the opportunity of 2016-2017 as it was before. In a country that boasts the best ship in the world, the world has the largest and most well-trained special forces in the world, the citizens painfully have seen more than 300 people sunk under the sea, without wrecking a window and not saving a single child. What is a country? What should the state do in this crisis situation? There was full of sigh with anger everywhere asking what the country should be. After two years of aging the anger, when Park Gyeong-hye and Choi Soon-sil's meddling national affairs occurred, the citizens knew why the country was done and regained power that was passed on to the incompetent and unscrupulous conservative forces



#### 4. Candleligh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modern history

Though it was 30 years ago, I would like to think of an old case of a writing indictment called <Korean Popular History>. I wrote about 10 pages in a book consisted of I and II of total 1,000 pages, so I was the writer, and also not the writer at the same time. The authorities arrested Na Byeong-shik who was the president of the publishing company and published the book, and sentenced to five years in prison.

Why did the president of the publishing company be arrested for publishing a book that is a bit dogmatisch and boring? Isn't it because the book is very rough, but it gives a view correction that people can look at the world with their own eyes? What does it mean for people to look at the world with their own eyes?

In the 21st century, the whole world is boiling. Since the collapse of the socialism of the East European block and the Soviet Union, the Western world nations threw out the ideology of welfare state and ran horribly toward neo-liberalism. In most countries, social welfare and safety nets have shrunk, and the lower-welfare beneficiaries, who have been deprived of what they have enjoyed so far, have vigorously rebelled, and governments have suppressed them by using police force. Neo-liberalization, polarization, and police nationalization threaten democracy all over the world. There is a massive demonstration everywhere in the world to defend democracy or for more democracy. The voice of "Take Control" and "Anger" sound everywhere. It is often said that the best thing in the political system created by mankind so far is representative democracy. I do not intend to complain about this, but it is clear tha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not an ideal and perfect system, as the clue to 'until now' implies. Citizens go out into the streets, it is becaus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not functioning properly in many countries .

What if representative democracy works properly? Among the members of a society, the working and capitalist classes are not numerically comparable.

In most countries, the principle of one-to-one vote is adopted, and if workers vote in the election to see who advocates the interests of the working class and vote in the class properly, the election will end with a victory of the workers. But reality is never like that. In the capitalist society, the capitalist class has dominated the parliament so that it is not a one-to-one vote, but a one dollar-to-one vote. If the bourgeois class tolerates general democracy because it does not guarantee the victory of the numerically large number of working class elections, the electoral system would not have been implemented if the working class were to win in almost every election.

The country that made the greatest achievement among the movements around the world in the early 21st century to correct the problem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Korea. Korea is the only one country that has sent four former presidents to prison. Three of them were elected to the election in some way, but it is not easy for the people to correct their mistakes and pay the price late. Moreover, it accomplished peacefully without shedding blood.

It is hard to say that Korea was actively engaged in a struggle for general democracy even though it fought fiercely fo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lthough we can not say that Korean democracy does not have an inherent developmental component, it is clear that it has been transplanted into the system. Koreans have always lived with the envy of doing democracy as well as the US and Western advanced countries. By the way, in the end of 2016 and early 2017, when Park Geun-hye impeached in South Korea, there was a lot of articles on American SNS saying that South Korea is great, how envious of Korea! and can we impeach Trump some day like Korea? Even though it is limited, democracy in Korea has become an envy of Americans. It is true that Korea's candlelights are performing the greatest achievement and the most advanced experiment among the protests that are now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Korean K-pops, dramas and movies are popular in overseas market, and the word 'Korean Wave' is popular. However, the Korean wave that Koreans are most likely to advocate in the world is candlelight as an

experiment to correct the problem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n other words, it may be a "Korean wave of democracy". The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Wave of Democracy' was May Gwangju.

The candlelight revolution between 2016 and 2017 means that Korea, which underwent colonization, division, war, massacre and dictatorship, has now reached a new stage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e pro-Japanese, division, dictatorship, cold war power has weakened so much that it has lost its power to intervene internally. In addition, though still a long way to go, there is a try made for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which makes synergistic effect for the change in the inside and outside. In 1980, the last night of May in Gwangju, they dreamed of the new era, but they left without seeing the dawn coming. The world they dreamed of is approaching.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2018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2부 세계의 경계를 넘어

Session 2 Beyond Boundaries of the World

주 관 |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2부 세계의 경계를 넘어  
Session 2 Beyond Boundaries of the World

-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사상의 계보와  
박헌채의 민족주의론  
- 광주 5·18의 재역사화를 위한 사상자원을 찾아서  
The Genealogy of East-Asian Decolonialism  
and Park Hyun-Chae's Theory of Nationalism  
- To Find Theoretical Resources for Rehistoricizing May 18

연광석

Yeon Gwang Seok

대만 국립교통대학교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TWN)







#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사상의 계보와 박현채의 민족주의론 : 광주 5·18의 재역사화를 위한 사상자원을 찾아서<sup>1)</sup>

연광석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만들어낸 정세의 전환 속에서 2017년 개봉된 영화 《택시운전사》와 《1987》는 상업적으로 주목할만한 흥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백년을 만들어가는 현시점에서 20세기 후반의 역사를 어떻게 ‘재역사화’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이 글은 두 영화가 노정하고 있는 ‘탈역사화’ 문제에 착목하여, 20세기 후반 남한이 경험한 역사를 어떻게 다시 마주할 것인지라는 문제, 즉 ‘재역사화’의 문제설정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설정은 동아시아 및 제3세계의 역사성을 담지하는 문제설정으로 ‘탈식민주의’를 주체적으로 맥락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다소 낯설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하나의 과제, 즉 동아시아적 ‘탈식민주의’의 사상사적 계보를 재구성하는 과제를 짚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택동(1893~1976), 다케우치요시미(竹內好, 1910~1977),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1932~2010) 등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권역적 사상사 맥락을 전유함을 통해 박현채 사상에서 제시된 ‘민족주의론’, ‘민족경제론’, ‘사회성격론’ 등이 다시 자신의 이름과 그 자리를 되찾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상의 종언’을 맞이한 21세기 남한의 지성사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토론 과제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들어가며: “신식민/분단체제”와 탈역사화 비판

전후분단국가에서 독일의 경우나 한국의 경우는 군사적 점령이 선행적인 것으로 주어지고 거기에 한 사회의 내부적 모순이 결합한 유형이다. 이에 비하여 중국, 베트남의 경우는

---

1) \* This work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Cultural Studies,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from The Featured Areas Research Center Progra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Higher Education Sprout Projec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in Taiwan. 한편, 각절의 일부내용은 연광석, 『사상의분단—아시아를 방법으로 박현채를 다시 읽다』(나름북스, 2018)에서 전재되었지만 하나하나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사회의 내부적 모순에 따른 내전이 민족해방전쟁의 과정에서 보다 치열해지고 이것이 외압에 의해 관철되지 못하고 분단상황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 이든 이데올로기 문제가 개입되면서, 한사회의 내부모순의 발현으로서의 계급적 대립이 현상화된 그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외화되어 마치 이것이 외부적조건에서 오는것인 양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sup>2)</sup>

분단의 책임을 외압에 돌리고 이데올로기를 외화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분단된 한쪽을 민족적 요구에 따른 정통으로 설정하고 다른 한쪽을 외세에 영합하는 비정통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한 사회의 사회구성속에 있는 모순관계에서 보지 않고 밖으로부터 강요된 것 또는 수입된 것으로 보는 것은 한쪽을 민족사의 정통으로 자처하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1민족 2국가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민족사의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합법화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이름밑에 한사회를 구성하는 다원적인 계급계층적 요구를 부정하면서 일방적인 계급적 편향을 드러내 놓는 것일 뿐이다.<sup>3)</sup>

남한의 사상가 박현채(1934~1995)는 역사내재적 계승의 관점에서 분단하 국민 국가의 형성과 그에 부수한 외재적 분단 인식 담론이 계급계층적 요구의 ‘다원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낳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을 계승하여 나는 「남한신식민/분단체제와 ‘민주수업’의불가능성」(연광석, 2017)이라는 시론에서 2017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를 낳았던 2016~2017 촛불시위의 함의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가 내놓았던 2014년12월 ‘통합진보당해산’ 결정과 2017년3월 박근혜 탄핵결정은 모두 신식민/분단체제를 유지/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이탈한 ‘좌익’에 대한 반공주의적 판결이라면<sup>4)</sup>, 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이탈한 ‘우익’에 대한 자유주의적 판결이었다. 중요한 것은 2017년의 판결을 낳은 촛불시위가 ‘광장’을 통한 모종의 ‘가상적주체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중(시민)의 주체화’는 ‘신식민성’이라는 역사성의

2) 박현채, 「분단시대의 국가와 민족문제」, 『창작과비평』, 1988년봄호(통권 59호), 1988.3, 245면.

3) 같은글, 246면

4) 반공주의가 추상적인 독재 또는 국가폭력으로 이해되는 것 또한 탈역사화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공주의’는 분명히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를 의미하며, (신)식민지적 현실에서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극복을 핵심적 지향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자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일원’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식민지적 현실에서 ‘공산주의’적 지향은 늘 역사성을 갖는 구체적 ‘민족주의’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역사적민족주의=역사적공산주의”라는 등 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소거를 기반으로 했다.<sup>5)</sup>

이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두 편의 영화 《택시운전사》와 《1987》이다. 이 두 영화는 모두 상술한 정세 하에서 제작되고 2017년 개봉되었다. 《택시운전사》는 8월, 《1987》은 12월에 개봉되었는데, 국내에서만 각각 1200만 및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만큼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작품이다. 이 두 편의 영화는 다른 주류 상업영화와 달리 1980년 광주, 1987년 6월 항쟁 등과 같은 최근의 ‘역사’속의 논쟁적인 정치적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업적인(나아가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집권당 정치인들의 관심이 주요 뉴스가 되었던 점에서 보면, 이 영화들의 성공은 영화가 놓인 정치 사회적 맥락으로서 2017년의 정세 및 소비주체로서의 대중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영화 《택시운전사》와 《1987》은 ‘역사’를 제재로 삼고 있지만, 이를 ‘자유민주주의’라는 틀로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1980년과 1987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 대한 서사가 ‘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문법을 따르면서, 일정하게 역사를 탈맥락화하여 은폐/왜곡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영화속에 등장하는 1980년과 1987년의 희생과 저항의 주체들은 모두 공산주의/민족주의를 배제한 ‘무고하고 순진한’ 희생자의 이미지로 탈정치화 되어 재현된다. 그리고 이를 억압했던 ‘국가’는 비정상적인 폭력집단으로 ‘악마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는 역사·사회적 모순의 원인을 ‘도덕’ 또는 ‘선/악’구도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역사와 달리, 1980년 ‘택시운전사’와 대학생 및 시민들, 영화 ‘1987’의 대학생(박종철과 이한열 등)은 모두 ‘역사 없고’, ‘이념 없는’ 무고한 희생자에 불과하다.<sup>6)</sup> 이들을 탄압했던 군사독재정권은 《1987》의 ‘남영동 대공분실’과 《택시운전사》의 사복경찰과 같이 ‘악마’화된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두 영화 모두 최 대한 ‘외부’와의 관계를 은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드러난 외부와의 관계로서 미국 《뉴스위크》와 서독 언론의 기사는 서구자유주의와의 연계를 긍정적으로 묘

5) 연광석(2017), 「남한신식민/분단체제와 ‘민주수업’의 불가능성」, 『문화연구』5(2), 130~147면. 이 글의 중문판은 다음을 참고. 延光錫 (2017), 〈南韩新殖民/分断体制与“民主课”的不可能性〉, 《热风学术(网刊)6》, pp. 115~123

6)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인 실제인물 김사복은 사실일반적인 택시운전사가 아니었으며, 경제적 상황도 영화처럼 빈궁하지는 않았다고 확인 된다. 그는 외신기자들이 묵는 호텔콜택시 운전기사로서, 세단3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미 1970년대부터 남한의 주요한 민족주의적 사회운동 인사들과 교류를 해왔으며, 영어/일본어에 능통했다고 확인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618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30200000000AKR20180513044300054.HTML>). 아울러, 두 영화에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학생운동은 반미운동 및 민족민주운동이 중심이었고, 다양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적인 ‘혁명’ 이념을 취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하기 위한 장치로만 활용되고 있다. 사실상 식민의 역사성과 신식민의 현실성을 담지했고, 1980년 대학생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을 지배하기도 했던 ‘민족’ 담론은 두영화 모두에서 소거되고, ‘미국’과 서구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만 그려진다.<sup>7)</sup>

나는 ‘신식민/분단체제’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1980년대~1990년대 초반이 이른바 분단을 경유하여 공고화된 신식민성이 가상적 주체성(자유주의적 정치체제, 자본주의적 성장, 유엔 가입)을 매개로 오히려 ‘정상성’으로 전환되었던 시기라고 보았다.<sup>8)</sup> 이러한 전환에 적응했던 지성사적 전환이 먼저 있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경유하면서 이러한 지성사적 전환은 대중적 기초를 공고화하며 탈역사화라는 임무를 완성하는 듯 보인다. 영화 《택시운전사》와 《1987》의 탈역사화는 이러한 대중적 기초의 단면을 표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80년대~1990년대 초반의 지성사적 전환을 ‘탈역사화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화했지만 거의 주목 받지 못했던 박현채라는 사상가, 그리고 그가 제기했던 사회성격론/사회구성체론의 문제의식을 다시 소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2. 동아시아 탈식민주주의의 문제설정:

### 우식민지, 식민지, 신식민지의 사회성격론

그러나 해방후 역사에서 5.18의 1980년은 어느점에 해당할까요. 역사는 진보의길만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왔습니다. 1980년이 1950년보다 앞선다고 누가이야기 합니까? 그러나 여기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1980년이 1950년, 1940년보다 앞선다고 이야기합니다.

1945년, 195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의 광주에 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역사에서 그걸 빼버리고 1980년을 강조합니까?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잠재력 없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잠재력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전환될 때 그때 비로소 가능성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이름 그대로 잠재력으로 이야기되는 걸 가지고 오늘 현실적인 평가를 그릇되게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sup>9)</sup>

7) 참고로영화《1987》에서검사역할을맡았던배우하정우가들고나오는《뉴스위크》의표지는사실 6월항쟁이최고점을지나 6/29선언으로봉합되던6/29일자표지였다.

8) 연광석(2017), 「남한신식민/분단체제와 ‘민주수업’의불가능성」, 132면.

9) 박현채외, 「광주 5월민중항쟁의학술적재조명」, 광주 5월민중항쟁 10주년기념전국학술대회, 『박현채전집 1권』 (서울: 해밀, 2006), 304면.

이는 1990년 5월 <광주 5월민중항쟁 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의 종합토론 시간에 박현채가 한 발언이다. 당시 이른바 남한의 진보적 경향의 지식인들이 개최한 이 대회에서 박현채의 언어는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조소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녹취록을 통해 볼 때, 그는 현실의 진보와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역사에 구속되어 있으며, 심지어 성격과 태도 또한 ‘민주적이지 못한’ 구세대 지식인으로 간주되는 듯하다.

영화 《택시운전사》와 《1987》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의 지성사적 단절은 30여년의 시간을 거쳐 대중적 기초를 획득하고 있다. 1990년의 시점에서 박현채가 호소한 내용은 사상의 역사적 단절과 망각에 대한 것이었다. 그가 언급한 “1940년, 1945년, 1950년”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나는 박현채가 1990년의 시점에 ‘탈역사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기초가 그가 계승했던 사상적 전통에 있었다고 본다. 아래에서 이를 그가 제기했던 ‘사회구성체론/사회성격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논의의 맥락화를 위해 ‘민족’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분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족이라는 표현의 출현은 현대 세계사의 산물이다. 이를 제3세계, 동아시아, 중국적 맥락에 놓고 보면,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와 분리해서 볼 수 없게 된다. ‘민족’해방운동이 관계했던 것은 피식민 주체가 민족국가건립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국주의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진실된 역사 과정이었다. 물론 민족주의를 동력으로 한 반식민운동은 독립건국이후 국가 내부에서 족군(族群/ethnic) 민족주의로 전화되고, 정권 획득의 동원전략이 되었으며, 사상계와 지성계로 하여금 이를 매우 경계하게 했고, 심지어는 민족문제를 사고하는 것을 두렵게 하기도 했다.<sup>10)</sup>

일반적으로 보편언어인 ‘영어’ nation의 매개로 ‘민족’과 ‘국민’이 동일시되면서, ‘민족주의’도 ‘국민주의’와 동의어로 간주되어 비판되고 있지만, 진광흥(陳光興, 1957~)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적어도 동아시아권역적 맥락에서 ‘민족’은 ‘민족해방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고, 그것이 구미적 현대성에 부합하는 ‘국가성/국민성’으로 귀결된다는 판단은 역사의 개방성을 부정하는 사후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포스트 식민적 국가형성이 좌절된 바 있던 조선반도의 신식민지 남한에서 ‘민족’은 여전히 도래하지 않은 ‘개방’적 개념으로 2차대전 이후에도 생명력을 지속해 왔고,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1970년대 ‘민족문학’,

10) 陳光興 (2010), 〈導論—參照兩韓思想兩岸：白樂晴「分斷體制」論形成的軌跡〉, 《白樂晴—分斷體制·民族文學》(台北：聯經/台社), p.46.

‘민족경제’ 등을 통해 역사적인 비판성을 체현하는 범주로 다시 등장한 바 있다.

본래 ‘민족경제론’의 핵심 주창자였던 박현채는 1985년 『창작과비평』에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1)—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둘러싼 종속이론 비판」이라는 글로 1980년대 중후반 남한 사상계를 사로잡았던 ‘사회구성체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 논쟁은 이후 논쟁의 심화확대과정에서 박현채로부터 ‘이론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박현채는 오히려 논쟁으로부터 주변화되었고, 1989년 박현채는 사실상 거의 주목 받지 못했던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돌베개, 1989)을 출판하여 본인의 사상체계를 정리한다.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의 내용을 기반으로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사회성격론’을 개괄해보자. 물론 이와 같은 그의 사상과 이론은 기본적으로 모택동과 중국 혁명의 사상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역사에서 민중이 보다 민족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은 다른 인종집단과의 교섭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종집단과의 불평등 관계에서 그 최종피전가자가 될 뿐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다른 인종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서 온다. 이런 의미에서 민중적인 삶의 요구는 구체적인 민족적 삶이고 다른 말로 이것은 민족적 생활양식위에서는 삶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종집단 상호간의 접촉이 일어나고 이것이 대립으로 바뀌자 민족적인 것, 민족적 생활양식은 역사발전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동인으로 제기 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민족간 또는 인종집단간의 대립은 민족적인 것을 역사발전의 부차적 발전 동인으로 규정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이 민족 또는 다른 인종집단에 의한 민족적 생활양식의 파괴 위험 앞에서 민족적인 것은 오늘을 사는 민중의 생활상의 주요 요구로 제기되는 것이다.<sup>11)</sup>

이 부분은 박현채가 중국의 사회성격론과 모택동의 모순론을 일반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 모순이 어떻게 주요모순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박현채는 사회구성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이해를 갖는다.

사회구성체는 한 사회의 경제적 기초인 일정한 생산양식이 자기에게 알맞는 상부구조를 가질 때 지배적인 생산양식에 따라 사회구성체 또는 경제구성체로 된

11) 박현채(1989),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서울, 돌베개), 18면

다. 따라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일정한 생산양식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사회의식의 부분을 그 생산양식의 상부구조라고 한다. 또 생산양식과 상부구조는 함께 되어 사회구성체 또는 사회체제라고 불리고 일정한 사회구성체에 특유한 생산관계를 그 경제적 토대라고 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체는 내부적으로 균형되고 조화된 하나의 전체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구성체는 기본적인 생산양식에 대응하는 아시아적·고대적·봉건적·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를 들 수 있고, 오늘에 있어서는 여기에 원시공동체와 사회주의적 구성체를 덧붙일 수 있다.<sup>12)</sup>

흥미로운 것은 박헌채가 이와 같은 사회구성체에 대한 고전적 이해를 따르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체와 사회성격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박헌채가 ‘북한’의 논의를 참조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사회성격’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논쟁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수용하는 것이다.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와 운동』<sup>13)</sup>의 엮은이는 “북한에서는 1930년대 이후는 식민지·반봉건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긴 하나 사회구성체로서는 명백히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라고 하고 있다(1950년대말 이래 통설화되어 있다). 이 점은 중국에서의 견해와 명백히 차이가 난다. 중국은 반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견지하면서(그것을 사회구성체의 차원으로 설정하든 하지 않는)중국사에 자본주의 사회구성체 개념이나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쓰고 있다. (중략)이에 대해 나는 「해방 전후 민족경제의 성격과 그 전개」에서 식민지하 한국사회의 성격을 사회구성체로서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라 규정하고 그것이 형성된 시기를 경제적 토대와 상층구조간의 관계에서 보면서 식민지경제의 확립기(1918년 또는 1924년)이후에서 보았다.<sup>14)</sup>

박헌채는 같은 글의 다른 각주에서 이에 대해 “이것은 엮은이의 단정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깊이 음미되어야 한다”고 동의 를 표하고 있다.<sup>15)</sup> 반식민지 중국에서 모택동은 반봉건/민주주의 모순과 반제/민족해방 모순을 근본 모순으로 보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요 모순이 전환됨을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민족모순이 주요모순으로 전환되는데, 그러나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민족모순은 다시 부차적 모순으로 전환

12) 박헌채(1989), 『민족경제론의 기초 이론』, 342~343면.

13) 임영태편(1985),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와 운동》(서울: 사계절). 이와 관련하여 이병천편(1989),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사회성격과시대구분문제』(서울:창작과비평사)를 참조 할 수 있다.

14) 박헌채(1989), 『민족경제론의 기초 이론』, 352면.

15) 박헌채(1989), 『민족경제론의 기초 이론』, 333면, 각주3.

된다는 것이다.<sup>16)</sup> 이는 반식민지라는 특수성, 즉 식민지와 비식민지의 공존으로 인해 경제제도 구성 및 상부구조(국가)차원에서 제국주의의 전일적 지배가 가능하지 않았던 배경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식민지 남한의 경우, 내전/분단을 거치면서, 남한 내부에서 반제/민족해방의 과제를 담지한 민족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sup>17)</sup> 이는 조선의 식민지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지만, 분단/반공주의 하에서 가상적 국민국가화/현대화, 그리고 신식민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해 半봉건/민주주의 모순을 심화하는 상황을 의미한다.<sup>18)</sup> 여기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식민지 시기 주요모순으로서의 민족모순이 ‘현대화/국가화’의 가상적 정상성에 의해 은폐되는 것이 신식민성이 인식론적 차원에 낳은 효과라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의 반식민지 상황은 식민지와 비식민지가 내부의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하지만, 분단체제하 신식민지 남한은 비식민지로서의 북조선<sup>19)</sup>과 상호작용관계를 거의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된다.

박헌채는 북조선의 논의를 원용하여 사회성격과 사회구성체를 구분함으로써 모택동의 사회성격론을 식민지조선/신식민지 남한의 상황에 적용하고 발전시켰다. 그런데 반식민지의 역동성에서 주어지는 사회구성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모택동과 중국혁명의 사상에서는 사회구성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반식민지 중국에서는 혁명적 정세 속에서 이론적 자원이 주체적으로 활용되는 독특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조선의 사상계와 박헌채는 이와 대비되는 식민지의 특정한 조건에 주목하여 사회구성체와 사회성격을 구별할 필요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자본주의 분석 또는 경제제도 분석과 같은 이론적 차원의 심화(사회구성체분석)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주요모순차원에서 사회성격 분석 아래 흡수·통합해야하는 독특한 지적인 과제를 감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천 그리고 사상의 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

16) 모택동(2001[1937],「모순론」, 『모택동선집1』(서울,범우사), 360~401면; 모택동(2001[1939]), 「중국혁명과중국공산당」, 『모택동선집2』(서울,범우사), 331~365면.

17) 혁명의 과제와 관련해서 볼 때, 제국주의에 의해 주요모순으로 전환된 민족모순을 다시 부차적 모순으로 전환하고, 이의 복벽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권역적/세계적 국제주의 기제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는 이른바 본래적 ‘기본모순’을 주체적으로 대면할 수 있게 된다.

18) “봉건”개념의 도입은 현대적 지식체제에서 “현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른바 ‘유럽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체로 제시된 ‘봉건제’의 실천적 용법은 오히려 역사적 다원성 아래 주어지는 본래적 ‘근본모순’을 의미하는 주체성의 표현이었던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성 격론에서 제시된 ‘(반)봉건’ 문제설정은 유럽적 현대성/유럽중심주의에 오히려 비판적이다.

19) 이 글은 분단 체제하 ‘두국가론’을 긍정하는 ‘조선’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중화인민공화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 또는 ‘조선’ 중심적인 호칭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분단 체제의 북측과 남측을 ‘북조선’과 ‘남한’으로 부르며, 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경제제도(우클라드) 구성이 양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영역이 작고, 반봉건적 영역이 크지만, 질적으로는 제국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적 지배가 작동한다고 봄으로써, 사회구성체로서는 자본주의로 규정하지만, 그러한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는 궁극적으로 제국주의/민족해방이라는 주요 모순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사회성격으로는 ‘식민지·반봉건’으로 본다. 그리고 분단이후 신식민지 남한에 대해서, 박현채는 경제제도 구성에서 양적으로 자본주의가 크고, 반봉건적 영역이 작고, 질적으로는 여전히 제국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적 지배가 작동하며, 따라서 사회구성체로서는 여전히 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사회성격에서는 주요 모순에 따라 신식민지/반봉건으로 규정짓는다. 한편, 사회구성체적 차원에서 단계설정을 하여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라는 판단을 한다. 사회성격으로서 ‘반봉건’은 기본적으로 반제국주의적인 주체성을 전제로 하여 역사적으로 주어진 내부 모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설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신식민지하에서의 이식된 ‘자유주의적민주’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현채의 ‘민주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중국혁명과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을 계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내부의 기본 모순을 역사적 종축으로 삼아, 제국주의/자본주의가 사회내부에 초래한 왜곡된 식민지/신식민지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현채는 내재화된 식민성으로서의 신식민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특히 국가 독점자본주의라는 사회구성체적 단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했고, 민족 모순이 주요 모순인 이상 신식민주의적 자본주의의 효과로서 지속심화 되어온 ‘반봉건성’이라는 특수성을 통해서 사회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사회구성체 분석과 같은 이론적인 분석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1960년대부터 이미 박현채는 ‘민족경제’라는 사상적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20세기 후반기의 박현채는 모택동과 중국혁명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사회성격론’을 신식민지 남한의 상황에 적용 및 발전시켜오고 있었고, 1990년의 시점에서 1980년의 광주에 대한 학술계의 해석이 갖는 ‘탈역사화’를 비판할 수 있었다. 박현채의 이와 같은 사회성격론은 ‘민족경제론’으로 집약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민족경제론’은 경제분야를 넘어 하나의 ‘사상’ 체계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특히, 거의 주목 받지 못했던 1989년의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돌베개)은 그가 학술사상계로부터 주변화 되고 있던 시점에 미래를 위해 남긴 소중한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박현채의 이 저서는 기본적으로 주체적인 ‘민족’담론 및 민족주의론을 전개하고 있고, 그의 표현을 따르

면 ‘민족경제’는 ‘민족주의 운동’의 경제적 기초의 의미를 갖는다. 이어서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그가 전개했던 ‘민족주의론’이 갖는 지성사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20세기 후반기 남한의 역사적 경험을 재평가하고 재역사화하기 위한 기본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3. 박헌채의 민족주의론 : 탈식민주의 사상으로서 민족경제론

민족주의는 단순히 시민적 민족주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계층의 대외적 관계에서의 요구이고 그런 뜻에서 계급적인 것의 민족적 프리즘을 통한 표현으로 되는 바,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 발전의 경우 (중략)자본주의 이후에는 이것을 계급적인 것의 민족적 프리즘을 통한 표현으로 하게 한다. 그것은 민족주의의 추상으로의 민족주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계층의 민족적이라는 것에 의해 조정된 요구를 대외적으로 표현한 것 이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는 민족적 생활양식에서 비롯하여 민족적 이익을 둘러싼 다양한 계급적 대응의 표현이다.<sup>20)</sup>

박헌채에게 민족적인 것은 역사적인 것으로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것이다. 이는 그가 세계를 다원주의적 구성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헌채는 민족주의 인식의 곤란을 복잡성과 독자성에서 찾는다. 우선 민족주의가 민족간 관계, 계급관계, 사회변혁운동(특히 민족해방운동)에 관련되고, 동시에 순수한 형태가 아니라 정치, 법률, 종교, 사회 등의 영역과 얽혀 있음에서 복잡성을 설명한다. 이어서 민족적인 것의 독자성을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

민족적인 것은 역사적인 한 시대에서 부차적인 것 이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역사적 상황에서 기본적 모순을 추상화한 채, 주요모순으로 제기됨으로써 문제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민족적인 것이 그 계승성 때문에 사회적 조직의 여러 부문간의 상호관계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 독자성을 지님으로써 이것 또한 문제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민족관계의 총체는 어느 정도 상대적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인종공동체가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옮겨갈 때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의 역사적 계승으로서 나타난다. 새로운 민족의 제 관계들은 먼 과거의 물질적·사회적 기반이나 그것이 낳은 원인의 흔적을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존된 앞선 형태의 민족적 관계가 갖고 있었던 여러 특징은 사회의 인종공동체의 운동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소와 결합한다. 민족적 관계의 총체가 일상의 의

20) 박헌채(1989),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47면.

식, 이론적 수준에서 반영되는 것도 계승성이 지니는 특질이다. 민족적 관계의 많은 측면은 사회의 안에서 유지될 뿐 아니라 물질적 실천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전쟁과 같은 심한 사회적 위기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뚜렷해져서 그 구체적 결과가 민족적 관계, 민족적 대립, 민족적 이해관계 위에 직접 반영되기도 한다.<sup>21)</sup>

이와 같은 ‘민족적인 것’에 대한 박현채의 인식은 공교롭게도 전후 일본 지성사에서 진행된 성찰과 공명하고 있다. 특히, 다케우치요시미(竹内好, 1910~1977)에서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1932~2010)로 이어지는 흐름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논의는 ‘아시아를 방법으로’, ‘중국을 방법으로’와 같은 권역적 상호참조를 통한 지식의 식민성 극복의 지향을 밝힌 것 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존재론적 사유로서 다케우치요시미는 ‘전통’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이를 발전·심화시킨 미조구치 유조는 ‘기체’라는 범주를 제시한 바 있다. 다케우치요시미는 「국민문학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단절을 이루려면 그 자체로서는 단절할 수 없는 전통이 필요하다. 전통은 혁신이 자신을 실현하는 장이다. 국민문학 실현의 장이다”; “개인만을 추상해서 뽑아내는 문학이라면 신분제와의 싸움을 피해서 생겨나는 것이니 그 자체가 특권적 의식의 산물이다”; “문학에서 식민지성은 민족과 매개되지 않는 세계문학의 표상이 얼마나 횡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처럼 그 표상이 완벽하게 투영되는 것은 지금이 완전한 식민지임을 보여준다”라고 일본의 문학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sup>22)</sup> 이를 계승한 미조구치 유조는 다음과 같이 식민주의의 인식론적 곤란함을 돌파하기 위한 존재론적 사유를 전개한다.

물론 근대 일본의 아시아·아프리카 諸國에 대한 선진·우월의식은 각 민족의 문화를 각각의 고유하거나 내재된 가치기준에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그것이 유럽 근대를 보편적인 가치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일원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서 반역사적이면서 부당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근대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전면 부정해버리는 것 또한 아주 반역사적이며, 이러한 반 혹은 물역사적인 관점으로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각각의 근대가 각각의 전근대를 어떻게 기체로 삼고, 그것을 기체로 삼은 것에 의해 어떻게-유럽과의 대비에서도-상대적으로 독자적인지 (중략)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23)</sup>

중국혁명과 모택동 사상의 영향하에 남한의 신식민지성을 분석해왔던 박현채는

21) 박현채(1989), 『민족경제론의기초이론』, 92~93면

22) 다케우치요시미(2011[1951]), 「국민문학의문제점」, 『다케우치요시미선집1』, 마루카와데쓰시·스즈키마사히 사역음, 윤여일 옮김 (서울: 휴머니티스), 250~253면.

23) 미조구치유조(2016), 《방법으로서의중국》 (부산: 산지니), 14면.

1980년대 말 ‘민족’과 ‘민족주의’에 주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론적 사유로 나아가면서, 전후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권역적 탈식민주의 지식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가능성을 보여주고, 동시에 일본에서 진행된 유럽중심주의 비판과 방법론적인 상호참조 가능성을 열게 된다.

특히, 박현채의 ‘민족주의론’이 ‘민족경제론’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민족경제론’은 ‘민족주의론’과 함께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우선, 박현채는 기존의 민족주의 이론을 넘어 계급적인 것의 반영으로서 ‘넓은 의미의 민족주의 개념의 정립’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넓은 의미의 민족주의 개념의 정립은 역사적 현상인 지난날의 민족주의 이해의 혼미를 극복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를 닮은 제3세계에 주어진 사회현상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주의를 상대적 독자성을 지니고 계승되는 민족주의적인 것이 한 사회의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실현되는 계급적인 반영으로 보자는 것이다.<sup>24)</sup>

이와 같이 박현채는 ‘민족적인 것’을 하나의 역사적 종축으로 보면서, 이것이 사회조직의 여러 부문과의 관계 및 민족간 관계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사상체계 전반에서 그는 민족적인 것과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이를 하나의 ‘구심’으로 삼아 주요모순을 파악하고 ‘실천’의 방향을 제출하고자 했다.

박현채는 민족주의 운동의 경제적 기초로서 ‘민족경제’론을 통해 (신)식민지 경제구조를 인식하고자 했는데, 1980년대의 지성사적 정세는 오히려 그의 논의를 주변화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현채는 ‘문학’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직접적으로 문학평론가이자 민족문학론자였던 백낙청과 ‘민중문학’ 논쟁 및 제3세계/분단체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sup>25)</sup> 이는 ‘식민성’의 연속으로서의 ‘신식민성’에 대한 심화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먼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적 사유의 핵심을 소개한다.

24) 박현채(1989), 『민족경제론의기초이론』, 94면.

25) 1983~1985년즈음진행된들사이의논쟁에서 ‘민족=민중’의입론을건지해왔던박현채는처음에 ‘문학’과 ‘경제’의관계와관련하여 ‘실천’과 ‘이론’의관계로보면서백낙청의 ‘문학일원론’을비판했고,이어서진행된 ‘제3세계/분단체제’ 관련논쟁은백낙청 ‘민족문학론’의사상적기반이었던 ‘제3세계론’, ‘분단체제론’에대해문제를제기했다.그런데이어서소개할것처럼, 흥미롭게도백낙청은 ‘민족문학론’의개념정립에조용범의저작(박현채의차명저작)을원용했는데, 1980년대이와같은 ‘혼미’한상황이박현채로하여금 ‘민족’ 및 ‘민족주의’에대한보다깊은사유로나아가도록했을것이다. 延光錫 (2018), 〈民族文學의民衆性, 還是民衆文學的民族性? : 試論1980年代南韓民族民衆文學論戰〉, 《亞際社會的文學論戰: 民族文學與鄉土文學》, 2018年10月4日, 清華大學人社院C306 (未刊稿)。

사회성격과 사회구성체를 구분했던 박헌채의 사유는 민족경제와 국민경제의 괴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식민지하 반봉건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된다.

국민경제와 민족경제의 괴리는 지역적 개념으로서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제화가 식민지 피억압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파괴와 빈곤으로 됨으로써 식민지 피억압민족의 경제적 이해와 한 사회 또는 국민경제의 상황이 서로 합치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식민지·반식민지 경제적 상황을 비추어보는 것으로써 경제제량이나 선진자본주의제국 일반의 경우에서 정립된 이론이 아닌 이들 이론을 보완하여 식민지반식민지 피억압민족의 주체적인 민족주의적 평가를 가능케 하는 이론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요구는 한국자본주의에서 일제 식민통치하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평가문제 그리고 오늘날의 비자립적인 공업화 과정에 대한 민족주체적 평가에서 제기되고 있다.<sup>26)</sup>

그것은 그들의 기본적 입장[국민경제 결여론, 근대화론, 절충론]이 선진자본주의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정립된 개념 위에 서 있고 일반이론의 특수한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상황은 물론 전전의 구식민지 지배하의 상황을 식민지·반식민지 억압하에 있었던 피압박민족의 주체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데는 일반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적 수단이 주어 져야 한다.<sup>27)</sup>

이와 같은 민족경제는 민족주의의 경제적 기초가 된다. 그리고 경제제도적 구성에서 보면 식민지·반식민지 종속하 민족경제는 전근대적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헌채는 이와 같은 식민지·반식민지종속하의 민족경제를 하나의 동심원 이미지로 제시한다.

본래적인 민족경제와 부차적인 민족경제는 그 구조에 있어서 부차적인 민족경제가 본래적인 민족경제에로의 강한 지향을 갖는 데서 동심원적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곧 부차적인 민족경제 영역은 본래적인(따라서 그것은 기본적인)민족경제 왜곡의 소산이며 그것이 본래적이고 기본적인 민족경제의

26) 박헌채(1989), 『민족경제론의기초이론』, 20~21면

27) 박헌채(1989), 『민족경제론의기초이론』, 22면.

이상적인 완성을 의도하여 민족적 생활양식의 회복을 지향한다는 데서 동심원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의 두 영역은 때로는 그 경제제도적 성격에서 다른 모순을 가지면서도 민족적 모순에 의해 하나로 되고, 특히 부차적인 민족경제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민족경제 밖에 서서 민족구성원의 생활상의 기본모순이 민족적 모순과 일치함으로써 더욱 강한 민족주의적 지향을 가진다. 말하자면 민족주의는 두 개의 동심원적 구성으로 되는 민족경제에 자기 기반을 가진다는 것이다.<sup>28)</sup>

한편, 문학평론가 백낙청은 1974년 「민족문학개념의정립을위하여」라는 글에서 민족경제 개념을 참조하여 민족문학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가 참조하는 민족경제 개념은 조용범의 『후진국경제론』(1973)에서 인용되었는데, 이 책은 사실 박현채의 차명저작으로 알려져 있다.<sup>29)</sup> 백낙청이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개념 지으려는 민족경제는 범세계적인 자본운동의 과정에서 한민족이 민족적 순수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에 의거 생활하는 민족집단의 생활기반이다. 이것은 순수경제적인 자본운동의 측면에서는 국민경제에 포괄되는 하위 개념이나 민족주체적인 관점에서는 국민경제보다 높은 상위 개념이다.<sup>30)</sup>

백낙청은 민족경제와 국민경제를 구분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민족’ 개념을 재전유하여 민족문학개념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백낙청의 ‘민족’ 개념은 박현채가 주목했던 ‘본래적’ 영역과 ‘부차적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리얼리즘으로 무장한 민족문학은 ‘민족문화’의 ‘부차적영역’에 관한 문학적 실천에 제한 되고, ‘부차적영역’이 갖는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문학평론/이론의 우위가 관철되게 되며, ‘본래적’ 영역의 민중문화(문학)과 모순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보편/특수적관계 구도에 놓인 ‘민족문학’의 주체는 이후 ‘민족’을 폐기하고, ‘한국’이라는 국가주의적 개념을 수용하게 된다.<sup>31)</sup>

28) 박현채(1989), 『민족경제론의기초이론』, 30면.

29) 『후진국경제론』의 실제 저자와 관련해서는 임동규(2006), 「아!박현채」, 『아!박현채』(서울:해밀), 265면참조.

30) 조용범(1973), 『후진국경제론』(서울:박영사), 167면; 백낙청(1974), 「민족문학 이념의 신전개」, 『월간중앙』, 1974. 7.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창작과비평사, 1978)에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수록).

31) ‘자유실천문인협의회’(1974~1987), ‘민족문학작가회의’(1987~2007), ‘한국작가회의’(2007~)로 이어지는 문학운동의 역사적 궤적은 ‘징후적독해’의 대상이 된다. “민족문학은 기본적으로 사상을 기초로 한 문학실천이었는데, 사상의 전환과 본래의 민족인식이 서로 모순되고, 결국 반제국주의/탈식민적의미의 ‘민족’이 국가주의적 범주인 ‘한국’으로 대체되었다”, 延光錫(2018), 〈民族文學의民衆性, 還是民衆文學的民族性? : 試論1980年代南韓民族民衆文學論戰〉, 《亞際社會的文學論戰: 民族文學與鄉土文學》, 2018年10月4日, 清華大學人社院C306(未刊稿).

박현채는 상대적으로 ‘국민경제’ 비판의 ‘형식논리’가 갖는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그가 ‘부차적영역’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른바 ‘자본주의/정치경제학 비판’)을 절대화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본래적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민족경제론의 한계를 인정하게 했다.

#### 4. 박현채의 곤혹과 열린 가능성

[민족경제론의 약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박현채: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국민경제속에서 민족경제라는 것을 구체적인 양태로 추출할 수 없다는 점이지요... 현실적으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국민경제의 안에서 민족경제적인 기반을 추출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sup>32)</sup>

박현채가 곤혹스러움을 표명했던 ‘본래적 민족경제’를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함은 사실상 제3세계 상호 참조의 길을 열지 못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백낙청과의 제3세계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박현채는 제3세계에 대한 본질화를 경계하면서도, 남한/한반도 분단체제를 특수화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베트남과 한반도 상황을 상호 참조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었다.<sup>33)</sup> 본래적 민족경제는 상호참조를 통해 새롭게 의미화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박현채의 고뇌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 ‘아시아를 방법으로’라는 탈식민주의적 성찰에 의해 진정으로 계승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sup>34)</sup>

그러나 반공주의적 제3세계 현실속에서 ‘공산주의’는 ‘민족해방’으로 표현되었고, 신식민지/식민지간의 상호참조는 억압되었다. 사회성격론과 관련해서 볼 때, 박현채는 사회구성체론에서 본질/주요모순을 찾는 방식이 역사성의 소거를 전제로 하는 경향을 노정함에 대해 비판했는데, 훗날 논쟁의 전개를 통해서 볼 때, 이는 사회인식의 평면적 복잡화라는 ‘모순론의 철학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sup>35)</sup>

32) 정민(1987), 「대담: 민족경제론 - 민족민주운동의 경제적 기초를 해명한다」, 『현단계제1집』, 한울, 정민, pp.391~392.

33) “베트남과 독일이 한반도에 대한 참조점이 될 가능성을 이중적으로 부정하면서, 분단체제론은 ‘한반도 특수성’을 통해 ‘세계변혁’에 공헌할 욕망을 드러낸다. 주목 할 것은, 백낙청이 ‘제3세계’ 또는 ‘동아시아’를 참조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과, 종속이론과 백낙청의 제3세계론을 비판했던 박현채가 베트남의 역사를 조선반도와 유사한 권역적 경험으로 참조하는 것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는 점이다. 박현채는 비록 종속이론과 제3세계론을 매우 경계했고, 반공주의 체제의 한계속에서 직접적으로 제3세계 담론을 전개할 수 없었지만, 남한을 여전히 신식민지로 인식했기 때문에 제3세계적 사상실천의 정신을 견지할 수 있었다”, 延光錫 (2018), 같은글

34) 이 문제의식은 동아시아 권역에서 다케우치요시미(1910~1977), 미조구치유조(1932~2010)를 거쳐 진광흥(陳光興, 1957~)으로 계승되고 있다. 진광흥(陳光興)의 작업과 관련하여 Chen, Kuan-hsing (2010), *Asia as Method: Toward Deimperi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를 참조할 수 있다. 중문판은 영문판과 같은 구성이며, 한국어판 천광싱(2003), 『제국의눈』, 백지운외역 (파주:창작과비평)은 구성이 일부 다르다.

박현채는 보편적인 것의 복합체인 ‘사회구성체론’에서 주체적인 실천론/모순론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백낙청의 제3세계론/분단체제론과 같은 ‘특수화’의 노선을 경계하기도 했다. 결국 인식대상으로서의 주체성은 보편/특수를 넘어선 인식론적 참조 관계의 다원화를 지향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sup>36)</sup> 즉,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은 인식론적 탈식민주의의 과제를 함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백낙청과의 민중문학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박현채의 곤혹은 ‘경제’ 뿐만 아니라 ‘문학’까지 확장 되었는데, 이는 그의 사상이 갖는 ‘실천론’적 함의를 지시하고 있다. 남한의 당대 역사에서 민족 경제론과 민족문학론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사상운동의 주요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상운동은 민족해방운동(민족주의운동)에서 대중과 지식을 매개하는 장역이었다. 내전/분단 이후의 새로운 조건에서 이와같은 사상운동의 역할은 다원적 세계구성하의 민족주의 운동의 경제적기초(인식론적 기초)와 문화적기초(실천론적 기초)를 주체적으로 밝히는 것었고, 그 단초는 박현채의 사상적 실천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었다.

## 5. 결어

이 글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박현채의 사상실천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민할 때, 사상의 매개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민족경제론에서 본래적인 민족경제와 부차적인 민족경제를 동심원 구조로 파악한 것은 본래적인 민족경제의 민중성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자본주의에 의한 왜곡의 산물인 부차적인 민족경제 영역에 대한 이론적 인식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를 민족문화론에 적용할 경우, 본래적인 민족문화와 부차적인 민족문화를 동심원 구조로 파악하고, 민족문화 운동은 본래적인민족문화의 민중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왜곡의 산물로서 부차적인 민족문화에 대한 “문예”적 실천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본래적인민족문화는 문자적 미디어를 넘어서는 민중의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포괄한다. 민중문학은 이러한 문화적 실천의 부분이다. 민족경제론과 민족문학론을 사상적 장역에서 결합하는 과제의 복잡성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sup>37)</sup>

35) 1980년대중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알튀세르(그리고발리바르) 철학과 관련한 논의는 이러한 경향을 표현한다.

36) Chen, Kuan-hsing (2010), *Asia as Method: Toward Deimperi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37) 백낙청과의 논쟁중에 제시된 박현채의 “문학과경제”의 관계에 대한 논술은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인간의 복권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이 역사 및 모든 다른 과학에 있어서도 ‘우연’의 퇴적 밑에서 필연적 법칙을 발견하는데 있는 이상 그것은 지도와 같이 메마른



끝으로 필자가 이 글에 부여하는 의의를 밝힌다. 이 글은 1980년대 중후반 어느 시점부터 더이상 주목 받지 못했거나, 또는 읽히지 못했고, 그 이후 ‘낡은 것’으로 치부되어 망각되었던 우리 안의 사상가 박현채의 글들을 다시 소환하여 동아시아 권역의 사상사적 맥락에 위치시켜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지적 구도를 강화하는 소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 글의 논의는 박현채를 단순히 ‘복고풍’의 소재로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 이 글은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 사상과 이론이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지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끊임 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지식의 탈실천성과 무능력 상황에 대해 ‘박현채’라는 스승이자 선배를 경유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학술체제와 지식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사상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경과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은 박현채가 남긴 지식사상적 성과가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여 졌다.

#### [참고문헌 생략]

---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있어서 인간의 복권에 보다 풍요로움을 주고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인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이 제시되기에 이른다. 그것은 문학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표현 즉 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실현을 의도하는 것이라는 데서 온다”, 박현채(1984), 「문학과 경제 - 보다 근원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실천문학』, 1984년제5호, 425면.

The Genealogy of East-Asian Decolonialism  
and Park Hyun-Chae's Theory of Nationalism  
: To Find Theoretical Resources for Rehistoricizing May 18

Yeon Gwang Seok

**Abstract**

The movie 《Taxi Driver》 and 《1987》 which were released in 2017 amidst the transformation of the situation created by the impeachment and early elec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not only had a remarkable commercial performance, but also give us what to think about how to 'rehistoricize' the history of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t the present time toward a new centur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ssue of 'dehistoricization' in which the two films are open, and takes up the issue of how to face the history of South Korea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that is, 'rehistoricization'. Specifically, this issue setting is to set the context of 'postcolonialism' as the one that carries the history of East Asia and the third world. For the problem posing, there should be carried on one task that may be somewhat unfamiliar and 'dangerous', that is, restructuring the ideological historical genealogy of East Asian 'postcolonialism'.

In the process, by appropriating the context of regional ideology in East Asia, leading to Mao Zedong (1893~1976), Takeuchi Yoshimi (竹内好, 1910~1977) and Mizoguchi Yuzo (溝口雄三, 1932~2010),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ism theory', 'national economic theory' and 'social character theory' presented in Park Hyun-chae's thought restore their names and positions, and ultimately to present a discussion topic to overcome the intellectual crisis of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 1. Introduction: "new colonization/separation system" and criticism of dehistoricization

In the case of Germany in the post-war division countries, or in the case of Korea, military occupation is given as a predecessor, and there is a type of internal contradiction in one society. In contrast, in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the civil war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contradiction of one society became more intense than in the course of the national liberation war, and this was not accomplished by external pressure, and it was only in the state of division. However, in any case, as the ideological problem is involved,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in which the class confrontation as the manifestation of the internal contradiction of a society is foreignized is emphasized as if it came from external conditions.

Turning the responsibility of division into external pressure and foreignizing the ideology is an important basis for establishing one of these divided countries as authentic according to national demand and the other as non-orthodox. To view the ideological basis as being forced or imported from outside instead of looking at the contradictory relations in the social formation of a society, it is necessary to justify one nation and one nation two states by mutualizing one side to the orthodoxy of national history. And in the process, the state power legitimizes itself in the name of authentic national history. But it only reveals unilateral class biases by denying the pluralistic class hierarchy that constitutes a society under the name of nation or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ent inheritance, South Korean thinker Park Hyun-chae (1934 ~1995) sees that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under the division and the accompanying discourse on the recognition of the external division resulted in the error of denying the 'pluralism' of class hierarchy demands.

In keeping with his viewpoint, I released critical analysis on the implications of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s, which led to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regime change in 2017 in the comments on current events titled 「South Korean Neocolonial/Division Regime and Impossibility of ‘Lesson on Democracy’」 (Yeon Gwang-seok, 2017). In shor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dissolve th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December 2014 and the impeachment for Park Geun-hye in March 2017 were both to maintain/protect the new colonial/division regime. If the former is an anti-communist ruling on 'the left', the latter is a liberal judgment on 'the right' that deviated from liberal democracy.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that caused the ruling in 2017 were based on 'virtual subjectification' of some kind through 'the square'. And 'the subjectivization of the public (citizen)' was based on the erasure of historicity, 'neocolonial'

A concrete example of such a situation is the two films 《Taxi Driver》 and 《1987》 that I want to start the discussion today. Both films were produced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above and were released in 2017. 《Taxi Driver》 was released in August and 《1987》 in December. They were 'commercially' succeeded enough to mobilize more than 12 million and 7 million spectators respectively in Korea alone. It is notable that unlike other mainstream commercial films, these two films are noteworthy in their commercial (and political) success by actively utilizing controversial political sanctions in recent 'history' such as the 1980 Gwangju and the June 1987 uprising. In particular, the success of these films is not irrelevant to the political sentiment of 2017 as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in which the film is set and public sentiment as a consumer, as it is the main news of the visit of the ruling party politicians including President Moon Jae-in.

The films 《Taxi Driver》 and 《1987》 are making history as a material, but they are reconstructing it as 'liberal democracy'. Especially, the narrative about the historical viewpoint of 1980 and 1987 follows the 'anti-communist' liberal democracy, concealing and distorting the history with a constant de-context. Specifically, the subjects of sacrifice and resistance in the 1980s and 1987s appearing in the film are all depoliticized and reproduced as images of "guiltless and innocent" victims excluding

communism/nationalism. And the 'state' that suppressed it becomes 'demonized' as an abnormal violent group. But this contrast is to replace the cause of history and social contradiction with 'moral' or 'good/evil' composition. So, unlike actual history, college students and citizens in 《Taxi Driver》 in 1980 and college students in 《1987》 (Park Jong-chul and Lee Han-yeol) are all innocent victims 'without history' and 'without ideology'. The military dictatorship that suppressed them was portrayed as a "demonized" image like "Namyongdong Anti-Communist Branch" 《1987》 and undercover police officers in 《Taxi Driver》. And what is remarkable is that both films conceal their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as much as possible,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between 《The Newsweek》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ess of the West German press is only a device for positively describing the link with Western liberalism. Indeed, the discourse of 'nation', which carried the history of colonialism and the reality of the new colonialism, and dominated the student movement and the national democratic movement in the 1980s, was abolished in both films and 'America' and the West were the guardians of 'liberal democracy'.

Through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neocolonial/division regime', I saw 1980s~early 1990s as a period when the new colonialism consolidated through the so-called division was transformed into 'normality' through virtual subjectivity (liberal political system, capitalist growth, joining the United Nations). There was first an intellectual transformation that adapted to this transformation, and through the 1990s and 2000s, this intellectual transformation seems to complete the task of dehistoricizing and consolidating the public foundations.

The dehistoricization of the films 《Taxi Driver》 and 《1987》 represents a section of such a popular foundation.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all Park Hyun-chaе, an unprecedented thinker who positively tackled the transformation of intellectual history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in terms of "criticism of dehistoricization," and his critical consciousness of nationalism theory and social character theory/ social formation theory.

## 2. The problem posing of East Asian post-colonialism: semi-colonial, colonial, neocolonial social character

But where would the 1980s of 5.18 be in history after liberation? History is not just a path of progress. It has repeated trial and error. Who says 1980 is ahead of 1950? But everyone here says that 1980 is ahead of 1950 and 1940.

Think of 1945, 1950. It never falls behind Gwangju in 1980. Why do we remove it from our history and emphasize 1980? This is also wrong. And the potential in history is mentioned and appreciated. But where is the history without potential? When the potential is turned into a realistic possibility, it is then possible to talk about the possibility. That is why it is not right to misrepresent the realistic evaluation of what is being said by its potential as its name

This is a statement made by Park Hyun-chaе at the general discussion of May 1990, <The National Conference of the 10th Anniversary of May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held in May 1990. At that time, Park Hyun-chaе's language was hardly communicated at the conference held by the so-called intellectuals of South Korea's progressive tendency. He even became the object of ridicule. According to the transcript that time, he was regarded as unaware of the progress and change of reality, still bound to the past history, and even his personality and attitude as old-fashioned intellectual, 'not democratic'.

As can be seen in the films 《Taxi Driver》 and 《1987》, the disintegration of intellectual history in 1990 has gained a popular foundation over 30 years. At the time of 1990, Park Hyun-chaе's appeal was about historical break and forgetfulness of thought. What did he mean by "1940, 1945, 1950"? I believe that the foundation on which Park Hyun Chae was able to raise the issue of 'dehistoricization' at the time of 1990 was in the ideological tradition he inherited. In the following, we can review the social formation theory/social character theory that he posed. First, for the

contextualization of the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following insightful analysis regarding the concept of 'nation'.

The emergence of the expression of a nation is the product of modern world history. In the context of the Third World, East Asia and China, this can not be separated from imperialism and colonialism.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wa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colonialists were trying to escape the fetters of imperialism through the form of nation-state building. This was a true historical process. Of course, the nationalism-driven anticolonial movement was converted to ethnic nationalism within the state after the independent foundation, became a mobilization strategy for regime acquisition, had the ideology and intelligence world very alert, even made people afraid of thinking about national issue.

Ethnic nationalism is regarded as a synonym of 'nationalism', which is criticized as 'ethnic' and 'nation' are identified by the medium of the universal language 'English' *nation* in general. However, as Jin Gwang-heung (1957~) pointed out, at least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region, the 'nation' has been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nd its determination that it results in 'nationality /national character' in conformity with Western modernity denies the openness of history, which is only an afterthought interpretation. Especially, in the neocolonial South Korea, Korean peninsula, where the formation of the post-colonial state has been frustrated due to the division, the 'nation' is still an open concept and has continued its vitality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after a certain incubation period, it has re-emerged as a category that embodies historic criticism through 'national literature' and 'national economy' in the 1970s.

Park Hyun-chae who was originally a key propon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ory' sparked a debate on the 'social formation' that captured the South Korean ideological world in his writi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Developmental Stage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1)- Criticism of Subordination Theories on the Character of Korean Capitalism』 shown in 『Creation and Criticism (called Changjakgwa Bipyeong in Korean)』 in 1985. The debate has been criticized by Park Hyun-chaе as theoreticalism in the course of its deepening, but Park Hyun-chaе was rather diverted from the controversy, and in 1989, he organized his thought by publishing 『The Basic Theory of National Economy Theory』 which was rarely noticed (Dolbegae, 1989) .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Basic Theory of National Economy Theory』 , let's look at Park Hyun-chaе's 'national economy theory' and 'social character theory'. His ideas and theories, of course, inherited the ideological traditions of Mao Zedong and the Chinese Revolution.,

The fact that the people are more national in history means that the people are not to be a party to other ethnic groups and not only become the final pianist in the unequal relations with other ethnic groups, but also can not accept the culture of other ethnic groups that are abstract and abstract. In this sense, the demand for a popular life is a specific national life, in other words it can be a demand for life on the national lifestyle.

However, when mutual contact between ethnic groups occurs and this is turned into a confrontation, the ethnic and national lifestyle is raised as another major driver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this sens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ethnic groups or racial groups is an opportunity to define ethnic as a secondary development driver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the face of the risk of destruction of ethnic lifestyles by foreign or other ethnic groups, ethnicity is raised as a major demand in the lives of today's people

This part is what Park Hyun-chaе generalized the Chinese social character theory and Mao Zedong's contradiction. In other words, it explains how national contradictions can be transformed into a major contradiction. On



the other hand, Park Hyun-chae has the following general understanding of social formation.

Social formation becomes social or economic formation according to the dominant mode of production when a certain mode of production, which is the economic basis of a society, has an appropriate superstructure. Therefore, it can be said as follows. The part of the social consciousness necessary for the existence of a certain mode of production is called the superstructure of the mode of production. And, the mode of production and the superstructure together are called the social formation or the social system, and the production relationship peculiar to a certain social formation is called the economic basis. Therefore, the social formation is a historical fact that exists as one whole in a balance and harmony internally and objectively. The social formation corresponding to the historical era is an Asian, ancient, feudal, capitalist social formation corresponding to the basic mode of production, and today it can be added with a primitive community and a socialist formation.

What is interesting is that Park Hyun-chae follows the classical understanding of social formation and at the same time strictly distinguishes between social formation and social character, which is related to referring to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 by Park Hyun-chae, and accepts North Korea's estimation of the debate in China, which is the origin of 'social character '.

The compiler of 『Korean Society and Movement in the Colonial Age』 says, "Since the 1930s, North Korea has had a special characteristic of colonialism and anti-imperialism, but it is clearly called a capitalist society constitution (since the end of the 1950s)

"In North Korea, since the 1930s, North Korea ha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colonialism and anti-imperialism, but it is clearly

referred to as a capitalist social formation (orthodoxy since the end of the 1950s). This poin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view in China. China does not set the concept or stage of capitalist social formation in Chinese history while maintaining its anti-colonial and anti-imperialist social theory (whether set as social formation or not)". (...) In this regard, I define the character of Korean society as a social formation as a capitalist social formation in the 「Character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and look at the period of its formati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foundation and the superstructure, (1918 or 1924) afterwards.

Park Hyun-chaе agrees in another footnote of the same article, "This should be accepted and appreciated more meaningfully regardless of the willingness of the compiler."

In semi-colonial China, Mao Zedong regarded the contradictions of anti-imperialism/democracy and anti-imperialism/national liberation as fundamental contradictions, recognized that the main contradictions were shifted according to the situational changes. In other words, imperialist aggression transforms national contradiction into a major contradiction, but national contradiction is again transformed into secondary contradic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al changes. This was possible with the background in which the holistic domination of imperialism was not available on the formation of the economic system and the superstructure (state) because of the distinct character of the anti-colonial system, that is, the coexistence of colonies and non-coloni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neocolonial South Korea, over the civil war/division, the national contradiction that imposes the task of anti-colonialism/national liberation in the South is settled as a major contradiction.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colonial situation of Joseon, but it implies a situation of deepening the semi-feudal /democratic contradiction due to hypothetical nation-state/modernization and neo-colonial capitalism

under the division/anti-communism. What needs to be emphasized here is that the national contradiction as a major contradiction in the colonial period is concealed by the virtual normality of 'modernization/nationalization', which is the effect of the neocolonialism on the epistemological level. Moreover, while the semi-colonial situation in China forms internal interactions between the colony and the non-colony, neocolonial South Korea under the divided system rarely forms interactions with non-colonial North Korea, and rather isolated

Park Hyun-chae applied Mao's social character theory to the situation of the colonial Joseon/neocolonial South Korea by distinguishing the social formation from the social character and developed by using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 However,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social formation given by the dynamics of anti-colonialism, the rules concerning the social formation was not clearly presented in the ideas of Mao Zedong and the Chinese Revolution. In anti-colonial China, it seems that the unique mechanism in which the theoretical resources used in the revolutionary situation were in operation. The ideological world of North Korea and Park Hyun-chae paid attention to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colonies and discovered the necessity to distinguish between social formation and social character. Such a necessity demands a deepening of the theoretical dimension (analysis of social formation) such as analysis of capitalism or economic system, but it carries out a unique intellectual task to absorb and integrate it under the social character analysis in the main contradiction dimension. Theref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ory, practice, and thought become very

In this contex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ormation of the economic system (UCLAUD) in the colonial Joseon shows the small capitalist domain and large semi-feudal domain quantitatively, but Capitalism operated by imperialist capitalist rule qualitatively, and such a capitalist social formation is ultimately regulated by the main contradictions of imperialism/national liberation, which is regarded as 'colonialism and semi-feudalism' in its social nature. As for the neocolonial South Korea after the division, Park

Hyun-chae defines it as capitalism in the social formation, stating that the large capitalism and small semi-feudal domain quantitatively, and still capitalism operated by imperialism qualitatively. However, he defined it as the neo-colony/semi-feudalism in the social character according to the main contradictions, while he judged it as a neo-colonial monopoly capitalism in terms of social formation stage. As a social character, 'semi-feudalism' is basically a setup to overcome the internal contradictions given historically based on anti-imperialist subjectivity and to establish 'democracy', which means it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liberal democracy' implanted under neo-colony. In this context, Park Hyun-chae's 'democracy' theory basically inherits the 'Chinese democracy theory' of the Chinese revolution and Mao. Specifically, this means overcoming the distorted colonial neocolonial situation that imperialism/capitalism has caused within society, using the underlying internal contradiction as a historical vertical axis.

In order to better grasp the neo-colonialism as an internalized colonialism, Park Hyun-chae suggested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social formational level of capitalism, especially monopoly capitalism, and though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social character through the specialty of semi-feudalism which had been continued as the effect of neocolonial capitalism showing the national contradiction as a major contradiction. Such specialty given historically could not be grasped only by theoretical analysis such as social formation analysis. Therefore, Park Hyun-chae already began pioneering the ideological domain of 'national economy' from the 1960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Park Hyun-chae applied and developed the "social charter theory" inherited from Mao Zedong and the Chinese Revolution to the situation of the neocolonial South Korea, and in 1990, he was able to criticize 'dehistoricization' as the interpretation of Gwangju in 1980 by the academic community. Such his social character theory was focused on 'national economy theory', but unlike what is generally known, 'National Economy Theory' has a form of 'ideology' system

that goes beyond the economic field. In particular, 『The Basic Theory of National Economy Theory』 rarely noticed (Dolbegae) in 1989 has a meaning as a valuable record left for the future at the time when he was being marginalized from the thought world. The book basically has a subjective 'national' discourse and nationalism, and according to his expression 'national economy' has the meaning of economic basis of 'nationalist movement'. And the meaning of the intellectual history of his 'nationalism theory' would be reviewed focused on the 『The Basic Theory of National Economy Theory』 to derive the basic task to reevaluate and rehistoricalize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South Korea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 3. Park Hyun-chae's nationalism:

#### National economy theory as postcolonial thought

Nationalism is not merely limited to civil nationalism, but a demand from the external relations of class and hierarchy that constitute a society, which is to express through the national prism of the class in that sense. In the case of development of colonial subordinated capitalism (...), after capitalism, it leads to expression through the national prism of the class. It is not nothing more than a nationalism as an abstract of nationalism, but a foreign expression of a demand that is coordinated by the nationality of the hierarchy and classes that make up a society. And this, in other words, is an expression of various class responses to ethnic interests, including ethnic lifestyles.

Nationality for Park Hyun-chae is historical and has 'relative identity', which shows that he views the world as a pluralistic structure. He finds difficulty in recognizing nationalism in complexity and identity. First, he explains the complexity of nationalism in relation to inter-ethnic relations, class relations, and social transformation movements (especially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and at the same time entangled with politics, law, religion, society, etc. rather than pure forms. Then, he explains the identity

of the nationality as follows.

Although ethnicity is not more than a secondary one in a historical era, it sometimes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roblem by abstracting the basic contradiction in the historical situation, as a major contradiction, and also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roblem by having a degree of relative identity in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various parts of the world because of its inheritance. (...) In this relationship, the totality of ethnic relations has some degree of relative identity, and this appears as the historical succession of various aspects of life as the social ethnic community moves from one form to another. The relations of the new people often keep the material and social foundations of the distant past and the traces of their causes inside. Many of the features of the preserved, pre-national relations combine with the new elements that arise from the m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ethnic community of society. The essence of succession is that the totality of national relations is reflected in everyday consciousness and theoretical level. Many aspects of national relations are not only maintained in society, but also in material practices. These are particularly evident when there is a severe social crisis such as war, and the concrete results are reflected directly on ethnical relationship, national confrontation, and national interests.

Park Hyun-chae's perception of this "Ethnic" is unfortunately coincident with the reflection in postwar Japan's intellectual history. In particular, what is noticeable is the trend from Takeuchi Yoshimi (1910 ~ 1977) to Mizoguchi Yuzo (1932 ~ 2010), which shows the direction of overcoming the colonialism of knowledge through regional cross-references such as 'Asia as a method' and 'China as a method'. Takeuchi Yoshimi as an ontological reason to support that presented the need to re-recognize the 'tradition', and Mizoguchi Yuzo who developed and deepened it presented the category of 'mechanism'. Takeuchi Yoshimi criticized the Japanese literary situation in his essay entitled 「Problems of National Literature」, "To

achieve a break requires a tradition that can not be broken by itself. Tradition is a field where innovation realizes itself. It is the arena of the realization of national literature "; "If literature is abstracted from individuals, it arises out of the struggle against the hierarchy, which is itself a product of privileged consciousness"; "Colonialism in literature can be seen from the level of representation of world literature that is not mediated by the nation. It is a perfect colony now that the representation is as perfect as it is today". criticizing the Japanese literary scene. His successor, Mizoguchi Yuzo develops ontological reason to break the epistemological difficulties of colonialism as follows.

Of course, the sense of advance and superiority of the modern Japan to Asia, Africa, and Korea is anti-historical and unfair in that it does not grasp the culture of each nation in its own or inherent value standard, and takes European modern as a universal value standard, by unifying all the culture into that, but it is also very anti-historical to deny Japanese modernity as 'nothing'. In such an anti-historical or ignorant historical viewpoint, it is impossible for Japan or China to grasp (...) how the modern used the premodern mechanism and how they keep relative identity in comparison to Europe.

Park Hyun-chae who analyzed the neocolonialism of South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Revolution and Mao Zedong thought entered into the ontological reason giving the subjective meaning to the 'nation' and 'nationalism' in the late 1980s, and showed the possibility of enriching the regional knowledge of post-colonialism in post-war East Asia and at the same time, opened the possibilities of the critique of Euro-centrism in Japan and cross-reference of methodism.

Especially, Park Hyun-chae's 'National Economy Theory' should be newly evaluated with 'Nationalism Theory' in that his 'Nationalism Theory' was more materialized by 'National Economy Theory'. First of all, he rai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concept of nationalism in a broad sense as a reflection of the class, beyond the existing nationalistic theor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ism concept in the broad sense is to overcome the confusion of the historical phenomenon of understanding nationalism in the past and justly evaluate nationalism as a social phenomenon given to the Third World that resembles us and us in today's situation,. And it is to see nationalism as a class reflection realized in the concrete conditions of a society in which nationalism inherited with relative identity and inheritance.

In this way, Park looked at the 'ethnic' as a historical vertical axis and viewed it as having relative identity in relation to various parts of social organization and between ethnic groups. Throughout his ideological system, he tried to identify major contradiction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ractice' based on the national and nationalism as the 'core'.

He tried to recognize the (neo) colonial economic structure through the "National Economy" theory as the economic foundation of the nationalist movement, but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1980s rather marginalized his argument. In that context, he expressed his expectation of 'literature' and had a controversial debate about 'Minjung Literature' and the Third World /Division System with Baek Nak Chung who was a literary critic and nationalist, which was to show a cross-section of deepened awareness of 'neocolonialism' as a continuation of 'colonialism'. First, I introduce the core of his national economy theory.

Park Hyun-chae's distinguishing between social character and social formation is embodied by the perception of the disparity between the ethnic economy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erception of the semi-feudal under the neocolonialism.

The disparity between the ethnic economy and the national economy i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roductivity and capital formation in the national economy as a regional concept becomes the destruction and poverty of the traditional lifestyle of the repressed peoples of the colonies, which leads to the disparity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economy by the oppressed people and the situation of the social or national economy. The situation is not compatible with each other. Therefore, by looking at the colonial and semi-colonial economic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theories, which are not established in the case of economic quantities or the advanced capitalist empire, to enable the subjective nationalistic evaluation of colonial and semi-colonial repressed people.

Specifically, these demands are raised in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productivit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n capitalism and in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oday's non-independent industrialization process

It is because their basic position [lack of national economy, modernization, and compromise] stands on the concept established in advanced capitalist capitalism and fails to apply it to the specific concrete situation of the general theory. A new concept or theoretical means to complement the general theory should be given in order to evaluate the oppressed people in postwar situation as well as the situation under former colonial and semi-colonial oppression.

Such a national economy becomes the economic basis of nationalism. In terms of economic structure, colonial and semi-colonial subordinate national economies occupy a large portion of the pre-modern period. Park Hyun-chae presents the national economy under the colonial and semi-colonial subordinate as a concentric circle image.

The original national economy and the secondary national economy are concentric in that the secondary national economy in its structure has a strong orientation toward the original national economy. This is also expressed as follows; That is, the secondary economic zone is a product of the original (and therefore

fundamental) distor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t is concentric in its attempt to restore the national lifestyle by the ideal completion of the original and basic national economy. Thus, the two spheres of the national economy are sometimes unified by national contradictions, while at the same time having different contradictions in their economic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secondary economic zone shows a stronger nationalistic orientation as the basic contradictions in the lives of ethnic members correspond to ethnic contradictions. In other words, nationalism is self-based on the two concentric national economies. .

On the other hand, the literary critic, Baek Nak-chung tri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national literature by referring to the concept of national economy in the articl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National Literature」 in 1974. The concept of the national economy that he refers to was cited in Cho Yong-Beom's 『Economy of the Underdeveloped Economy』 (1973), which is in fact known as Park Hyun-chae's nickname. The following is a part of his quotation.

The national economy that we want to conceptualize is the life basis of the ethnic group in which a nation maintains its national purity and tradition in the course of the global capital movement. It is a subordinate concept encompassing the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the purely economic capital movement and a higher concept than the national economy from the nationalist perspective.

In order to distinguish the ethnic economy from the national economy, he tri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nation' an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national literature. However, the concept of 'nation' in Baek-chung did not set the 'original' domain and 'secondary-domain' that Park Hyun-chae paid attention to. As a result, the national literature that is armed with realism is limited to the literary practice of the 'secondary domain', has been dominated by literary criticism/theory, and it has formed contradictory relations with the Minjung culture(literature) of the 'original'. The subject of

'National Literature' in the universal/special relation framework then abolished the 'nation' and accepted the nationalistic concept of 'Korea'

Park Hyun-chae clearly perceived the limitations of the 'formal logic' of criticizing the 'national economy', which allowed him not to make the economic analysis (so -called critique of capitalism/political economy) as absolute, and at the same time,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economic theory which can not present the 'original domain' specifically

#### 4. Park Hyun-chae's predicament and open possibility

[About the weaknesses of the national economy theory]

Park Hyun-chae: Most of all, in reality, it is not possible to extract the national economy as a specific mode in the national economy ... Realistically, even today, the task of extracting the national economic base from such a national economy is extremely difficult.

The inability to articulate the 'original national economy' that Park Hyun-chae expressed to his predicament is in fact related to the inability to open the way for third-world cross-references. As we can see in the third world debate with Baek Nak-chung, he was concerned about the specialization of South Korea/Korean peninsula, and set up a cross-referenc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the Korean Peninsula, getting wary of the essentialization of the Third World. The original national economy had to be re-semanticized through cross-references. The critical consciousness in Park Hyun-chae's agony seems to be truly succeeded by the postcolonial reflection of 'Asia as a method'.

However, in the anticommunist third world reality, 'communism' was expressed as 'national liberation', and cross-reference between neo-colonial/colonial was suppressed. In relation to the social character theory, Park criticized the way of finding the essence/main contradiction in the social formation theory tended to prescribe the erasure of historicity,

which, in the later development of the controversy, was influenced by the "philosophizing of the contradiction" of the planar complexity of social recognition. Park Hyun-chae thought that it can not constitute a subjective practice/contradiction in the 'social formation theory' which is a complex of universal. At the same time, however, he cautioned the line of 'specialization', such as Baek Nak-chung's Third World/Division System. In the end, subjectivity as an object of recognition could be obtained when it aimed at diversification of epistemological reference relations beyond universal/special. That is, Park Hyun-chae's 'national economy theory' implies the task of epistemological postcolonialism.

On the other hand, Park Hyun-chae's predicament extends not only to 'economy' but also to 'literature', as shown in the controversy of Minjung literature with Baek Nak-chung, which implies 'practice' in his thought.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 the theory of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literature was basically the main discourse of the nationalist ideological movement. And the ideological movement was a field that mediated the public and knowledge in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nationalist movement). The role of such ideological movements in new conditions after the civil war/division was to uncover the economic basis (epistemological basis) and the cultural basis (practice basis) of the nationalist movement under the pluralistic world formation, which was already presented in Park Hyun-chae's ideological practice.

## 5. Conclusion

As for the specific contents of this article, when we consider the development and succession of Park Hyun-chae's ideological practice, we focus on mediating role of thought. Understanding the original domain and secondary domain as a concentric structure in national economy theory implies combination of theoretical recognition of the secondary national economy, as the product of distortion caused by imperial/capitalism focused on the nationality of the original national economy. On the other hand, when applied to the national culture theory, the original national culture and

the secondary national culture are identified as the concentric structure, and the national culture movement implies combination of "literary" practice of the secondary national economy, as the product of distortion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ity of original national culture. Here, the original national culture encompasses various cultural practices of the people beyond the literary media. original national culture encompasses various cultural practices of the people beyond the literary media. Minjung literature is part of this cultural practice. The analysis of the complex task of combining national economic theory and national literary theory shall remain a subject of further study

Particularly, Park Hyun-chae's agony about the original domain of the national economy theory was connected with the epistemological postcolonial task. His agony is transformed and forgotten by 'virtual normality', but when it is placed in the lineage of postcolonial ideology in the East Asian region, we have to bear the task of diversification of reference relations . And this can be presented as a more concrete ideological task when combined with the discussion of literature/art related to 'Practice Theory'.



##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사상의 계보와 박현채의 민족주의론: 광주 5.18의 재역사화를 위한 사상자원을 찾아서”에 대한 토론

이 영 진

본 발표문은 비판 이론이 사실상 소멸해버린, 그리고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에 대한 사실상의 체념과 현실추수적인 해석만이 부유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재적 상황 속에서 박현채라는 이제는 잊혀져버린 한 시대의 사상가의 작업에 새로이 빛을 비춤으로써, 그의 작업에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하나의 무기를 버려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사상의 계보’를 재구축하려는 매우 야심찬 기획의 한 일환이자, 그 시도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솔직히 말해두자면, 박현채가 활동했던 시대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그런 점에서는 발표자 역시 동세대인 것 같지만), 그리고 그 때문에 사실상 박현채를 하나의 ‘전설’로만 인식하고 있는 토론자에게 이 발표문을 정치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은 없다. 다만, 본 토론은 전후 일본이라는 사상공간에 대한 작업을 수행했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더욱 구체화하고 ‘일반화’하기, 나아가 동일한 전장에서 함께 싸우기 위해 서로 힘을 돋우고자 한다는 의미에서의 “吶喊” 정도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1. 사회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80년대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성체 논쟁에 쏟아졌던 열기의 정체, 그리고 90년대 급속한 소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사회구성체 논쟁은 사상적으로 계승되지 못했는가?

사회구성체론은 여전히 체험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을 뿐, 사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 한 예로 다케우치는 1960년대 전쟁체험론이 사상화되지 못한 채, 결국 유산되어버린 실패 앞에서, 토사카 준을 원용하며 “단순한 체험, ‘~의 체험’이 아닌, 그 자체 체험을 넘어서는 혹은 체험에 앞서는, 즉 더 이상 체험론적이지 않는 어떤 것을 함축하는, 진정한 의미의 체험(戸坂潤, 1967[1953]: 187)”이라는 문제를 환기시킨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전후일본사회의 공론장에서 전후민주주의의 소멸에 대한 후지타의 다음과 같은 성찰과 이어진다. “경험이 고행의 물체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경험이 아니라 경험의 소외태이며, 사고가 완결적인 물체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라 사고의 소외태이다.” 다시 말하면, “‘경험’이 여러 차원과 연관성을 포함하기에 넓은 가능성을 갖는 데 비해, ‘체험’은 제도적 압박 속에서 은밀히 스스로의 존재를 주장”하기에, “‘경험’이 소멸한 시대에야말로 ‘체험’담이 다발한다((藤田省三, 2013: 188-201)”는 것이다.

발표문에 언급된 1990년-2000년대의 ‘탈역사화’는 1990년대 한국사회에 유행했던 ‘후일담’ 장르의 또 다른 변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박현채의 사회성격론/사회구성체론의 문제의식을 다시 소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박현채에게 있어 ‘역사’는 체험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가. 박현채의 언어가 전달되지 못한 ‘책임’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가 남긴 불씨를 살려낸다는 것은 무엇인가(1990년 <광주 5월 민중항쟁 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종합토론 시간에 있었던 박현채의 발언과, 그의 언어가 “전달되지 못한”, “심지어 조소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던 상황은 분명 문제적이지만, 이 장면에서 바로 ‘탈역사화’를 끌어내는 것은 정당한가. 여기에는 분명히 70년대와 80년대라는 세대론적 투쟁, 그리고 자신들의 체험을 사상화하지 못한 이전 세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2. 발표자는 박현채 민족경제론과 민족문화론의 핵심을 ‘본래적’인 민족경제(문화)와 ‘부차적’인 민족경제(문화)의 동심원적 구조, 그리고 본래적인 민족경제(문화)의 민중성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자본주의에 의한 왜곡의 산물인 부차적인 민족경제(문화) 영역에 대한 이론적 인식(“문예”적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14)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이러한 이분 구도적 사상 틀과 다케우치(-미조구치-첸광싱)의 ‘방법’으로서의 민족·아시아가 어떻게 접합할 수 있는가 이다.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적어도 다케우치의 사상적 기획에서는 “본래적인 ~”의 자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않으며, 사실 그러한 자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역설’이야말로 다케우치의 사유를 증폭시키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케우치의 일관된 사상사적 작업은 민족전시기의 유산들을 파헤치면서 그 오염, 왜곡, 일탈의 역사와 함께 그것들이 지니고 있던 생명력, 혹은 가능성들을 확인하고 전후라는 시공간에 하나씩 하나씩 점을 찍어두는 것이었다. 그 하나의 점이 전쟁체험이라면, 근대에 대한 성찰(‘근대의 초극’을 포함하여), 아시아주의, 민족주의는 각각 또 하나의 점들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점들은 하나의 실체, 혹은 범주가 아니었다. 아시아주의만 하더라도, 그것은 서구에 저항하는 아시아라는, 메이지 초기의 생동적인 그것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 이후 변질된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이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시아주의의 계보를 검토하더라도 그 일탈의 지점을 분명히 찾아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아시아주의는 초기부터 이미 서구 근대에 대한 저항의 성격과 아시아에 대한 ‘침략적 속성’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턱대고 버릴 수도 없다. 전후 일본이 아시아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이영진, 2014).

그런 점에서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어떤 점에서 다케우치적인 ‘방법’과 ‘공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주석이 필요할 것 같다. 다케우치의 방법은 ‘전후 일본’이라는 사상공간의 맥락에서 벗어났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실제로 그의 논리는 좌파보다 우파가 더 잘 전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케우치 역시 자신의 논리를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한 때 ‘제국’이었던, 하지만 패전과 함께 제국 시절의 모든 가치가 훼손 되어버린, 그리고 새로 수입된 민주주의 사상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상이라는 것을 기획할 수 있는가라는 입장position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만의 진영진과 남한의 박현채라는 두 사상가의 사유의 궤적을 겹침으로써, 발표자는 대만과 남한의 신식민성에 관한 지식사상사적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전후 일본의 다케우치의 ‘방법’이 어떻게 겹쳐질 수 있는지, 토론자는 아직 그 방법을 ‘보편화’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다케우치-미조구치-첸광싱이라는 ‘권역적 사상사 맥락’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싶다.

3. 동시에, 적어도 토론자에게 박현채의 사유는 알제리 해방전선의 투쟁의 와중에서 ‘민족의식’의 문제에 대해 사유하던 파농F. Fanon의 문제의식과 더 맞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脫-식민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의식의 역할과 독립 후 새로운 국민국가가 수립된 후기-식민주의적 상황에서 민족주의/의식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한 파농의 날카로운 경계는 그의 때 이른 죽음으로 인해 사실 하나의 정립된 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민족경제와 국민경제의 괴리에 대한, 그리고 식민지하 반봉건성에 대한 박현채의 인식은 그런 점에서 파농의 사유와 그 출발지점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괴리를 ‘본래적’과 ‘부차적’의 동심원적 구조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까.

적어도 토론자의 관점으로 볼 때, 발표자의 기획은,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냉전 체제 하의 남한이라는 사회 속에서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보편/특수의 이분 구도를 넘어 ‘본래적’ 민족경제를 “상호참조”를 통해 새롭게 의미화하는 것이야말로 ‘아시아를 방법으로’ 라는 탈식민주의적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그러한 가능성의 중심에서 박현채의 텍스트를 읽어내려고 하는 시도로 보

인다. 즉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을 인식론적 탈식민주의의 기획의 한 가능성으로 전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의 의도에는 80년 광주 이후의 지성사에 대해 ‘탈역사화’ 문제를 제기하는 박현채의 ‘비판’에 대한 공감, 나아가 80년대 PD 진영이 주도한 사회구성체 논쟁의 ‘이론주의적 편향’, 혹은 ‘과잉’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로서의 ‘민족’이 없는 ‘민중’은 이론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천과 결합할 수 없었고, 따라서 진정한 ‘민주’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연광석, 2018: 164).”는 평가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현채의 ‘곤혹’predicament을 가능성의 중심에서 읽기 위해서는 박현채가 남긴 텍스트들을 ‘바로 지금’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해체’해가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듯한데, 적어도 발표문에서 이러한 해체론적 독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아직까지 박현채의 텍스트를 바라보는 발표자의 시각은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 사상과 이론이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지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지식의 탈실천성과 무능력 상황” 속에서 박현채라는 ‘역사적 중간물’을 낭만적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러한 ‘물음’은 물론 아직까지 누구도 그 가능성을 명쾌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발표자만이 아닌, 토론자를 비롯한 한국 사회에서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이영진, 2014, 「‘帝國’의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 竹內好와 동아시아」, 『일본연구』 59.
- 戸坂潤. 1967[1953]. 『科学論』. 『戸坂潤全集第一巻』. 東京: 勁草書房.
- 藤田省三(최종길 역). 2007[1975]. 『전향의 사상사적 연구』. 논형.

**“The Genealogy of East-Asian Decolonialism  
and Park Hyun-Chae’s Theory of Nationalism  
– To Find Theoretical Resources for Rehistoricizing May 18”  
Commentary**

Lee Yeong Jin

This presentation illuminates Park Hyun-chaе, a thinker who is now forgotte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society, where criticism has virtually vanished and only the de facto resignation and reality interpretation of global capitalism are abundant. It is part of an ambitious plan to rethink his critical thinking about the reality, and rebuild the genealogy of East Asian postcolonial thought. Even this attempt alone will make sense.

To be honest in advance, I would like to give this discussion to a panelist who is only one step away from the time when Park Hyun-chaе was active (in this sense, the presenter is also the same generation).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ability to read him politically. However, this discussion is based on the experience of working on the ideological space of postwar Japan, to further refine the presenter's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to generalize it, and to strengthen each other's power to fight together on the same battlefield. I would like to be accepted as "inarticulate".

1. What does it mean to grasp social character? What is the stagnation of the heat that was poured into the controversy of the social structure in Korean society in the 1980s and the rapid extinction in the 90s? Why did not the Social Formation debate be inherited ideologically?

The social formation theory still stays in the realm of experience, but it has not reached the ideology. Takeuchi, for example, tries to use the Tosaka Quasi in front of the failure that the theory of war experience in the 1960s has not been into an ideology and eventually aborted, which means what is required is not a merely experience, the experience of something, "which implies something that is no longer experiential. (戸坂潤1967 [1953]:

187),

And this leads to Fujita's reflection on the extinction of postwar democracy in the postwar Japan societies. "When an experience becomes a solid object, it is no longer an experience but an alienation of experience, and when a thought becomes a complete object it is no longer a thought but an alienation of thought." In other words, In contrast to having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to include various dimensions and associations, 'experiential' implicitly asserts its existence in institutional pressures, 'and' experience 'is often encountered in the era of 'experience extinction' (藤田省三, 2013: 188-201) .

The 'de-historicalization' of the 1990-2000 period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may be seen as another transformation of the genre of 'Huh-dam' that was popular in Korean society in the 1990s. If so, what is the meaning of recalling the consciousness of Park Hyun-chae's social character/social formation at this point? In other words, for Park Hyun-chae, is 'history' beyond the realm of experience? Who is in charge of 'responsibility' that Park Hyun-chae's language has not been communicated to? And what is it to light the fire he left behind? (Speech by Park Hyun-chae, who was at the general debate time in the 1990's National Conference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May Uprising of the People in May, his language was "not delivered", " To be "is obviously problematic, but it is justified to derive 'de-historicalization' in this scene. There is clearly a feeling that the generational struggle of the seventies and eighties and the raising of the problem of the previous generations that can not visualize their experience are at the same time intrinsic.)

2. The presenter is Park Hyun-chae focusing on the national economy theory and the national culture theory centered on the "original" national economy (culture), the concentric structure of the "secondary" national economy (culture), and the folkness of the original national economy As a result of imperialism /capitalist distortions ("literary" practice) (14). One question that arises is how the dichotomous thinking nations can connect with each other as a 'method' of Takeuchi (Mizoguchi-Chen Guangxing).

The reason for this question is that at least the idea of Takeuchi's ideological plan does not set a place for "the original ~", and in fact, the paradox caused by the fact that such a place is hard to exist in reality is the key to amplifying Takeuchi's reason. Because. Takeuchi's coherent ideological historical work was to identify the life, possibilities, and possibilities of the pollution, distortions, and deviations of the heritage of the nation, and mark them one by one in time and space. If one thing is a war experience, reflection on modernity (including "modern superstars"), Asianism and nationalism will each be another point. Of course, the points were not an entity, or a category. Even in the case of Asianism, there are various variants ranging from the vivacity of early Meiji to Asia, which is anti-Western, to Japan's devastating ideology after the Asian invasion.

However, even if we examine the genealogy of Asianism, it is difficult to clearly identify the point of departure. Because, as I pointed out earlier, Asianism was already a mixture of resistance to Western modernity and 'invasive attributes' to Asia. The same is true of nationalism. But I can not blindly abandon it. The possibility that Japan can meet with Asia after the war is also in it(Lee Yoong-jin, 2014).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give a little more detailed comment on what kind of Takeuchi's 'method' and 'resonance' Park Hyun-chae's national economy theory is. Takeuchi's method is easy to mislead when he gets out of the context of the ideological space of postwar Japan, and in fact his logic can not make the feeling that the right is more appropriated than the left. Takeuchi did not find a way to universally explain his logic. It is a unique way of making a position in the position that it was an 'empire', but it can be planned in a society where all the values of the empire were defeated with the defeat, and the newly imported democratic thought was overflowing.

By overlapping the trajectories of two thinkers, at least Jin Young-jin of Taiwan and Park Hyun-chae of South Korea, the presenter has pointed to the historical contradiction of knowledge ideology about the new colonialism of Taiwan and South Korea. However, the debate does not yet have a 'way

to generalize' the way how the 'way' of Takeuchi in postwar Japan can be overlapped.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for a more specific explanation of the "context of regional ideology" by Takeuchi-Mizoguchi-Chen Guangxing, which the authors are referring to.

3. At the same time, Park Hyun-chae's reason for the panelist at least was that he was thinking about the issue of "national consciousness" in the struggle of the liberation front in Algeria. It seems that Fanon's problem consciousness is more in touch. The sharp boundaries of Pakong's pitfall of nationalism/consciousness in the postcolonial situation in which a new national state was established after the role of nationalism/consciousness in the course of the de-colonial movement was his early death. In fact, they did not develop into one established theory. Park Hyun-chae's recognition of the disparity betwee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colonial semi-feudalism status shares the idea of Pak - nong and its starting point. But can it be solved by understanding such a gap as a concentric structure of 'original enemy' and 'secondary'?

At least in the opinion of the panelist, the presenter's plan did not succeed in the society of South Korea under the Cold War dominated by anti-communism, but the cross-referencing of the "original" national economy beyond the two - Is a possibility that leads to a postcolonial reflection of 'the method of Asia' and seems to be an attempt to read the text of Park Hyun-chae at the center of such possibility. That is to say, Park Hyun-chae's "national economy theory" is appropriated as a possibility of the planning of epistemological post-colonialism. The intention of this project is to express the sympathy of Park Hyun-chae's 'criticism' which raises the issue of 'de-historicization' of the intellectuals after Gwangju in 1980, and furthermore the 'theoreticalist bias'. It seems that there is an antipathy towards 'The evaluation of the "people" without the 'nation as history' could not be combined with the practice and could not be a true 'democratic' subject" (Yeon Kwang Suk, 2018: 164) .

However, in order to read the predicament of Park Hyun-chae's "predicament" at the center of possibility, he must be a way to "dismantle" the texts left by Park Hyun-chae under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now". It does not seem obvious. So far, the speaker's perspective on the

text of Park Hyun-chae is that "Despite the constant awareness of the intellectual situation in which ideas and theories do not play proper social roles on various domains and levels, In the "situation", I am stuck in the romantic recall of the "historical intermediate" of Park Hyun-chae. However, this 'question' as well as the fact that no one has yet to present the possibility clearly, is not only the presenter but also a question for all of us who are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debates.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2부 세계의 경계를 넘어  
Session 2 Beyond Boundaries of the World

어떻게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How to Prevent Populism  
and Protect Liberal Democracy

케네스 루오프

Kenneth Ruoff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교

Portland State University (USA)





## 어떻게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Kenneth Ruoff

### 포퓰리즘의 개요 및 정의:

오늘날 안정되고 존중받는 민주주의로의 여정에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포함해 현시대에 한국이 직면한 시련과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살아온 평생 대부분 동안 미국이 누렸던 기본적인 정치적 안정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존재가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이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 저에게는 (아마 다른 이들도) 자유 민주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남북 전쟁 (1861-1865) 이후 아마도 처음으로 미국 공화당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할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위험은 아주 불확실한 것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학자들이 불필요하게 정의해 놓은 용어, 즉 포퓰리즘의 "이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터키를 시작으로 헝가리와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브라질까지 포퓰리즘이 세계의 곳곳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포퓰리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래서 논의할 포퓰리즘의 정의에 따라, 한쪽에 강렬한 포퓰리즘 경험국가부터 반대쪽에 포퓰리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국가까지 쪽 하나의 연속체 선상에 놓고 보았을 때 그 포퓰리즘 정의에 따르면, 한국은 포퓰리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쪽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국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의 이 시험적인 결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포퓰리즘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하게 정의되어왔습니다. 사실, 그 정의가 너무 다원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미국에서는 “국민의 힘” 이란 개념을 호의적으로 보는 많은 미국인들에게서 뭔가 따뜻하고, 솜털 같은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의가 너무 다원적이라 제 생각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곳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영웅적인 시민운동의 현장인 광주에 있는 제 자신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국민에게 권력 개념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도록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포퓰리즘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확실한 명확성을 위해, 포퓰리즘을 신중하게 분석한 두 명의 학자, 페데리코 핀첼 슈타인(Federico Finchelstein, “From the Fascism to Populism in History”, 2017년 캘리포니아대 출판사)과 얀-베르너 뮐러(Jan-Werner Muller, “What is Populism?”, 펜실바니아대 출판사, 2016))를 인용합니다. 이 두 학자의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는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중복됩니다. 제 경우는 핀첼슈타인의 정의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뮐러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그 뿌리가 더 깊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이 남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핀첼슈타인의 설명은 훨씬 더 역사적이며, 그 역사적 배경은 실제로 포퓰리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핀첼슈타인은 포퓰리즘의 첫 번째 사례가 2차 대전 직후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Peronism)라고 주장합니다. 제 견해로는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핀첼슈타인이 포퓰리즘을 포스트-파시스트(post-fascist)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에 소용돌이쳤던 포퓰리즘의 물결을 묘사하기 위해 파시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포퓰리즘이 때론 민주주의를 크게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위험하기는 하지만 파시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제거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파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포퓰리즘의 계보는 파시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핀첼슈타인은 포퓰리즘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으로 정의된다고 주장합니다.:

1. 실질적으로 독재자를 거부하는 권위주의적, 선거에 의한,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2. 정치종교의 극단적 형태
3. 선거에 의한 성공을 제시하는 정치에 대한 계시적 비전과 일시적인 선거의 승리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건설 및 재건설시의 혁명적 순간
4. 대중에게 메시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창안한 정치신학 [켄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추가한다.: "다시 한 번 미국을 만들자"라는 트럼프(Trump)의 슬로건을 생각해 보자]

5. 정치적 적대자를 반(反)국민으로 간주
  - 즉, 국민에 대한 반역자로 생각
6. 법의 지배와 권력 분립에 대한 이해력 부족
7. 급진적 민족주의
8. 대중의 인격화로서 지도자의 개념
9. 운동과 대중이 함께한 지도자를 하나의 전체로 일체화
10. 반(反)정치 주장, 실제로 평상의 정치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대중의 이름으로 말하는 행위와 지배 엘리트층 반대
12.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자기표현과 상상이든 실제형태든 간에 독재와 폭압 반대 (유럽 연합/EU, 그 유사국가, 제국, 세계주의, 세계화, 군사쿠데타 등)에 대한 입장을 자발적으로 제시한다.
13. 포퓰리즘이 정권체제가 될 때, 단일 실체로서의 사람들의 균질화된 생각은 선거의 다수결과 동일시된다.
14. 독립적 언론에 대한 깊은 적대감, 심지어는 혐오감
15. 다원주의와 정치적 관용에 대한 혐오
16. 대중문화에 대한 압박, 심지어 많은 경우, 국가전통 구현으로서 연예계에 대한 압박

민주주의와 관련된 많은 핵심 가치를 위협하면서도, 포퓰리즘은 다양한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헝가리와 터키에서의 자유 언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자). 비록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본질은 여우라고 생각합니다. 핀첼슈타인은 "포퓰리즘은 다양성, 관용, 정치적 복수성과 반대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동시에 제가 그의 분석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찾아낸 사실은 역사상 대부분의 포퓰리즘 사례에서 그 혜택을 얻는 사회 집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포퓰리즘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포퓰리즘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많은 면제그룹의 예들이 있습니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

핀첼슈타인과 뮐러가 정의한 가설로 이끄는 건 무엇일까? 여기서 저는 그 근본 원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일치 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에 대한 가장 좋은 하나의 예방접종 방법은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등을 예방하거나 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아마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엄청난 세계화의 결과로 실제로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또한 학자들 토론에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있다고 시사됨), 문제는 미국의 상황에 대한 리처드 리브스의 최근 저서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아마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10%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 리브스 (Richard Reeves): 꿈 독식자들 (Dream Hoarders): 미국의 중 상위층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파멸시키는가, 왜 그것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7)

예를 들면, 미국의 엘리트층이 더 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선두 주자가 될 프로그램에 지지 할 용기를 낼까? Reeves가 전거한대로, 특히 자칭 미국의 좌파-자유주의 조차도 기회를 확대시킬 제안이 만들어 지면, 특히 그 제안이 자신의 자녀 미래와 관련이 되면 결정적으로 반자유주의적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미국 내 공립학교의 기금은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유한 공동체가 자녀를 위해 더 좋은 학교에 기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미국인들은 그것이 결코 "평등한 시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유층으로부터 받은 기금을 빈곤층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공립학교의 기금을 평등화하려는 제안은 정치적으로 유력한 상위중류층의 반대 아우성으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상위중류층이 불안정한 포퓰리즘 슬로프인 터키와 헝가리 같은 나라를 본다면, 그들이 사회 경제적 평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거부함으로써 (수사학적인 말과 다른) 민주적 체제를 위협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엘리트들이 이 분야에서 그런 감각을 느끼기를 희망하며, 민주적 제도와 가치의 안정에 대한 보답으로서 번영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덕주의적 주장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을 도와 줄 의무가 있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도덕론적 주장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가능성의 예측이, 이 영역에서 엘리트 계층의 행동을 야기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을 줄때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포퓰리즘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있지만, 완전히 견고한 토대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글들이 트럼프주의로 대표되는 일종의 포퓰리즘은 결코 미

국에 올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에 와있습니다.

아마도 군부 독재 체제 하에서의 삶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저항해 왔었는지 기억해봐야 할 만큼 이제 그 시기가 오래 되어버린 한국의 시민들은 그런 비-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 것이지를 엘리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런 기억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여러 해외 민주주의 국가에 엘리트들을 특별 대사로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포퓰리즘은 철저히 비민주적인 정권이 아니라, 때로는 민주주의가 끔찍할 정도로, 숭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비-민주적 정권 하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임무를 지닌 특별 밀사를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답할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엘리트층에게 그러한 프로그램을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 평등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를 중단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엘리트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간 둔감한 포퓰리즘에서 분당되어야 할 부(富)의 불균형적인 몫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 토착주의 (Nativism):

더 큰 사회-경제적 평등을 향한 운동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토착주의 (외국인 혐오증)의 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는 아마도 유럽과 미국을 괴롭히는 포퓰리즘의 가장 큰 공통점 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좌파 자유주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미국 엘리트층에게 완전히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저는 미국 상류중산층의 많은 비율이 미국인의 90%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느끼고 있는 상당한 분노를 이민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 쉬고 있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분노가 계속 크림의 좋은 것만 다 취하고 있는, 즉 창출되는 국가의 부(富)에 대한 엄청나게 불균형적인 몫을 계속 요구하는 상위 10%를 향해 위로 향하는 것 보다는 더 아래쪽이나 측면의 이민자들에게로 향하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이 사회-경제적 평준화를 촉진하는 사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기묘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로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은 사회주의뿐 아니라 복지 국가의 개념조차도 아주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제 이슈문제에서 상류중산층이 레

이더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민자들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슬림뿐만 아니라 유색인종도 포함)에 대한 공격에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상위 10%의 경제적 특권을 훼손할 정도까지 확대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이 계급 (물론 Trump 지지자 중 일부는 반대로 돌아설 것이다)의 큰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류중산층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주의 엘리트의 문화적 경향을 경멸 (소위 문화 전쟁)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다 공개한다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면 제 경우도 제가 대학 교수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제 아내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스스로도 상류중산층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트럼프주의를 편향적이고 수치스럽게 특징짓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과 외국인 혐오증인 인종차별적 수사학을 발견합니다. 이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포퓰리즘 지도자에게 유력한 도구 같은 이 토착주의 사용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무더지게 해야 할까요? 사회 경제적 평등을 증진하는 방법 이상의 낙관적인 제안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한 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민자를 탓하지 않고, 전 세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여러 요소 중에서도 전쟁, 빈곤한 정부, 환경 악화 등의 결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 된 곳에서 오기 때문에 이해 못할 정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합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부유한 나라, 특히 부유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국제기구 및 다른 수단을 통해서 세계무대에서 더 많은 힘을 발휘할 때이고, 다양한 지역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도움을 주어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곤경에 빠진 지역의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면, 너무 절망스러워 잃을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주 물줄기를 끊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난민들의 곤경을 상징화한 것으로, 주사위를 굴려서, 지중해를 건너기 위한 낱아빠진 배를 탑승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최종 수용지에 있는 많은 국가의 상당수 시민들이 도착하는 이민자의 물결을 압도적 다수로 해석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용국가 중 부유한 국민국가는 포퓰리즘 반응을 위해 비옥한 토지를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포퓰리즘에 휩쓸려있는 미국과 같은 국민국가가 전 세계에서



더 큰 지도력을 제공하는 "아메리카 우선"과 같은 개념을 초월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미국은 미국이 트럼프주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지 여부를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합니다. (트럼프가 다음 선거에서 패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지 마십시오.; 패할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경험하지 않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최소한 제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 정도로 만이라도 세계의 분쟁지역에 안정성을 촉진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지지를 강화해 주시길 희망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각기 인구학적 시한폭탄 (출산률 급감소와 노령화인구)을 가진 한국과 일본에서 더 많은 이민자 수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양국의 극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구제책이 되면서 세계 난민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이민자를 급하게 수용하게 되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문제와 같은 토착주의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포퓰리즘이 권력을 얻지는 않았지만, 독일에서 메르켈이 용감하게 가능한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한 후 현재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10%의 사람들에게 의한 "권리 박탈된 사람들"이 줄어들 정도로 불평등이 억제된다면,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토착주의 충동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줄타기 줄을 걷는 것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스스로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뒤쳐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세계 시민" 이라며 거드름 피우며 설명하는 엘리트 좌파 자유주의자라는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때때로 세계 엘리트층에게 경계를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 외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왜 엘리트층이 자신의 국민에 대해서 보다 국제 체제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저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엘리트층을 확신시켜, 그들의 부를 일부 나누도록 설득하고자 도덕성 카드를 사용하려면, 좌파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우리 모두가 다 "세계 시민" 이라는 말을 강의할 때 아주 신중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한 수사학적 용어가 실제로 각국의 포퓰리즘 물결을 지지하는 개인들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생산적인 접근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공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박탈당한 그들이 스스로를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국민국가에서 진심으로 권리를 받고 있다고 느낌으로서 균등함을 찾아야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당한 결론을 변경함으로써 실제로 그들에게 권리 부여한 결과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세계화에 대한 반대를 포함하여 특정 형태의 포퓰리즘의 반동은 사람들이 자국에서 권리를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세계화가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느끼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투표권을 가진 개인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정치적 과정의 일부로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들어가고, 권력자들의 반응을 받는다고 믿는 더 넓은 광의의 의미입니다.

### 공민학(윤리)으로의 복귀:

포퓰리즘 운동 지지자들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제도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해체시키려 할 정도지만, 우리는 그렇게 까지 포퓰리즘의 16개항 정의를 자세히 보면서 학문적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K-12 수준의 공민학의 기본 정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있었을 때, 학교는 자전거 안전에서부터 다문화주의 (자전거 안전과 다문화주의는 아무 연관이 없음)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공민학(윤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K-12 학교 수준의 자유 민주주의 구성의 기본을 의미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기본 공민학이 배경으로 물러났는지 여부도 모르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미친 경쟁 속에서 머리에 너무나 많은 지식을 집어넣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 입학시험이 크게 대두되는 사회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입학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핵심 요건임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예로, 세상에 어떻게 그 많은 미국인들이 언론에 대한 트럼프의 강탈을 환영할 수 있을까. 독립 언론의 훼손은 유럽과 미주 지역의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그 길을 이끄는 포퓰리즘과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법치와 권력 분립에 대해 무관심해 보인다는 사실에 무심할 수 있을까, 원가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 (Victor Orban, 사법 독립을 파괴하려는 의도)과 다른 포퓰리즘 지도자들에 대해 언급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 많은 미국인들이 표면적으로 권위주의를 갈망 할 수 있을까. 저는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과, 민주주의를 이해한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대안을 이해한다면), 민주주의를

지지 할 것 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각 세대들이 왜 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이며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포퓰리즘 국가 (예, 헝가리)에서의 불안정한 포퓰리즘 슬로프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포퓰리즘에 대항하여 국가에 예방 접근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이들이 K-12 시스템을 통과 할 때 매년 핵심 교과가 되도록 오래되고 지루한 "공민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외워서 암송 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자유 언론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내가 생각나는 건, 예전의 미국 학생들은 헌법을 간략하고 단순하게 암기해야 했습니다. 그 실행을 다시 되살리고자 할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자유 언론이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에 대해 토론하게 하십시오. (예 : 언론이 때때로 권력자를 비판해야 된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정부에 의해 정보가 통제 될 때 독립 언론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인터넷이 민주 사회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기초를 잘 배웠다고 확실해질 때까지 그 사항에 대해 테스트합니다. 이것이 교화의 한 형태일까요? 어떤 이는 그것을 세뇌교화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국가 시민종교 수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어로 부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다원적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비판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아이들을 "교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원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시민이 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교화"시키는 것이 반대 의견을 의심의 여지없이 용납하여 정권에 복종하도록 교화시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하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사회, 특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핵심 가치와 제도에 동의하고 그렇게 공유된 문화를 차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불쾌한 정부의 변형은 훨씬 더 불쾌한 형태의 공유 문화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법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매년 가르쳐주십시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종종 반대되는 예시를 통해서입니다. 사회가 법의 지배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규칙 없이 축구 경기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 사회가 관리되지 않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사들은 각 발달 단계에서 이러한 종류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방법에 이미 익숙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모든 아이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그 핵심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커

리큘럼을 매년 짜야합니다. 중학교에서. 그리고 고교 기간 동안 더 정교하게 재검토해야합니다.

이 마지막 섹션에서 제가 특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로켓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너무 단순해서 간과해 버리기도 쉽습니다. 왜 민주적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권력 분리가 중요한지를 매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한 나라에 "하나의 단일 민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치 않으며, 그런 의견 차이는 예상되는 것이며 (다수 또한 일시적으로 예상), 중요한 것은 일단 결정이 되면 모두 그 메커니즘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음 선거 때까지는 선거의 존중과 선출된 지도자의 결정 존중) 이 섹션에서도 저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기본만 고수하려고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K-12 학교를 이용해 LGBT 권리 존중 (오랫동안 지지해온 분야)에서 더 큰 관용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이 순간에 저는 포플리즘의\_부식 효과가 이전의 진보당이 더 이상 진전 할 수 없는지 여부와, 미 공화당의 기본 가치와 제도에 대한 이전의 합의 내용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기본 토대를 지지해야 합니다. 제가 좌파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저에 대한 비난의 표정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기본 토대가 침식되면 위에서 정의한 포플리즘이 미국 및 다른 나라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려 그 어려움이 훨씬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보주의는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연 될 수 있으며, 사실 진보주의의 이득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포플리즘에 아직 감염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선 포플리즘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How to Prevent Populism and Protect Democracy

Kenneth Ruoff

Introduction and Definition of Populism: When I think of the trials and tribulations that Korea has faced during the modern era, including those underwent by the Republic of Korea on its path to becoming the stable and respected democracy that it is today, I cannot help but recognize and also feel grateful for the basic political sta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has enjoyed throughout most of my lifetime. But I also have to admit that because the existence of liberal democracy in my country seemed so natural, like the daily rising and setting of the sun and the changing of the seasons, I (and perhaps other) Americans took liberal democracy for granted.

Now, for perhaps the first time since the Civil War (1861–1865), we have reason to be concerned that the American Republic may be threatened. The danger comes from an "ism" that is very slippery and, frankly, not necessarily well defined by academicians, namely populism. But we would do well to understand populism because it is sweeping much of the world, from Turkey to Hungary to the United States and most recently Brazil. I am not an expert on Korea,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populism that I will give below, in terms of a continuum ranging from countries that are experiencing intense populism to those on the other end of the continuum that are not experiencing much populism, Korea would be on the side of the continuum not experiencing that much populism. But, again, I am not an expert on Korea, and would welcome feedback on that tentative conclusion.

Populism has been variously defined over the decades. In fact, so pluralistic have been the definitions of it that I can tell you, for example, that until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the concept tended to produce warm, fuzzy feelings among many Americans who looked favorably upon the notion of "power to the people." And trust me, I do sense the irony of me standing here in Gwangju, site of a heroic citizens movement that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and possibly being perceived, by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populism, as calling into question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power to the people. But that is not my intention.

In order to make myself clear, I have to provide a clear definition of what I mean by populism. For definitional clarity, I turn to two scholars who have thoughtfully analyzed populism, Federico Finchelstein (see his *From Fascism to Populism in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and Jan-Werner Müller (see his *What Is Popul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6). There is considerable although not complete overlap between these two scholars' definitions of populism. I lean slightly toward Finchelstein's definition but I credit Müller with describing what has been transpiring in Europe and the Americas this past decade or so (the roots are of course deeper) with incredible clarity. But I stress here that populism is nothing new to South America and Latin America.

Finchelstein's account is far more historical,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is in fact critical to understanding populism. He argues that the first instance of populism was Peronism in immediate post-WWII Argentina. The timing is key, because Finchelstein, correctly in my opinion, argues that populism is *post-fascist*. Thi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because there has been a tendency among many scholars to employ the term fascist to describe the populist wave that is rolling the world, but this is not accurate. Populism, though dangerous in its tendency to weaken, sometimes significantly, democracy, is different from fascism, which utterly displaces democracy and which also tends to be downright murderous. At the same time, populism's lineage is linked to fascism.

Finchelstein argues that populism is defined by these common characteristics:

1. An attachment to an authoritarian, electoral, antiliberal democracy that practically rejects dictatorship
2. An extreme form of political religion
3. An apocalyptic vision of politics that presents electoral successes, and

the transformations those transitory electoral victories enable, as revolutionary moments in the foundation or refoundation of society

4. A political theology founded by a messianic and charismatic leader of the people [Ken is adding the following note: Think of Trump's slogan "Make America Great Again."]
5. A consideration of political antagonists as the antipeople--namely, as enemies of the people and traitors to the nation
6. A weak understanding of the rule of law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7. A radical nationalism
8. A notion of the leader as the personification of the people
9. An identification of movement and leaders with the people as a whole
10. The claim of antipolitics, which in practice means transcending politics as usual
11. The act of speaking in the name of the people and against the ruling elites
12. A self-presentation of its standing for true democracy and against imagined or real forms of dictatorship and tyranny (the European Union, the parallel of deep state, empire, cosmopolitanism, globalization, military coups, etc.)
13. The homogenizing idea of the people as a single entity that, when populism becomes a regime, is then equated with electoral majorities
14. A deep antagonism, and even aversion, to independent journalism
15. A dislike for pluralism and political tolerance
16. A stress on popular culture and even, in many cases, on the world of entertainment as embodiments of national tradition.<sup>38)</sup>

Populism employs various democratic mechanism even as it threatens many of the core values associated with democracy (think of what has become of the free press in Hungary and Turkey, for example). Although it tends to weaken but not entirely destroy democracy, I still view it as the quintessential fox in lamb's skin. Finchelstein stresses, "Populism is the opposite of diversity, tolerance and plurality in politics."<sup>39)</sup> "At the same time, what I find valuable about Finchelstein's analysis is his stress on that

---

38) Finchelstein, pp. 103-104.

39) *Ibid.*, p. 173.

fact that in most of the cases of populism thus far in history, there have been social groups that benefitted. In other words, although populism is a genuine threat to democracy overall, at the same time there are many examples of disenfranchised groups profiting from populism.

Socio-Economic Inequality: What leads to populism as defined by Finchelstein and Müller? Here, too, commentators do not agree on the root causes. But there is a close to a consensus that socio-economic inequality seems to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oot causes. Therefore, perhaps the single greatest vaccination against populism is the avoidance of gross socio-economic inequality. But preventing or remedying such inequality seems to be no less difficult, and perhaps in fact more difficult, as the result of the ever more dramatic globalization of the capitalistic syste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anecdotal discussions with scholars suggest that there are similar trends elsewhere), the problem is arguably not the proverbial upper 1 percent but rather the upper 10 percent, as suggested by the title of a recent book about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by Richard Reeves: *Dream Hoarders: How Th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Is Leaving Everyone Else In The Dust, Why That Is A Problem, And What To Do About I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7).

Will the elite in,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summon the courage to support programs that might lead to greater socio-economic inequality? I hope so, but as Reeves documents, even self-proclaimed American left-liberals become decisively illiberal when proposals are made to broaden opportunity, especially when these proposals relate to the prospects of their children. To provide one concrete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funding of public schools tends to be substantially locally based, meaning wealthy communities can fund better schools for their children. All Americans who honestly look at the situation agree that this does not represent "equal starts." And yet proposals to equalize funding of public schools in a way that would take from the rich and give to the poor are typically met with and defeated by howls of protest from the politically potent upper middle



class.

And yet, if th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were to look at other countries that are further down the slippery populist slope, Turkey and Hungary for example, they might understand that they are very possibly putting the basic democratic system at risk by in practice (as different from rhetoric) refusing to support programs that would promote socio-economic equality. I hope that the elite in all democracies worldwide comes to its senses in this area, and shares some of its prosperity in return for stability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values. Note that I am leaving out a moralistic argument ("Those better off have a duty to help those less well off") not because I do not support such a moralistic argument, but rather because it does not seem to be persuasive.

Therefore, I wonder if contemplating the possibility of no longer living in a democracy might be more effective in shocking enough of the elite into action in this area. Like so many others, I a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counter the populist wave, and feeling like I am not entirely on solid ground. Much ink was spilled through the decades claiming that the sort of populism that it is represented by Trumpism could never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yet here we are.

Perhaps citizens in the Republic of Korea old enough to remember what it was like living under military dictatorship, and what it took to achieve democracy, should be sent abroad as special ambassadors to remind elites in various democracies who do not benefit from such memories of what it is like to live in under a non-democratic regime just how unpleasant that can be (strictly speaking, populism tends to result not in outright non-democratic regimes but rather ones under which democracy is hallowed out, sometimes horribly so). I am serious in suggesting a special "I will tell you what it was like to live under a non-democratic regime" emissaries--it could be another wa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give back to the world. The reason that I propose targeting such a program toward the elite is that it is this politically potent elite which must cease opposition to programs that would promote socio-economic

equality--they are the ones with quite a disproportionate share of the wealth that must be shared to some extent to blunt populism.

Nativism: I would also like to think that a movement toward greater socio-economic equality would also take, at least to some extent, the wind out of the sails of nativism (xenophobia), perhaps the single greatest commonality of the populisms now plaguing Europe and the Americans. You might be noticing that I do not have an entirely favorable view of the American elite, including the left liberal elite. For example, I suspect that a much larger proportion of th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is breathing a sigh of relief that a good measure of the considerable anger that much of the other 90 percent of Americans are feeling about their socio-economic status is being directed toward immigrants. After all, better that the anger from below be directed further downwards or laterally toward immigrants rather than upwards toward the upper 10 percent that continues to skim off almost all of the cream, in other words which continues to claim a hugely disproportionate share of the national wealth that is created.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indeed curious because there *have* been cases whereby populism did promote greater socio-economic leveling, but in practice this does not seem to be a goal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t is not clear that it is a goal of those who support Trump. Not only socialism but also even the notion of a welfare state seems anathema to many of these supporters, in spite of the fact that many of them receive various governmental benefits. Trump's supporters seem sufficiently happy with the attacks on immigrants (and, in a more general sense, people of color as well as Muslims) which is providing the upper middle class to pass under the radar when it comes to economic issues.

Of course, if Trump's populism ever were to extend to undermining the privileged economic position of the upper ten percent, no doubt there would be far greater protest from this politically potent class (some of which supports Trump, of course, and which might then turn against him). This is true even if Trump supporters despise the cultural tendencies of the

liberal elite (thus the so-called culture wars) which comprise a good share of the upper middle class. In the spirit of full disclosure, I should mention that with my university professorship and a wife who also has a Ph.D. and works as a clinical psychologist, we are ourselves part of this upper middle class. But I personally find the attacks on immigrants and the xenophobic, racist rhetoric in general that characterizes Trumpism to be both diversionary and disgraceful. And worrisome.

So how does one prevent or at least blunt the use of nativism as such a potent tool for populist leaders? Beyond promoting socio-economic equality, I cannot optimistically provide many suggestions, but let me give it a try. First, without blaming the immigrants, we do need to acknowledge that staggering numbers of people are on the move worldwide. This is hardly surprising because conditions in the places from where they come have become unbearably desperate as the result of war, poor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mong other factors.

A rational view of the troubled conditions in much of the world migh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now is the time for the wealthy countries, especially the wealthy liberal democracies, to exert themselves all the more on the global stag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means, to help try to stabilize conditions in various localities. If we could improve conditions in troubled parts of the world, this would stem this wave of migration by individuals who are so desperate that they feel that they have nothing to lose by, for example, rolling the dice and boarding rickety ships to cross the Mediterranean Sea, to provide one example that symbolizes the plight of so many refugees. We must acknowledge tha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citizens in many of the countries on the receiving end are interpreting the large waves of arriving immigrants as overwhelming, however wealthy these receiving nation-states may be in relative terms, providing fertile ground for a populist reaction. But here we quickly run into a chicken and egg situation.

For example, it is extraordinarily unlikely that nation-stat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at are already embroiled in populism will transcend

concepts such as "America First" to provide more leadership worldwide. At the very least, we will have to wait until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o know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reverse course away from Trumpism (and please do not make the mistake of assuming Trump will lose the next election; he may lose, and he may win). One would hope that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that are not experiencing populism, at least to the extent that I understand the situation, would step up their suppor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could promote greater stability in troubled areas of the world.

It is also true that South Korea and, for that matter, Japan, with their respective demographic time bombs (aging populations combined with a dramatic drop off in fertility), could consider taking more immigrants. This could ameliorate to some extent the world refugee problem even as it provides relief to th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dramatically aging societies in both these countries. But taking large numbers of immigrants quickly might provoke the same sort of nativist reaction that is causing such problems in Europe and the Americas. This seems to be what is now happening in Germany after Merkel courageously took in as many immigrants as possible, although populists in Germany have not yet achieved power.

I am rather at a loss about how to stem these nativist impulses, although again there is reason to think that they would be reined in if less people were being "left in the dust" by the upper ten percent. It is really a matter of walking a tightrope, because I think that I can tell you with considerable confidence that part of what made so many individuals in the United States feel that they were being betrayed, that they were being left behind, was precisely elite left liberals pontificating about how we "are all citizens of the world." If the world feels borderless at times to the global elite, the same cannot be said of those outside of the elite, who increasingly wonder why their elites seem to care more about the international system than they do about their fellow countrymen.

Therefore, in the same way that I am hesitant, only because I am not

convinced of its effectiveness, to play the morality card to try to convince elites in democracies to share some of their wealth, I suggest that left liberal elites be very, very cautious about lecturing the rest of the citizenry about how everyone is a "global citizen." At this particular moment such rhetoric actually comes across to many individuals supporting the populist wav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s *traitorous* and therefore is an unproductive approach--we must not be utopian, after all.

We have to come up with an equation whereby the disenfranchised feel genuinely enfranchised in their own nation-states (which will only result from actually enfranchising them, by altering through concrete programs their justifiable conclusion of being left behind) before we can hope that they will view themselves as something larger. I suggest that this is common sensical. It has become painfully clear what sort of populist backlash, including against globalization, takes place when people do not feel enfranchised at home (and do not feel that globalization is benefitting them). Perhaps I should stress that here I am not using the term "franchise" in its narrow sense of individuals having the right to vote, but rather in the broader sense of individuals believing that their voices are being heard as part of the political process, and responded to by those in power.

A Return to Civics: One need not be an academic expert to be shocked, in looking carefully at the sixteen-point definition of populism, at just how willing supporters of populist movements are to weaken and even dismiss the basic values and institutions of liberal democracy. We need to return to fundamentals in terms of teaching civics at the K-12 level. When my kids were in the public schools, it felt to me that the schools were being asked to teach *everything*, from bike safety to multiculturalism (I have nothing against bike safety or multiculturalism). But I think we need to return to devoting considerable time to civics, and by this I unabashedly mean the basics of what constitutes liberal democracy, at the level of the K-12 schools. These days kids are expected to stuff so much knowledge into their heads in the mad race to gain admission to college that one wonders if basic civics have receded into the background. Of course, in

societies where the college entrance exam looms large, it is possible to make demonstrating a sound grasp of liberal democratic values and institutions a core requirement for passing the entrance exams.

How in the world, for example, can so many Americans welcome Trump's bashing of the press? The undermining of an independent press is also taking place in many other countries in Europe and the Americas, with populists leading the way. How can so many Americans seem disinterested in the fact that Trump seems blasé about the rule of law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something that can also be said of Victor Orban in Hungary (who is particularly intent on destroying judicial independence) and other populist leaders. How can so many Americans seemingly crave authoritarianism?

I think that one of the answers is that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we took it for granted that people supported democracy, and we took it for granted that they understood democracy. I still hold out hope that most people will support democracy if they understand it (and especially if they understand the alternatives), but we must make sure that each new generation understands why democracy is precious and how it is supposed to work.

Therefore, I suggest that another way to inoculate nations against populism, assuming that things have not gone too far down the slippery populist slope they like have in some other populist countries (e.g., Hungary), is to making good old, boring "civics" a core subject year after year and year as kids pass through the K-12 system. Let the kids learn, until they can recite it from memory, why it is so incredibly important to have a free press (which reminds me--American schoolchildren previously were often expected to memorize the Constitution plain and simple, and we may want to revive that practice). Explain to the kids and have them discuss how a free press is supposed to function (e.g., including the fact that at times the press is supposed to criticize those in power). Let them understand what happens when there is no independent press, when information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Have them reach an

understanding of wha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internet presents in a democratic society.

Test the children on all this until it is clear that they have learned the basics well. Is this a form of indoctrination? One can call it indoctrination or one can term it the teaching of the national civil religion. But whatever term one calls it, I do not have a problem with it, especially since I think that I could make a pretty strong argument that "indoctrinating" children on how to be critically-minded citizens in a pluralistic liberal democracy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indoctrinating them to unquestionably obey a regime that tolerates no dissent. Societies, especially liberal democracies, need to agree on core values and institutions and transmit this shared culture to the next generation. More unpleasant varieties of government would do enforce a much nastier form of shared culture.

Therefore, teach the kid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rule of law year after year as well. Often one of the best ways to impart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is through counter examples. What happens when a society is not run by the rule of law? That is sort of like trying to play a soccer match without any rules. Who typically benefits when a society is not managed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Teachers obviously are already familiar with all sorts of ways to teach these sorts of concepts to kids at each developmental stage, but room must be made in the curriculum year after year to teach these core values until every kid has a grasp of them even before graduating from junior high school. And then they should be reviewed with greater sophistication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I know that what I am saying in this last section in particular is hardly rocket science, but sometimes part of the solution to a problem is so simple that we overlook it. Teach the kids year after year why it is so important to have democratic institutions, and why it is so important to have the separation of powers. Teach them that it is incorrect to think that there will ever be a "unitary people" in the nation, and that disagreement is to be expected (with majorities also expected to be temporary), and that what matters is that all agree on the mechanisms by which decisions are reached

(respect for elections, and for the decisions of elected leaders, at least until the next election). Note that in this section too I am truly trying to keep it to the fundamentals to avoid controversy. I happen to think that in an ideal world we would also employ the K-12 schools to teach ever greater tolerance in so many areas, respect for LGBT rights for example (which I have long supported).

But at this particular moment in history I am so concerned about the corrosive effects of populism on what previously was a consensus about basic values and institutions of the American Republic that I cannot help wondering if before progressivism can advance any further, we need to shore up the basic foundation. I know that could earn me some disapproving looks from some left liberals. But remember, if the basic foundation erodes, if populism as defined above grows sturdy root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our troubles may become much worse. Progressivism may be stalled until further notice, and in fact progressive gains could be rolled back. As for countries that are not yet infected by populism, those who care about the future of democracy would do well to take preemptive steps to guard against populism taking root in the first place.



## “어떻게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김 봉 중

루오프(Ruoff) 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고, 더 고차원의 민주주의에 이르기 전에 극복해야하는 고통스럽고 고뇌스러운 도전 중 하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학자들은 뭔가 '포퓰리즘'과 관련될 때마다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는 걸 꺼려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현상의 다양한 다양성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모호하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용어일 뿐 아니라 그 너머 이데올로기적 싸움으로까지 끼어 들어야하는 불쾌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문제는 그 다툼의 원인이 종종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서 기인 한 것이 아니라 '우익 (right)' 또는 '좌파 (left)'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진흙 투쟁 때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을 사용하지 않아서 영어로 발음되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루오프 교수는 미국의 포퓰리즘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그 많은 포퓰리즘을 경험하지 못한 연속체의 측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근대에 직면했던 시련과 고난을 생각할 때, 특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투옥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힘든 고민의 도전에 직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의 핵심으로 '국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포퓰리즘'이라는 모호하고 복잡한 용어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위험 사이의 포퓰리즘의 역할을 선택해야합니다. 민주주의의 유일하고 진정한 형태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최근의 두 명의 학자 페데리코 핀첼슈타인 (Federico Finchelstein)과 얀-베르너 뮐러 (Jan-Werner Müller)의 분석을 통해 포퓰리즘을 정의하는 루오프 교수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가치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사회 경제적 평등, 토착주의, 공민학으로 돌아가기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회 경제적 평등이나 자연주의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인들만큼이나 문제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인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눈에 띄는 현저한 문제는 지역 적대감과 북한에 대한 태도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입니다

우리는 5월 18일의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유산을 새로운 세대의 관점에서 외부와 내부의 평가를 통해 세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강화하는 이 회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오프 (Louoff) 교수님은 오늘날의 청중들로부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나머지 시민들에게 '지구촌 시민'에 관해 강의하는 '좌파 진영 엘리트'의 위험에 관해 제안한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을 진정한 국민적 감정 (지역과 이데올로기 부문에서 가장 오른쪽에서부터 언급한 야당을 극복하는 것)으로 만드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 공감대에 호소하고 있다고 믿는다.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하면, 우리는 국가의 국민과의 속박을 통해 전국적인 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좌파 자유주의 엘리트들을 시민들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의'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의미하는 바를 물론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황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정된 민주주의와 자긍심 (518 년의 영웅적인 시민운동에서 비롯된 것)을 지니고 자하는 한국인에게 '글로벌 시민 정신'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의 안정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미국인보다 바람직하다. 상대 감각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으로 인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빠른 공명입니다.

# “How to Prevent Populism and Protect Democracy”

## Commentary

Kim Bong Joong

Professor Ruoff has reminded us of one of the difficult challenges, how painful and agonizing it may be, that we face today and ought to overcome before we get to a higher level of democracy. Scholars are reluctant to tackle the problem of democracy whenever it relates to ‘populism’. It is because the term populism is not only a vague and contested term that can be used in reference to a diverse variety of both nation and phenomena, but it would invite a unpleasant situation in which he or she has to get into an ideological fighting over democracy. Problem is that the fighting is often not originated from a genuine concern for democracy but from a political and ideological mud-fighting either from ‘right’ or ‘left’. It is one of the reasons, I believe, we Koreans use the term ‘populism’ as it is pronounced in English, with no usage of translated version in Korean.

Unlike the long history of populism in the United States, Korea, as Prof. Ruoff points out, would be on the side of the continuum not experiencing that much populism. Nevertheless, when thinking of the trials and tribulations that Korea has faced during the modern era in general, and the recent years that put two former presidents in jail in particular, we Koreans face the difficult and agonizing challenge of defining ‘a genuine democracy’ and finding a solution to overcome the obstacles to the genuine democracy. One of the first step to tackle the challenge is to define ‘democracy’, which employs the concept of ‘the people’ as the core of the debate on democracy, thus bringing us to face the ambiguous and complicating term of ‘populism’. We then have to choose the role of populism between an intrinsic danger to democracy, or the only true form of democracy.

Having said that the difficulties of defining the term populism, I think Prof. Ruoff's approach to define populism through the analysis of two recent scholars, Federico Finchelstein and Jan-Werner Müller is valuable and effective, because they approach populism having its national, social, and

regional diversity in mind.

I don't have much to say on the three subjects — Socio-Economic Equality, Nativism, and A Return to Civics, because it would shed more light on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an Korea. I am not saying we are free from the problems in socio-economic equality or nativism. But it seems to me we are not yet exposed to the problems as much as the Americans are today. The salient problem that have haunted the Koreans most on the road to the mature democracy is the ideological division based on the regional animosity and th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We are obviously having this conference, I believe, to enhance the meaning and legac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rough external and internal assessment from a new perspective beyond the boundaries of generations and spaces. In that sense, I feel like I have to clarify what Prof. Ruoff has suggested in regard to the danger of 'left liberal elites' lecturing the rest of the citizenry about 'global citizen', to avoid some misunderstanding from the audience today. As a person who believe that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make the 518 spirit a truly national sentiment (overcoming the above mentioned opposition from the far right, most from the regional and ideological division), I believe that appealing to the universal consensus on democracy is of utmost importance. In other words, we can get a nationwide consensus of the 518 spirit through the bondage with the people outside the country. I know of course what he meant by saying 'lecturing' of left liberal elites to the rest of the citizenry. Yes, we ought to be careful not to fall into pontification. Nevertheless, seeking 'global citizenship' for the Koreans who are eager to grasp both security of stable democracy and a sense of pride (from such heroic citizens movement as the 518) is more desirable than for the Americans who are enjoying a stable democracy in a relative sense and probably, most of all, the quick resonance they would get worldwide due to its national power.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2부 세계의 경계를 넘어  
Session 2 Beyond Boundaries of the World

# 정의와 인권 과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찰과 생각

Observations and Thought About the Justice and  
Human Rights Quest and the Making of a Better World

루이스 빈치게러

Louis Vinciguerra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USA)





## 정의와 인권 과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찰과 생각

루이스 빈치게러

저는 1995년 광주에 처음 도착해 5월 18일이란 날짜가 적혀있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1980년의 5·18항쟁이나 5·18 정신이 무엇인지 몰랐고, 수년 동안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서 그 항쟁에 대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스러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5월 18일이 제 생일이었고, 그 운명과 행운이 나를 적절한 장소로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저는 정의와 인권 탐구 및 5·18 항쟁과 5·18 정신이 광주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민주항쟁의 전통적 정신에 영감을 불어 넣은 5·18 정신이 인권, 평화, 정의, 변화, 진정한 민주주의,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력, 억압, 불의 등으로 고통 받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 시킬 수 있는 정신. 그렇습니다. 폭력, 국가 폭력과 군사 통치에 저항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연대, 분담, 협동 정신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광주 항쟁의 정신은 한국 사회와 많은 국가 인권 운동가들의 도덕적 힘의 원천입니다

항쟁 중에 많은 민중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으며, 정서적 공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됩니다. 사망한 이들과, 정의라는 대의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 투쟁은 최근 박 대통령 정부의 부패와 불의에 대한 항의, 세월호 재난에 대한 정의 추구, 촛불 시위에 대한 전국적인 무력군사단속 계획에 대한 반발 등이 촛불시위 (Candlelight Vigils)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지내면서, 더욱 최근에는 5·18 기념 재단의 아티스트이자, 교정자, 면접관, 대변인등으로 지내면서 느꼈던 정의와 인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모색등에 관한 몇 가지 관찰과 생각을 나누고자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평생 영성 및 영적 탐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저는 정의, 인권, 더 나은 세상을 더 큰 영혼건축의 일부이거나/일부가 되는 것이고, 영적 탐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제 논문에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소설가인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와 영국의 역사가 폴 존슨(Paul Johnson)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선 톨스토이는 -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 "하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톨스토이의 인용문을 더 나은 세상, 좀 더 공정한 세상 만들기를 추구하는 인권 활동가들 및 영적 탐구자들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때,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 부름과 양심입니다.

부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삶이나 경력, 직업의 특정 방식에 대한 강한 충동"입니다. 영적인 개념에서 더 신비스런 의미는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파워, 우주와 영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고, 특정 삶의 목적과 운명을 성취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며, 운명 지어진 내면의 촉발, 특정한 길, 특정한 삶의 방식, 특정 종류의 일을 따르도록 부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름은 가끔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 열림, 각성, 부름의 실현 등이 신비한 체험이나, 초자연적 현상 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열림을 경험하고,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보편적 의지가 하나라는 사실과 우리가 더 큰 현실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많은 인권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부름을 받고 수행하는 일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보다 더 공정하고 공평한 세계를 추구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가 계속 기억납니다. 이제 양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올바른 행동을 향한 충동으로서 자기 행동이나 동기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내적 감각"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이며, 상호간의 사소통하는 정신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심에 따름으로서 우리 안에서의 영적 현실, 모든 만물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영적 본성, 우리의 높은 차원의 의식과 자아에 적응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계에서 더 나은 인권활동가이자 영적 탐구자가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의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달려 있는 것으로, 합법성과 법률에 의존하지 않지만, 너무나 자주 부당하면서, 지도층 엘리트와 대기업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 그리고 부자와 세력층에 우호적이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성한 명령은 진리, 선, 의의 도관으로서 개인의 양심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양심이나 신성한 명령보다 더 우선하는 국가, 정부, 사회, 인위적 법률, 정당, 정치가, 통치자는 결코 없습니다.

실제로, 인권 활동가들과 영적 탐구자들은 자신들의 일과 활동에서 지지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능한 정도까지 일상생활에서 그런 삶과 더불어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작업해야 합니다. 더 나은 인간으로 스스로 변해야 하고, 열린 마음, 깨어있는 영혼, 깨달은 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의 법칙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곳 지구라는 행성의 거주민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의 정의와 인권의 차원을 높이고, 친절함의 행위와 관용 및 인내, 연민을 통하여, 그리고 평화적 행동과 분노, 욕심, 부정을 통제함으로써, 또한 인내, 참을성, 고양된 인식 및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즉, 간단히 말하면, 모든 만물의 신의 존재에 대한 윤리적이고 영적인 실천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내면의 노력과 영적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권 활동가들과 영적 탐구자들에게 이 세상의 행동에서 더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며, 성실, 신의 및 신뢰로 선한 싸움을 더욱 잘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신뢰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말한 것을 실행하고, 전파하는 내용을 실천하며,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윤리적 행동과 정의 및 인권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5. 18 정신 또한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더욱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윤리적, 영적 발전과 더불어 그 실천의 필요성은 영적 단체와 인권 단체 및 인도주의 단체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들 또한 자신이 말한 바를 실천해야 하며, 자신의 일상행동과 활동 및 정책에서 단지 말뿐만이 아닌 윤리적 행동과 정의 및 인권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와 그들의 작업자 및 추종자와 지지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광범위한 성매매 스캔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톨릭교회가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인도적 지원 단체인 미국의 적십자사가 끔찍한 재난의 아이티(Haiti) 지역에서 단 6채의 집을 짓기 위해 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욱이 그 예산의 90%가 자체 급여와 경비로 지급되었고, 겨우 10%만이 실제 응급 지원과 재난 구호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 외 옥스팜 (Oxfam)이나 구세군 (Salvation Army)과 같은 인도주의 단체들의 명성도 스캔들로 훼손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면의 깨달음은 사회의 영적, 윤리적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신성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와 인간의 권리에 더 부합되는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물의 살아있는 정신에 들어가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계,

즉 신성과 모독, 인간과 자연, 자아와 타인 사이의 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정신의 공통성만이 지배적인 곳 그런 세상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될 고양된 의식상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인 폴 존슨 (Paul Johnson)의 인용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학생이었던 대학시절로부터 저는 역사, 특히 문화사와 정신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심도있게 연구하면서, 정의와 인권에 대한 꿈과 영적으로 활성화된 세계의 꿈은 수천 년 이어진 것으로, 결코 끝이 없는 탐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 인권의 개념입니다. 한 예로, 바빌론시를 정복한 후, 인간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인종 평등을 확립하고, 노예를 해방시켰던 고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사이러스 대왕(Cyrus the Great)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현재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 세계 최초의 인권 헌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이러스 실린더 (Cyrus Cylinder)라고 알려진 점토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린더의 복제본이 현재 뉴욕시의 유엔 건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류 평등주의의 토대위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선언은 정부 정책에서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대 인도의 아쇼카 칙령 (Edicts of Ashoka)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또 자연권에 대한 생각이 고대 스토아 철학의 기원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잉글랜드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215)와 권리 청원 (Petition of Right, 1628), 미국 헌법 (1787), 프랑스 인권 시민권 선언 (Frenc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 1789), 미국의 권리 장전 (US Bill of Rights, 1791)등은 1948년 UN의 세계 인권 선언을 포함한 더 최근의 많은 인권 문서들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꼭 릴레이 경주 같으며, 그 작업이 계속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장기 여행, 또는 유교와 스토아주의 (Stoicism), 힌두교, 불교, 도교, 유대교, 기독교 및 이슬람교와 같은 서양과 동양 모두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을 포함한 계보의 고대 탐구와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보에는 유럽의 낭만주의와 미국의 초월주의 같은 예술적, 문학적, 지적 운동과 1970년대와 80년대의 아메리칸 인디언의 영성과 뉴 에이지 운동을 포함한 역사의 신비한 전통 등도 포함됩니다. 이 계보는 세속적인 삶이 신성한 의식이 되는 이 행성과 영적 삶의 조화로서, 정의롭고 영적으로 고양된 세계를 찾았던 몇 안되는 인물로

거론되는 스리 오로빈도(Sri Aurobindo), 스리 라마크리шна(Sri Ramakrishna), 추앙 츠(Chuang Tzu),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랠프 에머슨(Ralph W Emerson)과 같은 철학자, 작가, 예술가, 신비주의자 등을 포함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세계와 더 절의로운 세계를 위한 20세기와 21세기의 개혁자들도 또한 언급해야 합니다. 즉, 엘레노어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 그리고 최근에 성인으로 추앙된 오스카 로메로 신부(Oscar Romero)와 말라야 유사자(Malala Yousafza) 등입니다. 이들 모두 영감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덧붙여,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인권과 정의는 현실 세계에서 영적인 힘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상이고, 가능한 정도까지 분명히 이뤄내야할 힘든 작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힘든 작업을 실행한 사람의 예로는 최근에 사망 한 빈곤 퇴치와 평등 촉진, 인권을 위한 싸움에 전념한 유엔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은 너무나 자주 역사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단지 이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긴 역사 중 지난 단 200여년 동안에 기록역사상 최악의 불의와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거론해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의 노예화, 수백만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대량학살, 유대인 대학살, 베트남에서의 미군과 한국군의 잔학 행위, 서방 제국주의와 수백만명의 압제, 지배와 패권을 위한 세계 강대국간의 권력 투쟁인 세계대전, 의심스런 이유에 의한 일본도시의 원폭 투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가 저질렀던 폭력과 불의와 범죄, 르완다 대량 학살, 현재의 로힝자야(Rohingya) 위기, 예멘의 전쟁과 인도주의적 재난,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석유 부유지역 통제를 위한 중동 전쟁.

전체 역사에서 우리는 권력으로 암살되거나 사형을 당했던 소크라테스, 예수, 마틴 루터 킹, 존 레논, 마하트마 간디, 체 게바라와 같은 정의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탐구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법이 채택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 시행 및 이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문, 강제 실종, 사법 외 사형 집행, 인권 활동가의 투옥 등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곳 5·18기념재단에 있는 동안 만났던 몇몇 활동가들은 미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나 인권과 정의의 옹호자 및 투사로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일부 사람들이 믿는 정의와 인권의 구현자나 옹호자가 아니며 결코 그런 존재인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

다,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정부의 활동은 정부, 학계, 언론 매체의 지적 엘리트들에게 정기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자, 철학자, 역사가 및 사회 평론가인 노름 촘스키(Norm Chomsky)는 "우리의 지적 문화는 실제로 도덕적인 비겁함과 위선이라는 쌍둥이 기둥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열렬한 반체제 인사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는 그의 시대 당시의 불의와 범죄 그리고 그 옹호자들에게 저항 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사람다울 수 있는가? 나는 부끄러움 없이는 미국의 모습이 연계 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실제로,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역사상 다른 무자비한 국가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으며, 독재자들과 인권 침해자들에게 너무 기꺼이 유착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뻔뻔스러운 점은 미국의 독선, 위선, 오만, 세계에 대한 도덕적 설교, 다른 국가와 문화에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고 세계를 자신의 이미지로 변형시키고 은폐하려는 선교사전파입니다. 저명한 멕시코의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 (Carlos Fuent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증스러운 면은 독선적이며 경건한체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대부분의 인권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국제 형사 재판소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기소, 제재 및 기타 조치로 ICC를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미국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을 정의에 대한 통일된 세계 표준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국제 법원에 일관되게 반대 해왔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둘러싼 행동과 스캔들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무엇이든 변화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미지와 명성을 더 훼손시키고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두 번째 미국의 조 달러 회사인 아마존과 그 CEO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제프 베조스 (Jeff Bezos)는 생활보호 보조를 필요로 하는 직원, 복지 혜택, 식량 배급표, 보조금 주택, 메디케이드 의료보조제도 보조대상자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런 것은 인권과 정의 활동가들을 전혀 고무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내 정의투사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은 아마존과 베조에게 직원들이 받는 공적 자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버니가 베조스와 아마존을 고향지르고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아마존이 최근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린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중국 천진에서 교습하는 동안 나누었던 러시아 학생과의 대

화가 생각납니다. 대화는 저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그의 질문에서 시작되었고, 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Diogenes)가 어디출신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 대답했었던 방식으로, "나는 세계 시민이라거나, 미국보다는 캘리포니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런 대답의 이유를 물었고, 저는 캘리포니아의 이미지를 좋아하고 또 한 국가로서 미국보다는 세계 시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시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가 말했던 내용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미국은 멋진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에 따라 살지 않고 있고, 그렇게 산적도 없습니다." 즉, 요약하면, 미국의 역사는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도덕적 자세에 대한 신뢰감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언제나 이루어져야합니다. 마음과 영혼은 하늘에 달아 있지만, 발은 이 행성 지구와 현실에 단단히 붙어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권과 영적 탐구자들이 환멸을 느끼거나 에너지가 다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실제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히피족(Love Generation)과 대항문화(Counterculture)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머리를 두지만 이 지구와 현실에 발을 단단히 두지 않아서 결국 낙담하고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꿈과 열망이 실현되지 못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히피족(Love Generation)과 대항문화(Counterculture)가 떠오릅니다.

역사와, 일상생활, 사회, 경제, 정치 생활속에서 영적인 힘, 정의, 인권이 존재하는 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인간과 일반 시민, 특히 인권 단체와 운동가 및 영적 탐구자를 위한 작업도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높이는 일 또한 가능합니다. 진정한 이상과 5·18정신을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수천 년 동안의 결코 끝나지 않는 탐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존중하고 지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추구와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고 그 이상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저는 이미 영성과 윤리적, 도덕적 발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정치적 행동과 경제 활동, 교육, 전통적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극,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조각과 영화를 통해서, 즉, 예술과 문화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5·18 항쟁을 다룬 영화, '택시 드라이버'는 5.18 정신의 확산에 기여한 영화의 좋은 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매체가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달아 더 나은 세

상,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5·18기념재단에서 만났던 수많은 인권 활동가들과 5·18정신에 영감을 받은 활동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 티모르, 스리랑카, 터키,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의 헌신과 실행에서 격려와 용기를 받았음을 덧붙입니다. 그들은더 나은 세상과 인간을 위한 최상을 탐구하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5·18기념재단의 포럼과 행사에 두 국가의 대표를 초청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 국가는 팔레스타인과 아메리칸 인디안 연합 (American Indian Nations)입니다. 5·18 정신이 그들에게 영감이 되고, 그들의 인권 및 정의 운동과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 년 동안 엄청난 불의와 인권 침해를 겪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는 5·18 기념 재단이 그들의 투쟁을 인정함으로써 유엔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더욱 큰 격려가 될 것 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국제법과 여러 가지 유엔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 지구의 부당한 상황에는 군사점령, 억압, 땅 몰수 등이 포함되며, 지속적인 팔레스타인 항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상황은 주민들이 육로, 항공로 및 해상로 봉쇄를 받는 곳으로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으로 특히 끔찍한 일입니다. 요약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종 차별주의와 민족 대량학살에 저항하는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인 일란 파페(Ilan Pappé)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강제 이주는 인종청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저항에 대해 공중 폭격, 군 검문소, 집단 징벌 및 대량 구금과 같은 가혹한 보복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인도주의기구인 *국경없는 의사회* (Doctors Without Borders)는 이스라엘이 비무장 팔레스타인 국경 시위자들에게 자행한 과도한 무력 사용은 “용인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희생자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쏜 총에 머리를 맞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십대 소녀인 아헤드 타미미 (Ahd Tamimi)가 최근 이스라엘의 불의와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에 대해 밝힌 용기 있는 행동과 분명한 연설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밝힌 사실 또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병사를 때리고 빵을 찢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고, 그녀의 저항으로 국제적인 명성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석방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강연을 다니고 있으므로, 재단의 포럼이나 행사에는 이상적인 참석자가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인디언 네이션(American Indian Nation) 또한 5.18 정신과 투쟁에 대한 재단의 인정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미국의 권력에 의해 오랫동안 잔인한 처사를 받아왔고 자신들의 권리 중 상당부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잘 알려진 예를 들면, 1890년 사우스 다코타주의에 있는 파인 릿지 인디언 보호구역(Pine Ridge Indian Reservation)의 운디드 니 강(Wounded Knee Creek) 근처의 수(Sioux)족 캠프에서 수족 인디언 297명이 자신들의 화기를 압수하러 온 연방요원들과 제 7 기병대 군인들에게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대다수가 평화롭게 화기를 반납하고 나자 기병대가 총격을 시작했고 인디언 캠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97명의 희생자 중 200명이 여성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인디언 두피 당 5달러의 골드 러쉬가 원주민 인디언을 죽이는 현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의 골드러쉬(Gold Rush) 대신 원주민을 사냥하여 현상금을 얻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멘도시노(Mendocino) 카운티에서는 과거에 정기적으로 인디언 도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디언 사냥을 나가는 것이 스포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차별과 부정의 및 수년간의 연방 인디언 정책에서 벗어나, 인디언 지역사회 멤버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운명 지배력을 되찾고 인디언 문제와 인디언에 대한 미 정부의 파괴적 정책에서 저항해 미국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 1968년에 미국 인디언 운동을 설립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전통에 힘입어 자신들의 정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땅 개간지 중 많은 지역에서의 권리, 부족 지역의 자치와 조약 위반 등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석유, 광물 및 철도 회사에 의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도록 착취되고 있는 조상 땅에 대한 저항으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다뤘던 미국 잡지 Counterpunch의 2016년 기사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조상들의 전투정신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석유 회사가 사우스 다코타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신성한 땅을 모독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유례없는 연합에 나섰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최근의 기억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미 원주민 대변인 역시 5·18 기념재단의 행사에 초대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두 사람을 재단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에이미 굿맨(Amy Goodman)과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입니다. 에이미 굿맨은 미국의 방송 저널리스트, 저술가이자 취재기자이며, 아마도 근래 가장 중요한 진보적 뉴스 기관"이라 불리며 라디오, TV, 인터넷에서 매일 방송되는 독자적 글로벌 뉴스 프로그램인 *Democracy Now*의 사회자입니다. 인권과 정의의 옹호자인 그녀는 국제 평화 증

진에 기여한 공로로 간디 평화상(Gandhi Peace Award)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그의 사회-정치적 행동주의로 주목받고 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제작자입니다. 2005년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인물 중 한 명으로 그를 선정했습니다. 미국 내의 주요 정치 및 사회 문제를 다룬 그의 영화를 언급하자면, GM(General Motors)이 공장을 폐쇄하고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열어 실업이 뒤따른 후 미시간 주의 플린트(Flint)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룬 영화 *Roger and Me*가 포함됩니다; Columbine 고등학교 대학살의 원인과 미국에서 총과 폭력의 문화를 조사한 *Bowling for Columbine*; 미국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건 시스템의 부족을 다룬 *Sicko*; 그리고 최근에 발매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실상과 미국의 현재 실상에 고착되어 있는 잔인한 노트를 알리는 화씨 11/9 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의심의 여지없이 에이미와 마이클 이 두 사람은 재단의 행사에 소중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모든 행사와 포럼에 참석해 연사들의 강연을 듣고 난 후, 그리고 모든 책과 에세이, 신문 기사를 읽은 후, 너무나도 자주 불공평하고 가혹한 사회, 정부, 역사의 방식을 생각한 후, 내게 남은 할 일은 좋은 와인 잔을 들고 웃고 유머 감각으로 기쁨을 찾고 행복하게 노력하는 것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음을 보고, 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그걸 보고자 노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그 정신이 살아있게 간직하고, 하늘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프랑스 철학자이자 예수회 신부인 테야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이 말한 "우주의 가치라는 맥락에서는 환상적인 것만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처럼, 신앙이 살아 있다면 기적은 평범하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나은 세계의 탐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전 세계적으로 미 투 (Me Too) 운동과 여권 운동 그리고 인종 차별주의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3개국 여행을 다니면서, 일상생활과 친절, 관대함, 공정성의 단순한 행동으로 인간의 최선을 분명히 보여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러한 일화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여행 중이던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동안 한 일본 노인들이 저를 보았고 우산을 쓰고 달려 와서 제가 목적



지에 도착할 때까지 쏟아지는 빗속을 세 블록이나 함께 걸었습니다. 인간의 친절함이 얼마나 멋진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위 및 행동과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Observations and Thoughts About the Justice and Human Rights Quest and the Making of a Better World**

**Louis Vinciguerra**

I first arrived in Gwangju in 1995 and remember seeing posters with the date May 18 on them. At that time, I was not aware of the 1980 May 18 Uprising or the May 18 Spirit and doubted if many knew of the Uprising in California where I had lived for many years. What I did know for sure was that May 18 was my birthday and that fate and fortune had brought me to the right place.

Since that time I have come to better understand what the justice and human rights quest and the May 18 Uprising and the May 18 Spirit mean to the people of Gwangju and Korea. I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May 18 Spirit, the Spirit that has inspired the traditional spirit of democratic uprisings in Korea, is infused with the call for human rights, peace, justice, change, real democracy, a Spirit that helps bring people together, people from not only Korea but from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suffering from violence, oppression, and injustice. Yes, the Spirit of the Gwangju Uprising, with its resistance against tyranny, state violence, and military rule and its aspirations for true democracy, solidarity, sharing, and for a cooperative spirit, is a source of moral strength for Korean society and for human rights activists from many countries.

During the Uprising people were killed, many were injured, and emotional scares remain. Ceremonies take place commemorating the Uprising. Homage is paid to the dead, to those who gave their lives to the cause of justice and for a better world. And the struggle continues with the recent Candlelight Vigils protesting the corruption and injustices of President Park's government, the seeking of justice regarding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backlash against the recently revealed secret plan for a nationwide military crackdown of the Candlelight protests.

I would like to now share a few of the observations and thoughts that I

have had about the quest for justice, human rights, and the making of a better world while living in Gwangju and, more recently, while at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s an artist, proofreader, interviewer, and speaker. Let me add here that I have had a lifelong interest in spirituality and the spiritual quest and that I personally see this quest for justice, human rights, and a better world as being/becoming part of a larger soul building and transforming spiritual quest and have integrated this view into my paper.

I want to begin by quoting the Russian novelist Leo Tolstoy and then the British historian Paul Johnson. First Tolstoy – “Everyone thinks of changing the world but no one thinks of changing themselves.” Now Johnson – “But who is foolish enough to believe there is justice in this world.” When thinking of Tolstoy’s quote as it relates to those human rights activists seeking the making of a better, more just world and those who are spiritual questers two words come to mind – calling and conscience.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calling is “a strong urge towards a particular way of life or career or vocation.” The spiritual more mystical meaning is that one is called by a higher power, by the universe, by the spirit and that we are called to follow an ordained inner prompting, a certain path, a certain way of life, a certain kind of work, called to fulfill our life’s purpose and destiny. Sometimes it’s a gradual process and sometimes the opening, the awakening, the realization of your calling, occurs instantaneously during a mystical experience, an epiphany. We experience the opening, we hear the call, and we follow – and realize that our will and the universal will are one, that we are part of a greater reality. And I am constantly reminded when I meet many human rights activists that what they are doing in fulfilling their calling is motivated by more than earning a livelihood but by seeking a more just and equitable world.

Now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conscience – “the inner sense of what is right or wrong in one’s conduct or motives, impelling one towards right action.” The spiritual meaning is that it is the moral and spiritual faculty within us, the spirit communicating through us. And by following our conscience we are helping to attune ourselves to the spiritual reality within us, to the

underlying spiritual nature in all things, to our higher consciousness and higher self. All this will help us become better activists and spiritual questers in the world. And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justice ultimately depends on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and not on legality and laws, which all too often can be unjust and favor the governing elites and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of big business and the rich and powerful. Yes, the sacred order speaks through one's conscience, a conduit for the true, the good, and the just. And no nation, no government, no society, no man-made laws, no political party, no statesman-politician-ruler, no public opinion has priority over one's conscience and the sacred order.

Indeed, human rights activists and spiritual questers need to try to live the ideals they espouse in their work and activities, to live them in their daily lives to whatever degree possible. They need to work on themselves in order to help make for a better world. They need to change themselves into better human beings, need to awaken to the moral and spiritual laws of life, which can be understood by an open heart, an awakened soul, and an awakened conscience. And, of course, this holds true for all of us denizens here on planet earth.

Yes, there is need for inner work, spiritual work to increase the degree of justice and human rights in the world, to create a better world through acts of kindness, generosity, tolerance, compassion, through peaceful actions, control of anger, greed, negativity, through patience, perseverance, enhanced awareness and depth of understanding, in short, through ethical and spiritual practice and love of the Divine Presence in all things. All this will better prepare human rights activists and spiritual seekers for action in the world, prepare them to better fight the good fight with integrity, confidence, and credibility. And they need to understand that they lose their credibility when they say one thing but do the opposite. All too often this is the case. Therefore, it's important for them to walk the talk, to practice what they preach, to make real ethical action, justice, and human rights in their daily lives. And, of course, the May 18 Spirit would thrive in such an environment and atmosphere.

The need for ethical and spiritual development and practice is also important when it comes to spiritual and human rights groups and humanitarian organizations. They too need to walk the talk and not just talk but practice ethical action, justice, and human rights in their everyday actions, activities, and policies. This is important so as not to lose credibility in the eyes of the world and their workers, followers, and supporters. The Catholic Church continuing widespread sex scandals is a case in point. Also, the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 the American Red Cross has been accused of reportedly spending a half a billion dollars to build just six homes in devastated Haiti. It has also been revealed that 90% of its budget goes to salaries and expenses and only 10% to actual emergency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Scandal has also tarnished the reputation of other humanitarian organizations such as Oxfam and the Salvation Army.

The kind of inner awakening I've been talking about can, of course, also increase the spiritual and ethical vitality of society in general too and can help create a way of life more in harmony with the sacred order, more in balance with nature's order, and more in tune with justice and the rights of human beings. It can result in a heightened state of consciousness that would enable more human beings to enter the living spirit of things and help create a more just and equitable world, one where the illusion of separateness between sacred and profane, man and nature, self and others no longer exists and where only a commonality-in-spirit prevails.

And now some observations about the historian Paul Johnson's quote – "But who is foolish enough to believe there is justice in the world." To begin with, I have had an interest in history dating back to my university years as a student, especially cultural and intellectual history. And if one studies history long enough one learns that the dream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and of a spiritually vitalized world is thousands of years old and that it is a never ending quest.

Indeed, as old as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that's how old is the idea of human rights. For example, Cyrus the Great, the first king of ancient Persia, after conquering the city of Babylon declared that people had the right

to choose their own religion, established racial equality, and freed the slaves. These and other degrees were recorded on a clay cylinder known as the Cyrus Cylinder now recognized by some historians as the world's first charter of human rights. A replica of the Cylinder is now housed in the United Nations building in New York City. Also, a declaration for religious tolerance on an egalitarian basis can be found in ancient India, in the Edicts of Ashoka, which stressed the importance of tolerance in government policy. Some historians also suggest that the idea of natural rights finds its origins in ancient Stoic philosophy. And England's Magna Carta (1215) and the Petition of Right (1628), the US Constitution (1787), the Frenc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1789), the US Bill of Rights (1791) are the precursors of many of the more recent human rights documents, including the 1948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Yes, one learns that it resembles a relay race, a long term journey where the work keeps getting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n ancient quest with a lineage that includes both Western and Eastern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raditions, such as Confucianism, Stoicism, Hinduism, Buddhism, Taoism,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The lineage also includes artistic, literary, and intellectual movements such as Romanticism in Europe and Transcendentalism in America and also the mystical tradition in history, including American Indian Spirituality and the New Age Movement of the 1970s and 80s. The lineage harbors such philosophers, writers, artists, and mystics as Sri Aurobindo, Sri Ramakrishna, Chuang Tzu, William Blake, and Ralph W Emerson to name just a very few who sought a just and spiritually vitalized world, a harmonization of planetary and spiritual life where earthly life becomes a sacred ritual. Finally, mention should also be made of some of the more recent 20<sup>th</sup> and 21<sup>st</sup> century crusaders for a better more just world—Eleanor Roosevelt, Mahatma Gandhi, Martin Luther King Jr, the recently canonized Father Oscar Romero, and Malala Yousafzai. All of them inspiring.

In addition to all this one also learns from studying history that human rights and justice are, in the real world, ideals that need spiritual strength and sustained effort and hard work to manifest to whatever degree possible. An example of someone who made the sustained effort and performed the hard

work is the recently deceased former head of the UN Kofi Annan who was committed to fighting poverty, promoting equality, and fighting for human rights. Too often, though, the ideals have remained ideals and not the reality in history. For example, just in the last 200 or so years some of the worst injustic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recorded history have occurred. To begin with and to name just a few we have the enslavement of millions of Africans, the genocide of millions of American Indians, the Jewish Holocaust, the atrocities committed by American and Korean troops in Vietnam, Western imperialism and the subjugation of millions, the World Wars which were primarily power struggles between world powers for domination and supremacy, the dropping of atomic bombs on Japanese cities for questionable reasons, the violence, injustices, and crimes committed by the Israeli government against the people of Palestine, the Rwandan genocide, and the present day Rohingya crisis, the war and humanitarian disaster in Yemen, and the Middle East wars for control of oil rich regions that have cost the live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And throughout history we have had seekers of justice and a better world like Socrates, Jesus, Martin Luther King, John Lennon, Mahatma Gandhi, and CheGuevara who were either assassinated or condemned to death by the powers that be. Also, torture, enforced disappearances,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imprisonment of human rights activists continue to occur throughout the world as well as human rights laws being adopted but often not enforced or implemented by governments.

I need to note here that while at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 have met some activists that seem to view America as some kind of guardian of democracy and upholder and fighter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But America is not and never has been the embodiment and uphold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that some people believe. Yes, US government actions not only within the United States but world-wide are regularly defended by intellectual elites in the government, in academia, and in the press and media. But as the linguist, philosopher, historian, and social critic Norm Chomsky says, "Our intellectual culture is really founded on the twin pillars of moral cowardness and hypocrisy." And another ardent dissident, Henry David

Thoreau, rebelling against the injustices and crimes of his time and their apologists, exclaimed, "How does it become a man to behave toward this American government today? I answer, that he cannot without disgrace be associated with it." Indeed, America as an imperial power has not acted differently than other ruthless powers in history and has been all too willing to cozy up to dictators and human rights violators. But what is especially galling is America's self-righteousness, its hypocrisy, its arrogance, its moralistic preaching to the world, its missionary impulse to impart American values to other nations and cultures and to transform and covert the world into its own image. As the distinguished Mexican novelist Carlos Fuentes put it –"The most detestable aspect of the United States is its self-righteous, holier-than-thou aspect. This will have to change."

And may I add that the US has refused to sign most human rights treaties and is not party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fact, it has recently even threatened the ICC with prosecution, sanctions, and other actions over its opening an investigation into possible US war crimes in Afghanistan and other countries. Actually, the US has consistently opposed any international court that could hold US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s to a uniform global standard of justice. Furthermore, the actions and scandals surrounding the present Trump presidency and his administration has not at all help change anything for the better, either. In fact, they have further tarnished and diminished America's image and reputation in the world. Also, the second American trillion-dollar company Amazon and its CEO, Jeff Bezos, the recently proclaimed richest man in the world, have employees that need public assistance, employees that qualify for welfare, food stamps, subsidized housing, and Medicaid. No, this is not something that would inspire human rights and justice activists at all. Indeed, Senator Bernie Sanders, a fighter for justice in America, has asked Amazon and Bezos to pay for any public assistance their employees receive. It should be noted that after Bernie called out Bezos and Amazon and after all the uproar, Amazon has just recently raised its minimum wage to \$15 an hour.

Here I remember a conversation I once had with a Russian student while teaching in Tianjin, China. It began by him asking me what country I was



from and I said that I usually say what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Diogenes once said when asked where he was from – “I am a citizen of the world” or I say California rather than America. And, of course, he asked me why and I said because I like the image California and world citizen convey rather than the one America all too often projects in the world. And I never forgot what he said – “America has wonderful ideals but doesn’t live by them and never has.” In short, America’s history does not at all lend credence to its moral posturing on the world stage.

Regardless, the quest continues. The attempt must always be made, made with hearts and souls reaching for the heavens but with feet firmly planted on the planet earth and in reality. This will help human rights and spiritual questers to avoid becoming disillusioned and burned out. Indeed, I am reminded of the 1960’s and early 1970’s Love Generation and Counterculture where so many had their heads in the sky but not their feet firmly planted on the earth and in reality, and thus many eventually became disheartened and disillusioned, their dreams and aspirations unfulfilled.

The work then for us human beings and citizens in general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activists and spiritual questers in particular is to continue onward undaunted while seeking to increase the degree of the presence of soul power, justice, and human rights in history, in daily life,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Yes, to increase the degree of their presence is possible. To make real the ideal and the May 18 Spirit to whatever degree is the work we are given to do. And, as I have said before, it is a never ending quest thousands of years old. And it is a quest and tradition worthy of our respect and support.

And there are numerous ways to accomplish all this, to make real the ideal to whatever degree possible. I have already mentioned the not often spoken of spirituality and ethical and moral development. Of course, there is also social and political action, economic action, education, and the traditional media and social media. Another means is through the arts and culture, through theater, literature, music, art, architecture, dance, sculpture, and cinema. The Korean film *Taxi Driver*, a film about the May 18 Uprising, is a

good example of cinema contributing to spreading the May 18 Spirit. Yes, all these mediums can reach the hearts and souls of human beings and help make for a better and more just world.

I should add that I have been encouraged by the dedication and commitment of many of the human rights activists I have met at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ctivists inspired by the May 18 Spirit, activist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Southeast Asia, China, Africa, Malaysia, Indonesia, East Timor, Sri Lanka, Turkey, Bangladesh Nepal, Pakistan, and Europe. They are carrying on a long tradition of seeking for a better world and the best in human beings.

I would like to now recommend that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nvite representatives from two other nations to upcoming forums and events – Palestine and the American Indian Nation. I believe the May 18 Spirit would be an inspiration to them and would further empower their human rights and justice movements and activities. In regards to the Palestinian people, who have suffered untold injustic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for many years, acknowledgement b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of their struggle would further encourage them to continue on as has that of the United Nations. As is well known, Israel has been violating international law and several UN resolutions by occupying Palestinian territory. And the unjust conditions in the West Bank and Gaza strip include military occupation, repression, and confiscation of land and contributes to the continuing Palestinian uprisings. The situation of Gaza is particularly dire where residents are subjected to land, air, and sea blockade and feel that they are living in a huge prison. In sum, the Palestinian people are fighting for their survival as a people against racism and genocide. Indeed, according to the Israel historian IlanPappe the forced displacement of Palestinians amounts to ethnic cleansing. And any form of resistance has been consistently met with severe reprisals like aerial bombardment, military checkpoints, collective punishment, and mass detention. Recently,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 Doctors Without Borders has condemned Israel use of excessive force against unarmed Palestinian border protesters as "unacceptable and inhuman." Some of the victims have been young children shot in the head by Israel soldiers. It is

worth noting here that the Palestinian teenager Ahed Tamimi has also recently stood up to all this by her inspiring and courageous action and articulate speech against Israeli injustices and violations of Palestinian rights. She served eight months in prison for shoving and slapping an Israeli soldier for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her village and has gained international fame and support for her defiance and rightly so. Since her release, she has continued to speak out and would be an ideal participant at one of the Foundation's forums and events.

As with the Palestinian people, the American Indian Nation would also greatly benefit from the May 18 Spirit and the Foundation's acknowledgement of their struggle. The Native Americans have been for so long brutalized and deprived of many of their rights by the powers that be in America. For a well-known example, in 1890 297 Sioux Indians at their camp at Wounded Knee Creek on the Pine Ridge Indian Reservation in South Dakota were murdered by Federal agents and soldiers of the 7<sup>th</sup> Cavalry who had come to confiscate their firearms. After the majority peacefully turned in their firearms the Cavalry started shooting and the whole camp was wiped out. Of the 297 victims 200 were women and children. And during the 19<sup>th</sup> century Gold Rush \$5 per scalp was the bounty for killing the native Indians. And many did leave the Gold Rush to hunt natives for bounty. In Mendocino County where I lived in California regular slaughter of Indians also occurred in the past. There it was something like a sport to go out hunting for Indians to kill. And so out of frustration from discrimination, injustices, and years of Federal Indian policy members of the American Indian community came together in 1968 to establish The American Indian Movement to take back control of their destiny from the US government and campaign for changes in the US regarding Indian affairs and the destructive policies against Indians. Today, strengthened by their spiritual tradition, they continue their struggle for justice and their rights in a number of areas, among which are reclamation of illegally seized lands, autonomy of tribal areas, treaty violations, and the struggle against ancestral lands being subjected to expropriation and exploitation, past and present, by oil, mineral, and railroad companies. A 2016 article in the US magazine Counterpunch about this very issue is worth mentioning here. Let me quote a passage from the article—"Thousands of

Native Americans resurrected the fighting spirit of their forefathers as they [recently] stood in unprecedented unity to contest an oil company's desecration of their sacred land in South Dakota. Considering its burdened historical context, this has been one of the most moving events in recent memory. "Surely, a Native American spokesperson should also be invited to a May 18 Memorial Foundation event.

And now I would also like to recommend two individuals to the Foundation – Amy Goodman and Michael Moore. Amy Goodman is an American broadcast journalist, author, and investigative reporter and is the host of Democracy Now, an independent global news program broadcast daily on radio, TV, and the internet that has been called "probably the most significant progressive news institution that has come around in some time". A human rights and justice advocate, she has also won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Gandhi Peace Award for her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peace. Michael Moore is noted for his social and political activism and is a best-selling author and Academy Award winning filmmaker. In 2005 Time magazine named him one of the world's 100 most influential people. Addressing major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US, his films include Roger and Me, a film about what happened in Flint, Michigan after General Motors closed its factories and opened new ones in Mexico and the unemployment that followed; Bowling for Columbine which examines the causes of the Columbine High School Massacre and the culture of guns and violence in America; Sicko about the lack of an affordable and just healthcare system in America, and the recently released Fahrenheit 11/9 that strikes a grim note rooted in the realit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n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in the US. Yes, without a doubt, Amy and Michael would also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any of the Foundation's events

But I must admit that sometimes after I've been to all the events and forums and listened to all the speakers and lectures and after I've read all the books and essays and newspaper articles and after I think about the all too often unfair and harsh ways of society, government, and history then I feel the only thing left to do is to have a good glass of wine and laugh and find joy in humor and strive to be happy, to see that the good and beautiful exist

too and to see them wherever I can, and, most importantly, to keep the spirit alive in my heart and soul, to keep on reaching for the heavens, to remember that miracles are commonplace if faith is alive and that, as the French philosopher and Jesuit priest Teilhard de Chardin once said, "in the context of cosmic values only the fantastic has a chance of being true."

Yes, the quest for a better and more just world continues as, for example, the worldwide Me Too and Women's Rights Movement and the fight against racism attests to. In closing I am reminded of my travels to 23 countries and those ordinary people I met who manifested the best in human beings in their daily lives, in simple acts of kindness, generosity, and fairness. One such incident I have never forgotten. It was a simple act but a memorable one. I was traveling in Japan and one day it began pouring rain and I was without an umbrella. While walking down a street an elderly Japanese man saw me and rushed over with his umbrella and walked with me for three blocks in the pouring rain until I arrived at my destination. What a wonderful unforgettable act of human kindness. Yes, the deeds and acts and the quest for a better and more just world continues onward.



## “정의와 인권 과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찰과 생각”에 대한 토론

김 정 은

이 글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의와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아야 하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루이스 교수님의 생각을 담겨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를 대표하는 5·18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5·18 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특히나 루이스 교수님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저는 초기 미국외교사 전공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외교에서 인권과 정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믿고 예상합니다. 외교적 수사 중에 관련된 수사적 용어는 많으나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최고로 삼고 있는 국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루이스 교수님의 미국에 대한 언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루이스 교수님이 518의 이상과 의의가 전세계 알려지고 518재단이 세계의 인권과 정의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권관련 NGO단체들과의 연계 나아가 인권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개인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그들을 통해 5·18을 널리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5·18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활동 그리고 방송과 같은 미디어와 트위터와 페이스북 북 같은 소셜미디어 나아가 여러 예술 작품을 통해서 518의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광주에 살고 있으며 518의 성지인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가 인권의 도시이며 광주와 518재단에서 매년 아시아 인권상을 수상하고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518재단과 여러 518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의 정신이 전세계에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NGO단체들과 인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광주시민들이 먼저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반성의 마음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18의 여러 중요성이 있겠지만 저는 5·18광주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의의중의 하나는 항쟁이후에서 이루어진 진상규명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과 사회단체들인 벌인 사법심판운동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었고 군사독재 또는 군부 권위주의를 사법적 단죄를 통해 역사적으로 심판한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풀지 못한 과거청산을 실천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5·18재단이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를 넘어 5·18의 의미를 전세계에 알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정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인권이 탄압된 국가에서 5·18의 정신이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재판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스 교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 활용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Observations and Thoughts About the Justice and Human Rights: Quest and the Making of a better world” Commentary

Kim Jeong Eun

This essay contain that to make better world the people who involved justice and human right and general people would have what they should think and what they should work in their field. Through this way, the professor Vinciguerra have a advice to the How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work inspiring the May 18 spirits.

Especially, I am so impressed that the professor mention that the U.S rol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ually, still now on many Korean people anticipate that U.S would consider the justice and human rights at diplomacy. The U.S have been using the work related to justice and human rights but I think that it is just diplomatic rhetoric. Surely after the Second the World War, the U.S concern their nation's interest at international community. So I agree that the professor's opinion about the U.S's roles.

Also, the Professor notion that to spread the May 18 Spirits and significance and to play the influential role for representing human rights and justice,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would make relationship to NGO related to human rights in U.S and to some individuals who have the influence for human rights. And also to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nd some of society relating the May 18 he recommend that it would relate more the variety social and political action, economic action, education and using traditional media, social media and arts. I think that it is good advice for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 live in the Gwang-ju city and teach the university students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ut including me many Gwang-ju citizen rarely concern about the May 18 Spirits and significance. This city represent the human rights and has enacted ‘city of Gwangju Democracy, Human Rights, Peace Nurturing Ordinance’ in order to succeed to democracy, human rights, peace and historical spirit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o spread

the May 18 Spirits and significance, the Gwang-ju citizen would have to swing over to the May Foundation's activity and the May 18 related groups and social organizations.

At the last, I want to know your thinking about 'past liquidation' afte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The Citizens of Gwang-ju and Social Organizations started a movement for jurisdiction judgment regarding the uprising and they made accusations against Chun Doo-Hwan and Roh Tae-Woo. This acknowledged the legitimacy of democratic contention through the positive law by holding the coup leaders responsible for the massacre and their crime of tyranny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 think that the jurisdiction judgement or past liquidation is more realistic way for Asia and Africa's human rights activities. So, I wonder that how you think about this way and if you have some advice please tell us how the jurisdiction judgement or past liquidation adapt in Asia and Africa nation.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2018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3부 세대의 경계를 넘어

Session 2 Beyond Boundaries of Generation

주 관 |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3부 세대의 경계를 넘어  
Session 3 Beyond Boundaries of Generation

임철우 『봄날』 다시 읽기  
- 재현 형식을 중심으로

Re-reading Lim Chulwoo's Novel: 'Spring Days'  
- Focusing on The Form of Representation

김주선

Kim Ju 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임철우 『봄날』 다시 읽기 - 재현 형식을 중심으로

김 주 선

## 1. 서론

###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임철우의 『봄날』은 과소평가 되었다. 『봄날』을 다룬 연구와 평론은 몇 되지 않는데 『봄날』의 학술적 의미를 밝힌 연구는 그 중에서도 손꼽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봄날』은 5.18에서 살아남은 임철우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역사적 기록물에 불과하다. 작가의 말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의 충실성과 5.18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자기고백은 연구의 정확성을 보증해주는 알리바이가 되었다. 이후 『봄날』에 대한 임철우의 글이나 이런저런 대담 역시 이러한 사정을 강화하는데 한 몫 했을 것이다.

역사적인 실재 사건을 소설로 다루는 데는 작가의 상상력이란 필수적이면서 또한 위험 부담을 따른다. 사실과 상상력—그 둘 사이에서, 적어도 이번 소설에 관한 한, 나는 최대한 사실성에 의지하려 했다.

(……)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로서는 이것이 단지 소설로서만이 아니라 비교적 사실에 충실한 하나의 기록물로서도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작품을 써왔던 것이다.<sup>1)</sup>

물론 『봄날』은 증언소설이다. 증언소설로서의 『봄날』은 역사적 사실성을 지향한다. 임철우가 소설을 쓰던 당시에도 5.18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왜곡되어 존재했다. 항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여전히 폭도였고 온갖 비방과 날조된 유언비어가 돌아다녔으며 책임자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시간은 1980년 5월 광주를 비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니 임철우는 필사적으로 사실적이어야만 했다. 『봄날』을 쓰기 위해 5.18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강박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했다. 도대체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신군부가 앞세운 공수부대의 폭력은 얼마나 끔찍했고 그에 맞서는 시민들은 어떻게 존재했는지 알려야만 했다. 그것이 임철우가 생각하는 5.18에 대한 증언 소설

1)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1997, 13~14쪽.

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5.18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형언할 수 없는 광경들, 총·칼을 든 공수부대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과 백병전을 치른 시민들의 모습을, 그 내면을, 어떻게 표현해야 한단 말인가.

5월 20일 밤부터 새벽녘까지, 노동청 앞에서 백병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맨손의 시민과 총검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격돌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내 중심가에는 전기가 완전히 나갔어요. 그리고 문화방송 건물이 통째로 화염에 휩싸여 있었지요. 그 불빛에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마침 계엄군은 도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만 집결해 방어 중이어서, 시내 중심가로 가까이 갈수록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속에 있었는데, 거리가 온통 만원 버스처럼 뻑뻑이 차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앞으로 떠밀릴 정도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페퍼포그가 터지고 진압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그날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열흘 기간을 통틀어 가장 극렬하고 처참한 시가전을 순전히 육탄전으로 시민들은 치러냈던 것이지요. 수많은 이들이 그날 밤 거리에서 죽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때 그 일을, 그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야말로 미친 듯 몰려서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 결국 계엄군은 그다음 날 도청을 내놓고 퇴각합니다. 바로 그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의 싸움에서 계엄군은 무너진 거지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혹 꿈이었을까,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닐까. 가끔씩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면 또 마구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에는 나 같은 겁쟁이도 막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기이한 일이지요.

(……)

……제 나름의 리얼리즘은 인물 내면의 중요성,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나 내면 심리를 얼마나 제대로 포착해내느냐 하는 문제까지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아주 먼 얘기 같아도, 한때는 소설 기법에 있어서조차 리얼리즘/모더니즘을 대단히 좁은 시각 안에 가둬놓고 논의하던 시절이 있었지요.……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편협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인물 내면의 심리, 내면의 리얼리티 역시 당연히 문학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봄날』에서도 제게는 그것이 핵심적인 관건이었어요. 기사, 르포, 구술사로 담아낼 수 없는, 문학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느꼈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



였는가 하는 것이지요.<sup>2)</sup>

그러니까 『봄날』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만을 최대한 그려내려 한 증언소설이 아니다. 임철우의 『봄날』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그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이나 심리, 즉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느꼈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담아내려 한 소설이다. 저 평범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짓말” 같은 상황, 육탄전으로 공수부대를 몰아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결과,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향전을 만들어낸 시민들의 내면은 “기사, 르포, 구술사”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오직 문학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봄날』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소설 언어는 어떻게 기적을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봄날』의 형식을 주목해야 한다. 『봄날』에서 반복되는 이미지적 서사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야 한다. 여기에 『봄날』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기적을 그리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준다. 『봄날』은 이미지적 서사를 통해 기적을 체험<sup>3)</sup>하게 하고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재현<sup>4)</sup>적 의미를 모델적 차원에서 종결 없이 생성한다.<sup>5)</sup> 이미지적 서사는 비슷한 내용의 반복을 통해 의미론적 차원을 증식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독자의 어떤 정동affect의 차원을 증폭시킨다. 정동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규제되고, 이미지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봄날』의 기록성과 작가의 죄의식에 천착해 있거나, 『봄날』의 재현 형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먼저 박옥심은<sup>6)</sup> 『봄날』을 광주항쟁의 형상화로 정리하고 극한상황에서의 체험의 총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내려는 작가가 소설의 기록적 성격으로서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이 어떻게 체험의 총체가 된다는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체험의 총체를 되살려냈다는 것인지는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서영채<sup>7)</sup>는 『봄날』이 카메라 역할을 하는 시점인물들을 통해 광주항쟁의 총체

2) 임철우·김정한, 「아래로부터의 문학사」, 『실천문학』, 2013 겨울, 89~99쪽.

3) 여기서 ‘체험’은 ‘경험’과 달리 쓰인다. 경험은 우리가 겪는 현실을 구성적으로 종합하는 표상, 재현의 차원에 존재하지만 ‘체험’은 우리가 겪는 현실이 명료하게 의식화되기 이전의 감각적이고 질적인 차원에 한정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술할 것이다.

4) 재현은 한 대상에 대한 의식의 정립적 종합 활동이며 동일성, 유사성, 유비에 의해 구성된다.

5) 이는 『봄날』의 서사가 여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해석에 열려 있는 의미론적 다면체라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해석을 정립시킬 수 있는 몇몇 의미론적 서술을 초과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제 의미론적 층위 자체를 결코 명료하게 만들 수 없다. 『봄날』에서 의미론적 차원을 만들어내고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만 같은 비슷한 내용의 반복은 이를 간신히, 일시적으로 허락한다. 『봄날』에서 읽어낼 수 있는 재현적 의미는 『봄날』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을 결코 고정시키지 않는다.

6) 박옥심, 「임철우 소설에 나타난 광주항쟁 형상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05. 석사학위 논문.

7) 서영채, 「『봄날』에 이르는 길」,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상을 재현하는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봄날』에 나타나는 무고한 죽음과, 시민들의 유대감, 도청 최후의 날에서 보이는 좌절된 희망, 신군부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계엄군 사병들의 심리적 고통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성민엽<sup>8)</sup>은 각각의 장에 서술된 초점화자의 내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봄날』이 보여주는 진실은 각 개인들의 내면이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저마다 다른 개인들의 내면을 꼼꼼히 분석하며 『봄날』은 광주항쟁이라는 불의 체험을 통해 자연상태의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녔던 인간다움(저항, 연대 등)의 회복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판단한다.

심영의<sup>9)</sup>는 『봄날』의 주된 특징이 작가의 증언 욕망에 있다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봄날』의 형식적 특징인 연대기적 서술은 독자로 하여금 소설을 현실의 내용이라고 믿게끔 만든다. 이때 『봄날』의 소설성과 기록성은 『봄날』이 소설 담론과 역사 서술의 경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다. 그러나 그에게 『봄날』은 사실 기록의 의도가 지나쳐 소설의 구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증언소설이기도 하다.

왕철은<sup>10)</sup> 『봄날』을 비롯한 임철우의 모든 소설이 작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발현이라고 본다. 그에게 『봄날』은 기록문학을 지향하고 사실묘사에 치중한 나머지 소설적인 요소를 소홀히 한 작품이다. 여기서 ‘소설적인 요소’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제시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봄날』은 반복적이고 산만한 내러티브를 가진 기록물이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묘사 같은 것은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반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현식<sup>11)</sup>은 봄날의 의의를 5.18에 대한 모범적 실록문학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봄날의 진정한 성과는 5월 그날을 최대한 기록하고 이를 다중화자의 시점에서 보여줌으로써 그 사실성을 더욱 강화한 데 있다. 그러나 그에게 『봄날』은 인물들 간의 드라마성이 미약하고 5월 항쟁이 지닌 역사적 의미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한 작품이다.

8) 성민엽, 「불의 체험과 그 기록」,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문학과지성사, 2004.

9) 심영의, 「5.18민중항쟁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2008. 박사학위논문.

10) 왕 철, 「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11) 이현식, 「1980년의 봄날로 가는 고통과 희망의 기록」, 『실천문학』 1998 여름

전성욱<sup>12)</sup>은 『봄날』을 임철우의 죄의식과 진실에 대한 강박이 만들어낸 역사적 소명의식의 형이상학을 보여주는 유기적 재현 소설이라고 단정한다. 그에게 5월 광주에 대한 진정한 서사는 대상을 동일성의 논리로 표상하는 재현의 기획이 아니라, 표현(들뢰즈)의 기획에 의해 펼쳐져야 한다. 표현의 서사는 재현의 서사에서 빠져나가거나 차이와 변이들의 마주침에 대한 지향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언어의 한계에 대한 자의식적 서술, 치밀한 심리 묘사, 교차 시점 등의 서술적 기교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봄날』은 표현의 기획과 정반대에 위치한 재현 소설, 유기적 소설, 연대기적 소설, 작위적인 서사의 소설, 기록 소설에 불과하다.

정명중은 『봄날』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의 논문은 앞선 연구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먼저 그는 「증오에서 분노로 : 임철우의 『봄날』 읽기」<sup>13)</sup>에서 군중의 분노가 사회적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해 탐문한다. 그가 『봄날』에서 찾아낸 것은 ‘불씨’인데, 그는 『봄날』이 분노와 저항의 연관관계를 서정적인 형태(‘불씨’라는 이미지)로, 즉 인과관계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며 “불씨”는 개인의 관계체적 성격(스피노자)과 억압 불가능한 최소 상태(인간의 절멸 불가능성)에 대한 기억 또는 그것의 (재)발견이라고 주장한다.

정명중의 또 다른 논문 「인식되지 못한 자들, 혹은 유령들 — 5월소설 속의 ‘룸펜」<sup>14)</sup>은 『봄날』을 통해 저항의 정치학이 구성되는 지점을 탐사하고 있다. 그는 무석, 한기, 칠수, 봉배를 룸펜(맑스)으로 규정하며 그 중 무석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5.18이라는 사건을 겪는 무석의 반성적reflective 능력의 결여가 그를 수동적 정념에 휘둘리는 존재로 만들고 결국 죽음을 결단하는 저항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바로 그 반성적 능력이 결여된 존재야말로 도래할 이념의 원천임을 주장하며 ‘오월’이 다시 사유되고 갱신되는 일은 이 지점에 천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봄날』을 통해 군중의 분노와 사회변혁의 관계를 찾으려 하고, 저항의 정치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으려 한다.

이로써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에는 『봄날』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재하며 대부분의 연구는 『봄날』의 기록성과 작가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기한 『봄날』의 형식적 특성에 대

12) 전성욱, 「5월 소설의 증언의식과 서술전략」, 동아대학교 2013 박사학위논문.

13) 정명중, 「증오에서 분노로 : 임철우의 『봄날』 읽기」,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14) 정명중, 「인식되지 못한 자들, 혹은 유령들 — 5월소설 속의 ‘룸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정호웅<sup>15)</sup>의 평론은 짧지만 시사적이다. 그는 『봄날』의 특성이 비슷한 내용의 반복에 있다고 본다. 『봄날』의 반복은 『봄날』에 ‘소설적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일종의 의미론적 구조를 생성하며 『봄날』을 단순한 기록물에서 해방시킨다. 그가 밝혀낸 『봄날』의 의미는 폭력에 맞서는 ‘인간’과 ‘민주’, 따뜻하고 그리운 모성, 그리고 증오로부터의 해방이다. 물론 정호웅의 짧은 글은 『봄날』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보여주지 않고, 『봄날』에 나타난 수많은 의미론적 연관을 설명하지 않는다.

양진오<sup>16)</sup>의 연구는 지금까지 제출된 『봄날』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돋보인다. 그에 따르면 증언 문학으로서의 『봄날』은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봄날』은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시간 순으로 쓰여진 연대기적 소설이지만, 각 장들의 내용은 동시적이며 중층적이다. 각 장들의 관계는 서로 대화하는 열린 관계이자 역동적 관계다. 이것이 『봄날』의 구성적 특징이다. 둘째, 『봄날』은 사실적 재현인 동시에 감각 지향적인 언어의 재현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촉발시키는 한편 광주항쟁에 관한 독자들의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심리적 반응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사회적 인식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봄날』의 감각 지향적인 언어가 신군부와 시민들의 이미지적 대립을 낳는다고 본다. 그는 죽음·피의 이미지와 불씨의 이미지를 대립시키며 불씨는 저항의 이미지, 부정한 것에 대한 분노, 인간에 대한 지순하고도 소박한 사랑, 행복감과 완벽한 평화로움의 상징이 되며, 이 이미지성은 5.18의 비극을 더 강하게 인지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셋째, 『봄날』은 작중 인물들의 시점에 의해 구성되는 5.18에 대한 진실이다. 따라서 주요 인물들의 시점을 읽어내는 작업은 5월 광주에 대한 여러 의미론적 접근이 된다. 양진오는 무석, 명기, 명치의 시점을 중심으로 『봄날』을 분석하며 5월 광주는 추한 현실, 죄의식을 지니게 하는 사건, 추악한 범죄라고 정리한다. 즉 양진오는 『봄날』의 장들이 갖는 특징과 『봄날』의 (의미론적 서술이 아니라)감각적 서술이 갖는 이미지적 특징,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의 시점이 지닌 특징을 통해 『봄날』의 형식적 원리를 나름대로 규명하고 『봄날』에 나타난 5.18의 성격을 보여줬다. 그러나 『봄날』의 형식적 특징이 만들어내는 각 장들의 다층적 관계는 『봄날』의 구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고, 세 명의 주요 인물을 통한 5월 광주에 대한 설명은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봄날』의 의미론적 차원을 축소시킨다. 『봄날』이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반응에 대한 논의는 『봄날』의 ‘체험’적 성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그의 분석은 『봄날』

15) 정호웅, 「기록자와 창조자의 자리—임철우의 『봄날』론」, 『작가세계』 1998 여름

16) 양진오, 『임철우의 『봄날』을 읽는다』, 열림원, 2003.

의 문체 차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진오 역시 『봄날』의 형식적 특징이 갖는 여러 성격을 정교하게 간파하진 못했으며 『봄날』의 내용이 보여주는 의미론적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일부분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봄날』의 재현 형식이 갖는 체험적 성격과 의미론적 차원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확인되었다. 본고는 『봄날』의 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봄날』의 체험적 성격과 의미론적 연관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봄날』은 재현과 언어의 문제를 뛰어넘은 소설임이 드러날 것이다.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목적

임철우의 『봄날』은 증언 소설이다. 그는 최대한 기록에 근거해 소설을 썼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의 시·공간적 정황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공간적 정황과 일치한다.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소설 속의 상황은 임철우가 각주로 설명함으로써 사실로 복귀시킨다. 그의 소설은 분명 역사적 ‘사실’에 육박한다. 그런데 『봄날』에 나타난 사실은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과 그 성격이 다르다. 역사적 기록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공간적 배경과 사건의 성격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봄날』은 5.18의 성격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채로 나타낸다. 임철우는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서술을 최소화한다. 『봄날』에서 5.18은 감각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수많은 문장을 꺾어 지배할 수 있는 틀의 부재는 『봄날』이 보여주는 5.18을 5.18 그 자체로서 겪게 만든다. 『봄날』의 목적은 우선 5.18이라는 사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5.18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 임철우의 고백에도 나타난다.

“내가 말하는 ‘총체적 진실’의 목록은 이를테면 세세한 상황일지, 전개 과정, 배후 책임자 규명,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과 평가 따위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만이 아니었다.……작가로서 내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열흘 동안의 시간과 그 도시의 살아있는 구체적인 인간들이었다. 즉 80만 시민들이 겪어낸 공포와 분노, 고통과 슬픔, 절망과 환희의 순간들을, 말하자면 그 실존적 극한상황에서의 체험의 총체를 소설 속에 최대한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일이었다.”<sup>17)</sup>

17) 임철우, 「나의 문학적 고뇌와 광주」, 『역사비평』, 2000 여름. 이러한 열망은 다른 글에서도 확인하다. “……초반 사흘, 18일 날 아침부터 20일 날 밤 21일 새벽까지, 광주 시민들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론이나 설명을 동원하더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온몸으로 확인했던 그것을, 그 엄청난 과정을 생생히 구현해내자. 그런 생각으로 달려들었다.” 임철

그런데 익히 알다시피 삶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쓴다는 것은 어떤 잉여를 남긴 채 쓴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언어는 애초부터 어떤 흐름으로서의 삶에서 그 일부를 절단하고 응축시켜 존재한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삶을 구획 짓고 구성하게 하지 체험하게 하진 않는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소설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5.18을 ‘정면으로’<sup>18)</sup> 증언하는 동시에 체험하게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재현 할 수 없어(물론 언어는 언제나 어떤 것도 완벽히 규정할 수 없지만) 보이는 5.18의 사건성은 어떻게 해야 재현 가능한가. 수많은 개별적 존재들의 내면과 집단적 상황,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과 그 무게는 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우리는 언어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사실fact’은, 그리고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고思考는 결국 언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분명 언어는 삶의 무차별적인 흐름 속에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수단이다. 이는 수사가 아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니피앙의 활동 없이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로 지시될 수 없는 현실은 버팀목을 잃은 채 무차별적인 흐름으로 전락한다. 언어를 통해 비언어적인 것을 전달하는 방식의 발명만이 이 난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5.18을 정면으로 다루는 『봄날』은 체험을 어떻게 소설화한 것인가. 『봄날』은 어떻게 쓰여 있는가.

『봄날』은 에필로그를 포함해 8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장 초입에는 시나 성경 구절, 희생자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 신문 기사, 5.18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물의 발언 등이 제사(題詞)로 등장해 그 장의 통일적 내용과 감각적 관계를 맺는다. 장은 시간 순으로 병렬되어 있지만 단속적이다. 한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장 속의 초점화자와 시·공간적 상황이 변화하고 어떤 경우 특정한 시간과 장소는 여러 인물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시점을 통해 입체적으로 중첩되기도 한다. 한데 소설 속의 여러 상황은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존재한다. 『봄날』의 서사는 동적인 장면이나 광경 위주로 진행되고 세세하고 촘촘한 극사실주의적 묘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뒷보다 감각 인상적으로 채워져 있다. 과도한 묘사는 언제나 독자에게 서사의 총체적인 파악보다 인물들의 움직임, 심리, 공간 배경 등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이미지적 성격을 강화하고, 사물의 형상이나 인물들의 행위 및 사태를 더욱 감각적으로 느끼게 할 비유와 형용사, 부사 역시 『봄날』 내내 다발적으로 출현하여 소설이 보여주는 장면 장면을

우 외, 「절대공동체의 안과 밖—역사, 기억, 고통 그리고 사랑」, 『문학과 사회』, 2014 여름, 349쪽.

18) 『봄날』 이후, 아니 어쩌면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이후, 증언과 관련한 많은 작품이 한 시대의 헤게모니적 정신 속에서 언어 자체와 재현을 문제 삼으며 존재했다. 그러나 비언어적 증언과 재현 불가능성에 바쳐진 증언, 그리고 분위기로서 5.18(을 비롯한 여러 거대한 사건)을 환기하는 일부 소설들은 그 소설 자체의 성과와 무관하게 5.18의 실제 상황과 그 속에서 간파할 수 있는 여러 진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도 했다.

사진이나 영상처럼 느끼게 한다. 『봄날』의 서사가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마치 이미지처럼 생생하게 현현(epiphanic)된다. 게다가 『봄날』은 수많은 장면들을 설명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의미론적 서술이 적고, 심지어 압도적인 묘사로 인해 그 서술마저 침식되어 존재한다. 때문에 『봄날』의 서사는 사건에 대한 재현적 서술이 아니라 감각 인상적 차원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해주는 서사다. 『봄날』에 그려진 대부분의 장면들은 말 그대로 ‘그려져’ 있다. 『봄날』의 수많은 장면들은 이미지적으로 존재한다. 이미지성은 『봄날』의 체험적 성격과 관련해 핵심적이다.

브라이언 마수미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수용한다. 하나는 저마다의 방식에 의해 수용된 이미지의 다층적인 의미화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지가 만들어낸 감각적 차원의 효과의 세기 혹은 지속으로 표현되는 강도, 곧 정동(affect)이다. 그런데 이미지의 수용에는 정동(강도)이 가장 우선한다. 정동(강도)은 언제나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서(가령 개인과 이미지 사이에서) 비의식적 수준의 감각들이 서로 참여하고 있음을 함축한 채 초기발생 하는 것이고, 초기발생의 작용이자 표현이며 선택의 기원이다. 이미지의 특질을 고정시키는 형식/내용적 차원의 의미화나 코드화는 정동을 감산하고 제한하며 등장한다. 정동은 자격이 부여되고 위치가 정해진 지각과 인식에 의해 포획되고 갇힌다. 잠재적 상태인 정동은 의식에 의해 걸러지며 현실화된다. 때문에 의미화 질서와 정동(강도)의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둘의 관계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둘의 관계는 의미화 질서에 대한 순응과 불응의 관계가 아니라 공명·증폭 혹은 저해·방해의 양상을 띤다.

예컨대 의미화 질서가 의미론적 차원에서 완결되면 감상자의 정동은 더 이상 자극되지 못한다.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들은 결국 자기동일적인 집합 속에서 정지된다. 조직화된 세계, 구조화된 세계는 구체적인 정동을 삭감한 추상적 세계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태들은 불변의 질서 속에서 예측 가능하다. 의미화 질서가 형성한 감정의 차원은 이와 다르지만 비슷하다. 감정emotion은 정동의 가장 수축된(가장 강렬한) 표현이다. 감정은 정동을 규격화한 결과다. 감정은 주관적 내용이며 경험의 질적 차원을 객관적 실재로서의 재현적 관념에 의해 고정하는 것이다. 감정은 틀에 박혀 있다. 감정은 의미론적이며 기호학적으로 형성된 진행과정 속으로, 내러티브화 할 수 있는 회로 속으로, 기능과 의미 속으로 강렬함이 삼입된 지점이다. 그것은 인식되고 고정된 강렬함이다. 감정은 언제나 이행 중인 정동과는 다르다. 감정은 미시 체험의 차원을 하나의 객관적 경험으로 번역한다. 감정은 완전히 체험된 관계보다는 이미 규

정되어 있는 객관적 차원의 작동을 명시한다. 하지만 감정을 형성한 포괄적인 분위기나 느낌(feeling), 즉 재현적 관념으로 환원되지 않은 미분화된 ‘감정적’ 특질의 ‘복합성’을 만들어낸 내용, 혹은 내용의 흐름은 그들끼리 충돌하고 중첩되며 진동한다. 달리 말해 일상적 경험에서 분노의 긴장과 흥분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분노로 ‘파악’된 감정 때문이 아니다. 분노는 그것이 발생하게 된 순간에 소속되었던 것처럼 이어지는 순간에 소속된다. 분노로 파악된 감정은 그것을 끌어가는 현실적인 말이나 제스처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정동적 차원의 배경을 통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충돌하며 유지된다. 즉 이미 고정되어버린 감정 자체가 정동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존재하는 배경, 지각되지 않는 배경에 연속되는 어떤 잠재적 차원의 사건이 정동의 질적인 차원을 실어 나른다. 감정은 이 같은 이행의 경험적 소실점이다. 소실점에는 확장적 전이가 없다.

따라서 이미지와 연관된 내러티브의 경우 의미론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덧붙여질 때(감정의 상태를 명료하게 지정할 때에도) 강렬함은 꺾인다. 이미지 내러티브에 객관적 설명과 해설이 덧붙여질수록 감상자의 정동은 고요해진다. 반면 내러티브 속의 어떤 말이나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적’ 특질이 자신의 상태를 등록하기 위해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깨트린다면 감상자의 정동은 증폭된다. 감정적 특질은 내러티브의 선형적 진행을 순간적으로 정지시킬 만큼의 강도를 가짐으로써 감상자의 정동과 공명한다. 내러티브 속의 언어적 표현이 만들어낸 어떤 감정적 내용은 고정된 의미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감상자의 예상과 기대를 배반하거나 초월함으로써 감상자를 자극한다. 그 때에는 어떤 기쁨이나 어떤 슬픔 같은 모순적인 감정의 공존도 정동을 배가한다. 때문에 감각 인상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이 내러티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따라 감상자가 겪게 될 정동의 강도가 달라지며, 체험의 강도는 감상자의 정동이 자극되어 증폭될 때마다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다.<sup>19)</sup>

그렇다면 『봄날』의 이미지적 특징은 체험적 성격을 한없이 끌어올린다. 『봄날』의 서사가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적인 이미지적 장면들은 다의적으로 존재함에도 결국 어떤 의미론적 재현 속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은 채 감정적 차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정동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특질은 독자에게 어떤 상태를 등록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깨고 정동과 공명한다. 문장과 문장의 연속, 장면과 장면의 연속은 독자에게 어떤 충격을 주며 제 체험적 성격을 강화한다. 『봄날』은 독자의

19) 이미지와 정동, 감정의 관계에 관해서는 브라이언 마수미, 『가상계』, 조성훈 옮김, 갈무리, 2011, 46~68쪽; ———, 『가상과 사건』, 정유경 옮김, 갈무리, 2016, 119~120쪽. 참조.



정동을 끊임없이 날뛰게 만들려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체험적 성격이 극대화된 작품이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독자의 몸을 어떤 긴장과 강렬도 속에 빠트린다. 원고지 7000여매에 이르는 이미지적 장면들은 장과 장의 관계 속에서, 장을 초월하여 지시되는 어떤 장면이나 인물들의 심리, 상황에 대한 이미지적 서사 속에서 어떤 감정적 특질과 정동affect을 끝없이 쌓아나가며 5.18이라는 사건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체험성을 무한히 변화시키고 움직인다. 『봄날』은 5.18이라는 체험적 사건에 대한 소설적 구성이자 소설의 체험적 구성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봄날』이 5.18에 대한 규정된 의미론적 연관관계로서 존재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봄날』에 대한 몇 되지 않는 연구를 편향되게 만들었다. 『봄날』의 이미지적 특성은 『봄날』을 역사적 기록물로 환원시켰고, 역사적 사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려는 다소 무리한 시도를 한 소설로 격하되게 했으며, 『봄날』을 임철우의 죄의식이 만들어낸 산물로 규정짓게 만들었다. 의미론적 관계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없었던(않았던) 체험을 위한 소설이, 임철우의 (비)재현적 모형이, 소설 『봄날』을 작가의 몇 마디에 종속되게 만든 셈이다. 그런데 사실 그 길고 긴 장편에서, 그리고 5.18이라는 하나의 첨예한 사건성에 대해서, 임철우가 아무런 의미론적 재현 관계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단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봄날』에서 5.18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설명과 의미론적 서술이 전무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미지적 서사에서 의미론적인 총위를 분석해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87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반드시 소설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현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전체는 여러 장에서 전개되는 이미지적 서사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 이미지적 서사의 다양한 이행에서 발생할 의미를 규제하는 거대한 관계망으로 존재한다. 전체가 전체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의 장은 다른 모든 장과의 연관 속에서 아무런 의미연관도 얻지 못한 채 부유할 뿐이다. 이미지적 서사의 접촉은 전체의 관계성으로 표현되는 어떤 이념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때문에 각각의 장은 다른 장들과 접촉할 때마다 『봄날』 전체의 차원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며 의미론적으로 갱신된다. 본고는 『봄날』의 이 같은 형식적 특징을 이미지적 서사의 운동이라고 정리한다. 이미지적 서사의 운동이라는 정리는 저 유명한 들뢰즈의 『시네마1 운동-이미지』의 운동-이미지로서의 별량plan개념을 모델링한 것이다. 운동-이미지로서의 별량 개념을 설명하려면 먼저 들뢰즈가 이야기하는 운동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는 우선 운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운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의 순간들을 무수히 분할시키고 그 단면의 종합을 통해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

고 믿었던 추상적 관념이다. 예컨대 말의 운동을 카메라에 담아 분할된 사진의 종합으로 파악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다. 말이 뛰어가는 장면들을 연속으로 촬영해 이를 늘어놓음으로써 말의 운동을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간적 위치와 시간적 순간들의 질적 연속성을 배제한다. 말의 운동은 공간과 시간을 양적으로 분절함으로써 분석될 수 없다. 말의 운동은 매번 나뉠 때마다 그 속성이 변화된다. 말의 운동이 가로지른 공간들은 모두 하나의 균질적인 공간이지만 운동들은 서로 이질적이므로 서로에게 환원되지 않는다. 운동은 끝없는 변화다. 들뢰즈는 바로 이 운동의 연속적 다양성을 베르그손의 개념을 빌려와 ‘지속’이라고 칭한다. 지속은 끝도 없이 나누어지나, 본성상의 변화 없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한편으로 지속은 전체와도 관련이 있다. 지속의 운동은 언제나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포함하는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전체는 지속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의 집합이되 분할의 매 단계마다 자신의 성질을 바꾸며 분할된다. 실제적 전체란 나뉘지 않는 연속성이다. 전체는 어떤 질적인 상태의 집합을 또 다른 질적인 상태의 집합으로 이끌어가며 스스로를 끝없이 재창조한다. 전체의 운동은 닫힌 체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동적인 단면의 운동이다. 이때 지속으로서의 운동이 끝없는 이행, 끝없는 변화라는 점에서 정동affect과 연관된다. 앞서 살폈듯이 정동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운동이자 끝없는 운동이다. 정동은 운동의 지속 안에서의 변화다. 영화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매체다. 영화는 분할된 동적인 단면(집합)이 이어지며 운동을 재생산하는 운동-이미지다. 그렇다면 별량은 무엇인가. 별량은 운동-이미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속으로서의 동적인 단면이다. 우선 별량(특정한 시간 동안 움직이는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이미지)은 자기 내부의 다양체(시점과 스케일, 인물들의 행동 등) 간의 운동을 포괄하는 집합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하나의 전체에서 분할된 질적으로 상이한 단일체다. 만약 전체와 부분이 일치한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중인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운동으로서의 ‘지속’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량은 이 분할된 이질적인 단일체들의 운동을 하나의 지속으로 재통합하기도 한다. 별량은 영화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적인 집합들과(예컨대 아주 짧은 plan에서 plan-sequence에 이르기까지) 접속되며 집합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집합들의 관계 그 자체인 전체 또는 지속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즉 닫힌 집합이었던 별량은 운동을 통해 전체 혹은 지속과 다시 결합되고, 거꾸로 지속 혹은 전체는 별량 간의 접속 운동에 자신을 열어놓은 채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별량은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한편 전체의 감정적/신체적 변용affectation 작용<sup>20</sup>과 관계한다. 별량이 전체에 감정적/신체적 변

20) 학계에서 affect(affectus)와 affection(affectio)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이를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겠으나 기존의 affect와 affection에 대한 논의는 스피노자의 개념과 스피노자에 대한 들뢰즈

용 작용을 만들어낸다. 별량은 한 집합 안에서 혹은 여러 집합들 사이에서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보여주며 지속의 ‘변화의 상태를 표현’ affection한다.<sup>21)</sup> 때문에 관객 역시 영화 속에서 어떤 끝없이 이행 중인 정동과 그 정동 속에서 어떤 감정적/신체적 변용 작용이 일어나는 변이를 느낀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의미론적 차원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우리는 영화가 편집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관계적 해석의 차원에서 봤을 때<sup>22)</sup> 편집은 하나의 이념이자 전체, 관념, 말하자면 지속하는 시간의 간접적인 이미지를 끌어내기 위해 운동-이미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조작이다. 편집된 이미지들은 간격 속에서 간접적 시간을 표현하는 기호가 되어 존재하는데, 이때 각각의 기호는 또 다른 기호와의 관련 속에서, 즉 모든 기호와의 관련 속에서 해석됨으로써 하나의 해석체로 변화하며 하나의 해석체는 또 다시 기호가 되어 서로의 관계에 의한 또 다른 해석체를 만들어낸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호는 관계 속에서 어떤 해석(재현적 의미)의 차원을 얻는다.<sup>23)</sup>

따라서 들뢰즈의 별량에 대한 설명인 지속으로서의 운동(정동)과 감정적/신체적 변용 작용은,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정동(지속으로서의 운동)의 체험적 성격과 그 정동의 변화의 상태인 감정적/신체적 변용 작용이 만들어내는 체험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참조점이 된다. 87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서술된 『봄날』이 전통적인 서사처럼 서술을 통해 서사의 부분과 전체를 종합하는 의미론적 총체를 만드는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5.18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각 인상적 차원에서 그려냄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는 의미론적인 서술마저 침식하게 한다면, 그 감각 인상적 이미지는 마치 지속으로서의 별량처럼 전체에서 정동과

---

의 해석을 둘러싼 이라는 점 정도를 밝힌다. affect에 관해 널리 쓰이는 들뢰즈의 스피노자 해석에 따르면, affect는 누군가의 존재 능력의 연속적인 변이인데, 변이는 그 누군가에게 선행하는 관념에 의해 어떤 affection(affectio)을 발생시킨다(이에 대한 번역으로는 (신체적)변용, 감정, 정서 등이 있다). 이때 연속적인 변이로서의 affect는 affection에 의해 봉인 된다(질 들뢰즈 외,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창현 외 옮김, 갈무리, 2014. 참조). 개념의 정의와 번역어의 혼동은 affection이 신체의 변용과 관련 된다는 점에 있으며, 따라서 정서 혹은 감정이라고 옮길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스피노자에게 affect가 행위 역량의 증대나 감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기쁨이나 슬픔이라는 감정 혹은 정서로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진태원은 affect와 affection을 이 같은 용법으로 써야 한다고 말하며, affect는 affection에 의해 ‘봉인’ 되는 게 아니라 ‘포함’된다고 말한다. 진태원, 「정동인가 정서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초보적 논의」, 『현대시학』 2016 4월 참조). 본고에서는 affect를 연속적인 변이, 끝없이 이행하는 어떤 변화의 차원에서 운동-이미지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정동’으로 규정한다. 이는 결국 코드화 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감각 인상의 강도强度적 체험이다. 한편 affection에 대한 번역어의 논란은 이 개념이 신체적 변용과 감정적 변화를 동시에 표현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affection을 감정적/신체적 변용으로 쓰겠다. 이때 그 변용은 관념으로만 표상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들의 변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속되는 affect의 표현이 된다.

- 21) 마찬가지로 변용은 정동의 상태를 나타낸다. 마수미가 밝힌 이미지의 감정적 특질 역시 주관적 의식이 정동에 대(의)해 만들어낸 하나의-육체가 의식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재등록된-‘상태’다.
- 22) 운동-이미지에서 이미지에 대한 기호와 해석의 관련은 관계적 해석의 차원에서 종합된다. 이때 만들어지는 총체성은 하나의 이념 내에서 무한히 열린 유기적 총체성이다.
- 23) 이지영, 「운동-이미지와 운동의 통일성」, 『철학사상』 30,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질 들뢰즈의 시간기계』, 김지훈 옮김, 그린비, 2007; 질 들뢰즈,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9; 질 들뢰즈, 『시네마1 운동-이미지』, 유진상 옮김, 시각과 언어, 2002. 참조.

감정적/신체적 변용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며 존재한다. 즉 지속으로서의 별량이 잠재적인 것에서 현재적인 것으로의 이행의 논리를 보여주며 독자의 정동과 감정적/신체적 변용을 만들어내듯이, 독자는 『봄날』의 감각 인상적인 이미지적 서사에서 잠재적인 정동과 현재적인 차원인 감정적/신체적 변용의 차원을 체험하게 된다. 이때 『봄날』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적 서사의 효과라는 차원에서 브라이언 마수미의 이론이 다시 호명된다. 앞서 살핀 바 있듯이 마수미의 이론은 이미지 수용에 있어 정동의 차원이 의미화 질서와 감정적 차원과 관계에서 어떻게 증폭되고 감산되는지를 알려줬다. 마찬가지로 기호의 차원에서 존재하며 끝없이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관계는,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범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끝없이 제 정체를 바꿔가며 5.18에 대해 무한한 해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모델이 된다. 이로써 『봄날』은 5.18이라는 재현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해석에 무한히 열어놓음으로써 5.18의 의미를 종결시키지 않는 재현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봄날』만의 것으로 보이는 체험의 차원이 사실은 다른 소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은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이는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소설은 언제나 제 자신의 의미론적 구조 속으로 용해되지 않는 강도强度적 요소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도대체 누가 있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혹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표현되는 어떤 것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다만 감각될 뿐이다. 이때의 감각은 몸으로 체감하는 정동의 차원에 있다는 점에서 감각기관의 감각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몸의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체험이다. 정동은, 혹은 몸은 소설 앞에서 자신의 바깥을 향해(어쩌면 내부를 향해) 열려 있고 어떤 무엇인가와 공명하며 어떤 리듬 속에서 움직인다. 즉 소설은 자신의 경향성 속에서 언제나 (비)재현적 재현을 이미 하고 있다.<sup>24)</sup> 이렇게 보면 『봄날』의 특이점은 소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정동과 변용, 즉 체험적 요소를 앞서 언급한 제 형식을 통해 극단적으로 밀고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봄날』은 소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체험적 요소를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서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 하나를 확장했다. 소설은 의미론적 질서를 가능케 하는 어떤 핵심 문장들에 의해 구조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적 표현을 통해 ‘체험’의 요소를 극대화하며 종결되지 않는 의미론적 질서를 산출할 수도 있다(시는 이미 대개 그렇게 존재한다). 우리는 『봄날』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되었

24) 따라서 재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소설의 언어가 갖는 정동적 차원을 간과한 담론이다. 소설의 정동적 강도는 소설마다 달라도 소설은 이미 언제나 재현 이상의 것을 재현한다. 반면 우리가 어떤 재현의 형식이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이야기 할 때 이는 결국 어떤 역사적 조건 내에서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정동의 중요성 역시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강조될 것이다.

다. 때문에 『봄날』의 형식적 특징이 만들어낸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18이라는 사건성을 해석에 끝없이 열어놓기. 사건의 성격을 체험하게 하기. 언어의 의미론적 요소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언어를 뛰어넘기. 언어를 통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재현에 관해, 혹은 재현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곤 하는 거대한 사건을 비재현적인 방식으로 (비)재현하기.

## II. 본론

『봄날』은 의미론적인 기능을 하는 서술보다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묘사적 서술이 주를 이룬다. 『봄날』은 감각 인상적인 장면 묘사를 통해 독자에게 어떤 감각(정동)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더 집중한다. 심지어 장면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이미지적 묘사는 『봄날』에서 쉽사리 읽어낼 수 있는 의미론적 차원마저 침범하며 존재한다. 『봄날』은 전통적인 서사처럼 서술을 통해 서사의 부분과 전체를 일치시켜 어떤 뚜렷한 의미론적 차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봄날』은 감각 인상적인 장면들을 통해 현실을 체험적으로 전달하려는 소설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려면 『봄날』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흐름을 다 살펴야겠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미지적 서사가 재현적 의미를 어떻게 침범하는지 밝히고 이미지적 서사가 체험적 성격을 만들어내는 몇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재현적 의미를 침범하는 이미지적 서사

우리는 서론에서 『봄날』의 이러한 특징을 이미지적 서사라고 정리하며 『봄날』의 서사가 마치 운동-이미지의 별량처럼 질적으로 운동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간략히 말해 여러 다양체를 거느린 하나의 별량인 장은, 혹은 장들 간의 간격은 끊임없는 질적인 변화 속에서 ‘지속’하고 결국 ‘전체’를 무한히 변화시키며 독자의 정동을 증폭시킨다. 의미론적 차원은 『봄날』의 감각 인상적인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정동의 차원을 포획하고 고정시킴으로써 독자의 정동과 감정적 상태를 정리하고 육체적 동요를 가라앉히는 법이다. 공수부대의 폭력성이 제도에 연원을 둔 증오의 폭력임을 증명하는 인용문을 보자.

분노가, 증오심이 그의 팔을 정신없이 휘두르게 만들었다.

이윽고 명치는 숨을 몰아쉬며 동작을 멈추었다. 발 앞에 축 늘어져 있는 두 개의 몸뚱이가 비로소 시야에 들어왔다. 미동도 없이 늘어진 돌, 그 중 하나는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바르르르, 기이하게 경련하고 있

는 그들의 팔다리.<sup>25)</sup>

인용문은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구타가 분명 증오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 준다. 증오는 군대라는 제도가 갖는 무조건적인 명령과 억압의 결과다. 5.18이 발생하기 전의 총정훈련(데모 진압 훈련)은 병사들의 짜증과 분노를 표출해야 할 외부의 적을 상정하게 만들었다. 공수부대의 폭력성은 군대라는 제도적 힘이 아니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것이 공수부대의 폭력성에 대한 의미론적 파악이다. 의미론적인 서술의 힘이 강하면 어떤 묘사도 제 이미지적 성격이 만들어낸 효과를 계속 주장할 수 없다.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적인 장면들의 정동적 동요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정돈된다. 한데 이 인용문에 뒤이은 문장들의 행렬은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증오의 폭력이라고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단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또 한차례 지독한 몽둥이질과 발길질이 무차별로 퍼부어지는 게 순서다. 이미 녹초가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다음엔 무조건 옷을 벗기고 팬티 한 장만 입게 한다. 그리고는 두 손목을 뒤로 돌려 각자 풀어낸 허리띠로 결박한 다음, 트럭 옆으로 끌고 간다. 거기서 한꺼번에 이삼십여 명씩 집합시킨 뒤, 본격적인 구타와 기합이 퍼부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사람의 목에 두 발을 걸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삼백육십 도로 한 번 굴러. 두 번 굴러……”

벌거숭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병사들이 구멍을 뚫고 있었다. 두 손을 등뒤로 묶인 채 아스팔트 바닥에 한사코 머리를 거꾸로 박으려고 버둥거리는 벌거숭이들. 그러다가 고꾸라지는 살덩이들을 병사는 군홧발로 짓이키며 욕을 퍼부어댄다. 서로의 목에 다리와 다리를 걸고 이리저리 길바닥을 굴러다니는 살덩어리들. 그것은 마치 꼬챙이에 줄줄이 꿰어진 채 불 위에서 빙글빙글 구워지고 있는 통닭 같기도 하고, 맹렬히 꿈틀거리는 한 무리의 벌레들 같기도 했다.<sup>26)</sup>

간단히 말해 팬티 한 장만 입혀 놓고 아스팔트 위를 굴러다니게 하는 폭력, 인간을 맹렬히 꿈틀거리는 벌레로 만들어버리는 폭력을 증오의 폭력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나,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사회적 의미망 자체를 탈구시켜버리는 폭력 혹은 또 다른 무엇이라고

25)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54쪽.

26) 임철우, 같은 책, 155~156쪽.

해야 하지 않은가. 그럴 수 있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그 서사가 만들어내는 장면에 대한 해석적 서술이 존재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묘사되기만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재현적 의미를 비완결시킨 채 다른 재현적 의미를 무한히 생성한다. 어떤 재현적 의미도 이미지적 서사에 대한 권위를 발휘하지 못한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제 자신의 상징적 성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은 우선 체험적 차원에서 존재한다. 아래에 이어질 어떤 감정적 차원의 분석들은 감정적/신체적 변용affection이 정동affect의 변화의 상태라는 점에서, 모두 이미지적 서사의 정동적 차원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표현이다.

인용문에 나타난 이미지적 장면은 과도한 묘사로 인해 순전히 어떤 경악스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것만 같다. 문장이 쌓일수록 공수부대의 폭력은 기괴하고 터무니없으며 잔혹하다는 느낌을 불러낸다. 공수부대는 이미 극심한 구타를 당하고 온 사람을 다시 무차별로 구타하고, 다른 모든 시민들이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팬티 한 장만을 입혀 또 다시 기합을 주는데,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강압적인 명령 속에서 “한사코 머리를 거꾸로 박으려고 버둥거”린다. 이 같은 풍경에 대한 비유는 더 끔찍하고 괴상한 느낌을 만들어내야겠다는 듯 극히 참혹하다. 인간은 줄줄이 꺾어져 불 위에서 빙글거리며 구워지는 통닭으로 표현되거나 맹렬히 꿈틀거리는 벌레들로 표현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자는 어떤 비참함과 참담함, 혹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모든 이미지적 서사는 어떠한 의미론적인 서술 없이 계속해서 나열되기만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강도적 효과를 갈무리하거나 정돈할 틈을 주지 않는다. 정동은 끊임없이 새롭게 쏟아지는 감각적 자극 속에서 하염없이 증폭된다.

시민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소설에서는 항전이 시작되고 진행된 요인으로 광주의 지리적 요건과 루머, 불씨, 전옥주의 가두방송, 어둠과 불등이 이야기 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봄날』에 나타나는 시민들의 저항의 모습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아주 간단히 말해 시민들의 저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항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물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무력 집단인 공수부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공포를 넘어설 수 있었는지, 어떻게 타인과의 절대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누구도 강요도 없이 스스로 나설 수 있었는지, 그런 항쟁이, 항쟁 공동체가, 평범한 시민들의 저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힌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단연코 불가능에 가깝다. 지리적 요건, 루머, 가두방송, 어둠과 불 등의 온갖 요인으로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봄날』은 ‘불씨’를 말한다. 항쟁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결정적인 요인에 ‘불씨’라는 비유적 표현이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래서 불씨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짧은 동안, 알 수 없는 침묵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잔잔하면서도 소리없이 끓어오르는 어떤 엄청난 힘을 아슬아슬하게 감추고 있는 듯한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불현 듯 저마다 이상한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불씨.

……그 이상한 불씨가 무엇인지, 그것을 맨 처음 어디서, 언제, 누가 가져다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슬픔이나 아련한 그리움 같기도 하고, 혹은 뜨거운 분노 같기도 했다. 아니, 그 전부이거나 전혀 다른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훨씬 이전, 어쩌면 그들이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 그 불씨가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저마다의 유년의 기억이라든가 어머니 · 고향 따위의 이름을 떠올리곤 할 때면, 지금껏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희미한 불씨의 존재를 문득문득 기억해내기도 했을 것이다.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는 광주 사람이라는 것, 오직 맨주먹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자신과 함께 몸을 맞대고 서 있다는 것<sup>27)</sup>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갑자기 서로에게서 형언키 어려운 신뢰감과 동질감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sup>27)</sup>

불씨는 분명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불씨가 깨어난 인간은 어떤 엄청난 힘을 갖게 되며, 이 불씨는 유년의 기억, 어머니, 고향과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 불씨가 깨어난 시민은 다른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형언키 어려운 신뢰감과 동질감을 느낀다. 그런데 “그 이상한 불씨가 무엇인지, 그것을 맨 처음 어디서, 언제, 누가 가져다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슬픔이나 아련한 그리움 같기도 하고, 혹은 뜨거운 분노 같기도 했다. 아니, 그 전부이거나 전혀 다른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씨가 무엇인지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수부대와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한 이후에는 의미론적 서술 없는 이미지적 서사가 범람한다.

거대한 조수의 흐름. 사방의 수로에서 밀어닥치는 물살들은 지금 좁은

27) 임철우, 『봄날2권』, 문학과지성사, 2007, 177~178쪽.



수문을 향해 거센 소용돌이를 이루며 무서운 힘으로 솟구쳐흐르고 있다. 수문은 오직 하나. 계엄군은 그 수문을 안간힘으로 막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물살은 갈수록 불어나고 수위는 더더욱 격렬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수문은 곧 함몰되고 말 것이다. 시민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쉴새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페퍼 포그와 최루탄의 소나기. 끝도 없이 이어지는 폭음, 폭음……

투투투투투.

퍼펩. 퍼퍼퍼퍼—엥.

삼시간에 자욱한 분말이 거대한 폭포의 포말처럼 땅과 하늘을 하얗게 뒤덮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감싸안고 비틀거린다.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여기저기서 폭석폭석 쓰러진다. 길바닥을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사람. 도망도 치지 못한 채 서로 부둥켜 안고 영영 통곡하는 여자들. 숨을 쉴 수도, 눈을 뜰 수도 없다. 방향도 물체도 분간할 겨를이 없다. 헉헉, 헉헉. 가쁜 숨을 내쉴 때마다 더 많은 분말들이 입으로 코로 푹푹 쏟아져들어온다. 도망칠 출구도, 숨을 자리도 없다. 어디나 온통 유독한 가스와 분말로 가득 차 있을 뿐.

그 틈을 타서 방독면을 쓴 외계인들의 무리가 빠른 속도로 급습해내려 온다. 백여 미터쯤 전진했다가 그들은 다시 서둘러 복귀하고, 그때마다 시민들이 수십 명씩 붙잡혀 끌려갔다.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중학생도 섞여 있다. 끌려간 사람들은 공수부대 후미의 길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꼼짝한 구타를 당한다. 그 광경을 먼발치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안타까운 비명만 질러댄다.

그러나 시민들은 끝끝내 물러서지 않는다. 최루탄과 페퍼 포그의 안개가 조금 짙해지면, 사람들은 이내 차도로 재빠르게 몰려 나온다.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두 손으로 코와 입을 고통스레 감싸쥐면서도 그들은 악착같이 되돌아오곤 하는 것이다.<sup>28)</sup>

이 장면은 공수부대의 극악한 폭력진압과 그럼에도 물러나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공수부대와 싸움을 멈추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봄날』의 의미론적 도식대로라면 이는 ‘불씨’다. 이 장면은 ‘불씨’가 만들어낸 시민들의 기적 같은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지적 서사가 수락하는 재현적 의미는 그뿐만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시민들의 용기(이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서의 어떤 굳센 의지 같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부가 이야기한 극한적 상

28) 임철우, 『봄날3권』, 문학과지성사, 2010, 189~190쪽.

황에서 피어난 용기라는 직관적 판단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융합적 공동체,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 공수부대라는 동족과의 상잔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미지적 서사는 제 이미지적 성격 때문에 여러 해석을 고스란히 수락한다. 이 장면 하나가 갖는 재현적 의미는 일일이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아질 수 있다. 이는 재현적 의미의 증식, 재현적 의미의 종결 불가능한 생성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적 서사가 갖고 있는 재현적 의미의 완성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지적 서사는 애초에 어떤 의미론적 차원을 완료시키지 않는다.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우리에게 건네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감각 인상적 체험이다.

저 장면에게 느껴지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과 의지 또는 몰려서지 않는 힘 같은 것이다. 먼저 공수부대의 진압 장면은 최루탄과 페퍼 포그가 터지는 장면을 “투투투투”나 “퍼퍼퍼퍼—엥” 같은 연속되는 파열음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어떤 숨 가쁜 느낌을 만들어내고, “폭석폭석” 쓰러지는 시민, “허둥지둥” 도망치는 시민, “엥금엥금” 기어가는 시민, “부둥켜안고 엉엉 통곡하는” 여자들 같은 묘사는 최루탄과 페퍼 포그의 분말에 갇힌 시민들의 상태를 더 실감나게 표현하며 독자에게 어떤 위험과 다급함, 어찌할 수 없는 암담함이나 처절함 같은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 같은 장면이 지나고 나면 공수부대의 급습이 묘사된다. 그들은 방독면을 쓰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수십 명씩 붙잡아가 잔인하게 구타한다. 여기서 시민들의 무력함과 공수부대의 압도적인 힘이 자연스레 비교된다. 독자가 그 비교의 정도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어지는 문단에서 그려지는 시민들의 저항이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의 강도는 더 강하게 된다. 시민들의 저항은 “최루탄과 페퍼 포그의 안개가 조금 뚝해지면, 사람들은 이내 차도로 재빠르게 몰려 나온다.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두 손으로 코와 입을 고통스레 감싸쥐면서도 그들은 악착같이 되돌아오곤” 한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민들의 악착스러운 의지, 고통을 넘어선 집념, 뭔가를 초월해버린 것만 같은 힘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이처럼 『봄날』의 서사는 문장 하나하나의 수준에서도 온갖 비유와 형용사, 부사의 쓰임을 통해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며 짧은 서사의 배치의 차원에서도 독자의 정동적 동요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쓰여 있다.

『봄날』의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이미지적 장면들 역시 이와 방불한 감각 인상적 묘사로 점철되어 있다. 의미론적인 층위에서 정리되지 못한 감각 인상은 다른 감각 인상이 만들어내는 느낌과 공명하며 정동을 끝없이 증폭시킨다. 독자는 『봄날』의 지속적인 감각적 자극의 운동 속에서 무엇인가를 체험한다. 이는 『봄날』이 체험적 성격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가 체험적 성격을 보여주는 특별한 방식이 두 가지 더 있다.

## 2. 장후내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

『봄날』이 이미지적 서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특별한 방식 중 하나는 장 속에서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이미지적 서사를 만들어 이를 의미론적 서술 없이 충돌시키는 것이다. 『봄날』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묘사가 도드라지는 이미지적 서사를 감각 인상적 차원에서 펼치는데, 『봄날』의 몇몇 장은 이러한 이미지적 서사가 진행되어 만들어낸 어떤 흐름의 연속을 급작스럽고 커다랗게 뒤틀어 버린다. 다음은 16장의 일부다.

“저 새끼들도 잡았!”

하나가 소리치자 얼룩무늬 몇이 그 건물 계단으로 뛰어들어간다. 또 다른 건물의 일층 가게 셔터를 마구 걷어차고 있는 병사. 아악. 골목길에서 끌려나오는 청년들의 외마디 비명 소리. 퍽퍽. 미친 듯 휘둘러대는 둔탁한 진압봉들. 우두두두두. 사냥감을 쫓아 달리는 어지러운 군홧발 소리. 여기 저기 쓰러져 뒹구는 사람들의 비명과 외침. 멀찍이 떨어진 골목이며 주변의 건물 위층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터뜨리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 그 모두가 불과 사오 분 사이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무석은 창가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새파랗게 질린 미순은 어느 틈에 무석의 허리를 꼬옥 끌어안은 채 부들부들 떨기만 한다.

“아이고메. 어쩌카이. 어째야 쓸거나아!”

주인여자가 탁자를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른다.

“셔터 내려! 빨리!”

주인사내가 다급하게 고향을 치자 종업원 아이가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이내 웬 청년 두 명과 종업원 아이의 몸뚱이가 헌덩어리로 엉키듯 식당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사, 살려주소. 문. 어디, 문 없소?”

청년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뛰어들자마자 출입문이 와지끈 젓혀지며 두 명의 얼룩무늬가 불쑥 나타났따.

“이 개새키들, 어디 갔어!”

하나가 객 소리를 지르며 다짜고짜 의자를 걷어찬다.

“아, 아이고 군인 아저씨들. 왜들 이, 이러십니까.”

엉거주춤 다가가려는 주인사내의 복부로 군홧발이 날아갔고, 사내가 의자를 꺼안은 채 뒤로 나동그라졌다. 비명을 지르며 여자가 뛰어갔다. 얼룩

무늬가 방문을 왈칵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이내 악악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 끌려나온 청년들.<sup>29)</sup>

이 인용문은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는 무석과 미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공수부대의 폭력 진압 장면이다. 앞서 다른 다른 공수부대의 폭력의 장면들처럼 여기서도 공수부대의 폭력성에 대한 설명 없이 묘사만 쏟아진다. 공수부대의 폭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문단은 문장 하나하나마다 장소가 달라지고 각각의 행위가 달라져서 독자에게 뭔가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 가게 셔터가 “마구 걸어차”이고, 진압봉을 “미친 듯 휘둘러”대는 공수부대의 모습이나 “우두두두두”, “퍽퍽” 같은 낱말은 공수부대의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든다. 와중 셔터를 내리라는 주인내외의 음성과 뛰어간 종업원, 그 종업원과 한 덩이가 되어 몰려든 두 청년의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은 독자에게 어떤 다급함과 긴급한 느낌을 자아내고, 순간 출입문이 “와지끈 젓혀지며” “불쑥” 나타난 공수부대가 주인사내를 걸어차 나동그라지게 만들고 기어 이 청년들을 끌어내는 모습은 중국집 안에 있는 초점화자에 의해 시선이 잡힌 독자의 안/밖에 대한 심리적 경계를 무너트리며 어떤 위급한 느낌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낸다. 이제 미친 공수부대의 폭력은 창밖의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기 옆의 사태가 되는 것이다. 한데 16장에서 공수부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시민들을 보여주는 서사의 흐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튀어나오는 환호성과 충돌한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와아 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안타아. 안타입니다. 역저언. 통쾌한 역전타.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회심의 안타가 팔회말 투아웃에 터져나왔습니다아……”

냉장고 위에 텔레비전이 그대로 켜져 있었던 것이다. 화면 속에서 열광하는 서울의 관중들이 깃발과 꽃술을 흔들며대며 미친 듯 환호성을 질러대고 있다.<sup>30)</sup>

야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TV에서 터져 나오는 열광의 환호성이 얼마나 이질적인지는 누구나 느낄 수 있다. TV는 우리를 동시간대의 사람으로 묶어주지만 바로 그 TV라는 매체의 특징 때문에 “통쾌한 역전타”, “깃발과 꽃술을 흔들며대며 미친 듯 환호성을” 질러대는 화면 속의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더 이질적으로, 광주의 상황을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같은 나라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이

29) 임철우, 『봄날1권』, 문학과지성사, 2006, 312~313쪽.

30) 임철우, 같은 책, 316쪽.

광주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마치 광주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광적으로 표출하는 환호성은 독자를 어떤 아이러니함이나 당혹스러운 느낌 속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16장은 완전히 대립되는 이미지적 서사를 그린다는 점에서 정동을 크게 증폭시킨다. 감각 인상적 내용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각기 다른 느낌의 충돌은 그 충돌이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정리되지 않는 한 결국 두 감각 인상의 차원을 강하게 공명하게 하고 이는 정동 자체를 더 커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54장은 한 번 더 언급될 만하다. 여기에는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그려져 있다.

별안간 어디선가 「애국가」의 선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가사 없는 곡조……느닷없이 흘러나오는 그 소리에 금남로를 메운 시민들은 어리둥절해져서 한순간 멍하니 서 있다. 더러는 뒤늦게 「애국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무구웅화 사암천리 화려강산……

바로 그 순간. 공수부대 병사들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어댔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수백 개의 총구가 한꺼번에 토해내는 어마어마한 총성. 총성. 총성. 허공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울리는 총성. 건물이 우렁우렁 울리고, 가로수의 잎파리들이 우두두두 떨어진다. 빌딩 벽을 맞고 핏퐁 튀어나오는 총탄들. 관광호텔과 전일빌딩에서 썩그랑 썩그랑, 유리창이 깨어진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포를 쓰고 있는 듯하다.

(……)

마침내 시민들을 향해 집중 사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우와와와. 숨넘어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시민들. 사방에서 폴썩폴썩 쓰러진다. 파팍. 파파파팍. 아스팔트 위로 튀어오르는 총탄, 총탄, 총탄. 순식간에 수십 명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여기저기 피투성이로 폴썩폴썩 나뒹구는 몸뚱이들. 몸뚱이들…… 거리는 어느 틈에 텅 비어 버렸다. 으아아아앗. 으아아아앗. 아우성을 치며 시민들은 골목과 골목, 건물 벽이나 현관으로 몸을 숨긴다. 한국은행 앞까지의 텅 빈 길바닥엔 총탄에 맞아 쓰러진 삼사십 명의 시민들……

(……)

……바로 그 순간 대열의 훨씬 앞쪽, 텅 빈 차도 안으로 태극기를 든 청년 대여섯 명이 돌연 튀어나갔다. 청년들은 차도 한가운데 멈춰선다. 공수부대 쪽을 향해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구호를 외친다.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라.”

순간 ‘앞아 썬’ 자세를 취하고 있던 공수부대 저격수들이 방아쇠를 당겼다.

(……)

이내 또 다른 청년들 네댓 명이 차도로 뛰어나갔다. 길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태극기를 집어 들고 힘차게 흔들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타타타타탕. 다시금 총성이 터지고, 청년들은 짚단처럼 맥없이 푹푹 고꾸라졌다.

(……)

‘봉축—부처님 오신 날.’

일제히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병사들의 등위로, 그렇게 적힌 대형 아치가 세워져 있었다.<sup>31)</sup>

애국가 이후, 총알이 쏟아지는 장면은 어떤 강한 힘이 몰아닥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총구에서 총성을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토해내”고 허공을 “갈기 갈기 찢어발기”면, 유성어와 의성어로 이루어진 묘사들이 마치 사물의 형태가 날 말대로 존재하기라도 하는 양 울림소리를 만들어내며 뒤를 잇는다. 총성은 건물들이 “우렁우렁” 울리게 하고 가로수의 이파리들이 “우두두두” 떨어지게 하며 무수히 쏟아지는 총알의 다발은 건물 벽에 맞고 “핑핑” 튕겨져 나가거나 애꿎은 유리창을 “쨍그랑 쨍그랑” 깨기도 한다. 짧은 문장 속에서 나열되는 비슷한 자음과 모음의 결합의 반복은 독자에게 어떤 공포스러운 리듬감마저 안겨주며 사물들의 형상이 어떤 힘에 의해 급하게 변화되는 감각 인상을 갖게 한다.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피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나뒹구는 뒤이은 장면은 어떤 긴 급함과 처참함을 보여주는 단문들이 연속하거나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듯 쓰인 말줄임표에 의해 어떤 비극적인 느낌을 불러낸다. 총알이 튀는 모양을 묘사하는 “파팻. 파파파팻” 같은 낱말들, 시민들이 총에 맞아 길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그린 “풀썩풀썩 나뒹구는 몸뚱이들” 같은 낱말들, “총탄, 총탄, 총탄” 같은 낱말들의 연속은 거센소리와 된소리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거세고 단단하며 강한 느낌을 동반시키고, 이는 “우와와와”나 “으아아아앗. 엄마야아앗.”처럼 울림소리로 표현되는 시민들의 아우성과 함께 뒤섞여 충격 상황에 대한 독자의 감각 인상을 더 선명히 자극하는데, 범람하는 감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자의 감각

31) 임철우 『봄날4권』, 문학과지성사, 2007, 64~71쪽.

인상을 자극하며 공수부대의 집단 충격이라는 경악할 장면과 겹친다. 독자의 정동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묘사는 54장 내내 지속되다가 태극기를 휘두르며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는 시민들을 묘사하는 부분과 “‘봉축—부처님 오신 날.’”에 걸린다. 시민들이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은 어떤 비장함과 참혹함, 슬픈 느낌, 극단적인 어떤 의지에 대한 느낌 등을 자아내는데 이 장면은 애국가 속에서 발포한 공수부대의 폭력성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대형 아치의 문구 역시 ‘부처님’이 자비나 평화 같은 전인류적 차원의 도덕이나 윤리적 느낌을 즉각적으로 불러온다는 점에서 공수부대의 폭력성과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즉 54장도 진행되던 선형적 서사에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이미지적 서사 혹은 장면을 한 장 내에서 병치시킨다. 극명히 대립되는 이미지적 서사는 그 대립적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독자의 체험성을 강화시킨다. 선형적 내러티브의 흐름에 대한 기대가 정지되고 뒤흔들릴 만큼 강한 감각이나 감정적 서사가 개입할 때, 서로 배치되는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이 기쁨이나 슬픔 같은 모순적인 감정적 총위에 있어도 정동은 배가된다. 강렬도의 수준은 배중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립적 구분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정동은 모순을 강도적 차원에서 연결시키고 제 성격을 증폭시킨다. 육체적 흥분은 의미론적 차원과 단절되어 진행되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미지의 체험적 성격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다.

### 3. 장후간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

『봄날』이 소설의 체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장과 장이 전체적 수준에서 극단적으로 대립-충돌하는 경우다. 각각의 장은 이미지적 서사가 진행되며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하는데, 어떤 장의 내용은 바로 앞의 장에서 나타난 내용과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존재한다. 이미지적 서사가 쌓아온 일관된 내용의 흐름이 만들어낸 인상은, 그 인상을 만들어낸 서사의 체험적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찬가지로 대립되는 다음 장의 이미지적 서사가 만들어낸 감각 인상도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크고 강렬한 정동의 증폭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바로 앞 절에서 분석했던 54장의 바로 뒤에 오는 55장(전남대 정문 앞)은 뱃속의 생명을 찬미하는 임산부가 공수부대의 총에 의해 사살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아기를 가졌을 때의 그 벅찬 감격을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한다.

‘아아, 내 몸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깃들이고 있다니! 아아, 내가, 내가

엄마 되다니!’

그런 생각이 들면 그녀는 아무 때고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그날부터 온 세상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다. 햇빛 한줌, 길가의 풀 한 포기,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소중한 정겨웠다. 첫아가가 태어났고,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 안는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 혼자만 온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몸 속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는 참이었다. 아직 얼굴도 성별도 모르는 두 번째 아기. 앞으로 두 달쯤 기다리면, 이제 그 아기가 찾아올 터였다. 이 햇살 눈부신 세상으로, 마알간 눈망울을 가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었다.

(……)

‘가만, 저 사람이 저기 서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엉거주춤 서서, 무심히 사내를 바라보았다. 예비군복 비슷한 얼룩덜룩한 제복에 철모를 쓴 사내. 그 사내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뭔가 검고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것을 얼굴에 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저게 뭐지?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타양!

(……)

이웃집 여자가 시체의 배를 가리키며 눈을 커다랗게 떴다. 순간 어머니는 보았다. 부풀어오른 딸의 배가 돌연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다.

불뚝.

불뚝.

불뚝.

마치 다급하게 심호흡을 하듯이, 혈떡거리듯이, 임신복에 덮인 커다란 배가 세차게 불뚝불뚝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다.<sup>32)</sup>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은 임신부 최미화의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세상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이다. 그녀가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느낀 벅찬 감격은 햇살 한줌, 길가의 풀 한 포기, 작은 돌멩이 하나에 대한 소중함과 정겨움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밝은 믿음을 형성한다. “이 햇살 눈부신 세상으로, 마알간 눈망울을 가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었다.” 최미화의 느낌은 초점화자의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에게도 쉽게 전이되는데, 이 같은 감격과 기대, 애정 등은 사실 55장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55장은 마치 임신부 최미화를 위해 바쳐진 장이라는 듯 아직 24살 밖에 되지 않은 그녀가 남편에 대해 갖는 애

32) 임철우, 같은 책, 77~93쪽.



정과 투정, 아이를 키우며 겪는 곤란과 보람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느낌을 행복하게 표현하는데 할애되어 있다. 독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모습 속에서 삶에 대한 어떤 안온함이나 신뢰감 같은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 받게 된다. 때문에 그녀가 늦어지는 남편을 배웅하러 집 앞에 나왔다는 이유로 총을 맞아 죽는 장면은 유독 끔찍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녀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제 생을 위해 요동치는 장면과 이를 그린 의태어 “불뚝. 불뚝. 불뚝.”(이는 행갈이 되어 있다)은 그 자체로 어떤 처절함과 처참한 느낌을 만들어낸다(그래서 이 장 역시 후내 대립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이 만들어낼 강렬도는 도청 앞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총격을 그린 장 바로 뒤에 온다는 점에서 한층 더 강렬해진다. 십오만, 혹은 이십 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행된 집단 학살에 대한 이미지적 서사와, 공수부대의 폭력성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임산부가 생명에 대해 찬미하는 이미지적 서사의 극단적 대립-충돌은 정동을 더 증폭시킨다. 앞서 말했듯이 선행된 내러티브가 만들어낸 독자의 어떤 기대를 멈출 만큼 새롭고 강한 감각 인상적 장면이나 감정적 장면은 내러티브의 총위가 어떻게 변형되든 순식간에 복잡다기한 감각 인상과 다층적인 감정의 차원을 동시에 진행시켜 결국 강렬도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명의 말살과 생명의 찬미는 대립되지만 그 둘을 보여주는 이미지적 서사의 감정적/신체적 변용affectation은 독자의 강렬도를 증폭시키기만 하는 것이다.

56장 역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봄날』의 체험적 성격을 선명히 드러낸다. 56장은 도청 앞 발포 이후의 상황을 처음으로 보여준다. 이 장은 54장의 서사가 만들어낸 예상되는 내러티브의 흐름을 55장에서 한 번 배반하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내러티브에 대한 독자의 기대가 어긋나는 만큼 생겨난 정적인 시간은 그 시간에 대한 상상의 깊이가 깊을수록 정동의 운동으로 가득 차는데, 독자는 56장에 나타난 끔찍한 병원의 상황을 통해 그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을, 그것도 54장에 나타난 생명 말살의 상황 전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56장은 총에 맞은 시민들의 비명과 호소 속에서 어떻게든 그들을 처치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다급함이 주로 그려져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서, 선생님! 지, 집에 연락을 해야 하는디라우.”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남자가 실려가며 헐떡거린다. 붕대 사이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직원들이 부랴부랴 운반용 병상을 끌고 나갔다.

“간호사, 간호사! 여기 있던 환자, 어디 갔어!”

“네에? 저도 몰라요. 아, 수술실로 옮겼나봐요.”

“아이고오, 의사 선생님. 여기 조까 봐주세요오. 나 죽었네에!”

“이거 보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정도로는 안 죽는단 말요! 응급 처치는 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잠시만 복도에서 기다리쇼! 급한 환자부터 처칠 해알 것 아뇨!”

“여기부텀 봐주란 말요! 내가 먼저 왔단 말이요.”

“물, 물 좀 주시오. 목이 타서 죽겠단 말이라우!”

“우진아! 정신차려. 아이고오, 눈 조까 떠보랑께에! 선생님! 의사양바안! 우리 자식 죽소오!”

“선덕남! 이 친구 어디갔나! 뭐라구? 이 판국에 원무과엔 뭇허러 갔어?”

“이봐, 저쪽 3번 베드, 심장 마사지 시도해봤어?”

“늦었어요. 영안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뭐요? 비켜주쇼. 이렇게 무작정 들이닥치면 어쩌라는 거야?”

“이봐요, 나가요 당장! 찾기는 누굴 찾는다고 그래요?”

“수위 아저씨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불필요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으라니깐.”

“김간호사. 여기! 빨리 지혈부터 하라구. 아니, 그쪽말고, 이쪽 환자!”

“윤원상 선생님. 산부인과에서 찾는데요. 제왕절개 수술, 급하대요.”

“제기랄, 그쪽에 레지던트나 누구 없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여기 수혈부터 빨리 해. 부목도 준비하라구.”<sup>33)</sup>

이 인용문은 순전히 어떤 긴급한 위험의 상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문장들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급박함이다. 단문 위주의 발화들이 각각의 발화를 설명하는 문장 없이 촉박하게 나타나는데, 병원의 상황이나 환자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들이 모조리 처참하다. 수많은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저마다 자신의 고통과 처지를 호소하며 비명을 지르고, 아무렇게나 밀려드는 환자들을 관리하지 못해 간호사고 의사고 모두 아우성이다. 모든 환자가 위급하게 보이는 가운데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쉴 틈 없는 고통 속에서 숨 가쁘게 이루어진다. 모두가 원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절박하다. 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생명들, 그 생명을 보호하려는 간호사와 의사의 다급함을 묘사하는 이 인용문은 생명을 위한 긴박함, 절박함 그 자체가 됨으로서 급박한 느낌들을 강화시킨다. 즉 56장은 생명을 놓고 완벽히 대립되는 이미지적 서사가 전개된다. 56장의 이미지적 서사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긴박감이나 절박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생명을 없애버리려는’ 공수부대의 집단 총격이 만들어낸 처참함, 절망감, 경악스러운 느낌과 극

33) 임철우, 같은 책, 97~100쪽.

단적으로 대립한다. 이때 그 대립되는 서사에 의한 감정적 특질은 진행되던 서사 속에 어떤 새로운 상태를 등록하기 위해 독자가 받아들이는 서사의 연속성을 일순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또한 54장에 의한 기대를 일부러 배반하며 등장함으로써 고요하게 날뛰던 독자의 정동과 다시 공명한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독자를 자극한다. 감각적·감정적 특질은 서사에서 의미화 되는 층위와는 무관하게 54장에 나타난 감각적·감정적 특질과 공명하며 어떤 질적인 강도를 증폭시킨다. 정동은 의미론적 정리 없는 이미지적 서사에서 펄펄 댕다. 『봄날』은 분명 체험적이다.<sup>34)</sup>

### III. 결론

1980년 5월 이후, 소설은 5월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야 했다. 5.18이라는 거대한 외상적 사건은 왜곡되어 퍼져 있었고 심지어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소설은 5.18에 대한 사실복원이나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학적이거나 역사학적이어야 했다. 5월 문학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소설로 흥희담의 『깃발』과 임철우의 『봄날』을 등록했다. 『깃발』은 사회학적 접근의 모범이었고 『봄날』은 5.18을 역사학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복원한 작품이었다.

이들 소설은 종종 5월을 새로운 형식 속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소설과 비교되기도 했다. 사실 규명의 작업을 통해 5월의 성격을 포착하려 했던 이들 소설과 달리 최윤과 한강의 소설은 5월의 성격을 병리적인 차원에서, 재현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포착했다. 10개의 절로 이루어진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sup>35)</sup>는 각각의 절마다 변화하는 시점과 문체를 갖고 있으며 모든 절의 이야기는 한 소녀의 정신병리적 상태를 만들어낸 부재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끄찍하게 맴돌기만 한다. 5월은 다층적인 시점과 문체 속에서 복잡하게 얼크러지며 공백으로 환기된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sup>36)</sup>는 감각적이고 이미지적인 이야기의 단편들이 일반 글꼴과 이탤릭체를 오가며 비선형적으로 펼쳐져 독자에게 우발적이고 충격적인 몽타주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소설에 나타나는 5월 광주에 몇몇 모습들과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건에 대한 어떤 (불)가해성, 증언의 (불)가능성 속에서 존재한다. 『소년이 온다』에서도 5월의 실체는 공백과 연결되었다.

34) 장후내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과 장후간 이미지적 서사의 대립을 보여주는 부분 역시 수도 없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 불가능하다.

35)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1.

36)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그러나 이제 『봄날』은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 『봄날』은 5.18이라는 사건과 그에 얽힌 사람들의 심리 혹은 내면을 역사학적인 층위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론적인 차원을 파악하게 하는 서술을 최소화함으로써 제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원고지 7000여매에 이르는 이미지적 서사는 독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정동affect을 증폭시키며 자신과 5.18이라는 사건성 전체를 무한히 변화시키고 움직였다. 『봄날』의 전체에서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의 묘사와 서술 그리고 논평들은 『봄날』의 감각 인상적 이미지들이 어떤 의미론적 장소들 속에서 존재하게 만들었으며 재현적 의미는 끝내 잔존하는 이미지적 서사 속에서 종결되지 않고 끝없이 생성되었다. 『봄날』은 5월에 접근하는 낯선 형식을 통해 5.18의 재현적 의미를 무한히 증식하는 동시에 5.18을 체험하게 하려 했다. 『봄날』에서 5.18은 그 어떤 의미에서의 5.18도 아닌 5.18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런데 이토록 낯설고 생경한 글쓰기는 왜 필요했을까. 임철우는 왜 5.18을 무한한 해석과 체험을 만들어내는 형식 속에서 존재하게 했을까. 『봄날』이라는 작품이 갖는 의의와는 별개로, 그건 어쩌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사태, 인식의 한계를 훌쩍 넘어버린 거대한 사태, 언어가 철저히 무력해져버린 그런 트라우마적인 사태를 지시하기 위한 필연적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형식은 문학이 역사적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양소설의 형식이 근대화된 유럽의 분화를, 서로 구분되는 세계관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형식이었듯이<sup>37)</sup>, 이미지적 서사라는 형식은 5월을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증언하는 동시에(『봄날』이 쓰였을 당시에 5월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바로 그 재현의 언어가 갖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5월을 체험하게 하는(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가장 정확한 형식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언어는 언어를 통해 언어로 전달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임철우 개인의 트라우마를 소설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

37)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옮김, 문학동네, 2008, 7~22쪽. 참조.

# Read Again Im Chul-woo's 『A Spring Day』 -Based on Reproducibility Format

Kim Ju Sun

## I . Introduction

### 1. History of research and suggestions

Lim Chul-woo's 『A Spring Day』 was underestimated. There are not many studies and reviews about 『A Spring Day』, but the research that revealed the academic meaning of 『A Spring Day』 is few. For most researchers, 『A Spring Day』 is only a historical record of Lim Chul-woo's shame and guilt that survived at 5.18. The self-confession of faithfulness to the historical facts expressed in the author's words and not actively participating in 5.18 became an alibi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study. Afterwards, Lim Chul-woo's writings on 『A Spring Day』 and other conversations have played a role in strengthening the situation

In dealing with historical facts as a fiction, the artist's imagination is both essential and risky. Fact and imagination- between them, at least as far as this novel is concerned, I tried to rely on reality as much as possible. (……)

To be honest, I have written this work for me, hoping that this can be left not only as a novel but also as a relatively faithful documentary.

Of course, 『A Spring Day』 is testimony novel. 『A Spring Day』 as a testimony novel aims historical reality. Even when Lim Chul-woo wrote the novel, 5.18 was distorted without being clarified. The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uprising were still mobs, and all slander and fabricated rumors went around, and the person responsible was not revealed. Time was running out of Gwangju in May 1980. Lim Chul-woo, therefore, had to be desperately realistic. To write 『A Spring Day』, he had to compulsively collect and organize all the data related to 5.18. He had to tell the truth

of what happened from 18th May to 27th May 1980; how terrible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set out by the new military was; how the citizens who opposed it existed. It was a testimony novel about 5.18 Lim Chul-woo thought. But how can 5.18 be open to the public? How it should express the inner appearance of the citizens who have been subjected to the violence of unprecedented tragic scenes, troops equipped with the guns and the swords, and the victims of their deaths in front of the violence?

From the night of May 20 until dawn, there was a hand-to-hand fight in front of the labor office. It was literally a battle between the citizens of the bare hands and the airborne units armed with bayonets. At that time, the electricity was completely out of the city center. And the MBC broadcasting building was surrounded in flames. Huge crowds gathered by the fire ... At the moment, the martial law forces gathered only in one place, centered on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were defending them. I was there; the streets were so crowded like overfilled buses all over the street, even if I stood still, I was pushed forward. Suddenly, pepperpooqs popped out and a squatting operation began ... There was a huge fight that day. Throughout the ten-day period, the citizens suffered the most extreme and terrible city warfare in the hand-to-hand combat. A lot of people died in the streets that night. At this moment, I can not forget what happened and all the scenes that night. It was like a lie. How can those ordinary people fight like such one lump, without leaving their minds like crazy, even though death is at hand? In the end, the martial law forces will take the day off and retreat. The Martian army collapsed in the fight from the night before dawn. When I think about those moments, I still feel thrill in my whole body. Things that I could never imagine were happening in front of my eyes. Sometimes I think; Was it a dream? Did I have a dream? To think of that moves me to tear again. At that moment, I was not afraid of death, in spite of a coward. It's marvelous.

(.....)

...My own realism, of course, includes the issue of how to capture the importance of the inside of the character, such as the flow of

consciousness and inner psychology. It seems like a very distant story, but at one time, even in the technique in novels, there was a time when we discussed the realism and modernism in a very narrow view. ... But at the time I did not want to accept that narrowness. I think that the psychology of the person, the reality of the inside is also the part that literature should take care of. ... In 『A Spring Day』, that was the key to me. There surely exists what literature should take of, which can not be translated into articles, poetry, or oral history. What people felt then and how they accepted the pain.

Therefore, 『A Spring Day』 is not just a testimony novel to draw as much as possible the 'objective' fact. Lim Chul-woo's 『A Spring Day』 is a novel that captures the unimaginable events and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people who created them, that is, 'what people felt then and how they accepted the pain.' The situation that 'ordinary people' were not afraid of death like a 'lie, the 'unimaginable' result of defeating the Airborne units in hand-to-hand fight; and the inner side of the citizens who created such an unexplained miraculous result. It is the area that only literature can afford, not by articles, poetry, or oral history. So, how does 『A Spring Day』 express it? How can a novel language express miracle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orm of 『A Spring Day』. We need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repetitive image narrative in 『A Spring Day』. Here, 『A Spring Day』 has a true meaning.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shows a unique way of drawing miracles. 『A Spring Day』 creates a representative meaning that allows a person to experience miracles through image narrative and to explain miracles without ending at the model level. Image narrative multiplies the semantic dimension through repetition of similar contents, but does not depend on it, and amplifying the level of the affect of the reader. The affect is regulated at the semantic level and liberated from the image. However, as mentioned above,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are focused on the record of 『A Spring Day』 and the guilt of the author, and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reproduction style of 『A Spring Day』

First, Park Ok-shim looks like the writer appearing as the record character who attempts to summarize 『A Spring Day』 with the symbolization of the

Gwangju uprising and vividly revitalize the experience of the extreme situation as a record character of the novel. However, it does not suggest at all how the record becomes the gross of experience, or on what basis it revives the totality of experience.

Seo Young-chae claims that 『A Spring Day』 is a work that recreates the gross image of the Gwangju uprising through the actors who act as cameras. He suggest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nnocent deaths shown in 『A Spring Day』, the solidarity of citizenship, the frustrated hopes seen on the last day at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and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the airborne soldiers playing a role as servants under the new military government.

Sung Min-yeop says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nner aspect of the focus speaker described in each chapter, because the truth of 『A Spring Day』 is the figure itself that the inside of each individual complicatedly and totally entangled. He analyzes each person's inside closely and says 『A Spring Day』 is a work showing the restoration of the humanity (resistance, solidarity) inherent in the natural state through the experience of fire called Gwangju Uprising, and showing the shame and guilt of the survived.

Shim Young-ui defines that the main feature of 『A Spring Day』 is the writer's desire for testimony. According to him, chronological narrative, a formal characteristic of 『A Spring Day』 makes the reader believe that novel is the content of reality. At this time, being novelistic and recordability of 『A Spring Day』 is the power that makes 『A Spring Day』 go beyond the boundaries between novelistic discourse and historical narrative. But for him, 『A Spring Day』 is a testimony novel, which in fact destroys the structure of the novel over the intent of the record.

Wang Chul believes that all the novels of Lim Chul-woo, including 『A Spring Day』 are the manifestations of his own shame and guilt. For him, 『A Spring Day』 is a work neglecting novelistic element by focusing on record-oriented literature and factual depiction. It is not exactly what the 'novelistic element' means here, but anyway, 『A Spring Day』 is a documentary with repetitive and distracting narratives. However, concrete and repetitive descriptions of violence are also considered to be a repetition of violence against people, and thus they can not be regarded as defects.



Lee Hyun-sik finds the significance of 『A Spring Day』 in terms of the example record literature of 5.18. The true achievement of 『A Spring Day』 is to further enhance the reality by recording the day in May as much as he can and showing it at the multiplexer's point of view. However, for him, 『A Spring Day』 shows a weak dramatism between the characters and can not clearly reveal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May Uprising.

Jun Sung-wook asserts that 『A Spring Day』 is an organic reproduction novel that shows the metaphysics of historical calling consciousness created by Lim Cheol-woo's guilt and compulsion to the truth. To him, the true narrative about May Gwangju should be unfolded by planning of the expression(Deleuze), not by the representation that represents the object as the logic of identity. The narrative of expression is realized in the encounter of differences and transition escaping from the narrative of representation; which is manifested in narrative techniques such as self-conscious narrative of the limit of language, dense psychological description, and intersection viewpoint. In other words, 『A Spring Day』 is just a recurring novel, an organic novel, a chronological novel, a novel of a narrative, and a record novel located at the opposite side of the plan of expression.

Jeong Myung-jung has presented two papers on 『A Spring Day』, which differ in character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First, he questions what the anger of the crowd can be the driving force of social change in 「Toward Anger from Hatred: Reading Lim Chul-woo's 『A Spring Day』」. What he found in 『A Spring Day』 is "fire". He expresses his regret that 『A Spring Day』 did not reveal the relation of anger and resistance with a lyrical form (image of "fire"), that is, in that it was not exposed as causality. and argues that "fire" is the memory of a person's trans-individual personality (Spinoza) and the minimum state of uncontrollability (human non-extinctability) or its (re) discovery.

Another paper by Jeong Myung-jung, 「Those who are unrecognized, or phantoms - 'Lumpens' in May Novels」 explores the point where resistance politics is formed through 『A Spring Day』. He defines Museok, Hangi, Chilsoo, and Bongbae as Lumpen(Marx), and Museok is the subject for analysis. It is because the lack of reflectiveness of Museok who undergoes 5.18 makes him a passive passion and ultimately led to a resistance to death. He argues that the lack of reflectiveness is a source of ideology to

come, and argues that the re-thinking and renewal of May is possible by striving at this point. In other words, he trie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ger of the crowd and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A Spring Day』 and finds the point where the politics of resistance starts. Therefore, there is no in-depth study on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A Spring Day』, and most studies were based on the recordability of 『A Spring Day』 and the emotion of the author.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re has been no mentioning of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A Spring Day』. For example, Jeong Ho-woong's criticism is short but implicit. He thinks that the characteristic of 『A Spring Day』 is the repetition of similar contents. The repetition in 『A Spring Day』 creates a kind of semantic structure by creating "novelistic order" in 『A Spring Day』, and frees it from just a simple record. The meaning of 『A Spring Day』 that he reveals is 'humans' and 'democracy' against the violence, warm and loving motherhood, and liberation from hatred. Of course, Jeong Ho-woong's short text rarely shows the in-depth analysis of the formal features of 『A Spring Day』 and does not explain the numerous semantic relations shown in 『A Spring Day』.

Yang Jin-oh's research is most remarkable of the studies on 『A Spring Day』 submitted so far. According to him, 『A Spring Day』 as the testimony literature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haracteristics. First, 『A Spring Day』 is a chronological novel written in chronological order to clarify the truth, but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simultaneous and middle cla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pters is open and dynamic to each other. This is a constitutive feature of 『A Spring Day』. Second, 『A Spring Day』 is a realistic representation and a representation of a sense-oriented language. This is a basis to develop readers' social awareness of the Gwangju Uprising, stimulating diverse psychological responses to readers. It is because there is no social awareness that is formed regardless of the psychological reaction. Furthermore, he thinks that the sense-oriented language in 『A Spring Day』 leads to the image confrontation between the new military government and citizens. He confronts the image of death and blood with the image the fire, and the fire is a symbol of resistance, anger of injustice, pure and simple love for humanity, happiness, and perfect peace, which makes readers strongly

aware of the 5.18 tragedy. Third, 『A Spring Day』 is the truth about 5.18 which is composed by the point of view of characters. Therefore, the task of reading the viewpoints of major figures becomes a multiple semantic approach to Gwangju in May. Yang Jin-oh analyzes 『A Spring Day』 centering around the viewpoint of Museok, Myunggi, and Myungchi, and summarizes it as an ugly reality of May, an event that holds guilt, and an ugly crime. In other words, he clarified the formal principles of 『A Spring Day』, and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5.18 through the characters of 『A Spring Day』, image features of sensuous narrative in 『A Spring Day』 (not the semantic narrative), and the viewpoints of diverse persons.

However, the multi-layered relationship of each chapter created by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A Spring Day』 was limited to reveal the composition of 『A Spring Day』, and the description of May in Gwangju through three major figures reduces the semantic dimension of 『A Spring Day』 which a myriad of people have come up with different voices. The discussion about the psychological reaction that 『A Spring Day』 brings to the reader is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experience' nature of 『A Spring Day』, but his analysis is limited to the style dimension of 『A Spring Day』. Therefore, Yang Jin-oh did not elaborate o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formal features of 『A Spring Day』, and the study of the semantic relations shown in 『A Spring Day』 was also limited to a part.

Thus, it is confirmed that there has never been the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ential character and the semantic dimension of the reproduction style of 『A Spring Day』. This essay examines how the experiential character and semantic relation of 『A Spring Day』 exist through analysis of the form of 『A Spring Day』. In this way, 『A Spring Day』 will become the novel beyond the representation and language.

## **2.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purpose**

Lim Chul-woo's 『A Spring Day』 is a testimony novel. He wrote a novel based on records as much as possible. The temporal and spatial context of many events in the novel coincides with the time and space context in which the actual event occurred. The situation in the novel that does not correspond to the reality is returned to reality by explaining it as a footnote. His novel is obviously close to historical 'facts'. However, the facts shown

in 『A Spring Day』 are different from the facts recorded in history books. Although the historical record accurately describes the nature of the time and space at which the event took place, 『A Spring Day』 does not indicate what the character of 5.18 is. Lim Chul-woo minimizes the semantic narratives that clearly understands the many things that happened in Gwangju in May. In 『A Spring Day』, 5.18 is described sensuously and impressively. The absence of a framework that can connect numerous sentences makes 5.18 described in 『A Spring Day』 as 5.18 itself, in 『A Spring Day』, suffer as 5.18 itself. The purpose of 『A Spring Day』 is to let you experience 5.18, not the definition of 5.18. This is also shown in Lim Chul-woo's confession.

“The list of "total truths" I am talking about is not limited to only specific and objective facts such as detailed situation, development process, identification of responsible persons, characterization of events and evaluation etc. ... what is more important for me as a writer was the ten-day time and the living of the city. To revive the voices of horror and anger, suffering and sorrow, despair and joyful experiences of the 800,000 citizens in the novel, to say the totality of experience in the existential extreme situation.”

However, as you know, using a real life experience is no different than writing a surplus. Moreover, the language exists from the beginning by cutting and condensing parts of life as a flow. Language basically makes life compartmentalized and organized and does not make you experience it. How to solve this difficulty. How can the language of the novel be able to testify 5.18 'frontally' and experience it at the same time? How can the reproducibility of the eventuality of 5.18 be seen (though the language can not completely define anything at all) as it can not be reproduced at all. How will the inner and collective circumstances of many individual beings, the concurrent events and their weight, be shown? Is not that impossible? Can we trust the language? However, 'facts', and thought that creates 'facts' can not exist without language at the end.

Clearly language is the most sophisticated means of creating 'reality' in the indiscriminate flow of life. This is not an investigation. There is no

'reality' without the activity of the cinematographer making the difference. Realities that can not be dictated by language fall into indiscriminate flow with the loss of support. Only the invention of non-verbal communication through language will solve this difficulty. If so, how did 『A Spring Day』 deal with 5.18 frontalize the experience, How is 『A Spring Day』 written.

『Spring Day』 consists of 87 chapters including epilogue. At the beginning of each chapter, a poem, a scripture passage, a sentence engraved on the tombstone of the victim, a newspaper article, and a statement of a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5.18 appear as a subject and form a sensuous relationship with the unified content of the chapter. Chapters are chronologically parallel but intermittent. Moving from one chapter to the next will change the focus speaker and the temporal and spatial situation in the chapter, and in some cases certain times and places are superimposed stereoscopically through the various viewpoints created by the various characters in the story. However, many situations in novels are difficult to define semantically. The narrative of 『A Spring Day』 is composed of a dynamic scene or a sight-oriented process, and is composed of minute and dense dramatic realistic descriptions full of sensual impression.

Excessive portrayals always make the reader concentrate more on the movement of the appearing characters, the psychology, the background of the space, rather than the overall grasp of the narrative, to strengthen the image character, to make the images; sensuous adjectives and adverbs also appear multiple times in 『A Spring Day』 to make the scene of a novel appear like a photograph or a picture. The scenes created by the narratives of 『A Spring Day』 are epiphanic as if they were images. In addition, 『A Spring Day』 has a small number of semantic descriptions that can explain or define numerous scenes, and is even eroded by the overwhelming depiction. Therefore, the narrative of 『A Spring Day』 is not a representational narrative of the event but a narrative that makes the event recognizable from the sensuous impression level. Most of the scenes depicted in 『A Spring Day』 are literally 'painted'. Numerous scenes of 『A Spring Day』 exist in the image. Image quality is central to the experiential nature of 『A Spring Day』 .

According to Brian Masumi, we embrace images in two dimensions. One is the multi-layer semantics of the images accepted by each method, and the other is the intensity, or *affect*, expressed by the strength or continuity of the sensuous effects produced by the image. However, *affect*(strength) is the highest priority in accepting image, and *affect*(strength) is an early occurrence, always implicating the involvement of non-conscious levels of sensation between something and something (eg. between individuals and images), the origin of action, expression, and the origin of choice. The semantics or coding of the form/content dimension that fixes the features of the image subtracts and restrains affect. Affect is captured and confined by the perceived and recognized perception and position. The potential state of affect is filtered by consciousness and realized. Therefore, there may be a discontinuity between meaning order and affect (strength). But this does not mean the absence of the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not a relationship of conformity and refusal to the order of semantics, but the one of resonance or amplification and inhibition, or interception.

For example, if the meaning order is completed on the semantic level, the reader's *affect* is no longer stimulated. All events that occur at the semantic level are eventually stopped in a self-identical set. An organized world, or a structured world is an abstract world that has cut down on concrete affect, where nothing happens here. Every situation is predictable in a constant order. The level of emotion formed by the meaning order is different, but similar. Emotion is the most shrunken(most intensive) expression of *affect*. Emotion is the result of standardizing affect. Emotion is subjective contents, and the qualitative level of experience is fixed by the representational idea as objective reality. Emotion is framed. Emotion is semantic, and the point where intensity inserts into the semantic process, into the circuit that can be narrated, and into the function and meaning, which is perceived and fixed intensity. Emotion is always different from affect which is in transition. Emotion translates the dimension of micro experience into one objective experience. Emotion specifies an objective level of action that is already defined rather than a fully experienced relationship. However, the comprehensive atmosphere or feelings forming the emotion, ie, the 'complexity' of undifferentiated 'emotional' qualities that are not returned to

the representation, or the flow of contents collide, overlap, and vibrate. In other words, the reason for the tension and excitement of anger in everyday experience is not because of feelings 'grasped' by anger. Anger belongs to the moment that follows as if it belonged to the moment it occurred. The emotion of anger are maintained in a multi-layered collision on a microscopic level through a certain affect background created by realistic words or gestures that draw it. That is, the emotion that has already been fixed does not attract the *affect*, but the emotional background and the events of the potential dimension that are continuous to the unperceived background carry the qualitative dimension of affect. Emotion is the empirical vanishing point of this transition. There is no extensional transition at the vanishing point.

Thus, in the case of narratives associated with images, intensity is lost when semantic and objective facts are added (also when explicitly specifying emotional states). The more the objective explanation and commentary is added to the image narrative, the quieter the reader's *affect* becomes. On the other hand, if the 'emotional' trait of a certain narrative or situation in the narrative breaks the continuity of the narrative to register its state, the reader's *affect* is amplified. The emotional trait resonates with the *affect* of the reader by having the strength enough to momentarily stop the linear progression of the narrative. Some emotional content created by linguistic expression in narrative interrupts the flow of fixed meaning and stimulates the reader by betraying or transcending the expectations of the reader. At that time, the coexistence of contradictory feelings such as some joy or some sadness double the *affect*. Therefore, according to how the sensuous impressive dimension and the emotional dimension exist in the narrative, the intensity of the *affect* to be experienced by the reader changes, and the strength of experience can be said to be stronger whenever the *affect* of the reader is amplified.

If so, the image characteristic of 『A Spring Day』 brings up the experiential characteristic infinitely. The sensuous impressive image scenes created by the narrative in 『A Spring Day』 constantly stimulate the readers' affect in that they stimulate the emotional dimension without being returned to any semantic representation even if they are present in various ways. The emotional qualities created by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resonate with the *affect* getting out of the continuity of the narrative in order to put the state onto the reader. A series of sentences and sentences, a series of scenes and scenes, gives a certain impact to the reader and reinforces its experiential nature. 『A Spring Day』 is the work in which the experiential characteristic is maximized in that it is a novel that aims to make the readers' affect.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puts the body of the reader into a certain tension and intensity. Image scenes ranging from 7000 pages on 200-character manuscript paper are endlessly built up in emotional traits and *affect* in an image-based narrative of a certain scene, person's psychology, and situ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pters or by transcending them, which transforms and moves infinitely any experientiality created by event of 5.18. 『A Spring Day』 is a fictional composition of the experiential event of 5.18 and an experiential composition of the novel.

Ironically, the fact that 『Spring Day』 does not exist as a defined semantic relationship to 5.18 has made some unexplored research on 『A Spring Day』, or biased, if any. Its image characteristic has made 『A Spring Day』 historical record, downgraded it to a novel which made a rather unreasonable attempt to draw historical facts altogether, and defined 『A Spring Day』 as the product of guiltiness Lim Chul-woo made. A novel for an experience that could not reveal a semantic relationship, and Lim Chul-woo's representational(non-representational) adventure made the novel 『A Spring Day』 subordinate to a few words of the artist. But, it is hard to accept the assertion that Lim Chul-woo did not produce any semantic representation relation, indeed, in the long and long story, and on the single event of 5.18. It can not be said there is no explanation or semantic description that allows to 'grasp' 5.18 in 『A Spring Day』, or not impossible to analyze the semantic hierarchy in the image narrative.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composed of 87 chapters creates a representational meaning that must be judged in relation to the whole novel. The whole exists as an enormous network which appoints image narratives to be developed in the chapters and controls the meanings to be produced in the transition of narratives. Without the premise of the whole, therefore, each chapter would be meaninglessly floating, not being related to other chapters. The contact of image narrative does not get out of a certain idea



expressed as entire relationship. Therefore, each chapter changes qualitatively and renewed semantically whenever it makes contact with other chapters at the level of entire 『A Spring Day』. This essay summarizes these formal characteristics of 『A Spring Day』 as the movement of the image narrative.

The theorization of the image–narrative movement is modeled on the concept of *plan* as the movement–image of the famous Deleuze's 『Cinema1 movement–image』. To explain the concept of *plan* as the movement–image, we must first explain what Deleuze is talking about. He first criticizes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movement. According to him,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movement is an abstract notion that believed that we could divide the moments of movement constantly changing into countless divisions and understand the movement through synthesis of its sections. For example, there was an attempt to capture the motion of a horse in a camera and comprehend it as a composite of divided photographs, that is, they thought they could capture the movement of the horse by taking a series of scenes in a row and arranging them. However, that excludes the continuity of spatial location and temporal moments. The movement of a horse can not be analyzed by segmenting space and time quantitatively. The horse's movement is changed every time it is divided. The spaces that the horse's movement crosses are all one homogeneous space, but the movements are heterogeneous and are not reduced to each other. Movement is an endless change. Deleuze calls the continuing diversity of this movement as '*sustain*', borrowing the concept of Bergson. *duration* is divided endlessly, but not divided without change of nature. On the one hand, *duration* is related to the whole as well. The movement of *duration* always takes place at the whole level between something and something. The whole is a set of parts produced by the continuum, divided at each step of the division by changing its properties. The actual whole is a non–breaking continuity. The whole recreates itself endlessly, leading a set of qualitative states to another set of qualitative states. The whole movement is the movement of numerous dynamic sections across a closed system. At this time, the movement sustained is an endless transition, endless change, which is related to *affect*. As reviewed earlier, *affect* is the first and endless movement produced between

something and something. *Affect* is the change in the continuation of movement.

Films are the media which shows all of that most accurately. A film is the movement-image that reproduces the movement, followed by a divided dynamic section(set). If so, what is *plan*? *Plan* is a dynamic section as a duration that can show movement-image most clearly. First of all, *plan* (spatial and temporally defined images that move for a specific time) is a collection that encompasses the movements between manifolds (viewpoints & scales, character behavior, etc.) within itself and also is a qualitatively different entity. If the whole and the part agree, there can not exist '*duration*' itself as a concrete and realistic movement constantly changing and changing.

But *Plan* reintegrates the movements of these divided, heterogeneous monomers into one duration. *Plan* is connected to various dynamic sets present in the film (from a short *plan* to a *plan-sequence*), constantly changing the whole or the duration of the relationships of the sets while at the same time changing the sets qualitatively. In other words, a closed set, *Plan* is reunited with the whole or duration through the movement, and the duration or whole is constantly changing, opening itself to the movement between *Plans*. Therefore, *plan* cre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s and relates to the whole emotional/physical affection. *Plan* creates emotional/physical affection for the whole. *Plan* represents the relative positional change within a set or among several sets, and affect the 'state of change' of duration. Because of this, the audience also feels the affect and emotional/physical affection in the affect endlessly. Then, how the semantic dimension is created in films? We must remember that films are the product of editing.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interpretation, editing is an ideology and a manipulation of movement-image in order to draw an entire image, an idea, an indirect image of time, which is to say, duration. Edited images exist as symbols representing the indirect time in the interval, where each symbol is associated with another symbol. Each symbol is transformed into an interpretive form by being interpreted in relation to another symbol, that is, in relation to all symbols, and one interpretive form becomes a symbol again to form another interpretive form. Ultimately, all symbols get a dimension of interpretation (representation

meaning) in relation

Thus, movement as a duration (*affect*) and emotional/physical affection in Deleuze's explanation of *plan* is a useful reference to explain the experiential nature of *affect*, and emotional/physical affection created by image narrative in 『A Spring Day』. If 『A Spring Day』 divided into 87 chapters is not interested in making a semantic aggregate that synthesizes the part and the whole of narrative through narrative like traditional narrative; instead, it draws the situation of the unprecedented event, 5.18 on the sensuous impression level, eroding the remaining semantic description even if little, the sensuous impression image exists, concentrating on creating emotional/physical affection *s* in the whole like *plan* as a duration. That is, as *Plan* as duration shows the logic of the transition from the potential to the present, creating the reader's emotional/physical affection, the reader experiences the potential *affect* and present emotional/physical affection from the sensuous impression image of 『A Spring Day』. At this time, the theory of Brian Masumi is called again in the dimension of the effect of the image narrative created by 『A Spring Day』. As has been pointed out earlier, Masumi's theory has shown how the dimension of *affect/affection* in image acceptance is amplified and subtract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rder and emotional dimension. Likewise,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that exist in sign and produce endlessly new interpretations is useful to understand that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is exemplary, and endlessly changes its identity and creates an infinite interpretation of 5.18. Thus, 『A Spring Day』 will prove its representational form that does not terminate the meaning of 5.18 by infinitely opening the interpretation of 5.18, which seems to be impossible to represen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level of experience that seems to be unique to 『A Spring Day』 is actually a phenomenon that appears in other novels. This is no surprise. A novel always has a strength factor that does not dissolve into its own semantic structure. Who dare can perfectly capture and describe something that is expressed between sentence-to-sentence, paragraph-to-and paragraphs, or in the whole flow: It is impossible. It's just a sensation. The sense at this time goes beyond the sense of the sensory organ in that it is in the dimension of *affect* that senses the body. It is an unknown experience that occurs inside and

outside the body. *Affect* or body at the novel is open toward outside ( maybe toward the inside), resonates with something and moves to a certain rhythm. That is, a novel always has (non)-representational representation in its own tendency.

In this way, the peculiarity of 『A Spring Day』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novel has already extensively pushed through the form that has already existed, that is, the experiential element mentioned above; *affect* and transformation. 『A Spring Day』 expanded the possibilities of the novel genre itself by pushing the experiential elements originally possessed by the novel to the end. The novel is not structured by any key sentences that enable semantic order, but it can maximize the element of 'experience' through image expression and produce a semantic order that does not end (poetry is already so). We can confirm this through 『A Spring Day』.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A Spring Da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Keep the event of 5.18 endlessly open to interpretation. Let the reader experience the nature of the event. Beyond language by not giving up the semantic elements of language. Making things that can not be expressed in language through language. Representing or non-representing a large events that are often classified as non-representational in a non-representational manner.

## II. 본론

『A Spring Day』 is predominantly a descriptive narrative to show a scene or situation rather than a semantic function. It focuses more on conveying certain sensations (*affect*) or feelings to the reader through sensuous impression descriptions. Excessive imagery depiction of scenes or situations even erodes the semantic level that can be easily read in 『A Spring Day』. Unlike traditional narrative, 『A Spring Day』 does not create any distinct semantical dimension by matching the narrative part and the whole through narrative. 『A Spring Day』 is a novel to convey the reality in an experiential way through sensuous impression scenes. To show this accurately, it needs to review all of the flow from chapter one to the last one of 『A Spring Day』, it is im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explains how image narrative

erodes representational meaning, and focuses on several ways in which image narrative creates experiential character.

### 1. Image narrative that erodes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We have summarized this characteristic of 『A Spring Day』 as the image narrative in the introduction and pointed out that the narrative of 『A Spring Day』 exercises qualitatively like *Plan* of the movement-image. In short, one *plan* with multiple manifolds, or the gap between chapters 'sustains' in constant qualitative changes, ultimately infinitely changing the 'whole' and amplifies the reader's *affect*. The semantic level captures and fixes the dimension of *affect* created by the sensuous impression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so that it organizes the emotional state and calms the physical agitation of the reader.

Let's look at a quotation verifying that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is the violence of hatred rooted in the system.

Anger and hatred made him swing his arms frantically.

At last, Myungchi gasped out, and stopped motion. Two bodies lined up in front of their feet came into sight. The two were stretched, showing no movement. One of them was bleeding over and over from his head.

Brrer,.. their limbs twitching strangely.

The quotation clearly shows that the indiscriminate beating of the paratrooper is certainly due to hatred. Hatred is the result of an unconditional order and oppression of the military system. Before 5.18, loyalty training (demo suppression drills) led to the assumption of an external enemy to express the annoyance and anger of soldiers.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could not have existed unless it was the institutional force of the military. This is a semantic understanding of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If the force of the semantic narrative is strong, no description can continue to claim the effect created by its image character. The sensuous movements of sensuous impression scenes created by image narratives are arranged on the semantic level. However, the procession of sentences following this quotation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should be defined as violence

of hatred.

For those who have been caught again, it is the order that the pungent pounding and the kicking are poured indiscriminately. There are no exceptions for those who are already exhausted and unable to cover up their bodies. Next, unconditionally strip off their clothes, except only panties. Then they turn their two wrists back and strap them to their waist belt, which is then pulled to the side of the truck. After collecting twenty or thirty people at a time, a full-blown beating and flaring are poured out.

"Roll forward, Roll backward. Roll left. Roll right. Put legs on the neck in front of you. Roll left. Roll right. Roll over. Roll twice ... .. "

Soldiers running around between the naked were giving orders. Those who are naked, struggling to put their hands back on his back and put their heads upside down on the pavement. Then, the masses of flesh are beaten by the soldiers, with curses. The masses of flesh hanging their legs on each other's neck and rolling around. It was like chickens roasting on a fire in a row on a skewer, and it was like a group of worms wiggling fiercely.

Can we see the violence simply made by hatred; the violence which put to the humans to roll the street in almost naked and to wiggle like worms. This is a serious detriment to human dignity, or violence that dislocates the social meanings that make human beings exist as human beings, or something else. it could be.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infinitely creates other representational meanings in terms of non-completion of each of the representational meanings in that the interpretive narrative of the scenes produced by the narrative does not exist but being constantly depicted. No representational meaning can exert authority over image narrative.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can change its own symbolic character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he sensuous impression produced by the image narrative exists firstly on the experiential level. Some of the emotional dimension analyses below are emotional dimensions of the *affect* dimension of image narrative in that emotional/physical affection is a state of transformed *affect*.

Image scenes in quotations are just conveying some kind of awful feeling due to the excessive depiction. As sentences accumulate, the violence of the paratroopers evokes the feeling of being bizarre, outrageous, and cruel. In the situation that all other citizens are staring, they are in panties on and punished. In the compulsory command of the airborne troops, 'struggling to put .... their heads upside down on the pavement.' The parable of these landscapes is utterly devastating to create a more terrible and bizarre feeling. Human beings are represented by chickens roasted in the fire, or as worms that are furiously wiggling. In a situation where a human being exists as if it were not a human being, the reader can not but feel a certain misery, turmoil, or grotesque feeling. Here, all image narratives do not give a chance to grab or trim the intensity effects that they produce, in that they are continually listed without any semantic description. *Affect* is amplified in a sensuous stimulus that is constantly pouring out.

The same is true of the resistance of citizens. In the novel, the geographical requirements of Gwangju, the rumors, the fire, Jeon Ok-joo's street broadcasting, the darkness and the fire are told as the factors of the beginning and progress of the uprising, but in fact, those alone can not explain the state of resistance of citizens appearing in 『A Spring Day』. Shortly speaking, when there is a question how the uprising, the most crucial part of the citizenry's resistance, was possible, how could citizens be able to fight against the greatest armed forces in Korea, the airborne troops, how to establish such an absolute trusting relationship with others enough to devote their lives to others, how many citizens without names could participate in voluntarily, how such a uprising, a struggle community could be, how such a huge change happened. Is it possible to clarify all this clearly? It is surely impossible. Geographical requirements, rumors, street broadcasting, darkness and fire. With them, it is impossible to clarify. So 『A Spring Day』 means 'a fire'. This is why there is a figurative expression of 'a fire' in the crucial factor that the uprising begins and proceeds. So what a fire means?

For a very short time, an unknown silence was circling around. In the silence that seemed to hide the tremendous power of calm and silent boiling, they were experiencing an unusual impression in each

of them.

A fire.

…… No one knows what the strangest fire is, and where, when, and who brought it first. It was like sorrow, a faint longing, or a hot anger.

No, it may be all of them, or anything else. But they knew long before they could remember, perhaps even before they were born into this world, that it had already been buried somewhere under their bosom. So, when they remember their childhood memories, mother, or hometown, they would have remembered the faint blaze which had forgotten so far.

…… the fact that they are living in the same city as Gwangju people, and staying together with their bare hands at the moment; That fact alone, they suddenly felt a sense of trust and homogeneity tha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It is obvious that the fire is inherent human nature, so, the one who has awakened that gets some enormous power, and the fire is linked to the memory of the childhood, mother, and hometown. The citizen who has the fire lit feels deep trust and affinity between other citizens. But, “No one knows what the strangest fire is, and where, when, and who brought it first. It was like sorrow, a faint longing, or a hot anger. No, it may be all of them, or anything else.”. That is why, since the citizens can not come up with a semantically clear picture of what the fire is, there is no semantic narrative, but image narratives only.

The flow of a great tide. The water poured into from the waterways of the four directions is flowing into a narrow floodgate, swirling. There is only one floodgate. The martial law forces are trying to stop the gates. However, the water flowed increasingly and the water level rose more and more violently. The gate will sink soon. Citizens were confirming that.

A huge amount of pepper fog and tear gas showers, pouring over and over. Endless sound of explosion, explosion……

Dudu dudu dudu dudu!



Bang! bang! baaang, bannnnng.

Suddenly, the fog covered the earth and the sky like a huge waterfall foam. People are staggering covering their faces with hands. People are running away and falling down here and there. Some crawls on the street with their knees. Women crying together without running away. I can not breathe, and cannot open my eyes. There is no way to distinguish between directions or objects. Huff.. huff, huff. Every time I take a breath in, more powder is poured into my nose with my mouth. There is no exit to escape, no place to breathe. Everywhere is filled with toxic gases and powders

At that moment, the group of aliens who wear gas masks raid at a rapid pace. They advance about one hundred meters, and then rush backward and advance again and backward and they take by dozens of people each time. Men, women, and even middle school students are also mixed.

Those who are dragged are beaten terribly while kneeling on the side of the airborne troops. Watching the scene from a distance, people scream their sad screams.

However, citizens do not withdraw to the end. When the fog of tear gas and pepper fog gets a little weaker, people are quickly back to the roads.

They would be back desperately, with their runny nose and tears, covering their nose and mouth with both hands

This scene shows the violent suppression of the airborne troops, and the citizens who still do not withdraw. How can we explain the citizens who do not stop fighting with the airborne troops in the midst of extreme pain? According to the semantic theory of 『A Spring Day』, this is 'fire'. This scene should be a scene showing the miraculous power and will of the citizens created by the 'fire'. However, this is not the only representational meaning that image narrative accepts. Here, we can read the courage of the citizenry (which is not merely to express such a strong will in a lexical sense, nor an intuitive judgment of courage in the extreme circumstances Jeong Shin-boo mentioned), a convergent community, a struggle for the

restoration of dignity, and fratricidal war with the airborne troops. Image narrative accepts many interpretations because of its image character,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of this scene can be increased as many as one can,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of this scene can be increased as many as one can, which refers not only to the multiplication of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the incapable creation of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but also the incompleteness of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of the image narrative. Image narrative does not complete any semantic dimension.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gives us a sensuous impression experience of reality

What we feel at the scene is the pain and will of the citizen, and the power not to retreat. First, at the scene of the suppressive airborne troops, the tear gas and pepper fog blowing are described through a series of plosives such as ‘Dudu dudu dudu dudu’ or ‘Bang, bang, baaang, bannnnng’ to create breathless feelings to the reader. And the descriptions of the citizens such as ‘falling down’, ‘running away’, ‘crawl’, and women ‘crying together’ expresses more realistically the state of the citizens trapped in tear gas and pepper fog powder, which creates feelings of indescribable darkness and bitterness. Once this scene is over, the raids of the airborne troops are described. They wear gas masks and run in a flash, grabbing dozens of citizens and beating them brutally. Here, the powerlessness of the citizens and the overwhelming power of the airborne troops are naturally compared. The greater the reader feels the degree of comparison, the stronger the sensuous impression is the citizens’ resistance in the following paragraphs. Citizens' resistance is described as "citizens do not withdraw to the end. When the fog of tear gas and pepper fog gets a little weaker, people are quickly back to the roads. “They would be back desperately, with their runny nose and tears, covering their nose and mouth with both hands,” hey do not feel the same power that has transcended citizens' There is no number. In this way, the narrative of Spring Day expresses the situation realistically through the use of all kinds of metaphors, adjectives, and adverbs even at the level of each sentence, and is written so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dynamic movement of the reader in terms of arrangement of short narratives.

Numerous image scenes in all over 『A Spring Day』 also show this

sense of sensuous impressive depiction. The sensuous impression, which is not arranged on the semantic layer, resonates with the feeling produced by the other sensuous impression and amplifies affect endlessly. The reader experiences something in the movement of continuous sensuous stimulation of 『A Spring Day』. This is a common way of creating 『A Spring Day』 experiences. However, there are two more special ways in which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shows the experiential character.

## 2. Confrontation of image and narrative between chapters

One of the special ways in which 『A Spring Day』 shows the development of this image narrative is to create an image narrative that is extremely confronted in the chapter and collide them without a semantic description. 『A Spring Day』 unfolds the image narrative in which the visual, auditory, and tactual depiction are drawn in the sensuous impression dimension. Some chapters of 『A Spring Day』 distort the sequence of the flow created by this image narrative in a sudden. The following is a part of Chapter 16.

"Get them too!"

As one shouts, a few speckled-patterned soldiers jumps into the building. A soldier who is kicking the shutter of a shop at another building. Ugh!. The screams of the young men pulling out of the alley. . Pooh, pooh, fiercely wielding a club; ooo-doo-doo-doo-doo, the sound of clattering from combatboots running after the game. The screams and cries of those who are rolling and falling down here and there. .... horrible voices from the people who are watching the scene from a distant alley and at the top of the buildings ... All of them happened within just four or five minutes.

Museok was frozen at the window and could not take his eyes off the scene. Misun with her terrified face draws the waist of Museoki tight and is trembling with panic.

"Oh, my God! What the hell this... how can this..., awful!..." , saying the landlady and rolls her feet, holding the table tight.

"Shut it down! Quick!"

The owner shouted urgently, and the employee jumped down. Soon, two young men and the boy came into the restaurant as if they were tangled together

“Pl., please help!. the door. where is.. where's the door?”

As soon as the young men jumped into the room with their shoes on, the entrance fiercely opens, and two speckled-patterned soldiers appeared.

“The hell shits, where are now!”

One of them shouts and kicks the chairs

“Oh, you guys, soldiers. Why are you doing this?”

The soldier kicks the abdomen of the owner who is about to approach him with his combat-booted foot. The owner rolls down the floor while embracing a chair. The woman running to him, with a scream. One of the speckled-patterned soldiers opens the door and jumps in. And soon, sounds something crumbled with a scream from the room. The young men are caught and pushed out.

This quotation is a scene of violence by the airborne troops that Museok, Misun, and other diners at a Chinese restaurant watched. Like the earlier scenes dealt with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there is no explanation of their violence, and there is depiction only. The first paragraph, which shows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is that each sentence shows a different place and each action changes, so that the reader can feel something flowing busily. The depiction of the shop shutter as "kicking", "fiercely wielding a club", and the words like "Ooo doo doo" and "Pooh, pooh", which makes the dynamic and destructive feeling of the airborne troops stronger.

The voice of the owner to shut the shutter, employee jumping to, and the two young men who were tangled with the employee, and two young men asking for help; these depictions deliver to the reader their urgency. And also the depiction, such as "fiercely open wide“, "suddenly“ appearing soldiers from airborne troops, and kicking the abdomen of the owner and roll down, and lastly taking the young men out of the room collapses the psychological boundaries of the reader's inner and outer by the focus speaker in the Chinese restaurant, which makes the dynamic and destructive

feeling of the airborne troops stronger. Now, the violence of the mad airborne troops is not just outside the window, but the situation next to the reader. In chapter 16, however, the flow of narrative showing the citizens who are sacrificed by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suddenly clashes with the cheering out of the television without any notice.

At that time, suddenly wow, waaa! a shout burst out from somewhere.

"Hit! It's a hit!. Reversed!. It' an amazing reversing hit! A reversal. It's a perfect hit, two outs of the end 8th inning!...."

The television was left on the refrigerator. The spectators of Seoul, who are enthusiastic in the screen, shake their flags and flowers and shout crazy cheerfully.

Even without baseball knowledge, anyone can feel how heterogeneous the cheers of the enthusiasm burst from TV. TV ties us to people together of the same time, but because of such a characteristic of TV, the images of Seoul people shown on the screen as "amazing reversal hit", "shouting with cheers, waving flags and flowers", which makes the images of the Seoul people on the screen heterogeneous and the situation in Gwangju much more heterogeneous. Numerous citizens living in the same country are unaware of the situation in Gwangju, and as if they do not care about the situation in Gwangju, the cheering that expresses them in a frenzied manner entices the reader into any irony or embarrassment. Chapter 16 dramatically amplifies affect in that it draws a completely confrontation image narrative. The sensuous impression of the different senses created because of the conflicting sensuous impressions makes a strong resonance of the dimension of the two sensory impulses unless the collision is summarized in the semantic dimension, which makes the impulse itself larger to be.

On this level, chapter 54 is worth mentioning once more. There is a mass firing of the airborne troops.

The melody of "national anthem" began to come out from somewhere

The tune without lyrics ... The citizens filling the Geumnamro stood vacant for a moment embarrassed with the sound flowing from somewhere, and some began to sing to the melody of "the national anthem" a little later

*Mu-u gung-hwa Sa-mm- cheoli Hwareo gan-g san.....*

At that moment, the guns of the airborne-troop soldiers start firing all at once.

rat a tat tat rat a tat tat tat rat a tatt tat .....

Enormous gunshots spewed by hundreds of guns all at once. the sound of shot... shot.. shot... Shattering the air torn apart in the air. The buildings are rumbling, and the leaves from the roadside trees are rustling down. Bullets that hit the building walls and popping out. window is broken on the Tourist Hotel building and Jeonil Building. the sound of clink,.. clink... Most of them seem shoot still with blanks.

(.....)

Finally, concentrated fireguns began to shoot at the citizens

Wooo...woowo, woowaaa... Citizens who run away screaming and gasping everywhere. pa-baba-pa-baba-paatt. Bullets, bullets, and bullets springing up on the pavement. Suddenly dozens fall down and get down on the ground. The bodies that come loose and bloody around here and there. Body..... The streets were empty in some gaps.. Auuhhhha-ah. Umhhhh. Citizens hide themselves in alleys here and there, by the building walls or porches. Thirty to forty citizens who got shot are lying on the ground of the empty streets before the Bank of Korea.....

(.....)

.....At that very moment, five or six young men suddenly popped out to with a flag with them to the front of the rally in an empty street. Young people stop in the middle in the street. They shakes the large Taegeukgi vigorously toward the airborne troops, and shouts slogans.

“Chun Doo-hwan Get Out! Release martial law!”

Suddenly, the snipers of the airborne troops at 'sit-down posture' pulled the trigger ...

(.....)

Within the next four or five young people jumped into the street. They pick up the bloody Taegeukgi, falling on the street, and start shouting for help. TATATA TANG. Again, gunfire broke out, and the young men fall to the ground like straws.

(.....)

'Celebration - Buddha's Day.'

To the back of the soldiers pulling the trigger all at once, there seen a large arch with the words on it.

(.....)

After the national anthem, the scene of the bullet pouring raises a certain sense of intense force. The description for the guns such as "all at once", "enormous" and "spewed,"; and "torn apart" for the air; These descriptions made up of vocables and onomatopoeia make a sound of echo, as if the form of things exists. The guns cause the "rumbling" buildings, "rustling" leaves of trees, and the sound of "ping, ping" of the bullets onto the walls of the building and "crash, crash" of the windows of buildings; The repetition of a similar consonant and vowel arranged in a short sentence gives the reader some horror rhythm and makes the shape of objects suddenly changed by a certain force. After the citizens scream and run away and become bloody and trampled on the ground, the scenes that follow show some tragic feelings by using the ellipsis as if there were no words to continue or to be said unbearable. The sound of bullets, "pa-baba-pa-bab" that depicts the springing up bullets. and "falling down" depict citizens falling to the street on the street, "shot, shot, shot", strong and accompanied by a strong feeling, which is "Ooo wowaaa" or "Ooo woaaa" The sensation of overflowing stimulates the reader's impression, which is overlapped with that shooting of the airborne troops. Thus, the reader's affect can be amplified unconsciously. This type of description keeps going throughout chapter 54, to the scene showing the citizens shouting 'Chun Doo-hwan, Get Out' waving Taegeukgi, and the scene

showing the phrase, "Celebration–Buddha's Day". The appearance of the citizens waving Taegeukgi brings about a sense of heroic, tragedy, sadness, and an extreme sense of will, which is extremely contrary to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in the anthem, and also is opposed to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in that Buddha immediately invokes the moral and ethical feelings of all mankind such as mercy and peace. In other words, chapter 54 also put an image narrative or scene which is extremely conflicting with the linear narrative side by side in one chapter. The dramatic confrontational narrative strengthens the experience of the reader as the stronger the opposing impact.

When anticipation of the flow of linear narratives stops and strong sense or emotional narrative intervenes, even though the scenes displayed by each other are on a contradictory emotional layer such as joy or sadness, the affect doubles. The level of intensity does not recognize the rate of distribution. It does not lock the opposition. Affect connects the contradiction on the strength level and amplifies its character. Physical exhilaration is another dimension that is broken off from the semantic dimension. The experiential character of the image is also revealed in this way.

### **3. Confrontation image narrative between chapters**

One of the special ways which show the development of image narrative is to make an image narrative in extreme confrontation and collide in chapters without any semantic narrative. the character of 『A Spring Day』 is in an extreme confrontation–conflict on the whole level. Each chapter is an image narrative and forms a unity. The contents of some chapters are in extreme opposition to those in the preceding chapters. The impression created by the stream of coherent contents built up by the image narrative is that the stronger the experiential character of the narrative that created the impression is, the stronger the impression of the sensation created by the image narrative of the next confrontation. It produces a large and intense affect amplification. For example, chapter 55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mmediately following chapter 54 that was analyzed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section depicts a scene in which a



pregnant woman praising life in the stomach is killed by a gunner of the airborne troops.

..... and most of all, she never forgets the excitement of having the first baby.

'Oh, there is another life in my body! Oh, I, can't believe I've become a mother! '

Whenever she thought about it, tears sprang to her eyes at any moment. From that day on, the whole world seemed totally new to her. A handful of sunshine, a grass on the roadside, and even a small stone rolling, which were all precious and made her delightful. At the moment her first baby was born and she embraced the amazing life, she felt as if she were the most powerful and greatest in the world.

And now in her body, another life was growing. And now in her body, another life was growing. A second baby is unknown of the face and gender yet. If in about two-month wait, the baby will come. This sunny world, a new life with the pure eyes would be born to.

(.....)

'Wait, what's the man doing there?'

She stood with her arms folded and looked at the man in silence. A man wearing a speckled uniform with a helmet, like a uniform of a reserved soldier. The guy seems to look into something like a long and black stick at his face in a twisted posture. What is that? She opens her eyes up.

Bam!

(.....)

A next door girl pointed at the belly of the corpse, and her eyes popped up. The moment my mother saw. The swollen daughter's stomach starts to wiggle suddenly.

Wriggle...

Wriggle...

Wriggle...

At each breath, the large stomach-covered with the maternity dress, the stomach pounding pantingly

The first part of the quotation is the wonder of the life of Choi Mi-hwa, a pregnant woman, and the loving heart of the world. The impression that she is pregnant with her first child is ultimately a bright belief in the world by having the sunshine, grass on the roadside, and the preciousness and fondness of a small stone. "This sunny world, a new life with the pure eyes would be born to".

These feelings, expectations, and affection are actually seen throughout chapter 55. Chapter 55 is devoted to expressing her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 affection and harshness to her husband, the hardships and rewards she experiences while she is only 24 years old, as if devoted to Choi Mi-hwa for pregnant woman

The feelings of Choi Mi-hwa are easily transferred to the reader in that it is the focus speaker's. The reader receives a soft feeling, such as a sense of uneasiness or trust in life, in the way she treats her life brightly and positively. The scene in which she was shot to death due to her leaving the house to see her husband makes a terrible feeling of toxicity, and the scene in which the embryo in her moving for its life, "Wriggle. Wriggle, Wriggle" (in each line), in itself, creates some gruesome feelings (so this chapter can also be said to show a confrontation within the chapter). However, the intensity that this chapter will produce becomes even more intense in that it comes just after the chapter of the indiscriminate shooting of the airborne troops in fron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The image of the genocide committed to people close to 150,000, or about 200,000, and the extreme confrontation of the image narrative that the pregnant woman who does not know about the dangers of the violence of the airborne troops – Amplified affect. As I mentioned earlier, the new and strong sensuous impression scenes or emotional scenes that stop any expectation of the readers' narratives created by the preceding narratives can lead to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complicated sensuous impressions and multi-layer emotions, This is because it strengthens the intensity. In other words, the extermination of life and the praise of life are confronted, but the emotional/physical affection of the image narrative that shows them only amplifies the intensity of the reader.

Chapter 56 also reveals the experiential character of 『A Spring Day』 in

this sense. Chapter 56 shows the situation after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This chapter is more special in that it shows the anticipated narrative flow created by the narrative in chapter 54, once it appears in chapter 55. The static time that was created as the reader's expectation of the narrative disagreed, the more deeply the imagination deepened in that time, the more filled with the movement of affect, the reader through the terrible hospital situation in chapter 56, It also comes to a situation quite different from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of vital extermination shown in 54. Chapter 56 mainly depicts the urgency of nurses and doctors who want to take care and treat them somehow in the screams and complaints of citizens who have been shot. Let's look at the following quote.

“S., Sir! I, I must contact my house..”

A man with a gunshot wound on his side is panting. Red blood is spreading rapidly between the bandages. The staff pulled out of the hospital bed.

“Nurse, nurse! Where was the patient here!”

“Yes? I have no idea. Oh, he might be taken to the operating room”

“Oh my God!, Doctor. Please try it here. I'm dead!”

“Look. Don't worry. You won't die! We had first aid on you, so wait a moment in the hallway as we say! From an urgent patient!”

“I'll see you from here! I came first.”

“Water, Bring me some water. Thirsty to dying!”

“Woojin! Wake up!. Oh My God, Open your eyes! Doctor! Doctor! My son is dying!”

“Seon Deuk nam!! Where is he! What? What office in this haste!

“Hey!, Bed 3 over there!, Have you tried heart massage?”

“late. I ordered him to move to the morgue..”

“What are these? Out of the way!. What'll you do, rushing in?”

“Hey, get out of here! Who looking for?”

“Hey guard! What're you guys doing? Stop unnecessary people in.”

“Kim Nurse. here! check the bleeding quickly. No, not that way, this way!”

“Dr Yun Won-sang. I'm looking for an obstetrician. Caesarean

section, rush.”

“Shit!, no one the? resident or anyone? All right! I got it.!”

“Blood transfusion here. Prepare splints.”

This quote seems to exist purely for the state of some urgent danger. What is felt in sentences is some urgency. Short sentence utterances appear without a sentence describing each utterance, and sentences depicting the situation of the hospital and the patients' situation are devastating. Many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ppeal to their suffering and sadness, screaming, and unable to manage patients who are being pushed aside, all of which is a cry for nursing care. All the patients appear to be in urgent need, and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patients are made breathlessly in a restless yell. Everyone is desperate to be chased by something. This quotation, which depicts the life struggling for life, the urgency of the nurse and the doctor to protect the life, strengthens imminent feelings by being urgent, urgent for life itself. In other words, chapter 56 develops an image narrative that is completely confronted with life.

The image narrative in chapter 56 shows a sense of urgency and desperation in the form of life for the sake of life and for the sake of saving the life. This is the gruesomeness of the group of firefighters who "Extremely confronted with feelings of despair and shock. The emotional qualities of the opposing narratives in this case are that they stop the continuity of the narrative that the reader accepts in order to register a new state in the progressing narrative, It stimulates the reader in the point that it reacts to the impatience of the leaning reader again. Sensuous and emotional qualities resonate with the sensuous and emotional qualities shown in chapter 54 regardless of the layers that are implied in the narrative and amplify some qualitative strength. affect flies in image narrative without semantic theorem. 『A Spring Day』 is definitely experiential.

### **3. conclusion**

Since May 1980, the novel had to reveal what happened in May. The great traumatic event of 5.18 was distorted and even denied the existence of the event itself. The novel had to be sociological or historical in order to

restore facts or to clarify facts about 5.18. In May, the history of literature was a representative novel that solved these problems. He registered the "flag" of Hong Hee-dam and the 『A Spring Day』 of Lim Chul-woo. The 『Flag』 was an example of sociological approach and 『A Spring Day』 was a work restored as a whole on the historical level of 5.18.

These novels were often compared with novels that were intended to contain May in a new format. Unlike these novels, which attempted to capture the character of May through the work of fact-finding, the novels of Choi Yoon and the Han Gang captured the character of May in a pathological perspective and in the consciousness of representation. Choi Yoon's ten-clause 『A Silent Petal Falling 』 has a changing point of time and style for each verse, and the story of all the temples is terrible, centered on the absent cause that created a girl's psychopathological condition I just turn around. May is complicated in multi-layered viewpoints and stylistic forms and evokes empty spaces. The Han Gang's 『The Boy Comes』 is a non-linear, non-linear version of a series of fictional and imaginary narratives that span both regular fonts and italics to create an accidental and stunning montage effect for readers. The story of one person exists in the (in-) legibility, and (im-) possibility of testimony of the event. Even in 『The Boy Comes』, the reality of May was linked to the blank

But now 『A Spring Day』 should be redefined. 『A Spring Day』 did not fix itself by minimizing the narrative of 5.18, and the narrative of the semantics, despite the fact that the psychology of the people involved or the inner side was revealed entirely on the historical level. The image narrative of 7,000 pages of 200-character manuscript paper stimulates the reader's senses, amplified the affect of affect, and acted infinitely to change the whole event and 5.18. Repeated descriptions, narratives, and commentaries repeated throughout 『A Spring Day』 made the sensuous impression images of 『A Spring Day』 exist in certain semantic spaces, and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is terminated in the endless image narrative It was created endlessly. 『A Spring Day』 tries to infinitely multiply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of 5.18 through the unfamiliar form approaching May and to experience 5.18. In 『A Spring Day』, 5.18 became 5.18 in itself, not 5.18 with a certain meaning.

But why was it necessary to write this strange and unfamiliar writing? Why did Lim Chul-woo exist in the form of creating infinite interpretation and experience of 5.18? Apart from the significance of the 『A Spring Day』, it may be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a terrible event that could not possibly be imagined, a huge event that has transcended the limitations of recognition, and a trauma that has been utterly incapacitated by language. Forms are because literature is the most accurate way to capture historical reality. For example, as the format of the literary novel was a form necessary to reconcile the modernization of Europe with the different views of the world, the form of image narrative testified to May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historical facts (when 『A Spring Day』 The truth of May was not fully understood), it is not one of the most accurate forms of letting you experience May beyond any limitations of the very representation language (it was impossible to describe what happened in May in Gwangju) (The language is something that can produce something that can not be conveyed in language through language). And maybe it was the only way to capture the trauma of Lim Chul-woo personally.

# “임철우 『봄날』 다시 읽기 - 재현 형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강 소 희

“임철우의 『봄날』은 5·18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재현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공고해진 이 같은 해석은 『봄날』을 리얼리즘적 재현의 기획이 낳은 최고의 성과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김주선 선생님의 논문은 이러한 보편적 해석과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같은 연구의 편향성은 임철우의 ‘고백’에 기초해 『봄날』을 해석하고, 재현의 내용과 의미론적 서술에 천착해 『봄날』을 분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은 재현의 형식, 특히 『봄날』의 장면들이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적 이미지에 주목하고, 그것의 재현 형식이 갖는 의미론적 연관과 체험적 성격에 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해에 기초해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는 의미의 완결과 총체의 구성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다의성과 대립적 이미지의 배치를 통해 이전에 구축된 의미를 증폭 혹은 배반하면서 『봄날』을 해석에 열린 텍스트로 만든다. 둘째, 『봄날』의 이와 같은 재현 형식은 이를 읽는 독자의 감정적·신체적 변용 작용, 즉 정동의 변화에 관여하여 이를 촉발·강화함으로써 5·18을 체험하게 만드는 성격을 지닌다.

『봄날』에 대한 저의 독서 체험과 읽은 후 마주한 무력함에 기대어, 김주선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전체적인 논지에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사건 앞에 선 문학의 가능성을 믿고 또 발견하려는 선생님의 연구에 좀 더 섬세한 결이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감정적·신체적 변용의 강도와 문학적 체험의 보편성에 대해

논문을 읽으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80년 5월 광주의 시공간을 담은 이미지입니다. 즉 사진이나 다큐멘터리가 포착하고 있는 5·18의 이미지와 그것을 통해 사건의 물질성 자체를 마주한 이의 정동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봄날』의 재현 형식의 특이성이 5·18이라는 사건을 감각 인상적 이미지로 구성하고 그것을 반복·충돌시키는 데 있다면, 독자의 감정적·신체적 변

용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봄날』의 언어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독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동의 변화는 그 강도에 차이가 있으나, 문학을 읽는 이들이 겪는 보편적 체험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논문에 서술하신 것처럼, “『봄날』의 특이점은 소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정동과 변용, 즉 체험적 요소를 제 형식을 통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을 것입니다. 체험적 요소를 극단으로 밀고 나가는 『봄날』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봄날』의 언어적 재현의 형식 자체가 독자의 감정적·신체적 변용의 강도를 높이는데 작용한다면, 그것은 사건의 이미지화를 넘어 어떤 특이성을 갖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언어의 의미론적 요소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언어를 뛰어넘기”라는 『봄날』에 대한 평가와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2. 영화의 빨랑과 운동 이미지 분석을 소설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빨랑은 영화의 운동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적·공간적 한정의 단위로 이해됩니다. 카메라가 지속되는 시간 동안 동일한 공간에 배치된 대상들을 담은 이미지의 연속체인 빨랑을 기본 단위로,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운동(시점), 대상과 대상 사이의 운동(미장센), 빨랑과 빨랑 사이의 운동(몽타주)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독창성과 탁월함은 87장으로 구성된 『봄날』의 이미지적 서사에 빨랑, 즉 운동 이미지의 개념을 적용하여 5·18에 대한 해석의 열림과 정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봄날』의 형식을 밝히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빨랑(각 장)이 “운동을 통해 전체 혹은 지속과 결합되고, 지속 혹은 전체는 빨랑 간의 접속 운동에 자신을 열어 놓은 채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점들을 세밀하게 짚어내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운동 이미지 분석이 장 내에 존재하는 대립적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된 반면, 초점 화자와 대상의 변화 또는 각 장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증폭 또는 충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느낀 아쉬움은 대체로 지면의 한계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혹시 영화의 빨랑에 대응하는 단위를 여러 장면으로 구성된 『봄날』의 각 장으로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 3. 도래할 사건과 발명될 문학에 대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오랜 시간 문학장에 지워져 있던 5·18을 다시 재현·표현하려는 일련의 소설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레가토』(권여선, 창비, 2012),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공선옥, 창비, 2013), 『야구란 무엇인가』(김경욱, 문학동네, 2013), 『그럼 무얼 부르지』(박솔미, 자음과 모음, 2014), 『소년이 온다』(한강, 창비, 2014)... 목록을 나열할 만큼의 소설이 등장한 것은 아마도 그 시대의 징후적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으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시대의 한계를 성찰하고 전망을 구하는 현재에 5·18은 사건으로 끊임없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도 논문에서 빗겨난 난처한 질문이 될 테지만, 문학 현장에 가까이 계신 선생님의 의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2010년대에 발표된 5·18을 다룬 작품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중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언어화하는 문학의 방향성 혹은 새로운 문학의 형식에 대해 기대하며 그리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Read again Lim Chul-woo’s 『A Spring Day』  
– Based on Reproducibility Format” Commentary

Kang So Hui

"Lim Chul-wu's 『A Spring Day』 is a historical document that represents objective facts about 5.18." This interpretation established by existing researches, indeed, let 『A Spring Day』 estimated to be the best achievement of the realistic representation project. Kim Ju-sun's study begins with questioning such universal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According to him, such biased research resulted from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based on Lim Chul-wu's 'confession' and sticking to the contents of the representation and the semantic narrative.

Under the critical consciousness,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m of representation, especially the sensuous impression image created by the scenes of 『A Spring Day』 and analyzes the semantic relationship and experiential character of its representation for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my lack of comprehens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age narrative of 『A Spring Day』 is not directed to the completion of the meaning and the composition of the wholeness, but to the meaning built before through the diversity of the image and the arrangement of the opposing images amplify or betray, which makes 『A Spring Day』 an the open text for interpretation. Second, this type of reproduction of 『A Spring Day』 engages in the emotional and physical affection of the reader, that is, change of affect, stimulating and strengthening them so that the reader can experience 5.18.

I agree with Kim Ju-sun's problem consciousness and overall argument by leaning on my reading experience of 『A Spring Day』 and the powerlessness that I encountered after reading. However, I woul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in the hope that you will be more delicate in your deep research open to the unlimited possibility of literature.

## 1. The strength of emotional-physical affection and the universality of literary experience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ind when I read the essay is the image of the time and space of Gwangju in May 1980. In other words, the image of 5.18 that photographs and documentary films capture, and the affect of the one, who experiences the materiality of the event through that. So I got a few question related to that. The unusual reproduction type of 『A Spring Day』 is to compose the sensuous impression image of 5.18 and repeats and collide them, then, the emotional and physical affection of the reader is coming from the event itself?, or coming from the language of 『A Spring Day』?

In addition, the change of affect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reading is a universal experience of literary reader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intensity. What is important is that in 『A Spring Day』, the singularity is that the novel has already carried the adversity and transformation, that is, the experiential element has been extirpated through its form. “

Thus, what is important is to show that the singularity of 『A Spring Day』 is to engage in the affect and affection, that is experience element the novel already has to the extreme the change of affect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reading is a universal experience of literary reader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intensity. What is important is to prove that the characteristic of 『A Spring Day』 pushes affect and affection, that is, experimental element to the extreme by using its form. What is the form of 『A Spring Day』 which pushes the experiential element to the extreme? That is, if the form of its linguistic representation itself of 『A Spring Day』 serves to enhance the intensity of the emotional and physical affection of the reader, what specificity does it have over the imaging of the event? Perhaps this may be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A Spring Day』 called "skipping language by not giving up the semantic elements of language". Would you please give a detailed explanation about this?

## 2. Applying the analysis of the *Plan* and movement-image of a movie to a novel

In general, *Plan* is understood as a unit of temporal-spatial limitation to analyze movement-image of movies. A camera analyzes movement between camera and object, movement between object and object, and movement between *plan* and *plan* (Montage) based on *plan* as basic unit, continuity of image containing objects arranged in the same space during the same time. The originality and excellence of this paper will be used to reveal the shape of the 『A Spring Day』, which will open the interpretation of 5.18 and apply the concept of movement-image to the image epic of 『A Spring Day』, which is composed of 87 chapters

Therefore, the essence of this paper is that it is a work that delves into the points where *Plan* (each chapter) is combined with whole or continuing through the movement, and constantly or totally changes continuously while opening itself to the connection movement between the *plan*. It's possible. Unfortunately, while the analysis of movement-images is focused on interpreting the opposing images that exist within the chapter, it is considered that the analysis of the amplification or collision of the changes of the focuser and object or the connection of each chapter is insufficient. I wonder if there was any difficulty in setting the units corresponding to the film's complexion to each chapter or plan of the film.

## 3. The event to come and the literature to be invented

Between 2012 and 2014, a series of novels were reproduced to represent and express the 5.18, which was erased in the literature for a long time.

『『Legato』 (Kwon Yeo-seon, Changbi, 2012), 『Where is the song from?』 (Gong Seon-ok, Changbi, 2013), 『What is baseball?』 (Kim Gyeong-wook, Munhak Dongnre, 2013), 『Then what song』 (Park Seul-mae, Jaeum Haneum, 2014), 『The Boy』 (Han Kang, Changbi, 2014)』 (Gwon Ye-sun, Changbi 2012), 『Then what song』 (Gong Seon-ok, Changbi, 2013), 『What is baseball?』 (Kim Gyeong Wook Kim Gyung wook, Munhak Diiinrae, 2013), 『Then, what song』 (Park Silmna3 Park Sol-moi, Jamobook, 2014), 『The Bo

y』 (Han Kang, Changbi, 2014)(Kim Kyeong-wook, Literary Neighborhood, 2013), "What do you want to do with the song (Byeongseo, Jeonbee, 2012) Consonants and vowels, 2014), 『The Boy』 (HanKang, Genesis, 2014 . It is probably a symptom of the times when novels appeared to list them. I read a novel and after that time I reflect on the limits of the times and look forward to the future. I remember that I thought I would be constantly coming into the event on May 18th. Maybe it will be an embarrassing question, but I would like to hear your opinion as a teacher who is close to the literary scene. I wonder how you evaluate the works dealing with 5.18 that were released in 2010, and whether there are works that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m. And I would like to hear if there is any expectation and direction about the direction of the literary language or the form of the new literature.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3부 세대의 경계를 넘어  
Session 3 Beyond Boundaries of Generation

나의 광주 현대사(1989-2018)  
- 전대협·광주비엔날레·5·18기록관이  
만들어 낸 세 가지 풍경

My Gwangju Modern History(1989-2018) - Three Landscapes  
Created by the Jeon Dae Hyup(The National Council of Student  
Representatives), Gwangju Biennale, and 5·18Archives

김태현

Kim Tae 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나의 광주 현대사(1989-2018)

## - 전대협·광주비엔날레·5·18기록관 연대기

김 태 현

### 1. 나와 역사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통해 즐거움(樂)을 누리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이미 역사는 학문의 범위를 넘어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스펙터클로 재현되고 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김은숙 각본, 이응복 연출)’이나 영화 ‘암살(최동훈 감독, 2015)’, ‘밀정(김지운 감독, 2016)’과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는 우리를 100년 전의 누추한 시공간으로 끌고 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매혹적인 이데올로기의 탄생을 시각적으로 선사하였다. 그날의 울분과 빈곤, 피곤함, 그리고 누추함조차도 대중문화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는 감성적인 상품으로 제조돼 거래되고 소비된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 근대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확인하려면 역사책이나 강연 대신 영화나 드라마, 웹툰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들쳐보아야 한다.

역사가 대중화 된다는 것은 역사 서술의 권력이 조금은 더 대중에게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근대적 역사학의 기틀이 세워진 건 19세기 무렵이었다. 이때 독일의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는 역사서술은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의 객관적 재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말처럼, 철저한 고증으로 증명되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실만 역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sup>1)</sup>

하지만 이 시대까지만 해도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힘이었다.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에 남을 수 없었다. 물질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만연했던 과학주의가 이데올로기적 신화가 되어 역사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의 영역에서 재현되는 모습이었다. 이 시대의 역사서술은 전지적 역사학자의 시선을 따라 쓰여 졌고, 결국 역사책에서 주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사람이 만들어 온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정작 그 주인공의 모습은 지워지고, 객관성의 신화로 표백된

1)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14』, 기록학회, 2006, 367-372쪽 참고, 박구용, 『부정의 역사 철학 - 역사상실에 맞선 철학적 도전』, 도서출판 길, 2012, 55쪽 참고

역사적 사건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한 역사학만이 근대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

하지만 역사를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던 랑케의 시도는 대중문화의 역사 소비를 통해 실패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중문화를 통한 역사서술은 주어의 부활을 의미했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좀 더 명확해졌다. 즉,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대중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대중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소비를 통해 역사 서술의 주어를 호명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명한다. 이제 자본주의적 소비를 우선시 하는 대중문화 역사 콘텐츠가 역사를 객관성이라는 과학의 신화에서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우리 시대 새롭게 등장한 대중이라는 역사의 주인공을 소비자본주의의 울타리 안에 다시 가뒀다는 점에서 반역사적이라는 평가 또한 가능하다.

역사적 통찰력과 상상력에 대한 독점권은 이미 해체되었다. 이것은 역사 서술을 지배해 온 역사학의 기득권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성보다는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우리는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은 역사가 모여 최종적인 우리의 역사로 완성된다는 사실은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역사와 나’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 앞에서 서 있는 작고 왜소한 나’의 모습을 재현한 표현이다. 반면, 이 글에서 쓰고 있는 ‘나와 역사’라는 말은 ‘나의 삶과 기억, 경험을 중심으로 역사와 마주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대한 변화를 추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로 역사 앞에 서야만 우리는 역사와 소통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 5월 광주라는 거대한 역사 앞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작고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겪은 광주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되어야 나는 광주 정신을 주체적으로 이어받는 5·18세대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5·18세대의 광주에 대한 이야기다. 나 같은 세대가 경험한 광주는 그 날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같지만 다른 장소이다.

## 2. 나와 전대협

내가 1980년 5월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대학의 교정을 놀이터 삼아 내 집처럼 놀러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앞에서 살던 사람에게 주어졌던 특혜 중 하나였다. 그 날도 5월의 어느 맑은 일요일이었던 것 같다. 한가한 휴일답게 학교에는 사람이 적었고, 오

래된 학생회관 앞에는 여느 때처럼 다양한 홍보물과 대자보가 뒤섞여 걸려 있었다. 그 날 본 대자보는 텍스트로 가득했던 이전의 것과 많이 달라 보였다. 그 앞에는 특별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피로 얼룩진 광주 희생자들의 사진이었다. 형체가 무너진 수많은 얼굴들이 나와 눈을 마주쳤다. 나에게 첫 번째 광주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닌 공간으로서 광주를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은 대학에 입학한 1989년의 일이었다. 이 해는 1987년 6월항쟁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때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이 우리 역사상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시기였다. 많은 대학에서 학원민주화와 자주통일 운동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학교도 개강 1주일 만에 전체 학생 파업을 결의하고 물리력 행사에 들어갔다. 덕분에 내가 대학교 신입생이 돼서 하게 된 첫 번째 의미 있는 행동은 우리 과 책임 공간이었던 학생과를 점거하는 일이었다. 농성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농성은 지루함과 투쟁이다. 농성장에서 책을 읽고 토론 하며,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춰봤지만 시간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학생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고 학교의 모든 기능이 멈추었지만 학생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신입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했고 엠티도 갔으며, 밤이 되면 야간 집회를 마친 후 순번에 따라 학교 순찰도 돌았다. 이때 내가 선택한 것은 학보사였다. 마침 사진부 수습기자에 결원이 생겨 추가로 기자를 모집할 때 학보사에 입사하게 된 것이다. 이때 형식적으로나마 보았던 필기시험에 김남주<sup>2)</sup> 시인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대신 고등학교 때 배운 서정시인 김남조<sup>3)</sup> 씨에 대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학보사에 합격할 수 있었다. 카메라도 다룰 줄 몰랐던 내가 학보사 사진기자가 된 것은 아주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학보사 사진기자로 첫 번째 출장 취재를 간 곳이 바로 광주였다. 광주 순례를 마치고 충남대에서 열리는 제3기 전대협 출범식에 참가하는 일정이었다. 전남대학교에 가기 위해 광주역에서 탄 시내버스에서는 광주 CBS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

2) 1946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1994년 췌장암으로 사망한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자 사회운동가이다. ‘인민혁명당’ 사건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부위원회’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다. 그는 스스로 시인이 아니라 전사라 칭했던 것처럼 강렬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대표작으로 “진혼가”와 “나의 칼 나의 피” 등이 있다. 위키백과(<https://goo.gl/dqEKpy>) 및 다음 백과(<https://goo.gl/R8BpT4>) 참고 (2018.11.04. 내용 확인)

3) 1927년 대구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여성시인이다. 인간성과 생명력을 표현하는 작품과 기독교적 사랑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자유문인협회상(1958)’과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88)’, ‘국민훈장 모란장(1993)’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대표작으로는 “겨울 바다”와 “그림엽서” 등이 있다. 위키백과(<https://goo.gl/us3Xjv>) 및 다음 백과(<https://goo.gl/cztQhx>) 참고 (2018.11.04. 내용 확인)

있었다. 그 내용은 1980년 5월, 그날에 대한 이야기였다.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의 방송을 들으며 여기가 정말 광주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뉴스에서는 경찰에 수배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편집위원회 편집장이 광주 제4유원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내가 처음 광주를 방문한 그날 이철규<sup>4)</sup> 열사는 사자(死者)가 되어 돌아왔다.

<그림 1> 1989년 5월 19일(금)자 한림학보 52호, 3면 하단 광고



전남대학교에 짐을 풀 후 바로 조선대학교엘 가봤지만 허사였다. 모든 학생이 제4수원지에 갔는지 학교는 텅텅 비어 있었다. 이철규 열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광주 지리에 익숙하지 못했기에 그곳을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다시 전남대 숙소로 돌아와 예정된 일정에 합류하였다. 망월동 5·18 묘지를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된 일정이었다. 의외로 차분해 보이던 시내와 달리 5월을 맞이하던 그곳의 풍경은 역사적 사건의 현재성을 고스라니 재현하고 있었다. 소복을 차려입은 어머니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강한 울림이 되어 그 넓은 묘지를 떠돌고 있었다. TV나 책, 대자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주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모두 흑백 필름에 담겨져 학보를 통해 보도되었고, 캠페인 광고의 메인 이미지가 되어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사진 기록이었고, 언론 보도였다.(<그림 1> 1989년 5월 19일 발행된 한림학보 52호 광고 이미지 참조)

4) 1965년 장성에서 태어나 1982년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이다. 학생운동으로 1985년 구속된 후 1987년 6월항쟁으로 가석방되어 학교로 돌아왔다. 1989년 1월 조선대학교 교지인 「민주조선」의 편집장이 된 후 북한 관련 기사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수배 중 경찰에 쫓기다 같은 해 5월 10일 광주 제4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인진상을 요구하는 178일간의 범국민적 투쟁이 일어났다. 위키백과(<https://goo.gl/PtnDyk>) 및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다음카페(<https://goo.gl/MbpNrv>) 참고 (2018.11.04. 내용 확인)

1989년 새내기 시절 5월과 6월은 이철규 열사 살인규탄 투쟁과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으로 가득 찼던 것 같다. 남대협 선봉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엘 찾아 왔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명동성당에 올라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렇게 광주학살 진상규명 투쟁의 사수대이자 선봉대였던 전대협은 언제나 광주와 함께 했다. 그곳에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가 함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5·18정신은 이렇게 조금씩,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새겨지고 있었다.

### 3. 나와 광주비엔날레

학보사 사진기자의 경험은 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을 사진디자인으로 바꿔 대학원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학부시절 지냈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자연스럽게 역사와 철학, 사회과학 등에 관한 책에 손이 가게 만들었고, 인문학에 대한 공부는 좀 더 비평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선사해 주었다. 이러한 지적 경험은 대학원에서 사진이라고 하는 가장 근대적 기록 매체를 공부하고, 예술과 디자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는데 기초적인 토양이 되었다. 기록과 예술, 그리고 디자인은 역사를 시각적으로 서술하는데 있어 언어와 문법을 제공해주는 기본학문이기도 하다.

우리 시대의 주체는 세상에 말을 걸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세상에 던질 메시지를 탐지하고 그것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구성한 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펼쳐 놓을 때, 우리는 시대정신에 민감한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술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주체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양식이다. 이것은 역사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시나 책과 같은 시각적 역사 서술에서 사진이나 영상 기록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 역사를 증명하고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매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인 의미작용을 수행하는 시각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대중적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 된 이후 우리는 모두 세상을 기록하는 사진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삼았던 전시는 2002년 개최된 ‘기억 속에서 날아오르다 -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전’이었고, 주최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였다. 이 전시는 서울을 시작으로 해마다 세 군데의 도시를 순회하였는데, 전시가 개최되는 지역에서는 전시위원회를 꾸려 그 도

시의 민주화운동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그 내용을 전시에 반영하였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다양한 기록물 수집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기념사업회 설립 목적<sup>5)</sup> 중 하나다. 이 전시의 큐레이터였던 나는 시각적 역사서술로서 전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역사 전시를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은 기념사업회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기념사업회가 2004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이러한 도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메시지와 콘텐츠를 예술적 코드로 구성하여 전시로 펼쳐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995년 9월 처음 시작된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대형 미술행사였고, 이러한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건 5·18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는 2014년 인터넷 미술매체 아트넷(<http://www.artnet.com>)에서 선정한 세계 20대 비엔날레 중 다섯 번째에 랭크될 정도로 세계적인 미술축제다. 아트넷에서도 광주를 “독재정권의 종식을 촉발 시킨 한국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sup>6)</sup>

<그림 2> 2004년 5·18자유공원(구 상무대 헌병대)에서 펼쳐진 광주비엔날레  
현장 3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2조, 제4조 참고

6) artnet news, “World’s Top 20 Biennials, Triennials, and Miscellennials - The artnet News power ranking of biennials.”, 2014.05.14. 참조. 기사는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s://goo.gl/FijqZk> (2018.10.31. 내용 확인)

광주비엔날레가 5·18정신을 올바로 구현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잠시 보류하기로 하자. 이것은 역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성과를 모두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 평가를 총체화해야 할 문제이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편이고, 나 역시 그러한 입장이다. 이 문제는 기념사업회가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2003년에도 제기된 것이었다.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기념사업회는 한국민주화운동과 5·18정신의 현재적 가치를 비엔날레 전시의 주제로 선정하고자 했다.

이것이 2004 광주비엔날레 현장 3 “그 밖의 어떤 것 - 마이너리티”<sup>7)</sup>라는 제목과 주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고, 구 상무대 헌병대 장소인 5·18자유공원을 전시 장소로 택한 이유였다. 이 전시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발전과 역사 변동에서 필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이 시대의 주체로 다시 호명하고자 했다. 메인 스트림 담론에 의해 강제로 배제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로 전면 등장시켜 민주주의와 5·18정신의 현재적 가치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자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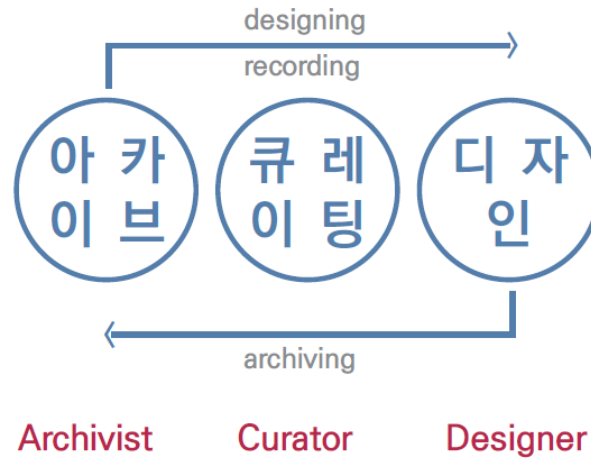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와 간직해야 할 가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다. 한국민주화운동의 가치와 5·18정신의 의미도 늘 생물처럼 살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것들을 고정된 의미로 인식해 왔는지도 모른다. 2004년 광주비엔날레는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는 사건이었다. 5·18정신은 지나간 사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곳과 이 시대를 배경으로 늘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2004년 광주는 나에게 그런 곳이었다.

#### 4. 나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7) 이 전시의 주관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였고, 큐레이터는 박찬국 작가였다. 나는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이 전시에 참여했다.

<그림 3> 아카이브와 큐레이팅, 디자인의 관계도



큐레이터는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시대적 메시지를 발견하고 콘텐츠를 구성하며, 디자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각적 역사서술을 완성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큐레이터에게 있어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이며, 시대 감각의 시각적 구성체를 책임지는 디자인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는 아카이브에서 시작돼 큐레이팅을 거쳐 디자인에서 완성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디자인(ing) 혹은 레코딩(recording)이라 부른다. 또한 이렇게 완성된 콘텐츠가 시대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콘텐츠는 영원히 남겨야 할 기록이 되어 아카이브로 수집된다(archiving).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키비스트와 큐레이터, 그리고 디자이너라고 부른다.(<그림 3> 아카이브와 큐레이팅, 디자인의 관계도 참고)

큐레이터에게 있어 아카이브는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다. 아카이브 안에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기록물의 형태로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록물들은 아카이브 수장고에 들어가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큐레이터는 그들을 다시 깨워 세상에 선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행위이다.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일의 배경에는 사람들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아카이브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창립 후 제일 먼저 아카이브를 구축한 이유이고, 5·18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아카이브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5·18기록관)을 처음 방문한 건 개관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2016년 겨울이었던 것 같다. 5·18기록관에 마련된 상설전시를 평가



하기 위해서였다. 전시를 둘러본 후 회의장에 모여 순서대로 소감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다. 1980년 5월 당시 가톨릭센터였던 5·18기록관은 그 공간 자체로 역사적 장소고, 이런 공간이 대부분 그러하듯 오래된 건물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낮은 천정은 전시장을 구성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지만, 역사와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건물의 장소성은 어느 공간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었다. 하지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간연출에 실패함으로써 상설전시는 답답하고 우울한 공간이 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좁게 나뉜 공간과 미로 같은 동선이 만들어 낸 어색한 풍경이 그곳에 있었다.

<그림 4>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상설전시장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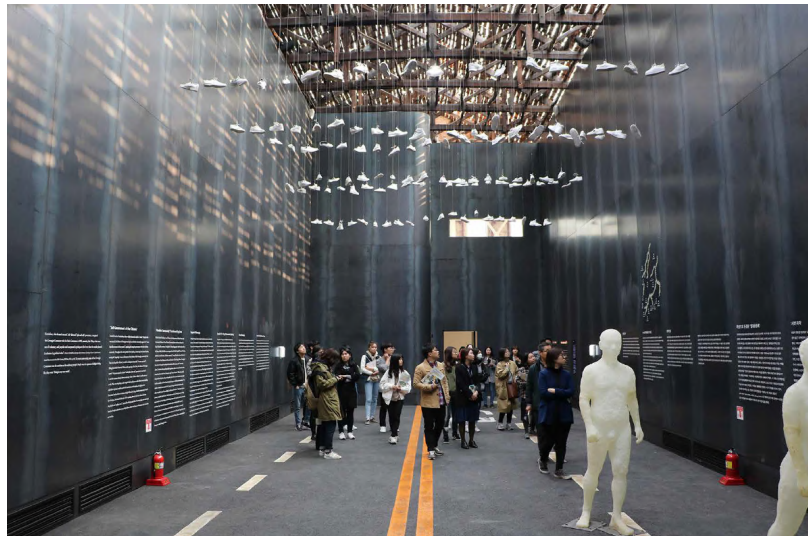


상설전시의 스토리텔링 구조 또한 낮은 가톨릭센터 건물만큼 오래된 것이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5월 광주를 이야기 하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형식은 모두 동일했다. 그것은 제일 먼저 희생자의 핏빛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텍스트로 쓰여진 대자보로 열흘간의 광주항쟁 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다음, 독일의 방송기자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 1937.07.06. ~ 2016.01.25)가 기록한 영상을 틀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5·18 광주항쟁 스토리텔링은 진실규명 투쟁 당시엔 효과적인 구조였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진상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전두환과 군부세력, 그리고 잔당이 큰 세력으로 남아 있을 때 유효한 방식이었다. 아직 규명해야 할 역사적 진실이 많이 남아있

고 북한과 연계하여 민주 인사들을 공격하는 잔당들도 활동하고 있다.<sup>8)</sup>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 80년 5월 광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5월 광주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질 받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된 것이다. 1980-90년대 유효했던 이야기 구조를 21세기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제시해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시대에 맞는 5월 광주의 이야기가 상설전시로 펼쳐져야 5·18정신과 광주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이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지나면 역사적 의미가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감성과 감각도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80년 5월의 역사를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 시각적 역사서술로 풀어 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대적 정신과 감각을 연결해 변증법적으로 펼쳐 놓는 전시는 예술적 가치도 함께 지니게 된다.

<그림 5> 5·18민주평화관(구 전남도청)에 펼쳐진 전시 풍경



이런 점에서 옛 전남도청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5·18민주평화관 전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5·18기록관 상설전시가 역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전시는 온통 시각적 상징과 은유로 스토리텔링을 끌어가고 있다. 5·18기록관 상설전시가 1980년대와 90년대의 감성으로 도배되어 있다면 5·18민주평화관 전시는 21세기 예술과 디자인의 힘에 지배받고 있다. 5·18기록관 상설전시의 시선이 과거를 향해 있다면 5·18민주평화관 전시는 앞을 내다보고 있다.

8)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5·18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14일 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 씨가 자유한국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등 다양한 진상조사 방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의당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지만원 씨 추천… 진상조사 방해 획책하는 것”」, 쿠키뉴스, 2018.10.29.(<https://goo.gl/XBWQeJ>, 2018.11.04. 내용 확인), 「‘5·18 성폭행’까지 드러났지만... 자유한국당 탓에 아직 출범 못한 5·18진상조사위」, 민중의소리, 2018.10.31. 참조(<https://goo.gl/Z9Mjn9>, 2018.11.04. 내용확인)

그래서 우리가 5·18기록관 전시를 보고난 다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5·18민주평화관 전시를 보고 난 후에는 광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두 전시는 모두 시각적 역사서술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와 5·18 정신을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엔 나의 과거(5·18기록관)와 우리의 미래(5·18평화민주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 5. 나와 광주

미국의 문예비평가 수잔 손탁(Susan Sontag, 1933-2004)의 삶을 바꾼 건 어릴 적 서점에서 본 한 장의 사진이라고 한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찍은 학살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사진이건 실생활이건 일찍이 내가 목격한 것 가운데 것처럼 순간적으로 날카롭고도 깊게 칼로 찔린 것처럼 골수에 사무친 것은 없었다”<sup>9)</sup>는 말로 그때의 충격을 고백했다. 내가 처음 만난 광주도 비슷했다. 공수부대의 총칼에 짓이겨지고 찢겨진 광주 시민들의 얼굴 사진이 바로 내가 만난 광주의 첫 모습이었다. 이 사진 기록들은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강의실 대신 거리에서, 책 대신 화염병을 들게 만든 기록이었다. 역사적 진실이 담겨진 기록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다.

1989년 5월 처음 광주를 경험한 이후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새로운 세대가 성장해 어른이 될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다. 우리 세대가 광주를 기억하던 방식은 1980년 5월 광주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 세대가 만든 의미의 그 물망에 의해 결정되었다. 같은 이유로 앞으로 다음 세대가 광주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지는 지금 우리, 즉 5·18세대 이후의 5·18세대<sup>10)</sup>인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다. 올바른 기억만이 세대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 확산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기억만이 우리 사회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

9) 수잔 손탁, 『사진 이야기 On Photography』, 유경선 옮김, 해돋이, 1986, 33쪽

10) 앞의 ‘5·18세대’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동시대의 역사로 받아들인 세대를 말하며, 뒤의 ‘5·18세대’는 80년 광주를 동시대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광주학학진상규명’ 투쟁이나 전두환·이순자 체포결사대’ 활동 등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한 세대를 말한다.

<그림 6> 망월동 구 묘역에 자리 잡고 있는 민주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내부



우리의 경험과 기억이 한가한 회고담 수준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지닌 기억으로 다음 세대에 전승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과거의 가치와 이야기에 발목을 잡혀 주저할 수는 없다. 광주 이후의 광주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 더욱 더 치열하게 상상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다시 꺼내야 할 기억과 펼쳐야 할 기록이 무엇인지 대중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모든 답은 우리 시대 역사의 주인인 대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도 대중을 향해 있어야 한다. 2018년, 우리가 지녀야 할 5·18정신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이 글은 사진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살아가며 기록학을 공부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개인적인 광주 이야기다.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스스로 기록한 사진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기록이 기억과 만나 나만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다. 아주 개인적이지만 또 아주 보편적인 그런 역사 말이다. 이렇듯 역사는 보편적 가치와 개인적 경험의 총합이다. 기록하는 자만이 역사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는 자만이 역사를 쓸 수 있다. 30년 전 망월동 묘지에서 내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은 지금 현재 5·18기록관 상설전시장 사진 속에 담겨 있는 희생자 어머니의 또 다른 판본이다. 개인적인 나와 역사적인 광주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광주 현대사이며, 광주에 대한 연대기(年代記)이자 연대기(連帶記)이다.

May Gwangju Modern History (1989–2018)  
–Three Landscapes Created by the Jeon Dae Hyup  
(National Council of Student Representatives),  
Gwangju Biennale, and 5·18 Archives

Kim Tae Hyun

## 1. Me and History

The pleasure we make through history stories has become familiar landscape. History has already been reproduced as a spectacle in the area of popular culture beyond the scope of learning

Popular cultural contents such as the TV drama, ‘Mr. Sunshine (script by Kim Eun-suk, directed by Lee Eul-bok)’ that just ended and the films ‘Assassination (Director Choi Dong-hoon, 2015)’ and ‘The Age of Shadows (Director, Kim Ji-woon, 2016)’ brought us to the humble space-time of one hundred years ago and visualized the birth of a fascinating ideology called nationalism. Even the grudge, poverty, tiredness, and humbleness of that time day are produced and consumed as emotional goods under the brilliant spotlight of popular culture. Now, to see what modernity is and how it has been structured, we should look at popular culture contents such as films, dramas, and webtoons instead of history books or lectures.

The popularization of history may prove that the power of history narrative is getting closer to the public. It was in the nineteenth century that the foundation of modern history was established, when German historian Leopold von Ranke (1795–1886) argued that history narrative should be an objective reproduction of ‘The Truth As It Is’ which means like saying ‘There is no history without historical records’, only the facts proved by thorough examination and kept as records are worthy of ascending to the ranks of history.

But it was the power that left the records in the history. People with no

records could not stay in history, because there was no material basis. Scientism prevalent in the world became an ideological myth and was reproduced in the field of humanities called history. Historical narratives of the age were written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a holistic historian, and eventually the subject was disappeared from the history book. The story of a person's history has been erased, and only the historical events that were bleached by the myth of objectivity remained. Only history based on these facts can be recognized as modern studies. But, Langke's attempt to turn history into science faced failure through historical consumption of popular culture. Historical narrative through popular culture meant the resurrection of the subject, and it became more clear who the main character of history was. In other words, the public who can consume commodities has emerged as the subject of history. This means that the public who can consume the goods has emerged as the subject of history. This social phenomenon proves that the time has come for the public to refer to the subject of history narrative through consumption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Now, the contents of popular culture and history that prioritize capitalistic consumption have succeeded in rescuing history from the myth of science as objectivity.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evaluate it as anti-historical in that it has put the main character of the newly emerging public in our age into the wall of consumption capitalism.

Exclusive rights to historical insights and imaginations have already been disbanded, which means that the vested rights of history that have dominated history narratives are disappearing. Imagination has become much more important than objectivity. We live in the era when we become the hero of history as one of the people. It was already proven that the small histories of the unnamed people gather to complete the final history through the last candlelight revolution

'History and I' is the expressions showing 'my small figure standing in front of a huge wave of history'. On the other hand, the phrase 'me and history' I use in this essay means that I am 'facing history with my life, my memory, and my experience'. This leads to a significant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history, and we think we can communicate with history only

when we are in front of history in the attitude. I in front of the huge history of Gwangju in May 1980 would be small and shameful appearance. But I am the main character in Gwangju that I experienced, which can put me in the 5.18 generation I inherited the spirit of Gwangju subjectively. This article is about Gwangju of the 5.18 generation who did not directly experience Gwangju in May 1980. That is, Gwangju which was experienced by the same generation as myself is the same as that of the generation directly experienced in May 1980, but in another place

## **2. Me and Jeon Dae Hyup (NCSR)**

It was in high school that I first encountered a historical event called Gwangju in May 1980. It was one of the privileges given only to those who lived near the university since I was a child. That day was a clear Sunday in May. As a calm holiday, there were few people in the school, and on the front wall of the old Student Hall, various promotional materials and hand-written posters were hanged on together as usual. The hand-written posters on that day looked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full of text. There were special photographs. It was the pictures of Gwangju victims stained with blood. Numerous faces collapsed met with my eyes. This is how my first Gwangju started.

The first experience of Gwangju as a non-historical event was in 1989 when I entered university. The year was a time when the student movement centering around JeonDaeHyup or the National Council of Student Representative (hereinafter called NCSR) was one of the most active activities in our history, two years from the end of the uprising in June 1987. In many universities, democratization of schools and independent unification movement were happening like fireworks. Our school decided to go on student strike within a week of the opening and went into physical force. It was my first meaningful practice to be a freshman at university, to take over the Student Affair Section. The people who went on strike well know, but it is a struggle with boredom. I read and discussed books, learned songs and danced, but I could not speed the pace of time.



All of the students entered the strike and the functions of the school were stopped, but the activities of the students became more active. Much more freshmen joined the club and participated in MT, and at night, after the nightly rally, they ran school patrols according to their turn. At that time, I chose the school newspaper. When there was a vacancy in the reporter, and they recruited additional reporters, I joined the school newspaper. There was a question of describing Kim Nam-joo's poetry in the written examination, I wrote about Kim Nam-jo, a lyricist in high school, instead. Nevertheless, I was very lucky to be a school newspaper reporter even though I knew little about a camera.

It was Gwangju where I visited the first business trip as a school journalist. I was scheduled to participate in the launch ceremony of the 3rd NCSR in Chungnam University after the pilgrimage of Gwangju. I could listen to Gwangju CBS radio on the city bus in Gwangju Station to go to Chonnam University. The story was about that day in May 1980. Listening to the story that could not be heard in areas other than Gwangju, I realized that I was really in Gwangju. In the news that followed, the reporter said that the editor-in-chief of the Chosun University who had been wanted by the police was discovered as a body at the 4th Gwangju Water Source. On the day I arrived in Gwangju, Lee Chul-gyu came back as dead.

<Figure 1> On May 19, 1989(Fri). Page 3, Hallym Hakbo No. 52



After I unpacked at Chonnam University, I went to Chosun University, but I



did not meet anyone who could talk about Lee Chul-gyu's case. All the students seemed to go to the 4th Water Source. Because I was not accustomed to Gwangju geography, I could not visit the place, and returned to Chonnam University to join the schedule again. It was our planned schedule to visit the Mangwol-dong 5.18 Cemetery. Unlike the city which seemed to be surprisingly calm, the scenery of May where it was present reproduced the present state of the historical event. The mournful cries of the mothers in mourning clothes were waving in the wide cemetery as a strong echo. It was the actual appearance of Gwangju that I could not see through TV, books or hand-written posters. All of that in the black-and-white film was reported through the school newspaper, became the main image of the campaign advertisement, and distributed to the students. It was my first photo record, and press release. (See <Figure 1> Image in Hallym Hakbo No. 52 on May 19th, 1989).

It seems that May and June in 1989 were filled with condemning the killing of Lee Cheol-gyu and struggle for the truth of May 1980. NamDaeHyup vanguard came to our school and we went up to Myeongdong Cathedral with them and started a hunger strike. NCSR, as the spearhead and defender of the struggle for the truth of the Gwangju massacre, was always with Gwangju. Because we believed that our history, democracy, and the future were there together. For us, the 5.18 spirit was getting carved in this small, but very specific manner.

### **3. Me and Gwangju Biennale**

The experience as a press photographer of school newspaper had a great influence on my future.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 went on to graduate school, changing my major into photo design. The curiosity of the world and the desire for democracy naturally led me to the books on history,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and studying humanities let me look at the world from a more critical perspective. Such intellectual experience become a fundamental ground to study the most modern recording medium known as photography in the graduate school, and to develop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art and design. Document and art, and

design are also basic studies that provide language and grammar in visualizing history.

The subject of our time is the existence who can speak to the world. In other words, when we detect a message to the world and construct it into a meaningful story and spread it out through various media, we can become a social subject who is sensitive to the spirit of the times. In this sense, understanding art using various media is the basic form that social subjects should have. This is also true of historical narratives. The importance of photographs and video recordings is increasingly emphasized in visual history narratives such as exhibitions and books. Photography is the most important recording medium that can prove and reproduce modern history. It is very popular in that it is a visual record that anyone can easily access and perform an intuitive semantic function. With activated use of smart-phones, all of us have become a photographer recording the world.

The first exhibition with the theme of modern history of Korea was ‘Fly in Memory – History of Korea Democratization Movement’ held in 2002 and the promotor was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Hereinafter Foundation). The exhibition, starting in Seoul circulated three local cities each year. In the area where the exhibition was held, the exhibition committee was organized and collected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city to reflect them in the exhibition. It is one of the aims of the Foundation to commemorate the history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o pursue history through collecting various records. As a curator of the exhibition, I was able to get a good opportunity to gain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the exhibition as a visual history narrative.

The fact that I can throw a message to the world through the exhibition and that people gather around the message became a very important experience for me and the Foundation.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natural that the Foundation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Gwangju Biennale in 2004. Gwangju was the holy place of Korean democracy, and it was very significant to exhibit the messages and contents of democracy by

constructing them in artistic codes in the city. The Gwangju Biennale, which first started in September 1995, was the largest art event in Asia since it was first held in Asia, and it was regarded that the Biennale held in Gwangju was to realize the universal value of the of 5.18 spirit. The Gwangju Biennale is a global art festival that ranks to the fifth of the World Twenty Biennales selected by Internet Art Media Artnet (<http://www.artnet.com>) in 2014. Artnet also introduces Gwangju as "The cradle of Korean democracy that triggered the end of dictatorship"

<Figure 2> Gwangju Biennale held at 5.18 Liberty Park in 2004



We will temporarily hold the evaluation of whether the Gwangju Biennale has properly realized the 5.18 spirit. Because it is the issue that we should review all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Gwangju Biennales and to summarize comprehensive evaluation from various fields. Many people are in favor of pointing out that alternatives are needed, and I am in that position too. The issue was raised in 2003 when the Foundation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Gwangju Biennale. The Foundation, which knew the situation of the Gwangju Biennale, sought to select the present value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5.18 spirit as the theme of the biennal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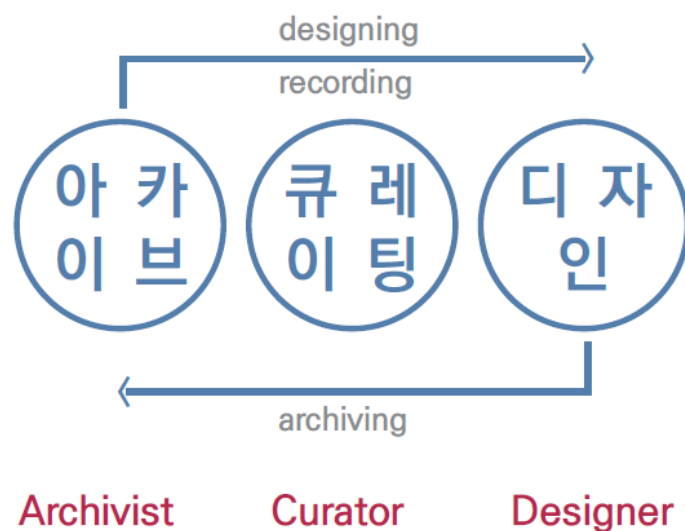
This was the background that the title and theme of the 2004 Gwangju Biennale, Scene 3 "Anything else-Minority" was born, and why the 5.18

Liberty Park, old site of Sangmudae was chosen as the exhibition place. The exhibition tried to call the people who were inevitably isolated in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historical change as the subject of the era. That is it was to ask again about the present value of democracy and the 5.18 spirit by introducing the stories of those who were forcibly excluded by the mainstream discourse as the theme of the Gwangju Biennale.

The history we should remember and the value we should keep are changing with the times. The value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meaning of the 5.18 spirit should always be alive like living creatures. But, we may have recognized them in a fixed meaning. The 2004 Gwangju Biennale was an event that asked me the question. The 5.18 spirit is not bound by the past event, but always newly reorganized in the context of Here and Now of my life. Gwangju I met in 2004 was such a place for me.

#### 4. Me and 5.18 Democracy Movement Archives

<Figure 3> Relationships between archives and curating and design



A curator is a profession that discovers the message of the times based on the archives, composes the contents, and completes the final visual

history narratives through design. For a curator'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records and archives is the most basic knowledge, and she or he must have a deep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the design that is responsible for the visual composition of the sense of the times. All the contents in the world begins from the archives and through being curated, completed in design. We call the process Designing or Recording. In addition, if the finished content is judged to represent the values of the times, they are collected in the archives (archiving) for the archival purpose. The people who do these activities are called "archivists", "curators", and "designers" (see <Figure 3> Relationships between archives and curating and design).

For curators, the archives are like a treasure house. Because in the archives, all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the world are piled up like mountains in the form of records. Those records fall into a deep sleep as they enter the archives, but curators are the ones who wake them up and play a role in the world, which is the act of recalling people's memory. In the background of all meaningful work in the world, there are archives in which people's memories are stored. This is why the Foundation set up the archives first after its establishment, and why there exist the archives in the 5.18 Memorial Foundation, the 5.18 Research Center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My first visit to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hereinafter called the 5.18 Archives) seems to have been winter in 2016 after some time from the opening. The visit was made in order to evaluate the permanent exhibition in the 5.18 Archives. Looking around the exhibition, we gathered at the conference hall to share the impressions in order and to discuss the alternatives to the deficiencies when necessary. The site of the 5.18 Archives which was the Catholic Center in May 1980 is a historical site itself, and it had all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ld buildings. The low ceiling of the building was a fatal drawback to the exhibition hall, but the placeness which stores history and memory was a great advantage that no space could follow. But the permanent hall looked stuffy and gloomy as it failed in space production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 There was an awkward space created by narrowly divided rooms and

maze-like movements.

<Figure 4>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Permanent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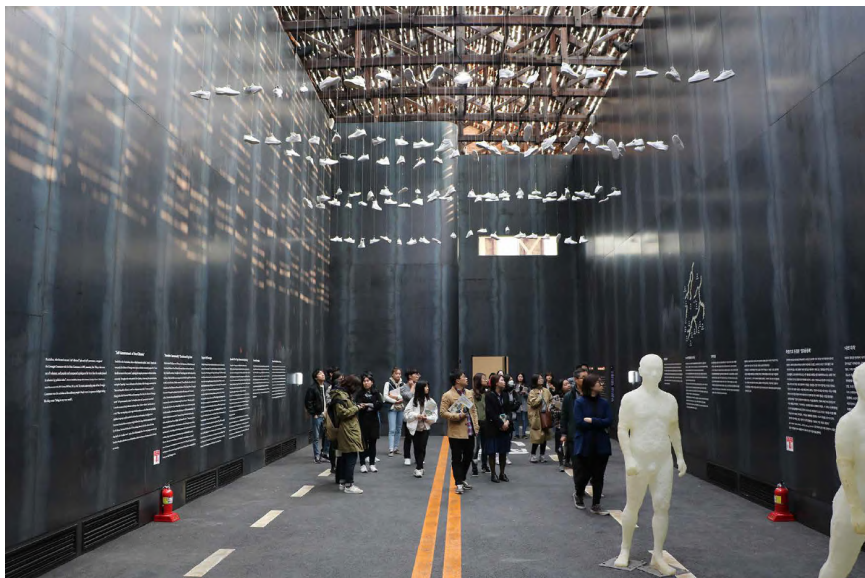


The storytelling structure of the permanent exhibition also looked as old as the old Catholic Center building. The storytelling form was all the same in the contents that talk about Gwangju in 1980s and 1990s, It starts by showing the pictures of the victims' bloody faces, and the 10-day Gwangju Uprising in texts by time, and then lastly to watch the video recorded by German journalist Jürgen Hinzpeter (1937.07.06.~2016.01.25.). This kind of storytelling on the 5.18 Gwangju Uprising was an effective structure at the time of the struggle for truth-clarification. Indeed, many people have come to see the reality of Gwangju in May 1980 through the contents.

However, such a story structure was effective just when Chun Doo-hwan, the military forces, and the remnants remain large forces. There are still many historical facts that need to be clarified, and also many remnants attacking democrats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And in our time, it is also true that Gwangju in May 1980 was recognized as universal value for many people. Now, we live in the world where it is natural that the person who curses Gwangju is to be pointed if there is. Presenting story structures that were valid in the 1980s and 1990s to children and students in the 21st century can not be persuasive. The story of May of Gwangju appropriate for

our time should be displayed as the permanent exhibition to transfer the 5.18 spirit and memory of Gwangju among people. As time goes by, historical values change and accordingly people's emotions and feelings change as well, which is why we release the May of 1980 history in the form of visual history narratives through the medium of exhibition. The exhibition dialectically displayed by linking to the spirit of the times and the sense has artistic value as well.

<Figure 5> Exhibition at 5.18 Democracy Peace Hall (former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The exhibition at the 5.18 Democracy Peace Hall has great implications in that the place is where the former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was located. This exhibition is leading the storytelling with visual symbols and metaphors, while the exhibition at the 5.18 Archives permanent exhibition is filled with desire to explain history. If the permanent exhibition of the 5.18 Archives is based on the emotion of 1980s and 1990s, the exhibition at 5.18 Democracy Peace Hall is dominated by the power of art and design in the 21st century. If the point of view of the exhibit at the 5.18 Archives permanent exhibit is looking back the past, that of the 5.18 Democrat Peace Hall is looking ahead. So, it might be why we take the elevator down to the ground after the 5.18 Archives exhibition, and head to



the plaza after the 5.18 Demonstration Peace Hall exhibition. Both exhibitions speak of Gwangju and 5.18 spirit in May of 1980 through visual history narratives, but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completely different stories. Likely, my past (5.18 Archives) and our future (5.18 Democracy Peace Hall) coexist together in Gwangju.

## 5. Me and Gwangju

It is said that what changed the life of Susan Sontag (1933–2004), an American literary critic was a picture she saw at a bookstore in her childhood. It was the picture of the massacre taken at ‘the Jewish Concentration Camp’. She confessed to the shock of that time, “I had never had my heart penetrated into as if I were stabbing sharp and deep with a knife in the moment that I witnessed, whether it was photography or real life.” It is similar to my first time I met Gwangju. The pictures showing the faces of the citizens of Gwangju, which were crushed and torn by the guns of the airborne troop, were the first images of Gwangju I met. Those photographic records have changed the lives of many people including myself. It was the record to make us hold a firebomb on the street instead of a book in the classroom. There is a strong power to move people in the historical truth.

It has been already 30 years since I first experienced Gwangju in May 1989. In the meantime, a new generation has grown up and it has been long enough to become an adult. The way in which my generation remembered Gwangju was determined by the network of meanings made by the generation of the party that directly experienced Gwangju in May 1980. For the same reason, the way in which the next generation will remember Gwangju is now left to us, the post 5.18 generation after the 5.18 generation. Only the right memory will spread beyond the limits of generations and localities, and the memories will remain the history of our society.



<Figure 6> Mangwol-dong Shrine House for the Patriotic Martyrs for Democracy



More imagination must be mobilized in order to pass on our experiences and memories to later generations as the memories with universal values that go beyond the level of leisurely reminiscence. We can not hesitate to hold back on the values and stories of the past. We have to imagine more fiercely how to talk about post Gwangju after Gwangju. First, we should ask the public of what memories and history need to be unfolded at the moment. All answers should come from the masses, the subjects of history of our time. And our imagination must be directed toward the public. In 2018, the 5.18 spirit we should have is the same.

This essay is a very personal story of Gwangju that only a person who studied photography and archival science, living as a curator. All the history remain the photographs I recorded on my own. Such records have become the cornerstone for my own history, when meeting with memory. It is a very personal but very common history. Thus, history is the sum of universal value and personal experience. Only the one who write can remember history and the one who remember can write history. One photo I took at the Mangwon-dong Cemetery 30 years ago is now another version of the mother of the victim, which is at the 5.18 Archives permanent exhibition. Personal me and historic Guangju are linked like this. This is my modern history of Gwangju, and the chronicle and solidarity record of Gwangju.



## 시공간을 초월한 5·18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 이 정 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억과 기록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5·18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계열의 주체들의 활동과 기억은 보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18 기록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일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단일한 내러티브에서 소외되는 다양한 5·18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완료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기억으로 남아 계속 작용할 수 있도록 5·18 기억과 관련한 기록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집이 필요하다. 5·18 피해자들의 계속되고 있는 5·18과 관련한 기억에 대한 수집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기록화를 포함하여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5·18에 대하여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들은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5·18 기억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또한 기록화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표자의 5·18과 관련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 그에 대한 기록의 생산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5·18이라는 사건 자체는 완료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5·18과 관련한 경험, 기억, 기록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5·18 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도청 앞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SNS를 이용하여 5·18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하였다. 5·18 기념재단과 함께 진행된 이 캠페인은 페이스북(Facebook) ‘기억하겠습니다 5·18’ 페이지를 통해 5·18 추모 릴레이를 진행하였다. ‘기억하겠습니다 5·18’이 적힌 종이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캠페인이었다. 또한 5·18 기념재단은 다큐멘터리 제작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내는 이메일과 유튜브 등을 통해 5·18 피해자들의 구술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영상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북한군 배후설 등 왜곡하는 이들에 대한 대응으로 다큐멘터리에 참여한 희생자들의 사연을 재편집해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5·18과 관련한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5·18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갖게 한다. 5·18과 관련한 활동과 기록의 생산은 또 다른 5·18 기억과 기록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되는 5·18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추적하여 기록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억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억하는 자의 사회적 맥락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5·18 기억과 5·18 기록은 5·18이라는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5·18이라는 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5·18이라는 현실에 접근해 갈 수 있으며 적절한 의미를 지각할 수 있다. ‘5·18이라는 현실’을 읽는 주체들은 신문의 기사나 사진, 보고서, 일기 등의 여러 유형과 매체로 텍스트화 한다. 현실이 재현될 때 기호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은 굴절되며, 실제 현실이 재현되기 보다는 기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재현된다. 5·18과 관련한 기억과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 현실을 인식하고 이데올로기의 프리즘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이 놓인 맥락에 따라 5·18에 담긴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기억하며 이를 텍스트에 기록한다. 따라서 5·18이라는 현실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5·18의 역사적 실체에 이를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상징적 상호작용 행위를 통해 5·18이 드러나며 5·18 경관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5·18 경관은 아카이브를 통해 구성될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5·18과 관련한 다양한 기억과 기록을 아카이브를 통해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5·18 아카이브를 통한 5·18 경관을 읽고 실제 5·18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5·18이 아닌 우리의 5·18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5·18 아카이브는 5·18이라는 사실에 접근하면서 만들어지는 의미들이 5·18 기억과 기록을 통해 포착이 되고 5·18 아카이브 이용자들에 의해 상징이 만들어지는 시·공간이어야 한다. 즉, 5·18 아카이브는 5·18 사건이 일어난 것과 일어날 것,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원인과 결과로 무한히 분할되는 곳으로 고정된 시·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하는 시·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18 memories, records, and archives beyond time and space

Lee Jeong Yeon

Memories and records related to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have constantly been produced. The activities and memories of the various subjects surrounding the 5·18 need to be preserved by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us, the 5·18 record should not include a single narrativ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but a narrative of various 5·18 participants who are alienated from a single narrative. In addition, it should not be memorized as the completed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but should be able to keep records about 5.18 memory so that we can continue to function as our living memories. In addition to collecting memories related to the ongoing 5·18 victim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generations who have not experienced 5 or 18 directly, including the recording of the difficulties they are experiencing, They also need to record how they produce 5·18 memories in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production of personal experiences, memories, and records related to the speaker's 5·18 is quite meaningful. Although the case of 5·18 is perceived as complete, experience, memory, and records related to 5·18 are constantly being produced and influenced by each other.

At the 35th anniversary of the May 18th Democratic Movement in 2015, the citizens gathered in front of the eavesdropping tribe celebrated the victims by honoring 5·18 using SNS. The 5th and 18th Memorial Foundation campaign was followed by a 5·18 memorial relay on Facebook's 'Remember Me 5,18' page. It was a campaign to take a picture of the "5·18" that I remember and take a photo of it and post it on Facebook. In addition, the 5·18 Memorial Foundation promoted images produced on the basis of the oral content of 5·18 victims through e-mails and YouTube sent to citizens as well as documentaries. As a response to the distorted people such as the North Korean army, they re-edited and e-mailed the stories of the victims who participated in the documentary. This set of activities related to 5·18 has a new memory of 5·18 for those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The production of activities and records

related to 5 · 18 is to produce another 5 · 18 memories and records. Thus, how these memories of 5,18 produced in various ways should be tracked and recorded. Because memory is not complete but is constantly changing, and this change is related to the social context of the memory person.

The 5 · 18 memories and the 5 · 18 records, which are continuously being produced, are important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landscape of 5 · 18. We need to consider all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landscape of 5 · 18 so that we can approach the reality of 5 · 18 and perceive the proper meaning. The subjects reading '5 · 18 reality' textize into various types and media such as newspaper articles, photographs, reports, diaries. When the reality is reproduced, the reality is refracted by the limit of the symbol itself, and the difference existing between the symbols is reproduced rather than the actual reality is reproduced. The subjects who produce the memories and texts related to 5 · 18 recognize reality by their own worldview, look at reality through the prism of ideology, choos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5 · 18 according to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placed, Lt; / RTI & gt; Thus, although the reality of 5 · 18 exists, we can not reach the historical reality of 5 · 18 forever. However, through our symbolic interaction, 5 · 18 is revealed and 5 · 18 is constructed.

These 5 · 18 scenes can be organized through archives. If we can see the various memories and records related to 5 · 18 through time and space, we can read the 5 · 18 scenes from the 5 · 18 archives and see the actual 5 · 18, We will experience and remember our 5 · 18 rather than ours. Therefore, the 5 · 18 archive should be a space in which the meanings created by approaching the fact that 5 · 18 are captured through 5 · 18 memories and records, and symbolized by 5 · 18 archives users. In other words, the 5 · 18 archive should be a time-space that is always changing, not a fixed time and space, where the 5 · 18 event occurs, and where it happens, active and passive, where it is infinitely divided into causes and consequences.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3부 세대의 경계를 넘어  
Session 3 Beyond Boundaries of Generation

민중미술, 실패로 정의할 수 없는 다중의 힘  
Minjung Art: The Power of  
the Crowds that Go Beyond its Failure

서다솜  
Suh Da Som  
시각예술작가  
Visual Artist







# 민중미술, 실패로 정의할 수 없는 다중의 힘

서다솜

[순서]

## 1. 역사적 변화 속 한국의 미술

### 1) 근대미술

- \_ 식민지배
- \_ 남북분단
- \_ 독재정권
- \_ 모더니즘 ‘예술을 위한 예술’

### 2) 현대미술

- \_ 민중미술 ‘예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 \_ 포스트 모더니즘

### 3) 동시대 미술

## 2. 민중, 민족 미술 용어의 사용

## 3. 민중 미술가 개인의 삶

## 4. 동시대 미술에서의 민중

본 글에서 소개하려는 탐구의 방향은 간단히 말해 ‘민중미술’을 개인 차원의 사고와 발견을 통해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좀더 내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껏 크게 자리하고 있는 국가적 맥락의 변화 속에서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개인의 삶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집중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개인은 분명 전체적인 맥락 안에 존재하며 이러한 방법의 탐구는 큰 틀 안에서의 연구와 달리 구체적으로 직면한 상황이나 인간적인 갈등 등을 생생하게 돌이켜 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던 왜, 민중미술이 사라졌다고들 하는지, 실패했다고들 하는지, 민중미술가 였던 아버지가 언제부터 왜 작업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배경이 무엇일지 등을 생각한 후 잡게 된 방향성이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뒤집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개별적인 경험과 사과 및 정서가 모여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민중미술, 실패로 끝나지 않은 다중의 힘>에서의 다중은 우리 개인이다. 특정 개인이 아닌 누구든 될 수 있는 불특정성을 상징하는 개인이 모인 다중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민중미술이 가장 빛나던 80년대 한국과 다른 국면의 90년대 그리고 지금 동시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사회, 역사, 문화적 전후 사정과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일반적인 조사와 공부를 보조장치로 개인적 접근을 통한 다각적 이해를 겸하고 이에 관련한 견해를 밝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 1. 역사와 사회 속 한국의 미술

미술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산물일 수밖에 없으며 당대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한 부분의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전 시대별 한국의 동시대 미술<sup>1)</sup>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근대와 현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의 영향관계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발단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짧은 글 안에 많은 것을 담기가 불가능하므로 본 글에서 시대적 역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친 사건과 그에 반응한 한국 미술의 동향, 즉 당대의 동시대 미술과 사회의 연관성을 시대적 단서를 이용해 살펴본다. 이제까지의 민중미술에 관련한 연구들은 70년대 후반 ~ 80년대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전체 맥락을 알지 못하고 제한된 시기 안에서의 이해가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큰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1910-1945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일본은 1910년 강제로 한국의 국권을 침탈한 이래로 헌병경찰제를 도입해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의 반발이 커지자 보통경찰제를 도입하고 언론통제를 완화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화통치를 기만적인 의도가 내포되었다. 대표적인 예<sup>2)</sup> 조선미술전람회<선전>이 등장하는데 기성작가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새로운 일제주도의 예술경향을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이 결과 선전은 서화협회 등 민간활동의 위축을 초래함과

---

1) 동시대 미술은 현대미술의 담론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동시대로 보며 결국엔 지나가는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명칭의 모호함이 있다. 이는 단순 현재에 벌어지는 '동시대성'에 대한 의 논의가 아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등으로 시기를 구분할 때 의견의 일치를 보거나 맥락없이 년도 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2) 조선미술전람회<선전>는 1922년부터 1944년 까지 총 23회에 걸쳐 열렸다. 이 전람회는 당시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일제의 문화정책 중 하나로 이마저도 당국의<제전>을 모방했음을 드러낸다. 선전에 참여한 대다수의 심사위원들은 일본인들이며 참여제도나 추천제도에 의해 일본의 미술을 모범답안처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미술의 우월성을 드높이려는 의도로 일제 총독부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동시에 한국의 미술인들과 지식인들의 결속을 와해하고 서양화와 일본화에 대한 문화적 수요층을 급속히 확산했다. 한편, 일부 작가들은 개인의 출세를 목적으로 <선전>에 임하여 현대 미술 비평계에서 줄곧 비난 받았으나 짐작건대 23회에 걸친 전람회의 출품작가 활동 모두를 폄하하기엔 무리가 있음도 밝힌다.

## 1945-1953 한국전쟁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하지만 바로 이 독립이 자주적 독립에 의한 해방이 아니었으므로 새로운 국가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1공화국의 좌·우익간의 이념대립은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정치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승만 정권 가까이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권력지향의 정권쟁탈에 지나지 않았으며 국정을 지탱할 철학적, 사상적 이념의 대립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가면으로 사용하는 이권대립 일 뿐이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창설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sup>3)</sup> 역시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는바 상당수 선전에서 활동하던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위촉되었으며 식민통치 기간에 문화정책으로 사용한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영국 소련 개입

38선, 유엔군, 중공군

1950 미국의 경제적 원조

1950년대의 화단은 식민지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전통을 잃고 빠르게 밀려들어온 여러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존해야했던 삶의 어둠 속에서 일그러진 1950년대 화단의 모습이 국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표면화된 것이며 이를 치유하고 화합하고자 노력했던 시기로 얘기할 수 있다.<sup>4)</sup>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는 UN과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전쟁 이후 복구 작업이 활발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문화적 충격과 갈등이 발생하고 미술계 역시 서구미술의 수용과 해석이 혼란스러워 때론 지나치게 단편적이며 체계없이 무분별하게 흡수하였다. 이 시기의 미술현상들을 문화가 혼재할 때 발생하는 혼성화 맥락에서 볼 것 인지 서구미술의 수용의 관점에서 볼

3)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은 1949년 부터 1981년까지 30회를 개최한 관설전람회다. 정부의 확고한 정책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면에는 이승만 정부가 국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이를통해 좌익 미술단체를 견제함과 동시에 친 정권 문화예술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4) ICAS, 20세기한국미술운동사, ICAS P. 123

것 인지에 따라 해석이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미술사가나 평론가 간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를들면 ‘엔포르멜<sup>5)</sup>’의 수용에 관한 견해의 차이이다. 비록 서구의 엔포르멜이 당시 한국 미술계 전반을 차지할 만큼 큰 유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시대의 미술문화를 시류에 편승한 유행 스타일 정도로 정리할 만큼 단순한 문화적 해석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문화가 수용한 한경향이라면 더욱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25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정치, 사회의 격동기의 문화는 예술가 개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그들의 감수성과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황을 다각도의 이해와 감수성을 통해 읽어내는 중요한 방향이자 타당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 작업은 해당 시기의 경향을 하나의 범주에 넣어 정리하고 체계를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른 입체적, 대안적 방향의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960 4.19\_이승만 하야

1961-1972 5.16 군사정변

1960-75 베트남 전쟁

1980. 5.18 민중항쟁

민중미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대표적 그룹 ‘현실과 발언’의 창립선언(취지)문을 아래에 공유한다.

<1980 새해, 현실과 발언 창립 취지문>

“기존의 미술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것이든 유한층의 속물적인 취향에 아첨하고 있거나 또한 밖으로부터의 예술 공간을 차단하여 고답적인 관념의 유희를 고집함으로써 진정한 자기와 이웃의 현실을 소외, 격리시켜 왔고 심지어는 고립된 개인의 내면적 진실조차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화단이라는 것은 예술적 이념이나 성실성과는 거리가 먼 이권과 세력다툼으로 어지럽혀져 왔으며 말은 미술인들은 이러한 파벌싸움에 알게 모르게 가담함으로써 스스로를 옥되게 하고, 미술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미술 풍토를 오염시키는 데 한몫을 거들어 왔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대부분 이제까지 각자 외롭게 고민하는 것만이 최선의 자세인 듯 생각해 왔으며

5) 엔포르멜 ‘Art- Informel’은 엔포르름(informe) 즉, 부정형, 형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가 아닌 추상적 세계를 나타내는 극히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

동료들과의 만남까지 다만 편의적이고 습관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공동적인 문제 해결과 발전의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려 하지 않았나 합니다.”

위에서 보듯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회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앞선 미술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민중미술의 괄목할 만한 성과이자 활동이며 당시 문학, 무용 등 다른 문화 예술계와도 연대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sup>6)</sup>

1987. 6.10 6월 항쟁

1985년 창립한 ‘메타박스’(meta-vox)와 난지도의 ‘탈모던’ 개념을 한국미술계에 여과 없이 수용, 소비되는 맥락이 부족한 미술 수용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예다. 몇차례 전시를 통해 기존 화단의 맥락과 차별화된 미학과 기획력으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때 70년대 단색조 미술로 한국미술계의 주류 미술로 자리 잡은 모더니즘 미학을 비판함으로써 미술계의 뿌리 깊은 주도권 다툼양상이 되풀이되었다. 이후 개인적 개성이 드러나는 로고스와 파토스, 타라 등 80년대 소그룹의 활동이 두드러졌지만 당시에는 이 그룹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활동과 관계없이 평론가들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이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서구의 경향에 한국미술을 억지로 일대일 대응하려는 오류로 볼 수 있다. 사실은 그런 개념과 관계없이 과거 왜곡된 ‘현대’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작업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것이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분된 미술계의 주된 두 흐름 사이로 등장한 소그룹들이 해낸 몫이다. 어떤 큰 결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의 비판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추진했던 활동들이 어찌면 지금 본인이 민중미술의 범주 안에서 주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각도로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80년대는 거대 담론의 시대였다. 정치·사회적 맥락이 그렇고 이에 맞물려 미술운동 또한 그러했다. 독재정권 수립 후 미술계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외면했던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밖으로 꺼내어 화젯거리로 올려 왜곡된 진실과 가치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것을 민중미술이 해낸 가장 큰 역할이자 의의로 말할 수 있다. 반면 민중미술의

---

6) 많은 미술 사조 혹은 역사의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의와 한계점 영향력 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 본 글에서 모든 내용을 세밀히 다루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언급한다.

한계는 내용면에 있어 작가의 개체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정치, 사회적 변화에 종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작가 개인의 예술성과 독창성에서 멀어지고 작가와 작품의 관계성이 모호해졌으며 작품의 형태도 정형화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997 IMF

2000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2008 이명박 대통령 사대강 사업 추진

2009.05.23 노무현 서거

2014.04.16 세월호

2016.12.09 박근혜 탄핵

위에서 중간중간에 나열된 사건들은 본인이 기억하는 사회적 큰 사건들 중에 큰 충격과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건들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가지 사건들의 나열이다. 앞서 살펴본 요소들로 미루어 볼때 식민지-분단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신식민지화된 한국 사회, 게다가 군부 독재정권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민중 미술가들의 실천적 움직임이 미술운동이 사회변혁 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영향력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 2. 민중, 민족 미술 용어의 사용

원동석<sup>7)</sup>의 구분에 따르면 민족미술이 예술의 자주성을 내세운 민족문화에의 실제확인이라면, 민중은 민족구성체로서 민중주체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지향하는 운동이다. 라원식은 1985년 저서 <민중미술>에서 “민족·민중미술이란 민족의 현실에 기초한 민중의 삶을 민족적 미형식에 담아 민중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상화한 미술”로 정의 했다. 전통가치로서의 민족개념과 계급 중심적 민중개념을 기본틀로 삼아 민중미술과 민족미술을 나누었으나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기층서민, 분단 상황하의 민족문제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엄연한 당면과제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개념적 명확한 요구를 받지 않고 받아들여졌다. 민중미술의 시작은 그 이름이 없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 또는 미술사조가 그렇듯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당시가 아닌 그 경향 이후에 특정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시원의 논문에서는 처음 ‘민중미술’

7) 원동석, <민중의 생화에 뿌리를 둔 전방적 시야의 형성>, 공간 (1985), p.49.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를 1985년 아람미술관에서 열린<20대의 힘>이라는 전시 이후라고 소개한다. 1980년대 당시 작가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구체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게 되자 이들은 심각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과 외부의 압력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이 전시에서 노조운동을 형상화한 작품이 문제가 되어 이 행사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고 26점의 작품이 압수를 당한다. 이 사건 당시 문화부 장관은 이 전시의 작품들은 미술이 아닌 선동을 한다는 의미로 폄하하고자 ‘민중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시작이다. 그렇다면 ‘민중’이라는 단어의 범위와 주체를 알 필요가 있다. 통시적 관점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 수단으로서 소외된 피지배 계층을 뜻한다. 농민과 도시빈민, 소시민, 노동자 등의 사회적 계급문제를 논할 때 쓰이는 총칭이며 역사적 기원과 계급적 특성을 인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합의의 개념이다.

### 3. 민중 미술가 개인의 삶

<단서>

수류탄

판화

유화물감

처용가 시계

한겨레 신문

씨네 21

전교조

백기완

노무현

마당놀이

인사동

대학로

풍물놀이

위의 단서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떠올려본 80년대 관련된 기억에서 아버지영향을 받은 단서를 나열한 것이다. 이 단서들은 80년대에 태어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억에 해당 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차별성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하며 큰 맥락을 만드는 단서들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1987 여름, 대학로, 본인, 어머니, 오빠



1983 12월, 미술화랑, 아버지, 어머니, 오빠





1986. 08.28. 스포츠 서울 기사

## 2016-2018광주에서개인(본인)의경험

“광주의 엄마들은 애환이 많고 아빠는 쓸데없이 강성에 아가들은 다같은 옷을 해 입는다”. 이것은 어느날 서울출신인 나에게 누군가 광주에 대해 물으면 문득 튀어나온 나의 솔직한 생각으로 길게 봐도 만 3년 남짓의 시간동안 관찰한 광주에 대한 나의 짝막한 보고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5.18이라는 크고 깊은 상처를 각자 다른 세대로서 겪어냈을 것인데 현재는 5.18을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까지도 감정적 전이나 강요가 이뤄졌음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억압과 통제와 인간의 근원적인 삶과 죽음, 가족과 개인이 뿌리째 흔들린 경험은 40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완벽히 닳을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아있다. 역사는 이렇게 강하게 개인들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엉겨붙어 재빠른 변화인식과 그 변화에서도 태도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수도 편향적, 유행과민의 상태로 젊은 세대로 이식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다. 이러한 개인적인 인상을 현지의 사람들과 나눠보고 광주를 이해해보고자 취한 태도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맥락을 무시하지 않은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이해가 가능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광주사람들에 대해 가지곤 하는 외부적 편견인 ‘광주 시민은 빨갱이’, ‘전라도 깡깡이’ 등의 단편적이고 근거없는 모욕적 표현이 아닌 함께 생활하고

겪고 보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엔 모두 단정하고 따듯한 사람들인데 이런 오해를 받으며 살기엔 너무 억울 하지 않은가.

#### 4. 동시대 미술에서의 민중

미술사조에 따르면 ‘모더니즘’을 지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새로운 미술을 뜻하는 의미에서 ‘현대미술’이라고 모호한 명칭을 지속했다. 시대는 변하고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잠시 속하다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던(Modern)’, 또는 현대(Contemporary)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새로운 것(newness)이라는 의미를 특정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따라서 모든 ‘새로운 시대’를 지칭하는 ‘현대’미술이라는 개념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동시대 미술’로 표현하려는 것이 현재 미술계의 방향성이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민중’의 계보를 잇는 현상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설치미술가 겸 미술평론가인 박찬경<sup>8)</sup>은 “민중미술의 영혼은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됐고, 민중미술은 그것이 공격당하든 잊히든 의도적으로 계승되든, 어쨌든 그 자신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해방돼 널리 분산됐다”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하고 작품에 정치적인 발언을 담고 있는 작가들을 포스트 민중미술작가로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용어를 사용하는 장소와 시대 등의 맥락이 중요해지는 것이며 이 논리로만 보아도 서양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현대미술 등의 용어를 즉각적으로 우리 사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할 것이다. 미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미루어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지만 사실상 모든 문화의 근간이 되는 우리 주변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혜진<sup>9)</sup>은 단순히 동시대성의 평가기준이 서구에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한국미술의 자기정의에서 서구가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제 3세계 문화가 지니는 존재론적 숙명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원론적으로 한국의 근현대 미술사 전체가 서구 미술 수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미술은 주변부 문화로서 끊임없이 서구를 의식하고, 비교, 모방하며 스스로를 전개해갔다. 한국 미술사상 전무후무한 자생적 미술운동으로 평가받는 민중미술 역시 민족주의의 고취와 자본주의 타파를 주제로 서구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지만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엔 빠지지 않는 않았으나 나와 남을 단둘로 나눠 타자를 비난하고 우위에 있게 되는 것에 집중한 부분은 앞서 우리의 역사에서 일본이 우리를

8) 현시원, <민중미술의 유산과 ‘포스트민중미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전문과정 미술원미술이론과 논문 2009. 02, 참조.

9) 문혜진, <90년대 한국 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실문화 p.13

지배함으로써 우위에 있고자 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모순된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철저히 경제적 가치에만 사람들의 관심과 목표가 편중되어 경제적 기준의 한 점 지향적 목표달성과 성공에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의해 서열화되거나 천편일률적인 결과를 생산해 왔다. 개인은 이에 관련한 상대적 실패감과 불안감의 반영으로 새로운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며 개인적 정서를 담아내지 못한 채 유행에 본인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 또한 각 세대간의 경험의 차이와 개인의 상황 및 입장 차이로 이러한 현실 직시조차 어렵다는 것이 겹쳐있는 문제다. 반복하자면 이에 대한 개인이 모인 사회의 문제를 개인에서 출발해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제안한다. 개인은 충분히 과거, 현재, 미래 안에 탐험하고 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경험과 특수성을 생각할 때 단번에 합의나 종합으로 결론 맺을 수 없는 것이지만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과 그 개인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그 개인으로서의 개체가 증가한다면 특정 의도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술은 시대성과 역사성과는 별개로 현재의 힘이 가장 즉각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문이자 운동이며 생활일 수 있기에 민중미술에서 배울 수 있는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로서 현상을 바로 보고 동시대 미술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민중미술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 '민중' 그리고 '민중미술'은 우리에게 분명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민족과 전통에서 배우려고 하는 점, 현실과 미술을 분리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해온 점 등에서 착안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적용해 사회, 정치, 예술과 문화의 마당에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아이디어로서 목적을 가진다. 민중은 곧 개인이 모인 '다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 실마리를 가지고 특별한 한 개인이 아닌 많은 사람 중 하나로서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과거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되 현실에 충분한 이해와 적용하기를 공부하려는 한 과정이다. 민중미술의 맥락에서 나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과 여기에 대한 직시와 경험, 사유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가지고 세계와 동등한 자격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90년대 한국미술과 포스트 모더니즘 / 문혜진 현실문화, 2015  
미술과 혁명 / 최태만 재원, 1998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 / 성완경, 열화당 편집부 열화당, 1999  
박불뚝모순속에서 살아남기 / 박불뚝 외 4인 현실문화연구, 2014  
시각과 언어 1, 2 / 성완경열화당1982, 1985  
20세기 한국미술운동사 / ICASICAS, 2010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 김종길 현실문화, 2012  
포스트 민중미술 샤먼 리얼리즘 / 김종길 삶창, 2013  
한국 현대미술 읽기 / 윤난지 눈빛, 2013  
한국의 현대미술 / 서성록 문예출판사, 1994

# Minjung Art : The Power of the Crowds that Go Beyond Its Failure

Suh DaSom

1. Korean Art in Historical Change
  - 1) Early Modern Art
    - \_ Colonization <Joseon Art Exhibition>
    - \_ North-South Divide <National Art of the Republic of Korea>
    - \_ Dictatorship
    - \_ Modernism 'Art for Art'
  - 2) Modern Art
    - \_ Minjung Art 'Art Should Reflect Reality'
      - \_ Postmodernism
  - 3) Contemporary Art
2. Use of Minjung Art and National Art Terminology
3. Life of a Minjung Artist
4. Minjung in Contemporary Art

## 1. Korean Art in History and Society

Art is a product of a particular ideology and reflects the reality of the ti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art of Korea precedently to understand a part of the art. In fact,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ecise time and the beginning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and contemporary, modernism and postmodernism and art in the great flow of history, and also impossible to include many things in a short essay.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Korean art in response to events that have historically irrefutable influences on the ups and downs of Minjung art, and the connection between contemporary art and society.

### 1910-1945 Japanese Colonial Period

Since the invasion of the Korean sovereignty of Korea in 1910, imperial Japan introduced the imperialist police system to conduct unauthorized governing. In 1919, when the protests from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creased from the beginning of the 3.1 Movement in 1919, they introduced cultural rule including their deceptive intent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system, the relaxation of the media control and the educat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Joseon Art Exhibition, <Propaganda> appeared which was planned to deflect existing artists' resistance and make a new Japanese-led artistic trend. As a result, Propaganda caused contraction of private activities such as Seohwa Associ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broke the bonds of artists and intellectuals in Korea, and spread the cultural demand for Western painting and Japanese painting rapidly. On the other hand, some artists have been criticized all the time in the contemporary art world for their participation in <Propaganda> for their individual success, bu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it is hard to dispel all the activities of the twenty three(23) exhibitions.

### **1945–1953 Korean War**

On August 15th, 1945,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dark Japanese rule of thirty six(36) years. But this independence was not the liberation made independently, so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 new state.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of the First Republic was used as a political means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he Rhee Syngman regime. It was nothing more than a controversy over power-oriented regimes that put the "anti-communist ideology" near the Rhee regime, and it was merely a confrontation of interests that was used as a mask for political purposes rather than a conflict of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ideals to support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founded in this background, also reflected the political intentions of the Rhee regime, that is, many of the judges who were active in Propaganda were entrusted as they were, and in that they succeeded to the system used in the period of colonial rule, it shows the historical problem that the remnants of Japanese imperialism cannot be cleared.

**Intervention of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Soviet Union**

**38th Parallel, United Nations Forces, Chinese Army**

**1950 US Economic Aid**

The period of 1950s can be said a time when the art world of the 1950s in the darkness of life that had to survive in the fear of death, overcoming difficulties caused by confrontation and conflict of various ideologies instead of our lost tradition, and the conflict was revealed through the conflicts around the National Exhibition, and the people tried to heal that and harmonize. In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restoration work supported by UN and US support was active after the Korean War, Cultural shocks and conflicts arise in rapid social change, and the art world is too fragmented and irrationally absorbed, sometimes being confused with the acceptance and interpretation of Western art. Interpretation of art in the period can have a difference depending on whether the artistic phenomena are seen in the context of hybridization that occurs when cultures mix, or from the perspective of acceptance of Western art. Thus there are diverse views between art historians and critics, for example, the difference in opinion on the acceptance of *Informel*. Even if the Western Informel had a great fashion to occupy the entire Korean art world at the time, there was no such simpleness enough to summarize the art culture of one era in the style of the trendy style, and if the tendency accepted by the culture, we can not understand it fragmentarily. In addition, to read through this complex and multi-layered situation through various understandings and sensitivities, I think it is an important and reasonable approach to collect and study how the culture in political and social turbulence from the Korean War to the early 1960s was accepted by the artists and how it affected their sensitivity and activity. This task should be understood as a three-dimensional and alternative-directional approach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making a system by organizing the trends of that period into a single category.

1960. 4.19            Resignation of Rhee Syngman

1961–1972. 5.16    Military Coup

1960–1975           Vietnam War

1980. 5.18           People's Uprising

We share the founding declaration of the representative group, *Hyeonsilgwa*

*Bareon* (Reality & Utterance) which informed the full-scale start of Minjung Art below.

**<1980 New Year, Founding Declaration of *Hyeonsilgwa Bareon*>**

"Existing art is flattering to the deceitful taste of the finite class, whether conservative or traditional, avant-garde or experimental, by blocking art space from the outside. It has alienated and isolated the realities of ourselves and our neighbors, and not found the inner truth of an isolated person by insisting on the highbrow play of ideas. And so-called the art world has been disturbed by the struggle for interests and power, which is far from artistic ideology and sincerity, and many artists make themselves shameful by participating in the factional struggles unconsciously and pollute the overall artistic climate including art education. We have helped to make up for it. Most of us have thought that it is only our best effort to be alone in our troubles and we might want to give up the possibility of joint problem solving and development by not being able to stay away from the habitual and convenient ones even at the meeting with our colleagues."

**1987. 6.10 June Uprising**

There is a good example which shows the Korean art world that accepted art in the state of lack of the context; It is the 'Post Modern' concept, which Meta-vox established in 1985 and Nanjido were accepted and consumed in the Korean art world without filtration. Through a series of exhibitions, the groups were evaluated as a novelty with the aesthetics and planning power differentiated from the context of the existing artwork. However, the criticism of modernism aesthetics, which became a mainstream art in the Korean art world in the 1970s caused a repeated tug of war in the art world. After that, activities of small groups such as Logos, Patos, and Tarra were revealed, but the discussions were held in the context of Postmodernism by critics regardless of the ideals and activities that these groups pursued. This phenomenon can be regarded as a mistake to force one-to-one correspondence of Korean art to the Post-modernism of the West. In fact, regardless of such a concept, it would be closer to a comprehensive meaning to refer to the follow-up work to correct the distorted "Modern" of the past. Indeed, what we need to focus on is what



the small groups that have emerged between the two main flows of the divided art world did. I can say that the activities that they pursued with their critical view and judgment rather than any big conclusion are similar to the way I am now trying to understand art subjectively and personally from diverse perspectives within the category of Minjung Art.

To summarize, Korea's 80s was the age of Meta-discourse. Not only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but also the art movement was in that flow. It was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Minjung Art that it tried to correct distorted truths and values by taking out the political events or socially vulnerable parts that the art world turned away half reluctan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dictatorship. However, the limitation of Minjung Art is that it depends on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not on the individuality of the artist in terms of the content.

1997	IMF
2000	Nobel Peace Prize of President Kim Dae-jung
2008	President Lee Myung-bak's Four Major Rivers Project
2009.05.23.	Roh Moo-hyun's death
2014.04.16.	Sewol Ferry
2016.12.09.	Park Geun-hye Impeachment

Considering the above mentioned historical factors, I think the practical art movement of Korean artists under the difficult social environment of the Japanese colony, post-division US-Soviet neo-colonial society, and military dictatorship should be recognized of its influence as a social revolution movement. But, what kind of contradictions it has will also mention later. The events listed in the above are those that, I think, may have a great impact and influence on among the big social events, and some events that we should not overlook. The history of national oppression and sacrifice from colonization and North-South Divide to dictatorship led to the history of the betrayal of the national-people by the nation in modern times, and the desire of the dictatorship then and the left and the right now is not much different in that they are all the conflict for their power. The anxiety of the

Korean people is hardly thought apart from this history and social background.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are several facts which cannot be understood only in such a large frame. For example, we should be careful not to fall into the contradiction of saying, 'I have been particularly oppressed and victimized'.

## 2. Use of Minjung Art and National Art Terminology

According to Won Dong-seok's classification, if the national art is a confirmation of the reality of the national culture that expresses the independence of art, the Minjung art is a movement to find out Minjung(people) subject as a national constitution. In his book "Minjung Art" published in 1985, Ra Won-sik defined Minjung Art as "National- Minjung art is the art which embodies the life of the people based on the reality of the nation in the aesthetic form based on the people's aesthetic sense." He divided the national art and Minjung art based on the concept of the nation as a traditional value and the concept of class-centered people, but it was accepted without a clear conceptual explanation related to the fact that politically oppressed people and national issues under the divisional situation are inseparable.

The beginning of Minjung Art dates back to when there was not the name. As with most historical events or art trends, it is often the case that a particular name is given after the event, not at the time of the event. In his paper, Hyun Shi-won said his first introducing the term 'Minjung Art' was after the exhibition of <Power of 20s> held at the Arab Museum of Art in 1985. In the 1980s, when artists increased the intensity of their comments on the social problems and criticized the reality in detail, they experienced severe levels of public power intervention and external pressures.

Eventually, the work that shaped the union movement in the exhibition became a problem, and the event was forcibly stopped by the police and 26 pieces of the work were seized. At that time, the Minister of Culture started using the term 'Minjung Art' in order to disparage the works shown in the exhibition as the meaning of incitement rather than art. Then, we need to know the scope and subject of the word 'Minjung or people'. From

the diachronic point of view, it means the ruled class alienated as a means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ontrol. It is a collective term used to discuss social classes such as peasants, urban poor, petite bourgeoisie, and workers, and a concept of consensus that can be used to recognize historical origins and class characteristics.

### 3. Life of a Minjung Artist

<Clues>

Hand Grenade

Engraving Oil color

Cheoyonga Watch

Hankyoreh Daily Newspaper – Cine 21

KTU

Baek Gi-wan

Roh Moo-hyun

Madangnori

Insadong

Pungmooln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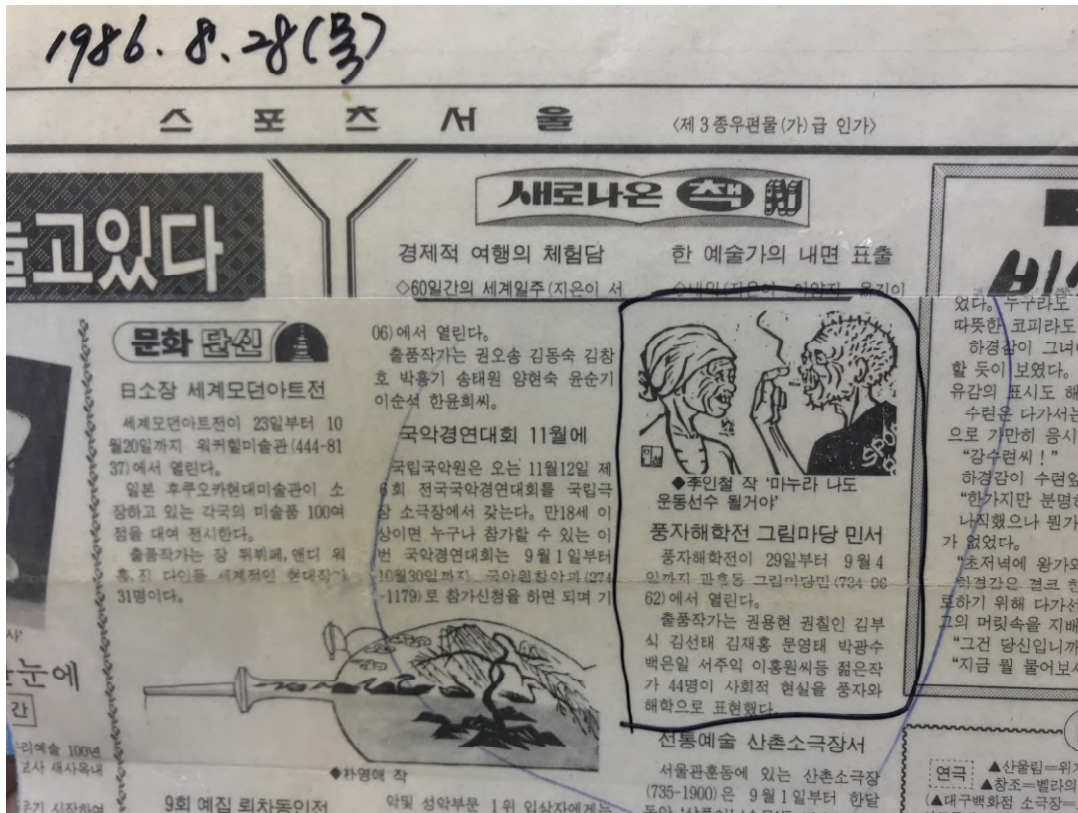
<Sharing>



Insadong 1983.12  
Father, mother, brother



1987 Summer, Daehakro, Myself, mother, brother



1986. 08.28. Sports Seoul Article

## 2016–2018 My personal experience in Gwangju

"Mothers of Gwangju have a lot of grief of living and fathers of Gwangju are somewhat too strong, and children wear all the same clothes". This is my brief report on Gwangju, which I had observed for three years when I, one of those who were from Seoul, was asked about Gwangju. If we talk about it, we would have experienced 5.18 as big and deep wound as a different generation, but now even the younger generations who never actually experienced 5.18 have been emotionally charged or forced. The experience of death, family and individual shaking with roots remains a stain that cannot be completely cleaned even after 40 years.

I thought the history of the nation's betrayal of the people mentioned above has been grafted into the lives of individuals in diverse manner, and has been transplanted into the younger generation in capital-biased state not to fall behind in the recognition of rapid change and changes. The attitude of sharing this personal impression with local people and understanding Gwangju is very personal, but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it integrally without ignoring the historical, social, and geographical context. This is valid because that is the conclusion from living and staying with the people,

rather than fragmentary and unfounded insulting expressions such as 'Gwangju citizens are the Red' or ' Jeollado Kengkengi'. In the end, they are neat and warm, but isn't it too unfair to live with such misunderstanding?

#### 4. Minjung in Contemporary Art

According to the history of art trends, 'modernism', 'postmodernism' and 'contemporary art' in the sense of meaning new art continued to obscure the name. The times are changing and we are lost for a while in such changing. Therefore, there are quite a few views that it is doubtful whether the meaning of "newness" implied by the term "modern" or "contemporary" can be applied at a specific time, which caused the direction of the present art world to recognize the limit of the concept of 'modern' art, referring to all 'new era', and to express it as 'contemporary art'. In fact, the phenomenon linking the genealogy of "Minjung" in a broad sense can be found everywhere. Park Chan-kyung, an installation artist and art critic said, "The soul of Minjung Art has become something anyone can take, and Minjung Art is liberated from prejudice against itself and widely distributed, whether it is attacked or inherited intentionally," and mentioned the artists who were sensitive to political situations and have political remarks in their works as post-Minjung artists. If this is the case, the context of the place and the age to use the term becomes important, and we must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include the terms of Western modernism, postmodernism and contemporary art in our society immediately.

It is to deal with what is happening in the category of art, but indeed, it calls for a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 of our surroundings, which is the basis of all cultures. We know that we have to get away from all the uniformity and point-orientedness of all the economies and cultures of Seoul after the concentration of the West, but even that is a matter of superimposing changes in some biased trends or new trends.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problem of the society in which the individual is gathered should start from the individual to be understood and resolved. Now, I think that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explore ourselves in the past future

based o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exploring it in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grasp their roles themselves based on enough understanding on the world, which cannot be accomplished at once, considering political and social experiences and specialties, but it is believed that art can be a studies, an exercise, and life which present power can be manifested all of a sudden regardless of existing experiences. In this context, Mun Hye-jin mentioned the ontological fate of the Third World culture that the Western world had to occupy in the self-definition of Korean art, instead of criticizing the criterion of contemporaneous evaluation in the West. In principl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whole modern art history of Korea is the history of acceptance of Western art. As a result, Korean art as a peripheral culture has developed itself by constantly getting aware of, comparing, and imitating the West. Minjung Art, which was regarded as a self-sustaining art movement unprecedented in Korean art history, has also been in confrontation with the West on the theme of promoting nationalism and breaking down capitalism. It has not fallen into a typical orientalism, but its focusing on dividing me and the other into two, and blaming the other to get an advantage over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ontradictory behavior of imperial Japan, which tried to dominate over us by dominating us as shown in history.

In this essay, 'Minjung' and 'Minjung Art' has a purpose as a hopeful idea that can find a way to critically and subjectively approach the field of society, politics, and art and culture by applying to our reality, from understanding . the aspects of Minjung Art such as subjective way of thinking, trying to learn from the nation and tradition, and questioning without separating reality and art. Applied to real society. politics. Thus, based on the concept that Minjung can be understood as a 'multitude' of individuals, Minjung is one of many people, not a special individual, and it is a process to study what is good from the past and how to understand and apply to the reality. Further the context of Minjung Art, what I want to talk about is that we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on an equal qualification through facing, experiencing, and thinking of now and here we live.





## “민중미술, 실패로 끝나지 않는 다중의 힘”에 대한 토론

신 용 철

발표자는 ‘실패로 끝나지 않은 다중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진행형의 국면이라는 관점에서 민중미술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중미술’의 의의와 가치를 살피기 위해 몇 가지 맥락들의 쉼표를 불러들였다. 먼저 한국근현대사 및 미술사 속에서 민중미술이 태동, 전개되는 과정을 살피며 그 성과로 만들어진 ‘민중미술’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민중미술가 개인의 삶(발표자의 부친)을 발표자의 경험에 투영하여 해석의 지평을 열어두고 있다. 이를 통해 민중미술의 성과와 전망을 다중이라는 실마리를 통해 풀어보려 한다.

발표자가 불러들인 여러 가지 맥락의 쉼표 속에서 민중미술은 어떤 미적 정체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몇 가지 질의한다.

첫째, 발표문에 언급하지 않은 ‘현실동인 제1선언’(1969년)은 민중미술사 나아가 한국미술사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가?

둘째, 민중미술의 개념에 대한 것이다. 민중미술은 사조인가? 운동인가? 기법인가? 아니면 태도인가? 민중미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중미술의 실존과 이어진 중요한 미적 전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80년대 민중미술과 직접적인 동인관계나 연결고리 없이 창작되고 있는 현실주의 계열의 미술들을 일컬어 ‘사회적 미술’, ‘포스트 민중미술’, ‘네오 민중미술’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발표자는 이들 가운데 어떤 입장에 서있는가? 앞선 용어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 어떤 용어를 제안하는가?

## “Minjung Art, The Power of the Crowds that Go Beyond its Failure” Commentary

Shin Yong Cheol

The presenter is looking into folk ar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esent progressive phase based on 'multiple powers not ending in failure'. He invited several context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Minjung Art'. First of all, it examines the process of the early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folk art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history and art history, and refers to the concept of 'folk art' created with the achievements. In addition, he has opened the horizon of interpretation by projecting the life of a folk artist (his father) to the presenter's experience. Through this, I intend to solve the result and prospect of the folk art through a clue.

What kind of aesthetic identity can be obtained from folk art in the context of various contexts that the presenters have invited? Based on this, I ask some questions to the presenter.

First, what is the status of the "First Declaration of Real People" (1969), which is not mentioned in the announcement?

Second, it is about the concept of folk art. Is folk art an artifact? Is it exercise? Is it a technique? Or is it an attitude? The problem of how to look at folk art is an important aesthetic premise that leads to the existence of folk art.

Third, the arts of the realistic series, which are created without direct connection with the people art in the 1980s, are called "social art", "post-folk art" and "neo-min art". What is the position of the presenter? If you do not agree with the preceding terms, what new terms do you suggest?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Crossing Generations Beyond Boundaries  
-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3부 세대의 경계를 넘어  
Session 3 Beyond Boundaries of Generation

## 5·18 기억투쟁의 복원 - 연속과 분절 사이에서

Restoration Memory Struggle of May 18  
- Between Continuation and Segmentation

유경남

Yoo Kyoung Nam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Archives





## 5.18기억투쟁의 ‘복원’ - 연속과 단절 사이에서

유 경 남

### 1. 5·18 이후세대가 5·18을 알아간다는 것

나는 1981년생 5·18연구자이다. 광주에서 비광주 출생자로서, 5·18민주화운동을 공부한다는 것,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평범한 상황은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는 오해의 시선으로, 어떤 때는 격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는데, 사실 나는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5·18’ 공부가 점점 무겁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내가 나의 출생년도와 출생지를 먼저 밝힌 것은, 그 동안의 광주생활, ‘5.18이라는 현재의 장(場)’ 속에서의 몸에 익혀진 것이다. 어떤 논의의 장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구성요소-직업, 전공 등-를 먼저 밝히는 것은 의례적일 수 있다. 그러나 광주, 그리고 5·18의 장에서 이것은 마치 현재의 ‘나와 5·18사이의 관계’를 남에게 드러내야만 하는 통과의례가 있는 것 같다.

나의 이러한 행위를 뒤집어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알고 말하는 5·18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겨났다. 돌이켜 보면, 내가 알고, 말하고 있는 5·18의 사실들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누군가가 정리해 놓거나 남겨놓은 것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다. 나는 5·18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하, 5·18세대)보다 1980년의 5·18을 알 수 없는 절대적 한계를 갖고 있다. 최정운이 말한 1980년 광주의 “절대 공동체”라는 것이,<sup>1)</sup> 나에게서는 “절대”도 달할 수 없는 시·공간(당시의 그 현장과 직접 경험)으로 읽혀졌다. 1980년의 절대적 시·공간에 자리하고 5·18, 5·18을 직접 경험한 세대 그리고 그들과 동시대에 살면서 5·18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나’ 같은 세대가 현재 공존하고 있다.

### 2. 마주한 세대, 다가가지 않는 세대

2017년경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젊은’세대를 대상으로 2016년의 촛불시위와 연관하여 5·18, 민주주의에 관한 집담회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5·18당사자라는 사람은 젊은 친구들의 5·18에 대한 이야기가 못마땅했는지, “나는 OO

1)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2012.』

입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1980년 5·18때는 말이지...”라는 발언을 시작했다. 순간 사람들은 서로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사회자 측에서 그를 만류했지만, 발언자의 목소리만 더 커질 뿐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소위 ‘젊은’세대들의 어색한 눈빛 안에 ‘당황스러움’이 많지는 않았다. 그들은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닌 듯 했다. 나 또한 그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은 1960년대 이후 미국사회에서 두드러졌던 ‘사회운동’의 감퇴현상을 각기 다른 경험과 경향성을 지닌 “세대”들 간의 차이로 분석했다.<sup>2)</sup> ‘세대 간의 문제와 갈등’은 한국사회 내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sup>3)</sup> 이들 연구에서 세대의 구분은 각기 다른 기준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 같다. 이 글에서 1980년 5·18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기준으로 ‘5·18세대’와 ‘5·18이후세대’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대 구분은 기본적으로 출생년도, 출신지역, 5·18정규교육의 유무, 관련활동 (참여)유무 등으로 통계·수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와 무관하게 개개인의 인식은 다를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5·18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5·18을 너무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5·18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5·18을 아는 건가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근무한 지 3년차가 되었을 때, 광주에 5·18과 관련된 젊은 세대의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우연히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광주에서 5·18과 연관된 일을 하거나 하고 싶은 사람들로 연령대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사이다. 5·18이후세대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성장을 했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5·18을 배웠으며, 졸업 이후 광주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나는 이 모임에 참여하며, 어느 날 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인터뷰에는 총 4명이 참여했다. “여러분들에게 5·18은 어떤 것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들은 의외로 위와 같이 모두 비슷한 대답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과 5·18세대를 명확히 구분했으며, 그 차이를 ‘무게감’으로 표현했다. 5·18세대가 자신들을 가벼운 세대로, ‘가벼운’ 세대로 불린 5·18이후세대는 그 호명을 받아들이면서 5·18세

2) 로버트 퍼트넘, 『나 홀로 불링 : 불링 얼론-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페이퍼로드, 2016.

3) 조성남·박미숙,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9,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2002.

권귀숙, 「세대간 기억 전수 - 4·3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38, 한국사회학회, 2004.

대를 ‘무거운’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모임의 사람들에게는 5·18은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자신을 규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앓’을 기준으로 5·18세대와 5·18이후세대 사이에 ‘무게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광주지역에서 ‘5·18’ 또는 ‘문화’ 영역과 연관된 곳에서 참여하거나 활동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5·18세대와의 ‘세대 간의 문제와 갈등’을 경험했고 그에 따른 “안 좋은” 기억들도 하나둘씩 갖고 있었다.

이러한 5·18을 사이에 둔 5·18세대와 5·18이후세대, 이 두 집단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나는 펠릭스 가타리의 ‘의사-간호사-환자(정신분석가와 환자)’의 관계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sup>4)</sup> 가타리는 반정신 의학을 비난하면서, 의사-환자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을-역할 바꾸기와 같은- 제시한다. 그는 (당시의 프로이트 학파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의사에 의해 단순하게 규정되는 환자가 아닌 - (예속)집단과 (주체)집단 사이의 위계제, 수직적 또는 피라미드적 조직을 분석하고 - 개인의 욕망이나 무의식적 주체성에 주목하면서 제도와 기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가타리는 개인의 “횡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특이한 입장(위상)을 해방하는 것”을 “혁명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스스로를 5·18세대라고 하는 의사들은 마주하고 있는 환자, 즉 5·18이후세대를 과연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 위의 사례를 보자면 그들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세대를 관찰하며, 5·18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환자로 규정된 5·18이후세대는 의사-간호사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1980년 이후의 5·18과 같이 국가폭력의 희생자 및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문화적 활동을 “기억투쟁”이라고 한다면,<sup>5)</sup> 앞서 언급한 두 세대 간에 이 기억투쟁이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1980~1990년대 기억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변용되고 다음세대에게 이해되고 있는지(또는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었다.<sup>6)</sup> 그러나 방향은 기억투쟁의 시간적 변화보다는 세대 간의 기억‘투쟁’의 인식 차이를, 그 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왜냐하면 기억투쟁의 맥락에서의 변화보다 세대 간의 ‘기억한다’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언급했던 그 모임의 사람들에게 “전남도청 복원문제”에 대해 물어 보았다. 나는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

4) 펠릭스 가타리(윤수종 옮김), 『정신분석과 횡단성』, 울력, 2004

5) 나간채·정근식 외,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6)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들을 중심으로」, 전남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2002.

(도청복원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나는 내심 ‘이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광주에서 5·18과 연관된 일을 현장에서 하다보면 뉴스, 지역 현안 그리고 도청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상황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남도청 복원문제와 상당한 한참 물려 서 있다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 달라고 했다. 나는 난감했다. 옛 전남도청이 언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나마 내가 이 문제와 ‘가까이’ 있다 보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람들이 가진 5·18에 대한 거리감은 서로 달랐다.

내가 인터뷰 한 5·18이후세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수집한다. 이에 인터넷에 ‘전남도청 복원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 보았다. “복원을 해야 한다”는 각종 뉴스와 전남도청 복원농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좀 더 ‘깊숙이’ 검색해보니 각종 보고서와 같은 자료들이 나왔지만, 관련된 사안을 모른다면 지나치거나,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2년 넘게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복원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보다 ‘쉬운’ 정보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거나,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매일 농성장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단순히 옛 전남도청 외형과 1980년 항쟁의 단편적 사실들을 형상화 하는 ‘복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 3. 기억투쟁의 복원; 5·18을 기억“한다”는 것

하루빨리 이곳이 복원이 된다면 죽어도 원한이 없겠어. 다 (복원) 해 놓고 언젠가 (죽은) 아들을 만난다면, (사람들이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게 다 해놓고 왔다고 말하겠어. 만날 수 있다면 말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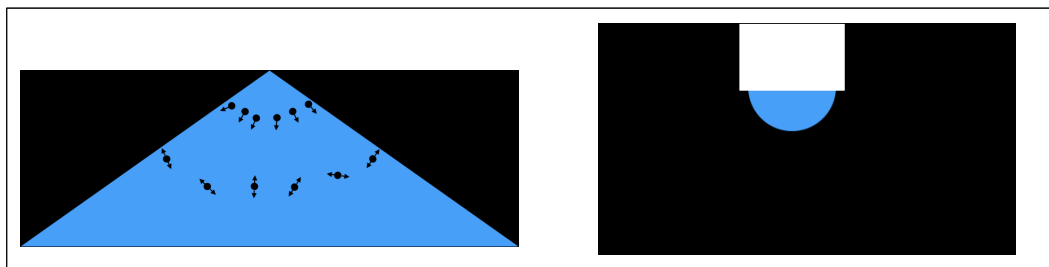
옛 전남도청 역사와 관련된 전시를 준비하면서 복원 농성장을 지키는 오월어머니 몇 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의 증언은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도청에 대한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계승되길 원했다. 5·18의 “계승”은 1980년 이후 5월



운동-기억투쟁에서 흔히 등장했던 상징적 구호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는 “계승”이라는 단어는 지금 무엇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5·18 이후세대의 모임에게 도청복원문제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기념사업”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나는 5·18이후세대에게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를 설명하면서 “기념사업”이라는 용어를 습관처럼 사용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용어자체를 생소해했고, 왜 ‘사업’이라는 말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동안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언어를 그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했다.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기념사업을 기억‘활동’ 내지는 기억‘운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생각대로 5·18을 기억하기 위한 실천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5·18에 대한 간접적-그래서 직접적인-경험을 통해 5·18을 각자의 방식대로 나누고자 하는 실천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여기에서 5·18 기억주체의 사례로 제시한 오월어머니와 5·18 이후세대는 5·18을 기억해야한다는 연속선상에 있지만, 서로 간에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오월어머니는 “복원”이라는 발화(기표)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기억의 당위성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고, 5·18이후세대는 각자의 방식으로 ‘5·18을 기억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기억해보자’라고 말하는 듯 했다. (물론 ‘농성장’ 안의 개개인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세대 간의 차이로 거칠게 정리하자면, 5·18세대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와 같이 5·18왜곡의 상황 속에서 1980년 그리고 이후 기억투쟁(그 안에 있는 자신)의 ‘원형’을 되찾고 싶어 한다면, 5·18 이후세대는 현재의 시점(자신)을 중심으로 5·18과의 감각(무게감, 거리감)을 표현/실천하고자 했다.



5.18세대(a)와 5.18 이후세대(b)에 대한 개념도(무게, 거리)

내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18이후세대의 다양한 실천과 관련된 것들이다. 먼저 5.18기록관은 2016년 광주비엔날레와 협업전시를 진행했다. 기록관에서

는 총 세 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그 중 멕시코에서 온 크라터(creator)예술인 집단이 있었다. 크라터는 광주에 있는 동안 영상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영상의 후반부에 광주의 길거리에서 “5·18[오일팔/Oilpal]”을 외치는 장면이 등장했다. 외국인이 5·18을 우리 언어대로 “5·18[오일팔/Oilpal]”이라고 말하는 것이 꽤 신선했다. 우리는 5·18을 다른 사람들에게(특히 외국인에게) 설명할 때 “민중항쟁”, “봉기”, “민주화운동”과 같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용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에 반해 크라터는 우리가 말하는 발화 속에서 5·18에 접근해 보려 한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과 해석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음은 ‘님을 위한 행진곡’ 오르골이다. 이 오르골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5·18이후 세대가 직접 아이디어와 제작을 진행 것으로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이다. 5·18기록관은 님을 위한 행진곡 오르골을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가격과 법률적 문제에 따라 무산된 적이 있었다. 나는 이 오르골을 제작한 사람이 기록관에 찾아왔을 때, 내심 반가웠다. 그러나 제작자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5·18이후세대의 활동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오르골 제작자는 처음 외국여행을 다니면서 오르골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했고, 광주에 돌아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지만, 번번이 가로 막힐 뿐이었고, ‘왜 이걸 개인이 하느냐?’는 반문을 들어야만 했다.<sup>7)</sup> 그는 결국 개인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아보고 해결해야만 했다. 그는 인터넷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용을 마련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오르골

마지막으로 오월안부프로젝트이다. 기록관에서 전시를 담당하면서 “관람객의 참

7) 나 역시 처음 오르골을 보고, 오르골에 사용된 이미지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고민했었다. 단순한 방명록 이상으로, 마치 예전 망월동에 가면 열사들의 묘 앞에 편지를 두고 가거나, ‘열사의 노트’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 같은 것 말이다. 그 즈음 광주에서 이 엽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광주, 5·18과 관련된 이미지를 도안으로 삼아 사람들이 쓴 엽서를 직접 발송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이번 옛 전남도청 전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시의 한 코너로 구성하였고, 사람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이 엽서를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광주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 사람들의 기록은 굉장히 다양했다. 보다 깊이 들어가자면, ‘방명록’이 이렇게 광주에 온 느낌을 기록하도록 하는 장치라면, 이 엽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있었다. 면대면 만남이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에, 엽서는 광주, 5·18에 대한 개인의 소소한 느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엽서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있었다.

<p>택시운전사의 그 시대를 지나, 1987의 그 시대를 지나 시간을 들여서 광주에 왔어. 암박을 받아도, 탄압을 받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약해도 강한 나라. 강한 사람들. 충격과 슬픔으로, 맞서는 나와 다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 오카야마현으로 보내는 일본인의 엽서 중에서...</p>	<p>안녕! 광주에 와 있습니다.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었더니 너무 너무워서 죽순같이 벗으면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무사히 메일이 잘 도착하길! 물론 나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웃음) - 치바현으로 보내는 일본인의 엽서 중에서...</p>
---	--



오월안부 엽서

나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5·18이후세대 역시 무엇인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5·18을 말할 수 있는, 가타리가 말하는 “제도와 기계”, 제도와 기계가 출현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를 생각해 본다면, 그날 분수대에는 누구나 올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5·18 당시 유인물을 읽어보면서, 어느 노동자가 남겼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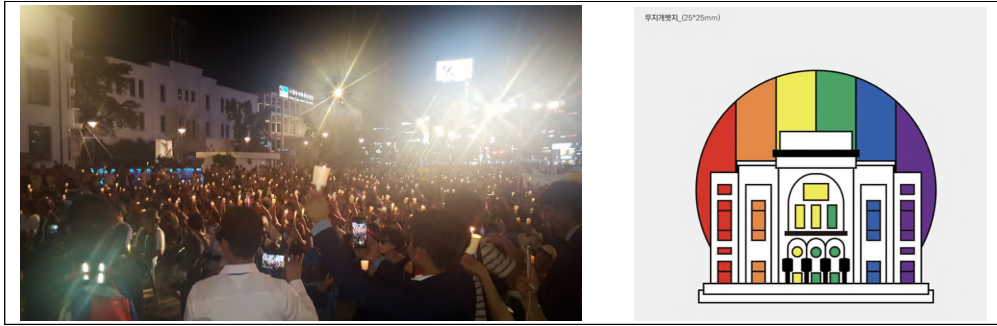
기록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은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로서,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노동자의 기록은 5·18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 4. 연속과 단절 사이에서

나는 5·18에 대한 세대 문제를 고민하면서 비교적 5·18이후세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고자 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광주지역에서 5·18과 연관된 그래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그들 개개인의 5·18경험은 굉장히 다양했다. 1987년 ‘어머니의 눈물’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던 사람, 1995년 글짓기 대회에 갔다가 망월동을 처음 가 보았던 사람,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18묘지에 갔다가 잔인한 사진을 보고 힘들어 했던 사람(지금까지), 어쩌다 광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등 그들은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5·18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5·18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경험되고 실천되고 있다.

이들 5·18이후세대의 경험이 1980년 5·18세대의 경험과 같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5·18세대가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고 5·18이후세대가 이를 듣길 바란다면, 5·18세대 역시 5·18이후세대의 경험 역시 경청하길 나는 희망한다. (이것이 가타리가 말하는 역할 바꾸기가 아닐까?)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한 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대화 이전에 자신과의 대화, 자신에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할 것이다. 혹여 자신들이 다른 세대에게 ‘무엇인가 하면 되고 무엇인가 하면 안 되는’ 위계적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특히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관료제적’ 요소들이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동시에 국가 주도 하의 5·18기념사업이 진행되면서 - 우리가 의도 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 5·18의 기억(활동)은 국가에 의해 점유되고 변용되었다. 예컨대 국립5·18민주묘지와 같은 국가기념사업은 “망월동”을 구묘역과 신묘역으로, 민족민주열사를 5·18희생자들과 법률적으로 구분해 버렸다.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실천이었던 5·18이 국가 장치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장치는 우리 사회의 관료제 요소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5·18은 국가화 되고, 역사화 되고, 화석화 되는 것은 아닐까? 국가권력에 대항했던 시민들의 경험이 과거라는 시간에 갇혀진다면, 현재와 내일에서 5·18에 대한 횡단적 계수들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좌> 재한 캄보디아인(2018년 7월 28일), 우> 광주 퀴어문화축제 배지(2018년 10월 21일)

광장은 굉장히 시끌벅적하다. 광주의 5·18민주광장 역시 온갖 행사들로, 오고가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금남로, 5·18민주광장 등 1980년 5·18의 역사적 장소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5·18을 계승하거나, 기억한다고 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화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때 역사의 공간은 비로소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sup>8)</sup>

8) 이진경, 『역사의 공간』, 휴머니스트, 2010.

# 'Restoration' Memory Struggle of May 18 – Between Continuation and Segmentation

Yoo Kyoung Nam

## 1. 5·18 of Post 5·18 Generation

I am a 5·18 researcher born in 1981. It is not common for me to study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to work for the May18 Democratic Movement Archives as a non-Gwangju native. Some people sometimes look at me with an eye for misunderstanding and sometimes with an encouragement. At first, I thought light, but now I feel somewhat heavy and difficult, with increased studying on '5.18'. To begin my essay with opening my birth year and place of birth is my habit I got used to here in Gwangju, the place of 5.18. It may be a ritual for me to reveal myself first – occupation, major, etc. – in order to present my remarks in any discussion room. However, in Gwangju and the historical field of 5.18, it seems to be a rite of passage that must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5.18' to others.

Dating back to the beginning the action of mine, I wondered what 5.18 I knew and I said. In retrospect, the facts of May 18 that I know and can say is that I'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and just heard from someone else, indirectly or learned through the materials someone arranged or left behind.

I have an absolute limit that I do not know 5.18 of 1980 than my 5.18 generation (hereinafter 5.18 generation). The "absolute community" of Gwangju in 1980, which Choi Jeong-un said,

The "absolute community" of Gwangju in 1980, as Choi Chung-un said, was read as time/space(direct experience at the site) that I can not reach "absolutely". We are living in the absolute time and space of 1980, the generation that directly experienced 5·18, and 'I' who wants to know about

5.18 living contemporaneously with them.

## 2. Facing generations, not reaching generations

Around 2017, the May 18th Democratic Movement Archives held a meeting on May 18th and democracy related to the candlelight protests in 2016 for younger generations. The 5.18 generation who attended here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tory of 5.18 of their young friends, "I am OO. It seems to be a story that you do not know well, when it was May 18, 1980 ... " At the moment, people gave each other awkward eyes. The speaker left him, but only the voice of the speaker was bigger. There was not much "embarrassment" in the awkward eyes of so-called "young" generations who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They did not seem to be the first situation. I was not the first such situation.

Robert D. Putnam analyzed the decline of the "social movement" that has been prominent in American society since the 1960s as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with different experiences and tendencies. 'Problems and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are being discussed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of Korean society. In these studies, the division of generations seems to be done by different reference points or by using socially acceptable standard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istinguish between '5.18 generation' and 'post 5.18 generation'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 of May 18, 1980. This generation division can basically be statistical ·numerical based on birth year, place of birth, existence of 5.18 formal education, existence of related activities (participation). However, regardless of these statistics, individual perceptions may differ.

They say we think 5.18 too light. But they seem to make 5.18 too heavy. Yes, we do not know 5.18. (How do we know 5.18?)

When I was in my 3rd year at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in May 18, I realized that there was a young generation group related to May 18th in Gwangju and I happened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 They want to

do or do work related to May 18 in Gwangju. The ages are from middle-aged to mid-30s. It is generation post 5.18. They grew up in Gwangju, learned 5.18 in regular education, and have been living in Gwangju since graduation. I participated in the meeting, and one day I conducted a group interview, in which a total of four people participated. I started the interview with the question, "What is 5.18 for you?"

They surprisingly gave similar answers as above. They clearly distinguished themselves from the 5.18 generations and expressed the difference as "weight". The 5.18 generations called themselves "light" generations with a mild generation, and the 5.18 generations post 18th generation adopted the name, and defined the 5.18 generations as "heavy" objects. For the people of this group, 5.18 was one of those defining itself, whether it was other or unconventional. Based on the historical event of 5.18 and 'knowing' about it, 'weight' is working between the 5.18 generations and the generation post 5.18. They also participate or work in Gwangju area related to '5.18' or 'culture' areas. They experienced "problems and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with the 5.18 generation in the field, They also had one or two.

How do you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groups, between the 5.18 generations and the post 5.18 generations? I want to apply the relationship of Felix Guattari's "doctor-nurse-patient (psychoanalyst and patient)". Guattari criticizes anti-psychiatry and suggests changing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such as changing roles. He analyzes the hierarchy, vertical or pyramidal organization between the (collective) group and the (subject) group, not the patient simply defined by the physician (criticizing the limits of the Freudian school of that day) It focuses on the unconscious subjectivity and opens possibilities of institutions and machines. Through this, Guattari says that "to liberate the subjective and peculiar position (position) that can communicate with the individual" is to constitute "revolutionary subjectivity".

How do doctors who call themselves the 5th and 18th generations analyze patients facing each other, that is, the generation after 5 · 18? In the case



of the above, are they observing the next generation to preserve themselves and occupying 5 · 18? On the other hand, how do the generation after 5 · 18 defined as patient face doctor–nurse?

If victims and victims of national violence, such as May 18, 1980, are called "memory struggles" for a series of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ies to inherit their memories against the nation, this memory struggle between the two generations mentioned above I want to see how this is going on differently. In particular, in the 1980s and 1990s, on the continuation of the memory struggle, we sought to examine how this is transformed and understood by the next generation as time passes. However, the direction was changed to look 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memory 'struggle' between generations rather than the temporal change of memory struggle.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remember' between generations was felt to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hange in the context of the memory struggle. I asked the people at the meeting mentioned above about "Restoration of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I heard an unexpected answer.

(I do not know about restor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I do not know what the problem is or how it happened. There is no place to tell the truth.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I had the idea that they would have a similar idea. I thought I would know about the news, the local issues, and the situations that I could see in the tapping scene when I was working in Gwangju on May 18th. However, they had a "sense of distance" that they had been backing off for a long time with the restoration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I also wanted to let you know because I did not know any clear information about this issue. I was embarrassed. I do not know how long it has been since the former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I have been thinking that I am interested because I am close to this problem. The distinction between 5.18 people was different.

Generation post 5.18 I interviewed mainly search and collect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Therefore, I searched the Internet for information related to

'Restoration of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It was mainly composed of various news about "Restoration should be done" and contents related to restoration of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When I searched a little deeper, I had various reports and the same data, but it was too much or too difficult to master if I did not know the related issues. There are people who have been restoring the old Jeonnam Annex Annex for more than two years, but the more "easy" information related to this is not listed or provided separately. If so, who are the people who keep the place of daily growth for the restoration of the former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They are not simply saying 'restoration' that shapes the old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outline and the fragmentary facts of the 1980 uprising

### **3. Restoration of memory struggle; Remembering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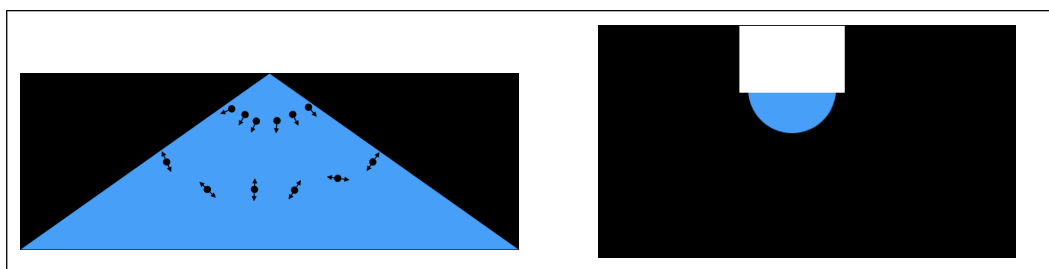
If this place is restored as soon as possible, there will be no desire to die. I will tell my son that if I have done (restored) I'll see my son (dead) someday, I'll tell him I let people remember you forever not forgotten. If you can meet him..

In preparation for the exhibition related to the history of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we interviewed a few moms of May who guarded the restoration and growth area. Their testimony tells what happened at the old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on May 18, 1980. They wanted their memories of tapping to be inherited to the next generations forever. The "succession" of May 18 was a symbolic slogan that often appeared in the May movement-memory struggle since 1980. But what does the word "inheritance", which has not emerged from some day, replace with what? This is due to the word "memorial service" used to describe the restoration of the eavesdropping issue to the above-mentioned group of people post 5.18.

I used the term "commemorative business" as a habit, explaining the problem of restoring old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to the generation post

5.18. However, they were uncomfortable with the term itself and asked why they should write "business". I could not keep talking for a while. They understood languages that they thought were natural. As the story goes on, I gathered opinions that it would be better to use memorial business as 'memory' or 'memory' exercise. Because they were also doing their own practice to remember 5.18 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y said that they had begun and will continue to practice of dividing 5.18 into their own ways indirectly through their indirect- and thus direct - experience of, their own 5.18.

Here, the mother of May and the generation post 5.18 presented in the case of the 5.118 memory subject are on a continuous line to remember 5.18, but they had a difference between them. Mother May asked the government to call the government the "restoration," saying to the people the necessity of memory. Post 5.18 generation said, "Let's remember this It seemed. (Of course,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individual thought in the Nonggungjangjang.)" It is roughly said that the 5th and 18th generations are in the situation of 5.18 distortions like the issue of 'March for yours' If we want to regain the 'prototype' of the memory struggle (the self) afterwards, the generation after 5.18 wants to express/practice sense (sense of weight, distance) with 5.18 around the present point did.



5.18세대(a)와 5.18 이후세대(b)에 대한 개념도(무게, 거리)

I would like to talk more about the various practices of the post 5.18. Fir generation, the 5.18 archives exhibited collaborative exhibitions with the Gwangju Biennale in 2016. In the archives, total three works were exhibited, among them a group of creator artists from Mexico. Kraut made a video work while he was in Gwangju, and the scene of "5.18 [Oilpal]" appeared

on the streets of Gwangju at the end of the video. It was quite fresh for foreigners to say 5.18 in our language "5.18 [oilpal]". We use terms that are easy to understand from their standpoints such as "people's uprising", "uprising", "democratization movement" when explaining 5.18 to others (especially foreigners). On the other hand, Kratzer seemed to approach the 5.18 in the utterance we speak. This may not be a matter of simpl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Next is the "March for the loved" music box. This music box is a product sold on the market since the 5.18 generations working in Gwangju, to carry out ideas and production directly. The 5.18 archivist had reviewed the 'business' of a music box for his music, but he had been abandoned due to price and legal problems. I was glad when the person who made this music box came to the record store. However, in dialogue with the producers,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of these 5.18 generations' activities. The music box maker thought about the idea of music box while traveling abroad for the first time, and came back to Gwangju to start this project. In the meantime, he was inquiring about how to get help, but he was interrupted only occasionally and had to listen to the question, "Why are you doing this?" He eventually had to find out and solve all the issues related to the project. He raised the cost of production through Internet cloud funding.



‘님을 위한 행진곡’ 오르골

Finally, it is May project. I was worried about how to get "participation of visitors" while taking charge of the exhibition at the archives. More than just

a guestbook, if you go to the old Mangwol-dong, you can leave a letter in front of the tombs or leave your own story in the note of the sutra. At that time, I found a person who created this postcard in Gwangju and operated the program.

He used his own image of Gwangju, the 5th and 18th, as a pattern, and was running a program that sent out postcards written by people. I organized this program as a corner of the exhibit at the exhibition of the former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nd people responded well. Some people take these postcards as souvenirs, and the people's records, such as messages to the citizens of Gwangju, were very diverse. If you go deeper, this postcard was producing records in a different way if the 'guestbook' was the device that let you record the feeling that came to Gwangju this way. Today, as face-to-face encounters are diminishing, postcards have conveyed the personal feelings of Gwangju, May 18, to others. Postcards were connecting individuals and individuals

<p>택시운전사의 그 시대를 지나, 1987의 그 시대를 지나 시간을 들여서 광주에 왔어. 압박을 받아도, 탄압을 받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약해도 강한 나라. 강한 사람들. 충격과 슬픔으로, 맞서는 나와 다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 오카야마현으로 보내는 일본인의 엽서 중에서...</p>	<p>안녕! 광주에 와 있습니다.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었더니 너무 너워서 죽순같이 벗으면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무사히 메일이 잘 도착하길! 물론 나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웃음) - 치바현으로 보내는 일본인의 엽서 중에서...</p>
---	---



오월안부 엽서

I do not mean to say, "You must do this" through these three examples. One is that generations post 5.18 are also doing something. Next, there

must be a place where people can talk about 5.18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the system and the machine", the system and the machine can appear, which Goddess means. If you think about Gwangju in May of 1980, anyone could go up and talk about his story freely that day. I can not forget the record left by a worker, reading the handout at the time of May 18. He said he hopes that things will settle down as soon as he is a day-to-day worker. This worker's record tells us that people gathered in the May 18 Square are not all gathered with the same thoughts.

#### **4. Between the consecutive and disconnected**

I was worried about the generation problem of 5.18 and wanted to hear a lot of stories of the generation post 5.18. generation I could not meet many people, but I heard stories from people in Gwangju that are relatively close to the 5.8-related. The experience of each of them was quite diverse. A person who used to write a 'mother's tears' in 1987, a person who first visited Mangwol-dong in 1995, a person who went to a cemetery in May 18 as part of a school education program), And those who have been working in the National Asian Cultural Complex in Gwangju, they are currently experiencing 5.18 in their respective locations. In this way, 5.18 is experienced and practiced continuously in different 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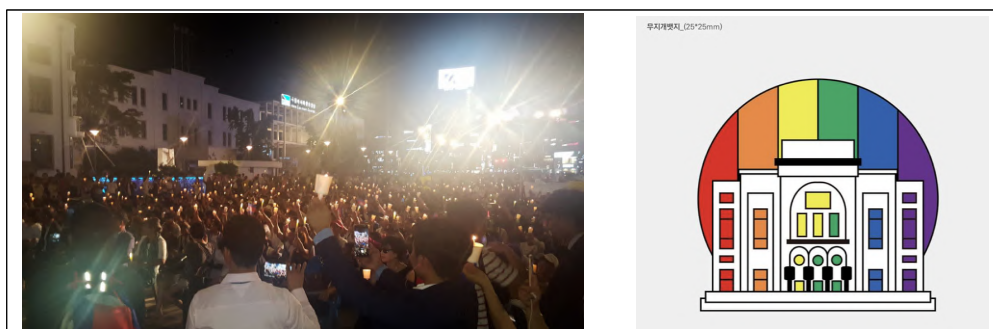
These 5.18 generation experiences are not the same as those of the 5.18 generations of 1980. However, if the 5.18. generations tell their experiences and the 5.18 generations want to hear it, I hope that the 5.18 generations will also listen to the experiences of the generation after the 5th and 18th generations. (Is this not the change of the role that God is talking abou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generations and to have a dialogue based on this. Also, we should go through the process of talking to and asking oneself before the conversation. I want them to think about whether they are in a hierarchical position where they can not do something or say something to another generation

What we particularly want to point out is the 'bureaucratic' elements of our society. As the democratization of the post-1990s and the commemoration

of the 5.18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ate proceeded – whether we intended or not – the memory of 5.18 was occupied and transformed by the state. For example, national commemorative projects such as the National 5.18 Democratic Cemetery separated the "Mangwol-dong" as the Old and the New Cemetery, and legally distinguished the national democratic apparatuses the 5.18 victims. May 18, which was the free practice of ordinary citizens, became one of the national apparatuses. This device seems to fit well with the bureaucratic elements of our society. But is not 5.18 becoming nationalized, historical, and fossilized? If the citizens' experience of competing against state power is trapped in the past, the cross-sectional coefficients for 5.18 will not increase in present and tomorrow.

The square is very lively. Gwangju's 5.18 democratic plazas are also crowded with people from all kinds of events. What should we do to inherit or remember 5.18 in the historical places of May 18, 1980, such as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Jeonil Building, Geumnamro, 5.18 Democratic Plaza?

It is the gathering of different people who listen to voices that can not be heard, think about things that can not be thought of, can talk about things that can not be said, that invisible things are visualized and that unqualified people can speak, It can only be political.



좌> 재한 Cambodians(2018년 7월 28일), 우>Guangzhou Queer Culture Festival Badge (2018년 10월 21일)

The square is very lively. Gwangju's 5.18 democratic plazas are also

crowded with people from all kinds of events. What should we do to inherit or remember 5.18 in the historical places of May 18, 1980, such as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Jeonil Building, Geumnamro, 5.18 Democratic Plaza?

It is the gathering of different people who listen to voices that can not be heard, think about things that can not be thought of, can talk about things that can not be said, that invisible things are visualized and that unqualified people can speak, It can only be political.



## ‘5·18’의 경험 혹은 기억과 세대 간 전승의 단차

정 호 기

### 1. ‘5·18’의 다원적 경험과 기억의 차이 그리고 분기

이 글은 ‘5·18’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 글은 ‘5·18’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와 과제를 어떻게 극복 및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넓게 보면, 이 글의 문제의식은 과거사들 전반에 적용해도 무난할 법하다. 하지만 ‘5·18’은 다른 어떤 과거사들보다 현재화가 잘 이루어진 사례이며, 청산작업이 선도적으로 진행된 사건이어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이 글을 관류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5·18’에 관한 ‘세대’의 사고체계 및 방식과 ‘세대 간의 전승’으로 이해된다. 필자는 이를 고찰하기 위해 ‘5·18세대’와 ‘5·18이후세대’로 구분하고, 이들의 인식과 실천을 대별해서 보여주고 있다. ‘세대’ 혹은 ‘세대차이’는 일정한 연령대를 경계로 다양한 차이와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자 통념이다. 하지만 ‘5·18세대’라는 개념이 일반성을 확보하려면 “5·18을 직접 경험한 세대”라는 정의로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5·18’에 대한 기억과 인식의 차이는 ‘세대’로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중층적인 구분선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5·18’이 발생한 시점에 성인 혹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고 할지라도, 경험과 기억 방식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5·18’이 주요하게 전개되었던 현장이나 장소에 위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다른 경험을 갖기 마련이다. 이는 ‘5·18’에 관한 기억과 회고에서도 현저한 차이로 드러난다. 또한 ‘5·18’의 직접적 경험자라고 할지라도 참여 형태, 역할, 피해, 시점과 장소, 후속 활동 등에 따라 다른 입장과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매우 다양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세대’라는 문제의식을 고수할 때, 직간접적으로 ‘5·18’의 영향 하에 있었던 세대, ‘5월운동’의 영향을 받은 세대, (비)제도권에서 ‘5·18’을 교육받은 세대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물론 이는 ‘5·18’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

해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일 뿐이고, 사람에 따라 중첩적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다.

## 2. '5·18'의 집단기억 : 원초적 사건의 기억에서 교육·체험의 기억으로

원초적 사건으로서의 '5·18'이 과연 무엇인가는 1980년 5월부터 38여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화두이다. '5·18'의 실체를 규명하고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수차례 주어졌지만, 이에 관한 공박과 논쟁은 기복하며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법률에 의거한 제도적 기구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5·18'의 실제 규명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합치된 '5·18'에 관한 그 무엇을 찾고 안착시키기란 앞으로는 무난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것은 '복원'이라는 용어에 담긴 다의성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기억과 복원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5·18'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수많은 사건들과 소소한 에피소드를 월등히 많이 파악하고 있을지라도, '5·18'의 실체로 등치될 수 없다. 또한 '5·18'을 '아는가/모르는가'의 문제로 단순화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사건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사실(fact)은 실재할 수 있고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으나, 역사적 사건은 재배치, 재구성, 재해석, 재의미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불어 1980년 5월 이후에 전개되었던 5월운동을 비롯해 무수한 사건들이 '5·18'을 규정하고, 재형상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5·18세대'와 '5·18이후세대'를 구분하는 실제적인 문제의식의 단초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을 고정화된 실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동적인 구성물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과 시선의 차이를 보다 중심적으로 유념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나 입증되지 않은 혹은 입증할 수 없는 문제를 사실 논박의 쟁점으로 치환하여 이슈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화, 세력화, 사유화하는 행위나 자세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한편, 이 글에서 설명하는 현상들에서 반추해볼 사안들이 여럿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즉 '5·18'과 자신을 일체화 하는 정도, '5·18'이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미친 영향의 정도, '5·18'의 기억과 전승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 등에 따라 행동과 실천의 방식이 다층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에서 볼 때, 이른바 '5·18이후세대'라고 분류한 연령대 혹은 집단은 '5·18'을 상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며, 현재 혹은 미래의 시점에서 '5·18'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성향을 띠며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5·18'과 '5월운동'에 참여했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해

인생의 좌표와 경로가 달라졌거나 영향을 받았던 세대들과 인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각 세대들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과 이해 그리고 실천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5·18' 중심주의와 경험주의에서 자유로워지고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

# The Experience or Memories of '5 · 18' and Steps Between Generations

Jeong Ho Gi

## 1. The divergent experiences and memories of '5 · 18'

This article is closely related to '5 · 18' and I think that only those who carry out the related activities can write it. In other words,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o overcome and resolve the urgent problems and challenges that arise in the field of memorizing and communicating '5 · 18'. In a broad sense, the sense of the matter in this article can be applied to all the past history. However, '5 · 18'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past history.

The basic perception of this passage is understood as the thinking system and method of 'generation' regarding '5 · 18' and 'the tradition among generations'. In order to examine this, I have divided the 5th and 18th generations into 5th and 18th generations and show their recognition and practice. 'Generation' or 'generation gap' is a concept and a widespread concept used to reveal various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at a certain age range. However, the concept of "5th and 18th generations" does not seem to be enough for the definition of "generations who directly experienced 5 · 18" to secure generality.

This is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memory and perception of '5 · 18' is much more diverse than that of 'generation'. For example, even if the age at which the adult or situation was recognized at the time of '5 · 18', experiences and memories could be very different. As you know, those who are located on the site or place where '5 · 18' was developed mainly have a different experience. This is reflected in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memory and retrospect of '5 · 18'. Also, even if you are a direct experience of '5 · 18', you can have different positions and views depending on the type of participation, role, damage, time and place, and follow-up activities

Considering these points, it will be possible to distinguish very differently. Nevertheless, when adhering to the problem of 'generation', the generation that

wa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by '5 · 18', the generation influenced by 'May movement', and the '5 · 18' Households, and so on. Of course, this is an artificial distinction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ence and memory of '5 · 18', and it has overlapping experience and memory depending on the person.

## **2. Collective memory of '5 · 18': from the memory of primitive events to the memory of education and experience**

What is really '5 · 18' as a primitive event continues to be a controversy even after 38 years since May 1980.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occasions to identify the reality of '5 · 18' and reveal the truth, the denials and arguments about it have not deteriorated. As part of its efforts to make this more clear, the realization of '5 · 18' is underway at various levels, including institutional mechanisms based on the law, but finding and finding something about a more consistent '5 · 18' It is un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This leads to the need to reflect on the ambiguity in the term 'restoration'. It is practically difficult and not possible to define what the essential content of memory and restoration is. Even if you have experienced '5 · 18' directly or have grasped a great deal of events and minor episodes, it can not be equated with the reality of '5 · 18'. It is also not easy to approach the problem of 'knowing / not knowing' 5 · 18 '. The facts that constitute historical events can be real and establish consensus, but historical events may be rearranged, reconstructed, reinterpreted, or reappraised. In addition, innumerable events, such as the may movement that was launched after May 1980, may define and re-shape '5 · 18'.

Therefore, in this artic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origin of the actual problem consciousness that distinguishes between the 5th and 18th generation and the 5th and 18th generation is derived from this. This means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spective of viewing historical events as fixed entities or as floating entities. Of course, there is no place to intervene in the act or posture of powering, empowering, and privatizing based on this issue by replacing unsubstantiated claims, unproven or unproven issues with actual disputed issues.

On the other hand, it is clear that there are many issues to be raised in the phenomena described in this article.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integration with '5 · 18', the degree of influence of '5 · 18' on individual and group life, the memory and transmission of '5 · 18' There are many ways to act and practice. In this respect, the age group or group classified as 'generation after 5 · 18' is in a position to view '5 · 18' as relative, and '5 · 18' It is probable that they tend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y are inevitably different from those who have participated or suffered in '5 · 18' and 'May Movement', or have been affected or affected by the coordinates and pathways of life. Therefore, as we all know well, it must be given priority that each generation acknowledges differences and respects each other's thoughts, understandings and practices. And there is a big question about the need to be free and flexible in '5 · 18' centrism and empiricism